



전환기의 불교여성,
변화를 모색하다

제 19 차 2025 말레이시아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 프로그램 및 논문집

The Program & Proceedings of the 19th 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Women, 2025, Malaysia

- 2025 년 6 월 16 일 ~ 20 일
- 워터프론트호텔 쿠칭
- 쿠칭, 사라왁, 말레이시아

Korean



19th SAKYADHITA
2025

제 19 차 2025 말레이시아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 프로그램 및 논문집

The Program & Proceedings of the 19th 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Women, 2025, Malaysia

전환기의 불교여성, 변화를 모색하다

Navigating change: Buddhist Women in Transition



2025. 6. 16. ~ 20., 워터프론트 호텔 쿠칭

16~20 June 2025, The Waterfront Hotel

(Kuching, Sarawak, East Malaysia)



Sakyadhit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샤카디타 코리아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 한국지부

본 자료집은 제 19 차 말레이시아 샤카디타 세계 불교여성대회에 발표되는 영문 논문과 워크숍 등 대회 일정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한국인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샤카디타 코리아(Sakyadhita Korea)의 회원들과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의 국제포교사들의 노고와 협력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샤카디타 코리아는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의 한국지부입니다. 샤카디타는 ‘붓다의 딸’이라는 뜻으로,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은 불교여성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인류사회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자 1987 년 창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샤카디타 코리아는 국제 본부의 이러한 설립 이념을 한국 내에서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년에 창립되었으며 2014 년에 서울시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을 만들기 위한 논문과 워크숍 번역과 대회 전반의 통역에 참여해주신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나다 순)

- 번역: 김선경, 김은희, 김재경, 김희정, 문윤형, 민우스님, 박현주, 법현스님, 성경자, 신미아, 원혜영, 이영희, 이재순, 이정란, 전영숙, 정형은, 조정희, 천효영, 황수경, 효은스님
- 통역: 덕산스님, 민우스님, 진정스님, 김선경, 조정희, 정형은
- 한국어 자료집 편집: 이병두, 이영희, 전영숙, 정형은

2025 년 6 월

샤카디타 코리아 공동대표 광용, 정형은

본 한국어 책의 저작권은 샤카디타 코리아에 있습니다.

@ Copyright 2025 Sakyadhit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Korea Branch

본 책의 영문 본의 저작권은 샤카디타 인터내셔널에 있습니다.

@ Copyright 2025 Sakyadhit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No part of this book may be used or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written permission.

No part of this book may be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electronic,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authors.

※ 대회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최 측에서 공지하는 알림판을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제 19 차 2025 말레이시아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

주최 · 주관 · 후원

주최: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주관:

쿠칭 부디스트 소사이어티



참가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참가후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참가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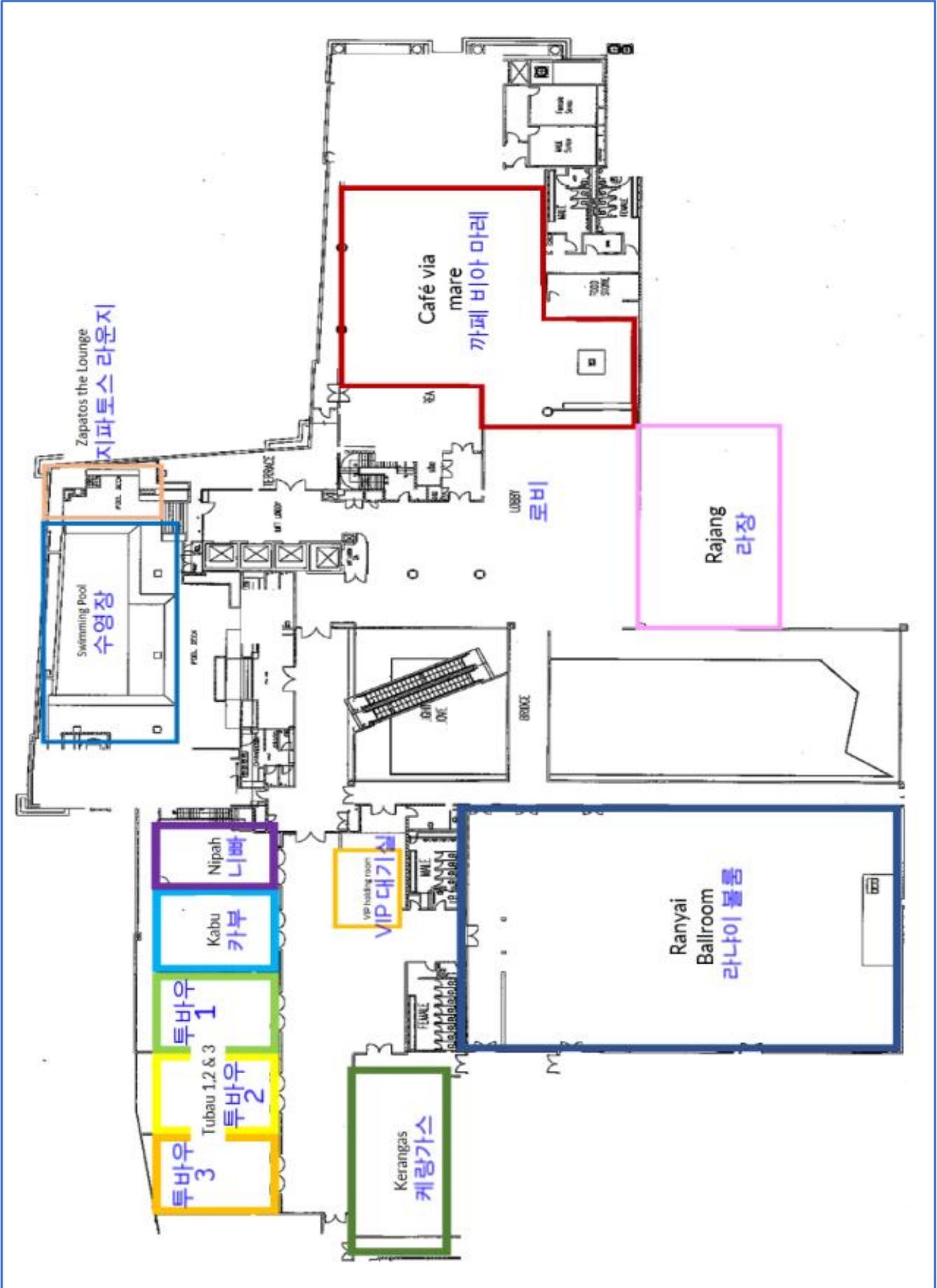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차례

I. 대회장 평면도	2
II. 전체 대회 일정표.....	3
III. 세계의 명상 및 법문	4
IV. 워크숍 일정표	5
V. 논문 발표 일정표	8
VI. 논문 발표 개요	
기조연설	13
1A 2025. 6. 17. (화) 09:00am ~ 11:30am(90 분)	16
불법의 지속과 계승 모색	
2A 2025. 6. 17. (화) 12:30pm ~ 1:40pm(70 분)	44
변화를 이끄는 비구니들의 실천과 대응	
2B 2025. 6. 17. (화) 1:50pm ~ 3:00pm(70 분)	62
출가자와 재가자의 새로운 지평 모색	
3A 2025. 6. 18. (수) 09:00am ~ 11:30am(90 분)	86
실질적 변화와 치유를 위한 실천 모델 모색	
4A 2025. 6. 18. (수) 12:30pm ~ 1:40pm(70 분)	108
세대를 잇는 불법의 전승자들의 역할: 권위와 전승의 과제 조명	
4B 2025. 6. 18. (수) 1:50pm ~ 3:00pm(70 분)	128
성폭력 문제를 조명하는 원탁토론	
5A 2025. 6. 19. (목) 09:00am ~ 11:30am(90 분)	129
불교 네트워크: 돌봄, 교육, 전환의 실천	
6A 2025. 6. 19. (목) 12:30pm ~ 2:00pm(90 분)	160
전통의 재정의와 교육 확장, 전환의 모색	
6B 2025. 6. 19. (목) 2:00pm ~ 3:00pm(60 분)	185
『불교 여성 핸드북』 원탁토론	
7A 2025. 6. 20. (금) 09:00am ~ 11:30am(90 분)	186
불교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고대 비문과 문헌 속 여성의 위치 찾기	
철회논문	207
VII. 논문 발표자 소개	238

대회장 평면도



전체 대회 일정표

일시	2025.6.16. (월)	2025.6.17. (화)	2025.6.18. (수)	2025.6.19. (목)	2025.6.20. (금)
6:30~7:30	아침명상 (6:30am-7:30am)				
7:30~8:00	아침 공양 / 다과 (7:30am-9:00am)				
8:00~9:00	등록 (08:00am-11:30am)				
9:00~11:30	세계의 명상 (8:00am-11:30am)	논문발표 1 (09:00am-11:30am) 불법의 지속과 진승 불법의 지유를 위한 실천 모델의 모 색	논문발표 3 (09:00am-11:30am) 변화와 치유를 위한 실천 모델의 모 색	논문발표 5 (09:00am-11:30am) 불교 네트워크: 돌봄, 교육, 그리고 전환	논문발표 7 (09:00am-11:30am) 불교 전통 속 여성의 위치: 문헌과 비문 속 흔적을 찾아서
11:30~12:30	점심 공양 (11:30am-12:30 noon)				
12:30~14:00	세계의 명상 (12:30pm-2:00pm)	논문발표 2A (12:30am-1:40pm) 변화를 헤쳐 나가고 실천하는 여성 수행자들	논문발표 4A (12:30am-1:40pm) 불법의 전승과 권위, 세대 간 스승 의 역할	논문발표 6A (12:30am-2:00pm) 전통의 재해석, 삶의 전환, 교육의 확장	사카다타 총회 지부 회의 포커스 그룹 (12:30pm-5:00pm)
14:00~15:00	개회식 (2:00pm-5:00pm)	휴식 (1:40pm-1:50pm)	논문발표 4B (1:50pm-3:00pm) 성폭력에 대한 토론	논문발표 6B (2:00pm-3:00pm) 불교 여성 안내서에 관한 토론	
15:00~15:30	휴식 (3:00pm-3:30pm)				
15:30~17:00	워크숍 1		워크숍 2		워크숍 4
17:00~17:30	브레이크 타임 / 다과 (5:00pm-5:30pm)				
17:30~18:00	저녁 예불 (6:30pm-7:00pm)				
18:00~19:00	저녁 공양 (개인부담) (6:00pm-7:00pm)				
19:00~21:00	워터프론트 시내 관광 (7:00pm-9:00pm)	범문 1 (7:00pm-9:00pm)	범문 2 (7:00pm-9:00pm)	문화공연 (7:00pm-9:00pm)	폐회식 (5:00pm-6:00pm)

세계의 명상 및 저녁 법문

■ 세계의 명상(Meditations of the World)

2025년 6월 16일 오전 8:00~9:30

아야 수망갈라(Ayya Sumangala) 스님,
「사념처(The Four Foundations of Mindfulness)」

아야 수망갈라 테리(Ayya Sumangalā Therī) 스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아리아 위하라 불교회(Ariya Vihara Buddhist Society)의 주지이십니다. 19세 때 한 비구 스님과 사람들이 명상에 잠긴 모습을 보고 깊은 영감을 받아 불교 수행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스님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에서 심리학 학사와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태국 송클라에 위치한 국제불교대학(International Buddhist College)에서 불교 철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25년 6월 16일(화) 오전 10:00~11:30

비구니 락스 락스 리엔(Thich Nu Tien Lien) 스님
「현대 사회에서의 마음챙김 있는 삶」

비구니 락스 락스 리엔(Thich Nu Tien Lien) 스님은 1966년 베트남 사이공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83년 사미니계를 받고, 1985년 비구니계를 수지하셨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San 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사회복지학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치셨으며, 현재는 웨스트 대학교(University of the West)에서 종교학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스님은 샤카디타(Sakyadhita)의 평생회원이며, 현재 녹음서기(recording secretary)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2025년 6월 16일(화) 오후 12:30~2:00

비구니 효석 스님
「한국 간화선 수행」

효석 스님은 한국 봉녕사 승가대학에서 강의하시며, 대한불교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의 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도 델리대학교(Delhi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하타 요가(Hatha Yoga)와 웃음 요가(Laughter Yoga) 공인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 저녁 법문(Dharma Talks)

2025년 6월 17일(수) 오후 7:00 ~9:00

아야 수망갈라(Ayya Sumangala) 스님
「삶의 어려움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지혜롭게 살아내기」

2025년 6월 18일 오후 7:00~9:00

본각 스님
「화엄경」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진리」

워크숍 일정표

번호	진행자	제목	6.17.(수) 15:30 ~17:00	6.18.(목) 15:30 ~17:00	6.19.(금) 14:00 ~15:30	6.19.(금) 15:30 ~17:00
1	샤오쥘 슈(Xiaojuan Shu)	전통과 시대를 넘어 불교 여성들의 시 읽기		○		○
2	비구니 담마피아(Ven. KL Dhammapiyā Bhikkhuni)	마음챙김의 발걸음으로 변화를 헤쳐 나가다		○		○
3	비구니 지어이 호영 (Bhiksuni TN Gioi Huong)	사카디타에 관한 지식 퀴즈/게임 쇼	○			○
4	차이수후이(Shu-Hui Tsai, 주안[Juyam]),	AI가 지각 있는 존재라면? 여성의 자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까?	○			○
5	브리기드 라우리(Brigid Lowry)	성스러운 잉크: 글쓰기 워크숍		○		○
6	비구니 쿤다살리 수바가(Bhikkhuni Kundasale Subhagya)	마음과 가슴에 자비의 꽃을 피우다		○		
7	신디 라시콧(Cindy Rasicot)	담마난다 비구니의 삶과 유산: 페미니스트의 시선으로 본 불교	○			○
8	하마모토 준(Jun Hamamoto)	종이접기의 치유력			○	
9	비구니 툽텐람셀 (Bhikshuni Thubten Lamsel), 비구니 툽텐 린첸(Bhikshuni Thubten Rinchen)	분석 명상: 보리심을 일으키는 단계들		○		
10	수담마차리 스님(Ven. Sudhammacari)	미얀마 비구니 공동체 내 상호 존중(아나만냐가라바)		○		
11	메따지 스님(Venerable Mettaji), 툽텐초키 스님 (Venerable Thubten Chokyi), 캐럴 머차신(Carol Merchasin),	불교 단체에 책임을 묻다	○	○		

	텐코 목사(Reverend Tenko)					
12	메치 푸나폰 생콤포 박사(Dr. Maechee Punyaporn Saengkhum)	3D 젤리 플라워 아트 워크숍	○			○
13	비구니 툽텐 람셀 (Bhikshuni Thubten Lamsel), 비구니 툽텐린첸 (Bhikshuni Thubten Rinchen)	디지털 세계에서 의 법의 전파			○	
14	툽텐초키 스님(Venerable Thubten Chokyi), 예셰 스님 (Venerable Yeshe), 산드라 헨빌(Sandra Henville), 스카이 도슨 (Sky Dawson)	침대가 불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들 수 있는가: 에코 불교				○
15	헬렌 리처드슨(Helen Richardson), 카르마 렉셰 쏘모스님(Karma Lekshe Tsomo)	각국 사카디타 조직의 중요성	○			
16	이현자(Lee Hyun-ja),	한국 전통 민화		○	○	
17	제인 샴록(Jane Shamrock)	좌선: 안정감과 편안함을 찾는 수행	○		○	
18	데비 아자마-박(Debbie Azama-Park)	호흡 워크숍			○	
19	쉬리티 프라단(Shreeti Pradhan)	챗트 서클: 소리와 연결을 통한 정서적 행복의 함양		○		○
20	샤론 스루프(Sharon Thrupp)	마음챙김 글쓰기 워크숍			○	
21	파멜라 아요 예툼데(Pamela Ayo Yetunde)	불교의 영적 돌봄: 기초 입문	○			○
22	당가르 루파벤 바추바이(Dangar Rupaben Bachubhai)	사카디타의 유산: 평화, 발전, 사회 변혁을 이끄는 불교 여성들			○	○
23	덕산 스님	인간 정신의 회복: 지금 당신은 육도윤회의 어느 세계에 있는가?		○		○

24	카르마 렉셰 쑤모스님(Karma Lekshe Tsono)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기르다		○	○	
25	카르마 렉셰 쑤모스님 (Karma Lekshe Tsono)	자비롭게 듣기	○			○
26	티엔 리엔 스님 (Venerable Tien Lien)	채식 식단의 건강 효능 탐구				○
27	응옥 응우옌 민(Ngoc Nguyen Minh)	베트남에서의 기업 윤리의 영향력	미정			
28	구르밋 카우르(Gurmeet Kaur)	젠더, 불교, 환경: 카루나와 프라크리티를 통한 상호연결성	미정			
29	비구니 띠엔 리엔 (Bhiksuni Tien Lien)	채식 식단의 건강 효능 탐구	미정			
30	주티파 타파수티(Jutipa Tapasuthi)	마음챙김 창조성: 관조 예술 워크숍	미정			
31	이청실(Cheong-Sil Lee)	달항아리 워크숍	○			
32	담마난다 테리 스님 (Ayya Dhammananda Theri) ¹	무상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 아니짜 사냐	미정			

¹ Ayya(아야)는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비구니(여성 승려)에게 붙이는 존칭으로, 한국어로는 “스님”에 해당합니다. Dhammananda(담마난다)는 범명(불교 이름)입니다. Theri(테리)는 테라와다 불교에서 12 년 이상 수행한 고참 비구니에게 붙이는 칭호로, “장로 비구니” 또는 “테리”로 그대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논문 발표 일정표

기조연설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쪽
1	파멜라 아요 예툰데(Pamela Ayo Yetunde)	미국	자신의 실제 힘을 받아들인다는 것	13

세션 1

논문발표 세션 1A: 2025. 6. 17. (화) 09:00am ~ 11:30am(90 분) - 5 편
 [불법의 지속과 계승 모색 (Sustaining the Buddhadharma)]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쪽
1	비구니 쿤다살레 수바가 (Bhikkhuni Kundasale Subhagya)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비구니의 변화와 도전적인 역할	16
2	로 파이 링 (Sister Loh Pai Ling)	말레이시아	불교계 여성들의 역할 변화 - 위상과 페미니즘 그리고 리더십	20
3	따시 초둑 (Tashi Choedup)	인도	불교가 구현하는 다양한 퀴어(성적, 사회적) 정체성	25
4	줄리아 수리아(티타차리니 테리스님) (Julia Surya (Ven. Ṭhītācārīnī Therī))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테라바다(Theravāda) 비구니의 발전: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 (Sangha Agung Indonesia) 내 성평등을 향한 진전	32
5	비구니 툽텐 람셀 (Bhikshuni Thubten Lamsel)	미국	태양이 결코 지지 않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승가의 역할	38

세션 2A

논문발표 세션 2A: 2025. 6. 17. (화) 12:30pm ~ 1:40pm(70 분) - 4 편
 [변화를 이끄는 비구니들의 실천과 대응 (Buddhist Nuns Navigating and Fostering Change)]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쪽
1	산따짜리스님 (Rev. Santacari)	스리랑카	전통과 현대의 가교: 미얀마의 틸라신들이 현대 사회와 만나는 방식	44
2	남갈 라모 스님 (Namgyel Lhamo)	부탄	변화하고 있는 부탄 비구니 승가의 여정에 관하여	49
3	일문스님 (Cho, Ilmoon)	한국	한국 비구니 승가 지도력의 역할 변화	54
4	사미니 아리야담마지비 (Sāmanerī Ariyā Dhammajīvi)	미국/캄보디아	감사와 주도적으로 행동하기: 전환기에 있는 불교 여성으로서 변화 탐색	58

세션 2B 논문발표 세션 2B: 2025. 6. 17. (화) 1:50pm ~ 3:00pm(70 분) - 5 편
 [출가자와 재가자의 새로운 지평 모색 (Monastics & Laity Breaking New Ground)]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쪽
1	쩨 티감반스님 (Ven. Tran Thi Cam Van)	베트남/ 스리랑 카	초기불교의 여성관은 남성의 금욕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62
2	매치 푸냐폰 생쿰 박사 (Dr. Maechee Punyaporn Saengkhum)	태국	리더십과 거버넌스: 교육과 사회 사업에서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의 역할	67
3	남진숙(Jin-sook Nam)	한국	한국의 힙불교 시대, 여성 재가불자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71
4	카르마 타시 초드론 스님, 박사 (Ven. Dr. Karma Tashi Choedron), 텐진 다돈 스님, 박사(Ven. Dr. Tenzin Dadon)	말레이 시아	당당한 외침: 리더십을 발휘하는 티베트 불교 여성들	80

세션 3 논문발표 세션 3A: 2025. 6. 18. (수) 09:00am ~ 11:30am(90 분) - 4 편
 [실질적 변화와 치유를 위한 실천 모델 모색 (Creating Pathways: Models for Effective Change and Healing)]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쪽
1	미아 리빙스턴 (Mia Livingston)	스코틀랜 드/미국	승가(Sangha)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	86
2	비구니 틱느 리엔 안 (Bhikkhuni Thich Nu Lien Anh(Le Thi My Hieu)) 새넌 창(Shannon Chang)	미국	교차점에서의 치유 - 불교 가르침, 정신 건강 상담, 사회적 억압을 통합하여 가정폭력 생존자와 함께 하기	90
3	산드라 응 시우 산(Sandra Ng Siow San)	말레이시 아	순례, 연구,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성찰	95
4	암누아이폰드 키드프롬마 (Amnuaypond Kidpromma)	태국	태국 불교 부적 신성화 및 상품화 의례에서 여성의 역할	99
5	신디 라시콧(Cindy Rasicot)	미국	비구니 담마난다(Dhammananda)의 정신적 유산 또는 업적 - 여성 불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자의 삶	103

세션 4A

논문발표 세션 4A: 2025. 6. 18. (수) 12:30pm ~ 1:40pm(70 분) - 5 편

[세대를 잇는 불법의 전승자들의 역할: 권위와 전승의 과제 조명 (Dhamma Teachers Over the Generations: Authority and Transmission)]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쪽
1	크리스티 위링 장(Christie Yu-Ling Chang)	대만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비구니 형칭(Shi Heng-Ching)박사의 다양한 유산을 기리며	108
2	틱 느 슈랏다 가우타미 스님, 박사 (Dr. Venerable Shradda Gautami)	네팔	법사 담마와띠 스님 - 세대를 잇는 법사: 권위와 전법	112
3	식차마나 틱 느 트엉 후에 (Thích Nữ Thường Huệ) 틱 티엔 푸 스님 (Ven. Bhikshu Thích Thiện Phú)	베트남	비구니 스승 흐인 리엔(Huỳnh Liên) - 베트남 컷시(Khất Sĩ) 불교를 중앙고원지대에 전파한 선구자	118
4	틱 티엔 푸 스님(Ven. Thich Thien Phu) 팜 티 탄 빈(Phan Thi Thanh Vien)	베트남	비구니 디어우콩 (Nun Dieu Khong) 스님- 20세기 베트남 비구니 교단의 위대한 기둥	122

세션 4B

논문발표 세션 4B: 2025. 6. 18. (수) 1:50pm ~ 3:00pm(70 분) - 원탁토론

[성폭력 문제를 조명하는 원탁토론 (Roundtable on Sexual Violence)]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쪽
1	셰런 서 (Sharon Suh) - 좌장 카르마 초드론 스님, 박사 (Ven. Dr. Karma Chodron) 텐진 다돈 스님, 박사 (Ven. Dr. Tenzin Dadon) 앤 글레이그 (Ann Gleig) 사라 제이커비 (Sarah Jacoby) 에이미 랭건버그(Amy Langenberg)	부탄, 말레이 시아, 미국	원탁토론 제안: 다양한 문화와 맥락 속 불교와 성적 학대 문제	128

세션 5 논문발표 세션 5A: 2025. 6. 19. (목) 09:00am ~ 11:30am(90 분) – 6 편
 [불교 네트워크: 돌봄, 교육, 전환의 실천 (Buddhist Networks: Care, Education, and Transition)]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쪽
1	말리아 웡 박사 (Dr. Malia D. Wong)	미국	씨앗 심기: 세속 세계에서 불교의 가치를 가르치다	129
2	캐서린 슈에체 박사 (Dr. Catherine Schuetze)	호주	세계 불교 여성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물 고통 경감에 관한 연구	134
3	디키 팔무 세르파 박사 (Dr. Diki Palmu Sherpa)	인도	전통 불교 사회에서 여성 수의사, 공동체 네트워크 및 동물 복지	141
4	라셀 사루야 (Rachelle Saruya)	일본/미국	반얀나무 아래에서의 기원에서 불교 방식의 양육까지: 미얀마 불자 어머니의 종교적 수행과 그 전개	146
5	쿠스티아니 박사 (Kustiani, Ph.D)	인도네시아	사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구축: 모바일 게임 중독과 이슬람 TPQ 에 대응하는 이야기	151
6	젠둔 라무 스님 (Ven. Gendun Lhamu)	인도	수행에서 세속으로: 전환기에 있는 히말라야 환속 불교 비구니들 삶의 조명	154

세션 6A 논문발표 세션 6A: 2025. 6. 19. (목) 12:30pm ~ 2:00pm(90 분) – 5 편
 [전통의 재정의와 교육 확장, 전환의 모색 (Redefining Tradition, Making Transitions, Expanding Education)]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쪽
1	지천 스님 (釋 知泉; Shi Zhiquan)	대만	전후 대만 비구니의 흥법 역량—천을(天乙) 스님과 자혜(慈惠) 스님을 중심으로	160
2	아야 예셰 스님 (Ayya Yeshe)	호주	빈민가의 비구니	166
3	티나 암릿 길 (Teena Amrit Gill)	인도	히말라야의 여성 수행자: 역사적 배경과 변화하는 환경	170
4	틱느 리엔 히엔 스님 (Thích Nữ Liên Hiên)	베트남	통합시대 베트남 비구니 승단의 청년들을 위한 불법 포교 방법의 지속적 혁신에 대한 연구	175
5	마두리 쿠드왈카르 (Madhuri Krishna Kudwalkar)	인도	변화하는 불교 여성의 역할: 여권신장, 페미니즘, 그리고 리더십	180

세션 6B

논문발표 세션 6B: 2025. 6. 19. (목) 2:00pm ~ 3:00pm(60 분) – 원탁토론
 [『불교 여성 핸드북』 원탁토론 (Roundtable: *Handbook on Buddhist Women*)]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쪽
1	엠마 토말린(Emma Tomalin)(좌장) 셰런 서(Sharon Suh) 조은수(Eunsu Cho) 사라 제이커비(Sarah Jacoby) 에이미 랭건버그(Amy Langenberg) 다시 프라이스 월러스(Darcie Price-Wallace)	영국, 미국, 한국	여성과 불교: 연구 지형의 탈식민화와 여성 목소리의 확장	185

세션 7

논문발표 세션 7A: 2025. 6. 20. (금) 09:00am ~ 11:30am(90 분) – 5 편
 [불교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고대 비문과 문헌 속 여성의 위치 찾기 (Where are the Buddhist Women?: A Panel on Locating Women in Inscriptions and Literature)]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쪽
1	사라 하딩(Sarah Harding)	캐나다	불교계 여성 번역가들	186
2	아룬 쿠마르 야다브 박사(Dr. Arun Kumar Yadav)	인도	야쇼다라를 추적하며: 불교 문헌 속 스님의 정체성의 전개	191
3	우르술라 마난다르(Ursula Manandhar)	네팔	네팔 만달라 불교에서 여신(女神)들의 역할	197
4	캐시 우노(Kathy Uno)	미국	일본 불교 여성: 수세기에 걸친 도전과 변화	202

철회

행사 불참에 의한 발표계획 철회

연번	발표자	국가	주제	세션
1	비구니 틱느 후에 팡 스님 (Bhikkhuni Thich Nu Hue Quang)	베트남	베트남 비구니 스님: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207
2	켄모 드롤마(Khenmo Drolma) 엘리슨 멜닉 다이어(Alison Melnick Dyer)	미국	슈라바스티 바르사 2023: 비구니 리더십의 모델	212
3	프라빈 쿠마르 박사(Dr. Praveen Kumar)	인도	초기 빨리 문헌에서 페미니즘의 관점 탐구	216
4	탐 락 스님(Ven. Tam Lac(Le Thi Kim Ngan))	인도/베 트남	치유의 목소리: 자기 대화가 현대 여성의 심리와 불교의 원리를 연결하는 방법	221
5	마둘레 위지타난다 스님(Ven. Madulle Vijithananda Bhikkuni)	스리랑 카	샤카디타 명상센터에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구니의 역할	227
6	엘리스뱅크 윈햄 (Alicehank Winham)	미국	더 넓은 세계와 대화하며 함께하기: 논리, 형이상학, 문화, 젠더 관행	232



자신의 실제 힘을 받아들인다는 것

Adapting to the Reality of Our Power

파멜라 아요 예툰데 (Pamela Ayo Yetunde)

(ayoetunde@gmail.com)

[번역: 민우스님]

사카디타 세계 불교여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라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신 기획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저를 이 뜻깊은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파멜라 아요 예툰데입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불교 수행자이며, 상담가이자 학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 흑인들에게 불교 수행이 유익한가를 주제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불교는 미국의 흑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웰빙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인 세계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란 무엇인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여성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특히 불교 여성의 경우, 수행을 통해 자신의 성별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탐색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별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 한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교 사상과 인간관을 의심없이 믿고 따르는 여성들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불교는 그 가르침 안에 지혜와 치유, 감동이 담겨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2,600년 전 네팔의 한 남성이 깨달았다는 사실에 세워졌습니다. 먼 역사 속이 한 명의 남성에 대한 개념에 현대 여성들이 온전히 들어맞을 수는 없지만 이들은 불교가 여성과 인류를 지지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호기심과 용기, 마음챙김에서, 그리고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 수행을 통해서 이 능력을 길렀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전 세계 불교 여성들이 부처님의 지성과 능력을 닦아서 실천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전환기의 변화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 컨퍼런스를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제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무량심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서적 요소인 공감이 옳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국제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공감이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애와 자비, 평정심, 수회심을 길러주는 정서적 요소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공감을 반대하는 주장은 불교 심리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외부 대상이나 현상을 접하고 일어나는 의식은 분명히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AI가 지배하는 로봇처럼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 대 로봇? 감정 대 무공감?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지성을 이용하신 것이고, 인간의 지성을 이용하여 인간이 공감력이 없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셨다면 붓다의 지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보시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로봇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키워서는 안된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공감하는 어른들이 키울 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 여성들은 공감력을 약화시키는 무지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인간성을 잃어가는 이 전환기를 잘 헤쳐나가 우리의 본래 자리, 참된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싯다르타 고타마의 구도 여정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싯다르타 고타마의 이야기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듯이, 싯다르타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선인을 만나 인간의 생로병사와 약점들을 알게 된다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언제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싯다르타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부유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격리되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병들, 늙음, 죽음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을 때,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관 그리고 자아관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충격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를 남겼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트라우마를 이용해 변화를 헤쳐 나가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실제 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을 통해 현실을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합니다. 자신을 현실로 데리고 와 다가올 미래에 굳건히 대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국제 컨퍼런스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입법 회의장에 모여 젊은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기쁨을 느끼는 일을 포기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 일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여성들이 자유를 빼앗길 위험에 놓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만큼은 임신한 여성들을 감시하겠다는 위협까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권 침해가 증가할 때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미국의 선출직 관료들을 모방하고 따라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서 우리의 감정을 분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실제 힘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가 하는 강력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실제 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로에게 능숙한 도반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진정한 삶을 사는 것, 자신 또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존재의 윤리적 근원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붓다의 지성에서 나오는 이 붓다의 힘은 인내와 마음챙김을 기르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리 자신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시간이 중요할까요?

깊은 숲속에서 육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숙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행을 하다가 완전히 지쳐서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한지 육 년 만에 싯타르타 고타마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수자타라는 공감력과 자비심을 갖춘 소녀가 굶주린 남자를 보고 먹을 것을 공양했고, 이 남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싯타르타가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그 공양을 받았을까요? 싯타르타가 처음 집을 떠나 숲으로 갔을 때도 배가 고프았을까요? 고행을 하는 육 년중 일 년, 이 년, 삼 년, 사 년 오 년이 지났을 때 배가 고프았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싯타르타가 공양을 거절했다면 수자타는 음식을 그의 입 속에 억지로 밀어넣었을까요? 다른 이들에게 조언이나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자 할 때 이들이 자신이 고통받고 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에게 억지로 조언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시간과 올바른 조건, 고통을 인식하는 인간 지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제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능력, 붓다의 지성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고통에 빠져있을 때는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크기는 달라도 모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게 느낄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좋은 도반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능력들을 일깨어 주고, 더 좋은 도반은 전환의 시기에 변화를 헤쳐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해있는 문화적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이웃, 국가의 법률과 제도 속에서 자애와 자비, 평정심, 수희심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치만큼 살고 있습니까? 무력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나요? 선한 일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나요? 선한 목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지지가 필요한가요? 불교 여성인 여러분의 능력은 은밀히 발휘되고 있나요? 은밀히 사용되는지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 여성과 리더십 과정에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가자들에게 미국 대통령 후보 두 명의 토론을 함께 시청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사람은 백인 남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 불교 여성들은 리더십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정치 토론을 봐서는 안된다는 일부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여성들은 정치에 상관해서는 안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조건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조직 속에서 문제도 일어나고 해결책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존하고 함께 하는 현상과 협력하는 기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고통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인과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자로서 우리는 무지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정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현실을 외면해야 한다고 배웠을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성 지배는 정치, 정책, 법률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살의 길을 걷는 여성은 이러한 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토론을 지켜본 한 강사는 여성으로서 남성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신의 힘을 드러내야지 그렇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 남성을 능가하게 되면, 처벌이나 불이익이 반드시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불교 강사는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능숙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 후보가 자신의 힘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고 그래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토론은 애초에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 후보는 능숙함과 진실성에서 그리고 타인을 비인간화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 점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의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은 그들의 대표자를 뽑을 때 불교적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 후보는 한동안 무력해져 자기에게 남아있는 힘을 받아들이며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인간과 붓다의 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실제 힘을 받아들이기 위해 소모된 시간과 에너지는 실패로부터 재개할 때 관계적 회복력으로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놀라운 자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도반으로서 짓밟힌 이들이 살아나도록 영양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수자타가 싯다르타에게 공양을렸던 것처럼요.

미국에서 흑인 여성들이 정치 권력에 올라 당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던 모습을 수년간 지켜보며, 그 대통령이 다시 권좌에 오를 때 흑인 여성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동반이라는 과정을 개발해 개설했습니다. 어떻게 권력의 수준을 평가할 것인가? 존엄성을 회복해야 하는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서 성과가 지워져 정서적·심리적으로 상처입었는가? 낙인찍히거나 비인간화되고 있는가? 권한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서로 좋은 도반이 되어 패배에서 일어나 서로 도우며 위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상담가이자 학자입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불교를 수행하는 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마음챙김, 자애 명상을 실천하고, 집중 수행을 하며, 무아를 연기로 보고, 아프리카 토속 종교를 선택하거나 기독교인이 되거나 불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이들은 자신들의 살아온 삶의 경험 전체를 깨달음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관계 회복성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는 판단을 중지하고, 다름을 포용하며,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스스로가 억압받는 존재들이어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놀랍고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념대로라면, 이 여성들은 짓밟히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계 회복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불교 수행을 하고, 인생의 부침을 경험하며 세상의 권력, 비권력, 그 변동들 속에서도 선입견과 판단 없이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왜곡된 권력에 진실을 말하고, 비인간적 처우에 상호연결성을 말하며, 탐욕이 넘치는 세상에 너그러움을 말하고, 무력함이 만연한 곳에 올바른 힘을 회복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저의 자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더 굶주림으로 죽어야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건가요?”라고 묻는다면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폭력 방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으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 노예로 팔려간 여자 아이들의 자유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팔려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문제를 선택하십시오. 한 가지 운동에 참여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있는 자들에게 지금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슴 깊이 믿든 그렇지 않든 강도가 사지를 찢더라도 이들도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애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신념을 가져 보십시오. 부처님을 해하기 위해 쫓아온 앙굴리말라에게 부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부처님 또한 무지의 삶을 살다 그만두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앙굴리말라는 존경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인간 지성의 일부인 선함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알려 준 붓다 지능이 이 선함의 뿌리입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면 다른 이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문명의 근간입니다. 인간 문명은 불교 여성들이 거짓에 진실을 말하고, 오늘과 이후 몇 일동안 샹카디타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처럼 함께 모일 때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드라망을 증장시키고, 벗어날수 없는 우주의 상호연결성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거울을 닦고, 보석에 광을 내어 더 잘 비추게 하면 왜곡되지 않은 우리의 불성이 비칠 것이며, 있는 그대로 비춰진 다른 이들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빛나는 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인류에 대한 믿음이 샹카디타 세계불교여성 대회를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컨퍼런스에 모여 전환기에 변화를 헤쳐 나가는 방법을 논의하고, 여러분이 가진 실제 능력을 활용하며, 놀라운 관계 회복성을 개발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능숙하게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션 1 스리랑카에서 비구니의 변화와 도전적인 역할

1 The Changing and Challenging Roles of *Bhikkhunis* in Sri Lanka

비구니 쿤다살레 수भाग(Bhikkhuni Kundasale Subhagya)

(kundasalesubhagya@gmail.com)

[번역: 원혜영 (샤카디타 코리아)]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스리랑카 비구니들의 변화와 도전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스리랑카 비구니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진적 발전과 변화 및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연구 자료는 1 차 및 2 차 문헌뿐 만 아니라 관련된 단행본과 종교적 텍스트에서 수집하였고 또한, 불교 승려, 비구니, 재가 신도를 대상으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민족지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리랑카에서 비구니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 연구한다. 이번 연구는 스리랑카 비구니가 사회의 모든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느린 변화, 점진적인 발전,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다.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1 차 및 2 차 출처, 관련 모노그래프, 종교 텍스트에서 수집되었다. 불교 비구, 비구니, 재가자와의 직접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민족지학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부대중"라는 용어는 불교 제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네 그룹으로 나뉜다. 기원전 6 세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지 5 년 후, 부처님은 양어머니인 마하쁘라자빠띠 고탓미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비구니 교단을 설립하였다. 부처님은 마하쁘라자빠띠 고탓미에게 여덟 가지 엄격한 규칙인 팔경법을 받아들일도록 요청하였다. 처음에 비구니는 부처님으로부터 구족계(upasamapadā)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비구 상가에게서만 받았다. 그리고 부처님은 비구니 상가가 필요한 질문을 하고 수계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비구니 상가 먼저 수계를 주면 비구들은 그 과정을 확인하고 완료한다. 이것이 "이부승수계(二部僧授戒)"의 시작이었는데, 비구만으로 이루어지는 수계와는 대치된다.

부처님은 여성들의 수행 능력을 확신하고 지역 사회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들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였다. 부처님에게는 사리뿌트라와 목갈라나의 두 명의 주요한 비구가 있는 것처럼, 우빨라반나와 케마라라는 유명한 비구니가 있었다. 불교 문헌에 따르면,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였던 아라한 대장로니도 거의 75 명에 달했다.

아쇼카왕(기원전 304~232 년)의 통치 기간동안, 인도에는 불교가 잘 자리 잡았는데, 아쇼카왕은 자신의 아들, 마힌다 장로를 스리랑카로 보내 다르마를 가르치고 비구 승가를 세웠다. 스리랑카 왕의 시누이인, 아눌라 공주는 불교로 개종하여 수계를 받고 승가에 입문하기를 원했다. 마힌다 장로는 "나는 우바이 제자들에게 수계를 줄 권한이 없다."라며, 그의 여동생인, 상가미타 장로니를 인도에서 초대하면서,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스리랑카에서 여성 구족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기원전 245 년, 아쇼카왕의 딸, 아라한 비구니 상가미타는 인도에 있는 집을 떠나 스리랑카로 건너가 비구니 상가를 세웠다. 스님은 황금 꽃병에 담긴 보리수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다. 이 역사적 사건은 비구들과 더불어, 아눌라 공주가 첫 번째 구족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도를 떠나면서 스리랑카로 갔으니, 그것은

여성 구족계가 인도를 벗어나 스리랑카로 이동하는 시작을 알린 것이다. 수세기 후, 비구니 혈통은 그곳에서 아시아의 다른 땅으로, 그리고 결국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1017년, 비-불교도인 출리아 부족은 인도에서 와서 스리랑카 섬을 정복했다. 출리아 부족은 비-불교도이다. 스리랑카의 통치자로서 그들은 불교 수행을 장려하지 않았고 승원 교단에 많은 장애물을 만들었다. 그 결과 50년간의 출리아 통치 기간 동안, 비구와 비구니 교단은 점차 사라졌다. 새로운 왕이 나라를 장악하자 출리아 침략자들은 추방당했다. 이 기간 동안 현지 불교 수행이 돌아왔고 새로운 왕은 승원 상가를 되살리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암(현재 태국)과 버마(현재 미얀마)에서 비구들을 데려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건해야 했다. 그러나 그 나라들에는 승가에 입문하고자 하는 재가녀를 위한 수계 절차를 촉진하거나 수행할 비구니가 없었기 때문에, 테라바다 전통의 비구니 교단은 불교 역사 후반기에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여성들은 불법을 계속해서 수행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약 1500년 전 스리랑카의 비구니들은 비구니 교단을 중국으로 가져갔고, 따라서 한국과 대만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수세기 동안 이들 국가에서는 비구니 교단이 번성해 왔다.

테라바다 비구니 상가의 회복은 1996년 인도 사르나트에서 샤카디타 국제불교여성협회와 인도 마하보디 협회의 후원으로 시작되었으며, 그곳은 부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신 곳이었다. 인도 마하보디 협회의 기록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한국 비구니들과 스리랑카, 인도, 태국, 티베트, 한국, 네팔의 수백 명의 비구니들이 사회를 맡았다. 그들의 가사는 노란색에서 적갈색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높은 수계를 받은 첫 열 명의 스리랑카 비구니들은 인도에서 불교 포교에 지원한 약 300명의 비구니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었다.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선발된 비구니들은 스리랑카 라트말라나에 있는 파라마담마 체티야(Parama Dhamma Chetiya) 승가 대학에서 8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담마, 비나야, 영어를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받았다. 수계를 받은 후 이 비구니들은 인도에서 2년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전 세계 수 천 명의 재가자와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이 성대한 행사를 보기 위해 모였다.

현재 스리랑카에는 약 5000명의 비구니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3500명의 장로 비구니, 1000명의 다사 실마타(Dasa Silmāta), 그리고 500명의 다양한 전통을 대표하는 아나가리카(Anagarika)가 포함되어 있다. 비구니의 수계는 스리랑카의 담불라, 나우갈라, 데카두왈라 세 단체에 의해 행해진다. 이들 세 단체 모두 비나야에 따라 잘 조직되어 있으며, 매년 장로니 교단 교육 프로그램과 의례가 열린다. 스리랑카의 장로 교단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장로 비구 상가와 장로 비구니 상가에 의해 모니터링되어 진행된다. 테라바다 비구니 구족계의 선구로서, 이는 단지 스리랑카인들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사문(Sāmanarīs), 식차마니(Sikkhamānās)도 스리랑카에서 수계를 받기 위해 오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많은 장로 비구니들이 있지만, 비록 스리랑카가 세계에서 테라바다 장로 비구니 교단 중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정부, 불교 사업부 및 대부분의 3개 지부(시암, 아마라푸라, 라마냐)의 장로 비구들은 스리랑카의 비구니들에게 법적, 사회적, 종교적 타당성과 인정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적 및 법적 고려 사항

스리랑카는 테라바다 불교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개발도상국이다. 그 이후로 스리랑카의 불교 보급에는 부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비구니 공동체는 11세기에 사라졌다. 1905년에 재건되었고 1996년에 더 높은 수준의 구족계가 이루어지면서 테라바다 비구니 구족계가 다시 제정되었다. 테라바다 비구니 구족계가 부활한 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스리랑카 비구니들은 여전히 사회적 지위, 인권, 법적 권리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와 불교 사업부는 스리랑카의 비구니들에게 국가 신분증을 발급할 배경과 규칙을 준비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정부와 불교 사업부는 스리랑카 비구 승가의 조언에 따라 다사 실마타(Dasa

silmātās)를 우선시한다. 사문과 비구니는 모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사 실마타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다사 실마타 조직은 문서를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구니가 고등 교육, 여권, 투표권을 잃게 된다. 스리랑카에는 여전히 많은 비구니가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평신도 신분을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정부나 불교 사업부는 종교적 또는 사회적 행사에서 이 용어를 "비구니(BHUKKHUNĪ)"로 사용하지 않고 고위 지위의 구족계 비구니들을 청중에게 소개한다. 다사 실마타 또는 마니요(Maniyo, 어머니)는 비구니를 인정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다.

‘모든 섬 불교 비구니회’인, SMJM(Dasa Silmātā jathika Mandalaya)은 스리랑카의 다사 실마타 불교 비구니회가 정부와 정부 부처인 불교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단체이다. 스리랑카의 모든 지역에는 이 지역의 거주 비구니들이 운영하는 지부가 있다. 이 단체는 불교 비구니들의 모든 문제를 지원하고 격려하며 해결하는 활동적인 단체다. 하지만 이 단체는 다사 실마타(열 명의 수계받은 비구니)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그 때문에 비구니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든 섬 비구니회’에 비난을 제기했으며, 이는 어떤 당국의 승인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분리는 여성 구족계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

교육발전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불교 신자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2017 년까지 어떤 불교 비구니 교육 센터도 정부의 후원을 받지 못했다. 스리랑카 불교 비구니들의 전폭적인 노력으로 정부는 마침내 12 개의 불교 비구니 교육 센터를 공립학교로 승인했다. 이 교육 센터에는 430 명 이상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30 명의 비구니가 이 교육 센터의 교사로 일하고 있다. 불교 비구니 교육 센터는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다. 교과서와 교사 급여는 정부에서 제공한다. 학생 비구니들은 이 센터에서 중등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비교했을 때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고급 수준의 경우 스리랑카에서 매우 비싼 사립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이것은 비구니들이 고등 교육을 계속 받는데 주요한 장벽이다.

현재 100 명 이상의 불교 비구니들(다사 실마타와 비구니를 포함하여)이 정부 공공부문과 많은 부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거의 3 명의 비구니들이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나는 한 비구니가 스리랑카 교육부의 부교육장으로 일하게 되어 기쁘다. 매년 2~3 명의 비구니들이 대학에서 내부 및 외부 학위를 취득하여 졸업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영어를 비롯한 언어에 대한 건전한 지식으로 교육받은 비구니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젊은 비구니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교육 센터들은 "실라마타 아디아파나 아야타나(Silamātā Adyapana Āyatana, 실라마타 교육 센터)로 불리는데, 10 계를 수지한 여성 스님들을 위한 교육센터이다. 이곳은 십계를 수지한 비구니에게 해당하는 교육센터이지만 스리랑카에는 비구니들이 운영하는 교육 센터들이 있다. 비구니 수페살라(Bhikkhuni Supeshala, 교육 담당 부국장)와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의 불교 비구니 교육 센터에서 공식적인 편지나 문서에 비구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는 당국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교활동

스리랑카의 비구니들은 스리랑카의 모든 종류의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구니들은 자신만의 비구니사회와 사원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매일 그들은 하루에 세 번 부처님께 공양을 바친다. 스리랑카의 비구니들은 담마 설교, 명상 지도, 시 짓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비구와 비구니들이 함께 시주를 위해 초대되지만 따로 앉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최근에는 스리랑카의 비구니들도 참여하고 주도적인 장례 의식을 진행하고 있어서 비구들이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스리랑카 비구니 사회는 모든 종교 및 사회 행사에 대해 비구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구 상가의 축복을 받아 독립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비구니 사회와 사원은 거의 없다. 스리랑카의 불교 공동체 대부분은 비구 상가에 의해 운영되며 비구니들을 통제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비구니들의 독립성이 부족하다.

결론

성 평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스리랑카 비구니들의 리더십은 전 세계 비구들이 기여한 바와 같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비구니들은 많은 이들의 선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비구니들과 젊은 세대의 강한 유대감이 나라의 미래에 긍정적인 의도를 주는 것은 멋진 일이다. 스리랑카 비구니 사회가 직면한 법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갖고 당국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어린 소녀들이 비구니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여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부정적이고 슬픈 상황은 스리랑카 비구니들이 남성 지배적인 사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 비구니들의 단결력이 매우 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모든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다.

Primary Sources

- Bodhi, B. N. (2000). *The Connected Discourses of the Buddha: A Translation of the Samyutta Nikaya*. Bostom: Wisdom publications.
- Bodhi, B. N. (2005). *The Middle Length Discourse of the Buddha*. Boston: Wisdom publications.
- Cowell, E. (2004). *The Jātaka*: Oxford: Pali Text Society.
- Dhammapala B. (1999). *Therī Gāthā Attakathā: Dehiwala*: Buddhist Cultural Center.
- Horner, I. B. (1993). *The Book of Discipline, Vol. IV*. Oxford: Pali Text Society.
- Oldenberg H. and Pischel R. (1883). *The stanzas Ascribed to Elders of the Buddhist Order of Recluses*: Oxford: Pali Text Society.
- Olivell, P. (2005). *The Manu's Code of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ephanie, W. and Brereton, P. (2014). *The Rig Veda Vol.I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econdary Sources

- Macdonell, A. (1917). *A Vedic reader for students*: Oxford: Clarendon press.
- Ariyaratne, I. (2009). *Pījācāritra Saṃhitā*: Matara, Southern Printing House.
- Ayya, K. (1998). *I Give You My Life: The Autobiography of a Western Buddhist Nun*: Boston: Shambhala Publication: London. Albany, N.Y. (2004). *Buddhist Women and Social Justice: Ideal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State University: New York Press.
- Dhammavijari, B. (2007). *Buddhist Monastic Discipline*: Dehiwala: Buddhist Cultural Centre.
- Diana, Y. P. (1979). *Women in Buddhism*: California: United State of America.
- John, C. H. (1999). *Discipline*: Delhi: Motilal Banarsidas Publishers.
- Horner, I.B. (1930). *Women under Primitive Buddhism*: Delhi: Motilal Banarsidas Publishers.
- Jootla, S. E. (1995). *Inspiration from Enlightened Nuns*: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 Karma, L. T. (1999). *Buddhist Women across Cultures*: State University: New York Press.
- Kusuma, B. (2015). *Code Of Conduct for Buddhist Nun*: Dehiwala: Buddhist Cultural Center.
- Sid, B. (2001). *The Journey of One Buddhist Nun*: State University: New York Press.
- Talim, M.V. (2015). *Women in Early Buddhist Literature*: Bombay: Buddhist World Press.
- Wilson, L. (1996). *Horrific Figurations of the Feminine in Indian Buddhist Hagiographic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로 파이 링 (Loh Pai Ling)

(pailingloh@gmail.com)

[번역: 민우 스님]

불교는 종종 승려 전통과 남성 중심의 이상을 통해 이해되지만, 성 역할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재가 여성 불자들은 불교 공동체와 사회를 형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불교는 이러한 역할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성별 경계가 변화하고 사회적 기대가 진화함에 따라, 재가 여성 불자들은 신앙을 표현하고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본 발표는 불교 여성 지도자의 여정을 탐구하면서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서론

불교는 주로 승가 조직으로 대표되고, 그 중에서도 남성 출가자를 이상으로 내세우며 남녀 역할에 대한 고유한 시각을 고수해왔다. 그럼에도 오랜 역사동안 여성들은 불교가 뿌리내리고 불교계가 변형하는데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불교 또한 성(性)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성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회적 기대가 변화하는 만큼 재가 불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표현하고 역할을 다할 책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번 논고에서 불교계에서 여성 지도자로 살아온 나의 개인적인 여정을 다뤄보고자 한다. 25년간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력한 불교 조직인 말레이시아 전법회(Buddhist Missionary Society Malaysia, 이하 BMSM)의 일원으로, 또 지도자로 활동하며 느꼈던 여성의 위상과 페미니즘, 현대 불교계에서의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보고자 한다.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변화하는 환경
2. 도전과 기회
3. 책임감 있는 리더십
4. 실천을 통한 위상 제고

1. 변화하는 환경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자와 재가자가 지켜야 할 규율이 성문화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율장』의 「계본(戒本)」에 비구(227)와 비구니의 계율(311)이 자세히 실려 있고, 「시갈라 경(Sigalovada Sutta)」에는 재가 신도들이 따라야 할 규율이 설명되어 있다.

『율장』을 자세히 보면 비구니 계가 더 많은 이유가 비구/비구니 모두를 위한 것이며 승가의 화합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출가하여 승가의 일원이 된 비구니는 비구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통해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마하빠자빠띠는 부처님께 여성 출가를 허락받았으며², 키사코타미(Kisagotami)는 겨자씨 이야기의 주인공이고³, 빠따짜라(Patacara)는 가족을 모두 잃는 비극을 겪었다.⁴

부처님께서 여성들도 깨달을 수 있다고 인정한 사건은 가히 혁명적이다. 『앙굿따라 니까야』 「고따미 경」에서는 여성들도 모든 과위를 성취할 수 있으며 아라한과까지 이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재가자들의 규율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다. 아라한을 이룬 재가자의 기록들을 보면 깨달음이 출가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히야 다루찌리야(Bahiya Daruciriya),⁵ 야사(Yasa, 남성),⁶ 왕비 사마와띠(Samavati)의 시녀 쿠주따라(Khujjuttara), 웰루칸다끼(Velukantaki)로도 알려진 난다마따(Nandamata)⁷ 등이 그 예이다.

아라한을 이룬 재가자의 수는 매우 적었지만, 그 중에 여성들의 존재가 두드러졌다. 부처님께서 쿠주따라를 잘 배운이라고 칭송하셨고, 그녀는 뛰어난 기억력 때문에 많이 아는 이라고 알려졌다. 아라한을 이룬 재가자들은 더 이상 재가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삶을 마치거나 출가의 길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수행은 성별과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도전과 기회

2011년 11월 BMSM의 제6대 회장 다토 치 펙 키엣(Dato' Chee Peck Kiat)의 건강 악화로 나는 회장 대행으로 선출되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회장 대행직에 오른 최초의 여성으로 걱정이 컸다. 그러나 불법(佛法)에 대한 믿음이 힘이 되었다.

다행히 나는 BMSM 고문들의 훌륭한 지도와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 전회장이자 재가자 대표 고문인 다토 이르 앙 추홍(Dato' Ir Ang Choo Hong)은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승가 고문인 마힌다(Mahinda) 스님도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 격려해 주었다.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현재 BMSM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들의 전문분야와 배경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다. 지도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구성원들의 열린 태도가 가장 주효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여성 불자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불법에 믿음을 가지며, 감사와 확신,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라고 말하고 싶다. 여성이라는 사실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의 고유한 자질을 잘 활용하면 역량이 향상될 것이고, 불교계 내에서도 여성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다.

3. 책임감 있는 리더십

2013년 나는 정식으로 BMSM의 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지금까지 11년동안 여섯 번의 임기를 역임하고 있다.

² AN 8.51 & Thig 157-162

³ Dhp 114 & Thig 10

⁴ Dhp 113 & Thig 112-116

⁵ Udana 1.10

⁶ Vinaya Mahavagga

⁷ AN 7.53

나의 BMSM 과의 인연은 2000 년 내가 키우고 있던 막내 조카딸을 카장(Kajang) 지역의 주일 담마학교에 등록시키면서 시작되었다. 2003 년 나는 BMSM 카장 지부의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09 년에는 명예서기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BMSM 최초 여성 부회장으로 선출되며 전국 단위로 활동하게 되었다.

잘 따르는 이가 훌륭한 지도자도 될 수 있다. 나는 전대 회장이신 다토 이르 앙 추 홍(2001-2007)과 다토 치 펙 키엇(2009-2012)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직접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나는 전임자들을 따르며 배웠던 경험을 활용했다.

회장 임기가 시작되고 첫 5 년동안은 전대의 사업을 이어 나갔다.

- BMSM 사마디 위하라(Samadhi Vihara) 법당 불사 및 개원(2012-2013)
- BMSM 카장 지부 보수 (2014-2016)
- BMSM-파옥 담마위자야 명상센터 건립 및 운영(2012-2024)

또한 말레이시아 각 주마다 지부를 설립하여 전국적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전역을 다니며 54 년에 걸쳐 전법 활동을 했던 창립자 고(故) 담마난다 스님(Ven. Dr. K. Sri Dhammananda)과 인연을 맺은 이들을 다시 조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2015 년부터 2022 년까지 진행된 ‘연결하고, 소통하며, 참여하기(Connect, Communicate, and Engage)’이니셔티브를 통해, 7 개 주에 지부를 설립하였으며, 앞으로 6 개 주에 더 설립할 계획이다.

BMSM 의 또 다른 업적은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에 위치한 본찰 마하 위하라 사원(Buddhist Maha Vihara) 밖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이는 주요 도심에서 인구 이탈이 일어나 분산되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BMSM 은 샤알람(Shah Alam)에 사마디 위하라(Samadhi Vihara)를 짓고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Putrajaya)에 불교 센터를 마련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푸트라자야 내에 이슬람교를 제외한 5 대 종교 구역을 배분하였다. BMSM 은 약 820 평(0.67 에이커)을 순조롭게 배정받아 법당부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20217 년 착공하여 2023 년 5 월 BMSM 전법 회관(PBDM)이 드디어 개관했다. 현재 PBDM 은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적인 불교 중심지로, BMSM 총본부이자 푸트라자야 지부의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BMSM 는 2022 년 창립 60 주년을 맞이하는 쾌거를 이루고 “생명을 어루만지는 불법”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봉사, 청정, 지혜의 포교사 양성”이라는 미션을 제시했다.

이러한 업적은 조직의 훌륭한 팀워크를 드러낸 동시에 여성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신뢰를 가지고 여성 지도자를 포용하고 격려해 준 남성들의 포용적인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2011 년 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제 종교 이해 증진 위원회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여성이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명확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나는 현재 종교 간 화합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이 위원회에 2025-2026 년 임기로 재임명되었다.

또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산하 종교 간 대화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국제종교진보여성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ligious Liberal Women) 부회장으로 국제 무대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4. 실천을 통한 위상 제고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불교의 가르침에 근거한 다음의 세 가지 접근법을 실천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여성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

- 모범을 통한 리더십
- 불완전함의 인정
- 장점의 활용

○ 모범을 통한 리더십

모범을 통한 리더십이란 불법을 체화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권위나 지배가 아니라, 자애, 자비, 지혜와 같은 덕목에 뿌리를 둔 품행과 태도를 통해 타인에게 감명을 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망갈라 경(Mangala Sutta)」에서 존중, 겸손, 만족, 감사와 같은 자질을 길러야 할 복덕으로 언급하셨다. 이러한 자질을 몸소 실천하는 지도자는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된다.

『법구경』 158 번 계송에서도 자신의 품행으로 직접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읊고 있다. “자기를 먼저 올바르게 이룬 뒤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

개인적 이익보다 도덕을 우선시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하며, 포용을 증진하는 행동들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리더십이 성별이 아닌 인격, 헌신, 그리고 타인을 감동시키는 능력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불완전함의 인정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이는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서 성장이 시작된다고 일깨워준다.

부처님께서 「양곳따라 니까야」 「비구니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신의 허물을 분명히 보는 이는 지혜로운 자요, 그것을 감추는 이는 어리석은 자이다.” 자기성찰과 정직을 고취하는 말씀으로 이 두 가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에 필수적이다.

자신과 타인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지도자는 진정성과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는 리더십이 완벽을 추구하거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 장점의 활용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 있다.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장점을 알아보고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관점, 접근 방식,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양곳따라 니까야」 「계보 경」에서 지혜로운 스승을 숙련된 정원사에 비유하시며, 이들은 필요에 따라 식물을 잘 돌본다고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지도자는 개인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법구경』 124 번 계송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것을 반복해서 행하라. 기쁨을 느끼며 행하라. 기쁨은 선한 행위에서 비롯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의미있고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라고 가르치고 있다.

분별하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존재는 타고난 잠재력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지도자는 사람들마다의 장점을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호의존과 상호연결성이라는 불교적 가치도 드러난다. 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리더십은 남성적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의 자질 또한 소중하고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결론

불교계 여성들의 역할은 역동적인 과정 속에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전통적인 성 역할이 변함에 따라, 여성들이 리더십을 수용하고, 불법을 실천하며, 영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과 시대를 초월한 불교의 가르침에 근거해 불교계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나의 여정을 나누어 보았다. 여성 불자들은 지대한 공헌을 세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길은 이처럼 변화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용하고, 포용성을 증진하며, 여성 리더십만이 가지는 고유한 장점을 인식하는 데에 달려있다. 이는 21세기뿐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진정한 리더십은 인격, 자비, 지혜에서 나오며 이 자질들은 성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해탈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준다는 요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세션 1 불교가 구현하는 다양한 퀴어(성적, 사회적) 정체성

3 Queerness Embodied by Buddhism

따시 초둡 (Tashi Choedup)

(tashi.choedup18@gmail.com)

[번역: 정형은(샤카디타 코리아, 국제포교사)]

약 2600 년 전, 샤카(Sakya) 가문의 한 젊은이가 가족, 세속적 부와 안락을 뒤로하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영구적으로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했던 것과 유사한 행보였으나, 그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당대의 규범을 의문에 부치며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였으며,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된 이후에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불교의 여러 측면 중에서 부처의 탄생은 그 시대와 사회가 규정한 ‘정상적’ 삶의 굴레를 깨뜨린 결과이기도 하다.

2500 년이 지난 오늘날, 불교 전통, 대중문화, 학계에서는 부처를 ‘능숙하고, 급진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 학문적 논의와 대중문화 담론을 배제하더라도, 불교에서 부처를 ‘여래(如來, the one thus gone)’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관습을 뒤흔들며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부처가 ‘퀴어’하다고 생각하며,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는 각종 관습에 얽매어 있으며, 종교 기관이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존속되기 위한 다양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퀴어 공동체는 불교 및 그 외의 세속적 개념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에 신중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나는 ‘퀴어한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 탐구하고, 가부장적 구조를 유지하며 퀴어 및 트랜스젠더 인물을 배제하는 개념을 지닌 종교 기관 내에서 퀴어-트랜스젠더 인물의 위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칼라마경(Kalama Sutta)》을 다룰 것이다. 이는 ‘부처의 자유 탐구 헌장(Buddha’s Charter of Free Inquiry)’이라고도 불리며, 경전이나 전통, 스승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한 뒤 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가 페미니즘, 퀴어 담론, 사회 정의, 과학 등의 영역과 상호작용하는 현대적 맥락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남인도 불교 고전인 《마니벡할라이(Manimeghalai)》를 비롯한 다양한 문헌을 분석하며, 깨달음과 부처의 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퀴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나는 트랜스젠더이며, 스님이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활동가이다. 학자도, 연구자도,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 글은 내가 속한 불교 승가와 퀴어 승가에게, 나의 퀴어한 자아와 불교 수행자로서의 자아 사이에서 내가 소중히 간직해온 특별한 관계를 나누고자 하는 개인적인 시도이다. 여기서 나누는 내용은 나의 삶의 현실에서 비롯된 생각과 감정, 체험들이며, 그것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정을 나누어준 스승들과 친구들에게서 받은 귀한 선물이다. 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불교가 구현하는 퀴어(성적·사회적) 정체성”이라는 이 제목은, 부처님을 나의 스승으로, 불법(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수호로, 승가를 나의 인도자로 삼는 데에서 비롯된 나의 친밀한 감정들을 담담하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 주제는 내가 지난 몇 해 동안 수행과 성찰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주해온 것이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더 큰 공동체와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서 나누는 내용은 철저히 나의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을 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들과 소중한 우정 속에서 받은 가르침과 선물들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듣고 읽는 이가, 나의 아직 여물지 않은 생각들을 자애롭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기를 청한다.

규범을 넘어선 퀴어한 존재 방식(*Queerness*)

불교도인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공부 가운데 하나는 ‘세속적 진리(conventional truth)’와 ‘궁극적 진리(ultimate truth)’이다. 우리가 이 두 진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심화시켜 가든,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불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르면, 세상 자체가 ‘세속적’이며, 이 세속적 세계는 끊임없이 관습과 규범을 만들어낸다. 그것들은 지리적, 문화적,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다르지만, 모든 사회는 일정한 규범 속에 사람들을 위치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 규범은 대개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설정되고 강제되며 유지된다.

결혼과 자녀 출산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넘어 가장 널리 통용되는 규범의 예다. 누군가 결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면, 그 사람이 시스젠더(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는 사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평판의 상실, 이탈자 취급, 친가족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시스젠더 여성의 경우에는 물리적 폭력에까지 노출될 수 있다.

오늘날 ‘퀴어(queer)’라는 말은 다양한 성적·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지만, 사회가 규정한 ‘정상(normal)’의 틀에서 벗어나는 모든 이들은, 이 용어로 직접 지칭되지 않더라도 퀴어한 존재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퀴어한 존재 방식을 살아가는 이들은 단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무성애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LGBTQIA+;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Questioning, Intersex, Asexual 등)만이 아니라,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현실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포함한다. 결국 사회가 정한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되며, ‘존중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

우리 사회는 뚜렷한 위계적 구조 속에서 작동하며, 그 틀 안에서 각자의 위치가 정해진다. 이 위계는 인종, 젠더, 카스트(신분제), 계급, 종교, 민족 등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으며, 권력은 매우 정교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회는 이 틀 안에서 살아갈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 구조는 오랜 세월을 걸쳐 감시와 통제, 폭력에 의해 다듬어졌으며, 오늘날까지도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LGBTQIA+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전체 구조 자체를 교란시키며, ‘정상’이라 여겨지는 세계에 분노를 유발한다. 그러나 이 체제에 도전하는 이들은 퀴어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결혼을 거부하는 시스젠더 여성, 종교나 인종, 카스트를 넘는 커플,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부부, 비독점적 관계를 선택한 사람들, 규범적 성행위를 따르지 않는 이들 등 모두가 이 체제에 균열을 내며, 잘 구축된 권력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상’을 자처하는 이들은 지금도 가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수호하려 한다.

이처럼 보다 넓은 존재론적 시야에서 보면, ‘정상’이라는 틀에 들어가기 거부하거나 그 틀을 거슬러 사는 이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존경받을 자격’을 기꺼이 위협에 노출시키는 모든 이들은 바로 **규범을 넘어선 귀여한 존재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고, 권력의 본질을 의심하며, 믿음과 관념을 질문하고, 구조와 체계를 부식시키며, 욕망과 존재의 의미 자체를 다시 정의하고자 한다. 이들은 세계와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바로 이러한 귀여한 존재 방식이 **기존 질서와 그 권력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 기쁨과 고통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은 귀여하시다 (*Buddha is Queer*)

많은 뛰어난 수행자들과 스승들은 부처님의 삶을 저마다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해왔다. 역사가들은 부처님의 생애를 다양한 내러티브로 풀어내고, 인류학자들은 불교와 그 전개 과정을 다채롭게 해석하며, 신학자들 또한 부처님의 삶을 여러 관점에서 읽어왔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은 왕족으로 태어나 장차 통치자가 될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고통과 마주한 일련의 경험들이 그에게 절박한 물음을 안겼고,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을 찾고자 출가하게 되었다. 흔히 알려진 대로, 싯다르타 고타마는 늙음, 병, 죽음을 목격하고 삶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겪는다. 그는 권력과 특권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많은 자원을 누릴 수 있었고, 원한다면 세속의 제국을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예언까지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우리라면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권력과 권위를 쥐려 하거나, 사회주의적이든 공산주의적이든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선택들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무수히 많은 생에서 보살행을 실천해 온 이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체계 안에서 답을 찾기를 거부했고, 권력으로 고통을 없애는 길 또한 택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일지 모르지만, 부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부처님은 그 어떤 기존 체계도 따르지 않는 길을 택했다. 혹자는 “당시 금욕주의는 흔한 선택이었기에 특별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순히 금욕주의에 귀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수행 방법을 몸으로 겪으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찰하고 의문을 던졌다. 그의 길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의문과 실천의 연속**,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귀여한 방식이다.

그는 여섯 해 동안 극도의 금욕 수행을 이어가며 쌀 한 톨로 연명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섯 명의 동료 수행자들은 그를 위대한 수행자라 칭송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님을 자각하자마자 그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많은 사람들이라면 남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 자리에 안주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존경과 인정조차 초월하고, 질문을 놓지 않았다. **그 역시 귀여한 선택이다**.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도 그는 그 경지를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세속과 단절하지 않았다. 도리어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와, 자신이 체험한 깨달음과 자비의 가르침을 나누며 중생들을 이끌었다. 그는 깨달음을 자신의 업과 노력의 결실로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핑계 삼아 고통받는 세상과 단절하지도 않았다.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그는 그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매우 귀여한 희망이다.

이 외에도 그의 행위 가운데는 기존 질서와 규범을 뒤흔드는 선택들이 많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당대의 억압받는 카스트 출신이었던 우팔리를 자신의 친족보다 먼저 출가시키고, 그를 상좌로 세웠다. 이는 카스트 우위에 대한 매우 능수능란한 전복이었다. 또, 그는 암라팔리라는 천민 출신의 궁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그녀 같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한다는 현실 속에서 자애로 대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출가와 재가의 승가 체계를 만들었고 출가자가 존중받는 구조를 마련했지만,

그 위계가 고착되기 전에 그는 제자들에게 비구도 아니고 재가자였던, 세속의 쾌락을 즐기던 인물인 비말라키르티에게 가서 배우라 하기도 했다.

이 모든 사례는 부처님이 ‘정상’ 이라 불리는 질서에 의문을 던지고, 기존 권력을 흔드는 **귀어한 실천**이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일들은 부처님의 방편일 뿐이며, 귀어하다는 말로 그분을 정의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을 귀어하다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생각, 선택, 행동**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귀어함이 구현되는 방식이다.

부처님이 태어나고 불교가 꽃피었던 지리적 공간에서 불교가 사실상 사라진 지 여러 세기가 지난 후, 인도 헌법의 설계자이자 ‘불가촉천민’ 계층 출신이었던 바바사heb 암베드카르(Babasaheb Ambedkar)는 수천 년간 이어져온 카스트 억압과 부정의를 타파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공동체에 전하며, 힌두 카스트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로 제시하였다. 오늘날 인도 내 불자의 다수는 이러한 암베드카르 계열의 불자들로, ‘나바야나(Navayana) 불교’, 즉 ‘새로운 수레’의 불교를 믿고 실천하며, 부처님을 변함없는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다. 이 사례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정상성’ 을 의심하고, 권력을 질문하며,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존재로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규범’을 전복시키고, **귀어한 세계를 창조해내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부처님께로부터 얻은 용기를 바탕으로, 이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고자 한다. 단지 ‘**비규범적인 행위들**’ 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성적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 또한 귀어했을 가능성을 사유하고자 한다.

부처님의 12 가지 행적에 대한 찬탄(*Great Praise of the Twelve Acts of Buddha*)에서, 나가르주나(Acharya Nagarjuna)는 다음과 같은 계송을 남긴다:

방편의 지혜로 세상의 모습에 잠시 따르시고
허물의 말 생기지 않도록 하시며
궁정에 머무시며 여인들 곁에 계셨던
그 자비로운 행에 귀의합니다.

나는 이 계송을 처음 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되새기고 있다. 나가르주나는 단순히 부처님을 칭송하기 위해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보다 넓은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계송을 나의 방식대로 읽고 해석하자면, 싯다르타 고타마로서의 부처님은 그 시기 세속 세계의 관습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그것이 방편적으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지, 그가 그 규범을 **신념으로 믿었거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니었다. 즉, 부처님은 필요할 때는 **세속적 규범에 순응**했고, 또한 필요할 때는 **그 규범을 초월**했다. 그는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정상성’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때 해야 할 일’을 했던 존재였다. 설령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부처님의 생애를 **시스젠더 이성애 남성**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것을 유일한 현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세속적 ‘연기(緣起)’ 의 하나로 사용**했을 뿐이다.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이전에 어떤 성적 욕망을 가졌는지, 혹은 **자신의 젠더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역사 서술이라는 것이 대체로 지배적인 시각에 의해 정제되고 삭제되어 온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속의 부처님은 **온전히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후, **한 존재로서의 분류 자체를 초월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그분**을

특정한 성이나 젠더 범주에 고정시키는 것 자체가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시스-이성에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 보다 열린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집착과 전제를 놓아버리는 수행을 보다 깊이 실천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 부처님의 퀴어함은 그 존재 전체 속에 드러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의 전제와 편견을 내려놓고, 익숙한 틀을 벗어나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존재에서 진정한 해방과 기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Dharma)은 퀴어하다

불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다시 방향을 잡게 한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진리처럼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게 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촉구하고 격려한다. 널리 받아들여진 관점과 개념들을 해체하고, 합리적 분석 앞에서 더 이상 진실로 유지될 수 없는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돕는다.

퀴어함은 가능성의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Edelman, 1998; Weiss, 2016). 어떤 생각을 퀴어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특정한 순간, 생각, 데이터, 몸 등을 다양한 방향과 관점에서 해석하며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일종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며 (Butler, 1990), 시스헤테로(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이 전통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 중심의) 가부장제 내·외부의 이분법을 해체한다. 그러나 퀴어 이론은 고립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흑인 문화 연구(Mercer, 1994), 탈식민 연구(Pérez, 1999), 비판적 인종 이론(Harper et al., 1997), 원주민 연구(Driskill, 2011) 등의 영역에 뿌리내려 함께 성장해 온 것이다.

불법은 무조건 복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명령되는 선언이나 선포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자유로운 탐구의 현장’이라 불리는 《Kalama Sutta》(칼라마 수타)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칼라마들이여, 단지 반복해서 들어온 이야기라고 해서 믿지 말라. 전통이라고 해서, 소문이라고 해서, 경전에 있다 하여, 추측에 의해서, 공리 명제에 의해서, 그럴듯한 이론에 의해서, 사유한 개념에 대한 애착에 의해서, 누군가의 권위에 의해서, 혹은 ‘이 스님이 우리 스승이니까’라는 이유로도 믿지 말라.

오직 너희 스스로가 ‘이것이 선하다. 이것은 비난받지 않는다. 이것은 지혜로운 이들에게 칭찬받는다. 이것을 따르고 실천했을 때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고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따르고 살아가라.”

그러므로 부처님은 어떤 것이 경전, 전통, 혹은 스승에게서 왔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조사하고 확인한 뒤에 수용하라고 가르치신다. 불법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스승이나 권위 있는 경전, 혹은 강력한 제도적 명령에 따라 받아들이는 많은 것들과는 다르다.

퀴어함과 마찬가지로, 불법도 권력과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강제될 수 없다. 퀴어함과 불법 모두 권력이 아닌 자유로운 탐구와 체험 속에서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널리 통용되는 믿음과 개념에 반(反)하며, 그 여정 속에서 ‘질문하기’라는 공통의 기반을 공유한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왜 인도에는 불교도가 별로 없을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불교가 인도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 여러 사회정치적 배경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가 인도에서 다시 뿌리내리기 어려운 이유를 따져보자면, 지역 언어로 된 불법 자료의 부족, 실질적인 자원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또 다른 큰 이유는, ‘관습에 대해 아무 의심 없이 뿌리 깊이 매인 사회’일 수 있다. 그 사회는 익숙한 관습 속에서 안정을 느끼고, 그것을 강제로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런 사회가, 오히려 그러한 관습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어보라고 요구하는 불법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쿼어 공동체가 전통적인 규범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더욱 근원적인 질문을 요구하는 불법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불법의 목적은 기존 세계 질서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기존의 관습 속에 안주하지 않는다. 불법은 끊임없는 조사와 분석, 그리고 규범을 흔드는 실천을 권장한다. 이런 점에서, 불법은 쿼어함을 체현하고 있다.

불교와 쿼어함

재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불교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명상인가요? 고행인가요? 의식이나 염불인가요?”

불교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수행과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마음의 작용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안내한다.

《우뵏자타나 수타, 오념경》(Upajjhatthana Sutta)에서 부처님은 다섯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을 설하신다.

1. 노(老) - 늙음을 피할 수 없느니라.
2. 병(病) - 병듦을 피할 수 없느니라.
3. 사(死) - 죽음을 피할 수 없느니라.
4. 무상(無常) - 사랑하는 것과는 반드시 이별하느니라.
5. 업(業) - 지은 대로 과보를 받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재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것에 저항하기보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고통을 덜어내는 길을 택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한편 나는 쿼어함이 통제, 감시, 권위, 권력에 기반한 이른바 ‘안정되고 정리된’ 세계 질서가 얼마나 많은 인간적·비인간적 고통의 원인이 되는지를 꿰뚫어보게 만든다고 믿는다. 쿼어함은 “권력”을 해결책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연약함을 끌어안으며 그것을 해방의 변화를 향한 길로 전환시키려 한다. 불법은 우리를 이원론을 넘어선 현실 인식으로 이끌고, 쿼어함은 세상을 비이분법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쿼어함은 불법 속에 깃들여 있으며, 불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쿼어함을 가능케 하고 돌본다.

결론: 불교 승가는 쿼어하지 않을 수 있는가?

리타 그로스(Rita Gross)는 불교와 젠더에 관한 저서 *Buddhism Beyond Gender*(한글 번역본이 아직 없음)에서 이렇게 말한다. “불교는 너무도 심오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남성 중심의 권력자들이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불법은 특정한(기득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소유는 오히려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같은 책에서 그녀는 “불교는

페미니즘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나에게, 퀴어한 존재로서 불교 안에 내재된 퀴어함을 인식하는 일은 수행 그 자체이다. 불교의 퀴어한 측면을 외면한다는 것은, 마치 하늘을 보며 별과 달을 찾으면서도 정작 하늘은 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퀴어할 수는 있지만 불자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퀴어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불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부처님, 불법, 승가에 귀의한 이로서 재가이든 출가이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한다면, 어떻게 주류 세계의 규범을 거스르지 않고 수행할 수 있겠는가?

《빠타마 루빠라마 수타》(Pathamaruparama Sutta, 형상의 즐거움에 대한 경 『쌍웃따 니까야』 35 권 136 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성자들은
정체성이 소멸되는 것을
참된 행복으로 보았나니
이러한 통찰을 지닌 이들의 견해는
세상의 온갖 관념과 대치된다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성자들은 괴로움이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괴로움을
성자들은 진정한 행복으로 알도다.”

(출처: *ReadingFaithfully* 웹사이트)

나는 우리가 수행의 길을 걸어가며, 퀴어야나(Queeryana, 퀴어의 수행 길)를 꺼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곧 붓다야나(Buddhayana, 부처님의 수행 길)에 내재된 진정한 길이기 때문이다.

세션 1 인도네시아 테라바다 비구니의 발전: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 내 성평등을 향한 진전

4

The Development of Theravāda Bhikkhunis in Indonesia: Progress Toward Gender Equality in Sangha Agung Indonesia

줄리아 수리아 박사(티타차리니 테리 스님) (Dr. Julia Surya (Ven. Ṭhītācārīni Therī))

(jsthita@gmail.com)

[번역: 김희정(샤카디타 코리아)]

인도네시아에서의 테라와다 비구니 발전, 특히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Sangha Agung Indonesia)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불교 전통 내 성평등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문화/규범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비구 공동체의 지속적인 지원은 비구니의 인정과 권한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였다. 본 연구는 비구와 비구니 간 역학을 분석하며, 둘의 협력이 불교 기관 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역사적, 사회적 분석을 포함한 질적 접근법을 활용하며, 비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비구니의 상가 내 정당성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밝혀낸다. 이러한 상호 지원은 포용성을 증진시키며 성평등을 향한 불교 제도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협력적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비구의 참여는 테라와다 전통 내 건설적인 성별 간 대화를 촉진하여 더욱 균형 잡힌 평등한 종교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협력적 관계가 종교 및 사회 전반의 성별 규범에 도전하는 방식을 탐구하며, 비구와 비구니 간의 협력이 지혜, 자비, 상호 연결성과 같은 불교의 핵심 가치들을 구현하여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불교에서 여성의 역할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종교적 맥락에서의 성평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성평등을 고려한 협력적 실천이 인도네시아 및 그 너머 불교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도입

인도네시아 테라바다(Theravāda) 비구니의 발전은 전통적인 불교 승가 구조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수세기 동안 테라바다 전통은 남성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비구(남성 승려)들이 종교적 지도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비구니 수계는 이 전통 내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도네시아 불교계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중심에는 1959년 고(故) 아신 지나라키타 (Ashin Jinarakkhita) 스님이 설립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승가 조직인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Sangha Agung Indonesia, SAGIN)가 있다.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는 테라바다, 대승불교(Mahāyāna), 금강승(밀교, Vajrayāna) 세 가지 불교 전통의 비구와 비구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자의 율장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Surya, 2020).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테라바다 비구니, 특히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 소속 테라바다 비구니들의 발전 과정을 조명하며, 불교 제도 내에서 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비구들의 지지가 이룬 변혁적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Sangha Agung Indonesia) 테라바다 불교에서 비구니의 역사적 맥락

역사적으로, 테라바다 전통에서 여성을 비구니로 수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다. 부처님이 여성의 승가 수계를 허락하셨다고 전해지지만,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를 포함한 많은 테라바다 국가들에서는 여성 출가제도의 완전한 제도화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율장(Vinaya)의 해석이었는데, 전통적으로는 특정 맥락에서 여성의 수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Harvey, 2013).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몇 가지 면에서 독특하다. 힌두교와 불교의 풍부한 역사적 영향을 받은 다수의 이슬람 국가로, 불교 공동체는 항상 소수에 속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불교 공동체는 여성 수계에 대한 수용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59 년 설립된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Sangha Agung Indonesia, SAGIN)는 테라바다 전통을 대표하는 단체로, 초기에는 남성 비구 수계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여성 수계를 향한 흐름이 점차 탄력을 얻어, 결국 SAGIN 내에서 비구니 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인도 사르나트(Sarnath)에서 테라바다 비구니 수계가 처음 복원되기 오래 전, 테라바다 사미니들(samaneris, 여성 출가 초심자들)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등장했다. 1963 년,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의 창시자인 고(故) 아신 지나라키타 스님은 인도네시아 서자바(West Java) 반둥(Bandung)에 있는 비말라다르마 (Vimaladharmā) 사원에서 테라바다 전통에 따라 한 명의 사미니를 수계했다. 지나쿠마리(Jinakumari)라는 이름의 이 사미니는 1,000 년 이상의 공백 후 최초의 인도네시아 비구니로 인정된다. 1966 년, 당시 테라바다 비구니 승가가 없었기 때문에, 사미니 지나쿠마리와 다른 몇몇 사미니들은 아신 지나라키타 스님에 의해 홍콩의 포 린(Po Lin) 사원에서 대승불교 전통으로 정식 수계를 받도록 보내졌다(Silvita, 2015). 아신 지나라키타 스님의 현신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었다. 그의 자비와 지혜는 그의 제자들과 승가 아궁 인도네시아에 합류한 승려들에게, 특히 인도네시아 여성 불자의 발전과 관련하여 전해졌다.

2008 년은 테라바다 비구니 출현에 의구심을 품었던 이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여성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고, 테라바다 비구니로서의 삶을 추구하기로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2008 년 2 월 14 일, 냐나수리야나디 마하테로(Nyanasuryanadi Mahāthero) 스님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Central Java) 암펠(Ampel) 보요랄리(Boyolali)의 벨루바나(Veluvana) 사원에서 여성들을 위한 첫 빠바즈자(pabbajja, 출가의식)를 진행했다. 수계 받은 여성 중에는 후에 담마차리니(Dhammācārini) 비구니와 티타차리니(Ṭhitācārini) 비구니로 알려진 아나가리니(anagarinī, 출가자) 스리 우타미(Sri Utami)와 아나가리니 줄리아 수리아(Julia Surya)가 있었다. 2012 년 5 월 12 일, 냐나수리야나디 마하테로 스님의 추천에 따라 사미니로 4 년간의 훈련을 마친 후, 담마차리니와 티타차리니는 스리랑카에서 비구니로 정식 수계를 받았다. 그 이후로 승가 아궁 인도네시아는 테라바다 비구, 비구니, 사미(samaneras), 사미니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부처님의 담마비나야(Dhammavinaya,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를 실천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Surya, 2020)

이 두 비구니의 수계 후, 몇 년 뒤인 2015 년과 2016 년에 다시 냐나수리야나디 마하테로 스님의 여성 제자들이 스리랑카에서 비구니로 정식 수계를 받았다. 그의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승가 아궁 인도네시아의 구성원인 한 사미니가 비구니로 정식 수계를 받기 위해 스리랑카로 갔다.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SAGIN)가 스리랑카에서 최초의 테라바다 비구니 수계를 진행한 지 10 여 년이 지난 후, 인도네시아에서 부처님의 불법 발전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2 월 7 일 금요일, 마젤랑(Magelang)의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에서 SAGIN 이 인도네시아 최초로 테라바다 비구니 **우파삼빠다(upasampadā, 구족계)** 수계식을 거행한 것이다. 이 성스러운 의식은 인도네시아 불교 공동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인 보로부두르에서 최초로 여섯

인도네시아 테라바다 비구니의 발전: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 내 성평등을 향한 진전 (줄리아 수리아[티타차리니 테리])

명의 비구니 수계 후보자들이 구족계를 받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수계식은 SAGIN 의 마하나야카(Mahānāyaka, 승가 최고 지도자)인 나나수리아나디 마하테로 스님이 비구 *우파자야*(bhikkhu upajjhāya, 비구 수계 스승)로서 주재 하였으며, 스리랑카의 파둑카 수미트라 테리(Padukka Sumithra Theri) 스님이 *비구니 파뱃티나*(bhikkhunī pavattinī, 비구니 수계 스승)로 함께하였다.

이 수계로 SAGIN 은 최근 수계받은 6 명을 포함하여 총 11 명의 테라바다 비구니가 있게 되었다. 이 비구니 수계는 인도네시아 불교 교단, 특히 SAGIN 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이전에는 1970 년 5 월 2 일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비구 수계가 거행되었는데, 여기에는 고(故) 지나담모 마하테로(Jinadhammo Mahathero) 스님과 다른 몇몇 비구들이 수계받았다. 고(故) 지나담모 마하테로 스님은 SAGIN 의 구성원이자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명상 지도자였다.

비구니 승인을 둘러싼 도전과 문화적 규범

인도네시아에서 비구니의 인정은 상당한 문화적·규범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사회 구조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형성되어, 특히 여성은 종교 내에서 종종 종속적인 역할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비구니 수계**는 여러 방면에서 회의와 저항에 부딪혔다. 불교 공동체들 또한 전통적인 성 역할과 종교 경전 해석에 영향을 받아, 초기에 여성 출가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주저하였다(Buddhadharma, 2015).

게다가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 가르침에서 파생된 것들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넓은 사회적 규범은 여성의 영적 권한 부여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이슬람이 주류인 국가로,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들은 불교에서의 여성 수계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여성 승려라는 개념 자체를 종종 비정상적인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Wilkinson, 2013). 또한, 종교,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기반 차별은 비구니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 직면한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다.

하지만 불교 내부와 인도네시아 사회 내에서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불교 내 여성의 역할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비구니 출가는 단순한 성평등의 표현을 넘어, 불교 승가의 제도적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승가 아궁 인도네시아(SAGIN)의 비구들에 의한 지지가 필수적이었다.

상가 아궁 인도네시아 내 비구니 승가 지원에서 비구들의 역할

인도네시아에서 비구니 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비구들의 적극적인 지지였다. 역사적으로 테라바다 불교의 승가 제도에서 비구 공동체는 상당한 권위를 지녀왔으며, 그들의 여성 출가 승인 여부는 비구니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비구와 비구니 간의 상호 지원은 포용성을 증진하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제도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적 모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SAGIN 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비구들을 중심으로, 여성 수계를 지지하고 비구니 제도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비구들이 있다. 이들의 참여는 여성 수계의 제도적 인정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균형 잡히고 평등한 승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비구들과 비구니들은 함께 교육 프로그램, 명상 수행,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등을 개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는 데 힘써 왔다(Sung, 2016).

더 나아가, SAGIN 의 비구들과 비구니들 사이의 협력은 테라바다 전통 내에서 성별을 넘는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화는 승가 공동체 안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도전하며, 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데 기여하였다.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활동함으로써 지혜, 자비, 상호연관성이라는 불교의 핵심 가치가 성평등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며 확산되었다.

제도적 변화와 성평등

인도네시아에서 비구니의 인정과 역량 강화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테라바다 불교 내에서 보다 넓은 제도적 전환을 의미한다. 비구니들이 계속해서 수계받고 승가 생활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이들은 불교 제도의 변화에 기여하며, 성평등이 단지 이론적 이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현실로 되도록 한다.

모든 사람은 성별과 무관하게 영적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동등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500 여 년 전, 부처님은 아난다(Ānanda)존자에게 세속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Dhammavinaya)을 실천하는 여성들 또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Cv.X.1, 2-3). 이러한 원칙은 SAGIN의 나나수리아나디 마하테로 스님이 여성들에게 테라바다 비구니로서 출가 생활을 허락한 결정의 근간이 되었다. 일부 테라바다 비구들이 테라바다 비구니 승가의 재건에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성의 출가를 허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이 이룬 바를 성취할 수 있다.” 그는 여성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도덕적 계율을 지키고 정신적·영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Surya, 2020).

승가 내에서 비구니들이 지도적 역할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불교 제도는 보다 균형 잡히고 대표성 있는 구조로 나아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비구니들이 교육, 명상 지도, 지역사회 활동 주도 등의 역할을 맡으며 승가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종교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참여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다 평등한 종교 실천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Jormakka, 2015).

비구 승가로부터 평등과 정의를 보장받음으로써, SAGIN 내 비구니 승가의 부흥은 인도네시아 불교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이 부흥은 비구니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Dhammavinaya)을 자유롭게 수학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가 공동체에 불법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여성 불자들은 비구니들로부터 심화된 지도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마하파자파티 테리(Mahāpajapati Therī)(부처님의 양어머니, 세계 최초 테라바다의 비구니)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여성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Dhammavinaya)에 따라 자신을 훈련하고 삶을 발전시키는 데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마하파자파티 테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나에게 어떤 동정심이나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 진정한 가르침을 이어나가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완전히 깨달은 분(Fully Awakened One)은 내가 간청했을 때 여성에게 출가를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기뻐했듯이, 여러분도 그것을 수행해야 합니다"(ApA.146).

제도적 변화는 불교 공동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더 넓은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비구니의 인정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깊이 뿌리내린 성 역할 규범에 도전하였는데, 그곳에서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다. 승가 내에서 여성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비구니의 인정은 더 넓은 인도네시아 사회에 사회적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른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성 평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더 넓은 사회적 변화

인도네시아에서 비구니에 대한 수용과 인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가시성을 얻음에 따라,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바꾸고 여성 권한 부여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오랜 기간 동안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온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의 비구니 수계는 더 큰 사회 정의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의미한다 (Hughes, 2014).

비구니들은 불교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서도 성평등을 위한 옹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들의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비구니들은 가정 폭력, 교육 기회의 불평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같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비구니들은 세계적인 성평등 및 사회 정의 담론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테라바다 비구니 승가의 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여성 불자들은 남성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테라바다 비구니 승가의 존재는 이들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SAGIN 내 테라바다 비구니 승가의 존재는 수행 공동체 (monastic community) 내에서 남녀 수행자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보다 조화롭고 포용적인 수행 방식을 촉진한다. 이러한 협력적이고 성평등을 반영한 종교 실천의 모델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불교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론

인도네시아에서 테라바다 비구니의 발전은 불교 승가 전통에서 성평등을 향한 중대한 진전을 나타낸다. 비구들의 적극적인 지지는 여성 수계를 정당화하고 비구니들이 승가 공동체에 통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호 지지는 비구니의 제도적 인정뿐만 아니라, 성평등과 불교의 핵심 가치인 지혜, 자비, 상호연관성을 증진하는 협력적인 승가 공동체 모델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일부 비구니들이 비구 승가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논문은 승가 아궁 인도네시아 내의 테라바다 비구니 승가가 비구들로부터 강한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승가 아궁 인도네시아는 테라바다 전통 내에서 비구니 승가의 부활을 크게 가치 있게 여긴다. 그들은 여성들이 비구니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그들에게 담마비나야(Dhammavinaya,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를 공부하고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비구니들의 인정과 권한 부여는 불교 공동체와 인도네시아 사회 모두에 깊은 함의를 갖는다.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성별 규범에 도전하고 사회적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여성을 비구니로 수계하는 것은 더 포용적이고 평등한 종교 수행 접근법에 기여했다. 비구와 비구니 간의 협력이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불교의 미래를 형성함에 따라, 그것은 종교적 맥락에서 성평등에 관한 더 넓은 세계적 담론을 위한 희망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References

- Buddhadharma. (2015). *Gender and the Buddhist community: The role of women in Buddhism*. Dharma Publications.
- Dhammapada*. Trans. Thera, Narada. Sri Lanka: Buddhist Culture Centre, 2000; Tin, Daw Mya. Trans. The Dhammapada, Verses and Stories. Burma: The Burma Piṭaka Association, 1985.
- Harvey, P. (2013). *An introduction to Buddhism: Teachings, history, and practice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ghes, R. (2014). *Women and social change in Indonesia: A feminist perspective*. Routledge.
- Jormakka, M. (2015). *Gender equality in Buddhist monasticism: A global perspective*. Buddhism Today.

- Silvita, Medya. (2015). "Jinakumari: The first Bhiksuni". 14th 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Women: Compassion and Social Justice. Sakyadhita: Yogyakarta.
- Sung, T. (2016). *The role of bhikkhunis in modern Theravāda Buddhism*. Journal of Buddhist Studies, 33(2), 156-175.
- Surya, J., et al. (2020). Theravāda Bhikkhuni of Sangha Agung.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and Education and Technology (ISET 2019), Semarang: 29 July 2022. 353-358. <https://doi.org/https://doi.org/10.2991/assehr.k.200620.069>
- The Book of Discipline*. Vol. V. (1975). Translated by I.B. Horner. London: Pali Text Society.
- Wilkinson, R. (2013). *Buddhism in Indonesia: Cultur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세션 1 태양이 결코 지지 않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승가의 역할

5

So That the Sun May Never Set: The Role of Monasticism in Sustaining the Buddhisthharma

비구니 툽텐 람셀 (Bhikshuni Thubten Lamsel)

(lamsel@sravastiabbey.org)

[번역: 김재경(국제포교사)]

현대 사회에서 불교 사원과 승려 공동체는 더 이상 붓다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유일한 중심지가 아니다. 법당, 온라인 강좌, 재가 교사 및 세속 불교가 확산되면서, 불교의 사부 대중은 출가 승려 공동체가 현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르마굽타카 율(Dharmaguptaka Vinaya)에서 “프라티목샤 경(Prātimokṣa Sūtra)을 지키지 않고 포사다(poṣadha)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것은, 해가 저물어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양한 경전 자료에 따르면, **샤카무니 붓다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승가 공동체가 존재하여 규범적인 사원의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가르침의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i) 승려 공동체의 존재와 붓다 가르침의 지속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ii) 스라바스티 승원(Sravasti Abbey)에서 비구니 승가(bhikṣuṇī saṅgha)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프라티목샤를 준수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단기 및 장기적 이점을 논의하며, 승려 공동체 내에서 수행되는 수도 생활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한다. 붓다의 출가 제자가 공동체 수행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계율을 순수하게 지켜 열 가지 혜택을 실현하며, 정해진 사찰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붓다의 가르침이 결코 쇠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부 대중 모두에게 이익이 됨을 밝힌다.

현대적인 맥락에서, 사찰과 승려들이 더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유일하거나 중심적인 허브(hub) 역할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Dharma)센터, 온라인 학습 과정, 재가 교사, “세속 불교 (secular Buddhism)”가 넘쳐난다. 부처님의 사부대중(fourfold assembly) 모든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불교교단(Buddhist community, 승가 공동체)이 할 수 있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 – 또는 어떤 역할이 있나요? 부처님 자신의 말씀,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다’이다.

여러 경전 출처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Sakyamuni Buddha)은 완벽하게 기능하며, 규정된 사찰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승가 공동체 (monastic community)를 자신의 가르침을 오래 지속하는 데 필수조건이라고 여겼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불교교단의 존재와 부처님 가르침의 지속성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고, (2) 스라바스티 애비 사찰(Sravasti Abbey, 승원)에서 비구니 불교교단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해 온 영향력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개인과 사회 모두에 대한 계율(Pratimoksa) 유지의 단기 및 장기적 이점이 논의되고, 불교교단에서 승려의 특별한 힘이 강조될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불교교단에서 수행하고, 열 가지 이익이 따르는 계율을 청정(순수)하게 지키고, 정해진 사찰 의식을 행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태양(빛)이 결코 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때, 사부대중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계율(Pratimoksa)의 힘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승려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지속하는 데 있어 독특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내가 열반에 들어간 후에 청정한 수행자에게 보호자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이제 내가 계본 경 (Pratimoksa Sutra)과 훌륭한 계율(Vinaya)을 잘 가르쳤으니, 내 열반후에 이것들을 세존(World-honored One)으로 여겨라. 이 경이 세상에 오래 남아 있다면, 불법이 널리 퍼질 것이고, 널리 퍼짐으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계본 경을 지키지 못하고, 포살(posadha)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해가 지고, 그때 온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는 것과 같다.¹

팔리 경전 (Pāli canon) 전반에 걸쳐 석가모니 부처님은 각각의 사부대중, 즉 구족계를 받은 남자 승려(비구, bhiksus),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승려(비구니, bhiksunis), 그리고 오계를 지키는 남녀 재가자(평신도)로부터 유능한 제자가 나올 때까지는 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셨다.² 부처님은 왜 자신의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계본 경의 존재, 특히 포살(팔리어: uposatha)을 수행할 수 있는 승려 덕분이라 했을까? 율장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광범위한 일부 과거 일곱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 보다 오래 지속된 이유로서 광범위한 가르침에 대한 설명과 승려 계율의 확립 덕분이라 하셨다.³ 끈으로 함께 묶여 있는 꽃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계율에 '묶인'(bound) 승려들은 부처님의 열반을 따라 흩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불법을 지킨다. 마찬가지로, 티베트 깨달음의 길의 여러 단계 (Tibetan : Lamrim, 티베트어: 람림)에 대한 티베트 불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에서 보면, 귀중한 인간생활'의 주제는 "중심 땅(central land)"에서 사는 것- 즉 세 가지 주요 계율 의식을 수행하는 비구 또는 비구니 교단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는 것-을 자신의 가르침 수행에서 성공하기 위한 18 가지 필수 조건 중 하나로 간주한다.⁴

각 계율을 제정할 당시- 승려 계율인 사분율(dharmaguptaka Vinaya)에서 비구에 대해 250 개, 비구니에 대해 348 개로 제정-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제정하는 것의 10 가지 이점을 언급하셨다(표 1).⁵ 율사 비구니 우인(Vinaya Master Bhiksuni Wuyin)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의] 행동은 불법을 전파하고 승가공동체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셨고, 개인이나 불교교단 모두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수용성을 얻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⁶ 이 10 가지 이점은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해될 수 있으며), 불법이 세상에 오래 유지되는 "궁극적인"(열 번째) 이점으로 귀결된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번뇌를 억제하고, 개인적 양심과 참회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보호받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규율을 따르게 되고, 불교교단은 건강하고

¹ Bhiksu Hongchuan and Bhiksu Huaisu, *Dharmaguptaka Vinaya: Bhiksuni Posadha and Rites to Establish the Territory* (Newport: Sravasti Abbey, 2017), 45.

² Mahā Parinibbāna Sutta (DN 16); see also Bhikkhu Anālayo, *Bhikkhuni Ordination: From Ancient India to Contemporary Sri Lanka* (Āgama Research Group, 2018) 28–30.

³ Methunadhamma Bu, Pj 1. PTS 3.1–3.40 (Pali Vinayapitaka) 참조.

⁴ Bhiksu Tenzin Gyatso and Bhiksuni Thubten Chodron, *Following in the Buddha's Footsteps*, (Somerville, MA: Wisdom Publications, 2019), 115.

⁵ Venerable Bhiksuni Wuyin, *Choosing Simplicity: A Commentary on the Bhikshuni Pratimoksha*, (Snow Lion, 2001), 59. 에서 인용

⁶ Venerable Bhiksuni Master Wuyin Shih, *Living the Vinaya: An Introduction to Karmans and Skandhakas* (Newport, WA: Sravasti Abbey, 2023), 22.

청정해지며, 불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심이 강화되고, 불법은 널리 퍼져 모든 존재에게 이익을 주고, 이전의 불법은 세상에서 오래 지속될 것이다.⁷

이 열 가지 이점에는 개별 수행자 차원에 그치지 않고 계율을 옹호하는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불교교단내의 조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율을 제정하는 열 가지 이점

<p>승가의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려를 지도하기 위해 2. 승려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3. 승려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p>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5.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수행을 향상시켜서 개인의 해탈을 가져오기 위해
<p>인류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들뜬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 7. 청정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8. 현재의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9. 미래에 번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p>궁극적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부처님 가르침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 수준의 계율은 수행자가 해탈을 얻도록 이끈다 (이점 #6-9). 달라이라마 성하는 "수도승의 삶의 방식은 본질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더 높은 수행(삼학)의 발전을 돕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칭송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⁸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도 승려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승려로 남았으며, 승려 생활 방식에 구현된 윤리적 절제는 번뇌가 사라진 청정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먹고, 자고, 걷고, 말하고, 외부 환경의 다양한 측면과 교류하는 방법을 규제하는 수백 가지 계율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승려들은 강력한 마음 챙김과 내적 성찰의 알아차림(자각)이 필요하고 - 이 두 가지 정신적 요소는 집중과 지혜의 필수요소이다. 순수한 윤리적 행동에 기반하여, 몸, 말, 마음(신, 구, 의)으로 지은 악행에 대한 후회의 부담에서 벗어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집중과 해탈의 지혜가 자란다.

계율을 지니는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점 #4-5)은 사리불 존자(Sariputra)와 목련 존자(maudgalyayana)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비구 아싸지 (Aśvajit, 팔리어. Assaji)의 흠잡을 데 없는 행실에 영감을 받은 사리불은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그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고 물었다. 단순히 "연기법 진언", ("Essence of Dependent Arising Dharani")을 듣자마자 사리불은 즉시 예류과를 증득했다. 사리불은 나중에 영적 동반자 목련 존자에게 진언을 전했고,

⁷ Vinaya Master Bhiksu Benyin, *Karmans for the Creation of Virtue: The Prescriptive Precepts in the Dharmaguptaka Vinaya* (Newport, WA: Sravasti Abbey, 2003), 8.

⁸ Gyatso and Chodron, *Following in the Buddha's Footsteps*, 116.

목련 존자도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사리불과 목련 존자는 부처님께 가서 각각 지혜와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교리를 널리 가르치고 전파했다.⁹

이 이야기는 불교교단의 힘이 얼마나 그들의 인간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진정한 불법의 귀의처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책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수행자의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데 있다. 불법의 구체화된 그릇이 되어서 - 즉, 몸, 말, 마음의 행동을 통해 비폭력, 만족, 지혜의 원리를 드러내므로 - 승려들은 부처님 수행의 가르침이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식별과 가사 착용의 외적 변화를 통해 명확하게 식별되는 승가의 가시성은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즉, 적어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집착, 적대감, 무지의 표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본보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의 효능을 설파하는 것이다.

덕을 지향하는 승가 공동체

부처님은 승려들이 사찰에서 살아야(생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에 유익하다. 달라이라마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홀로 떨어져 있는 나무는 바람에 뒤들리고 쓰러지지만, 숲 속의 나무는 바람으로부터 서로서로 보호하며 함께 위로 자란다. 마찬가지로 승려들도 같은 방향으로 - 즉, 세 가지 더 높은 수행(삼학), 보리심(bodhicitta) 등이 함께 자란다. 사찰에서 - 즉, 불법 수행을 위해 설계된 환경에서- 함께 살면서, 승려들은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진전시키기 쉽다. 승려들은 부정적인 일을 피하도록 서로 지원하며, 부정적인 일을 정화하도록 서로 돕는다.¹⁰

승려들이 사찰에 살든 살지 않든, 세 가지 규정된 사찰 의식 ((포살(posadha), 우안거(vara), 자자(pravarana)) 에는 적어도 네 명의 구족계를 받은 비구와 비구니가 필요하다.¹¹ 석가모니 부처님 승가의 승려들 - 즉, "포살을 제대로 수행"하며 모여 사는 네 명이나 더 많은 승려들 -을 그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태양의 열쇠로서 규정하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함께 수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면 조화가 필수적이다. 부처님은 수행할 때, 승려의 성장을 보장하는 여섯 가지 조화를 구체적으로 제시(규정)하셨다: (1-3)에서 몸, 말, 마음의 조화, (4)에서 계율, (5)에서 의견(견해), (6)에서 필수품의 조화를 제시하셨다. 이 여섯 가지 조화는 갈등으로 만연된(고통받는) 세상에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본보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승려가 영적 동반자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몸, 말, 마음으로 자애롭게 대할 때, 그들은 신체적 폭력, 거칠고 분열적인 말, 악의에 대한 사회적 정상화에 도전한다. 승려가 승가생활의 공유된 지침을 지키고, 필수품(음식, 의복, 주거, 의약품)을 공평하게 분배하면서 함께 살 때, 그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기 중심성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 이러한 방법과 결과를 구현하는 것이 최고의 방식이며,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승가 생활의 규정과 의례에 존재하는 "안전 장치,"("Safety mechanisms")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의 청정함을 보호하고 그것이 세상에 지속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된다. 승려들은 매월 포살을 통해 잘못을

⁹ Nyanaponika Thera and Hellmuth Hecker, *Great Disciples of the Buddha: Their Lives, Their Works, Their Legacy* (Somerville, MA: Wisdom Publications, 2003), 4-11.

¹⁰ Gyatso and Chodron, *Following in the Buddha's Footsteps*, 136.

¹¹ 사분율(Dhamaguttaka Vinaya)에는 비구가 혼자서 법회를 거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구는 대중이 모일 수 있도록 법당을 준비하고, 방문 스님들이 오면 함께 법회를 거행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공동의 행위로 의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비구니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참회(고백)하고 계율의 청정성을 회복한다. 3개월간의 우기 안거(산스크리트어: varsā, 팔리어: vassa) 동안, 승려들은 공부와 수행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과를 지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안거는 매년 자자(산스크리트어: pravāranā, 팔리어: pavāranā)로 마무리되며, 각 비구니는 동료 승려들에게 안거 동안 보았거나 들었거나 또는 의심되는 모든 잘못을 지적하여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여, 이를 통해 승려자신이 수행하면서 정화하고 발전해 간다. 사찰 의례에서 요구하는 공개적인 투명성은 수행자들이 처음부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적절한 시정을 하도록 독려한다.

스승 우인(Master Wuyin)스님은 또한 이러한 책임의식이 사찰 자체에 대해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공공 기관으로서, 사찰은 "사회의 평가와 조사"를 받을 수 있다¹² - 즉,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의 부패와 위선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이다. 반면, 혼자 사는 개별 수행자, 승려 또는 재가자(평신도)는 그들의 행동이 불법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장치(mechanisms)가 거의 없다.

스라바스티 애비(Sravasti Abbey)¹³: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창조하다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윤리적 청정성이 주는 사찰 생활의 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하는 데 있어 사찰 기반 생활방식의 이점을 알고서, 비구니 툽텐 초드론(Bhiksuni Thubten Chodron)은 2003년에 스라바스티 승원을 설립했다. 승려 교단과 부처님 가르침의 지속 가능성 간의 연결은 스라바스티 사찰의 사명 선언문의 핵심을 이룬다.¹⁴

스라바스티 사찰은 윤리, 비폭력, 연민, 지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 즉, 이를 널리 공유하는 - 번창하는 불교교단(monastic community)을 지원하며, 개인의 마음과 세상에 평화를 구축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서양 토양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불교교단을 구축하고, (중생을 위한 여지) 공간이 남아 있는 한, 중생(유정)을 돕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지 주요 율장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계를 받은 비구와 비구니의 존재는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번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미국 워싱턴주 뉴포트(Newport)에 비구니 불교교단을 설립하기 위한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이 시작되었다(표 2).

표 2. 스라바스티 승원에서 비구니 불교교단 설립

년도	행사(사건)
1977년	툽텐 초드론 스님(Venerable Thubten Chodron) 인도 다람살라(Dharamsala)에서 사미니(śrāmaneri)수계 받음
1986년	툽텐 초드론 스님이 대만에서 비구니계 받음
2006년	중국 승려의 도움으로, 첫 번째 사미니와 식차마나(śrāmaneri 와 śīksamānā) 수계식이 거행됨
2008년	대만에서 첫 번째 승원(Abbey) 승려가 대만에서 구조계 받음
2011년	5명의 상주 비구니가 2개월에 한 번씩 포살 거행 가능
2014년	첫 번째 안거(varsā)와 자자(pravāranā) 거행됨

¹² Shih, *Living the Vinaya*, 24.

¹³ 사위성 승원(舍衛城 僧院)

¹⁴ <https://sravastiabbey.org/who-we-are/history/>

2018 년	첫번째 사미니/식차마나(śrāmaṇerī/śikṣamānā) 수계식이 전적으로 승원(Abbey) 승려에 의해 거행됨
2003 년	스라바스티 승원 설립
2019 년 & 2024 년	초드론 존자는 대만 포은시(Fo En Si) 사찰에서 구족계를 수여하기 위한 10 명의 증명법사 중 한 명이 되었음
그 후	구족계 수계식이 스라바스티 애비 승원에서 영어로 거행됨

이러한 노력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2003 년에 상주하는 승려 한 명에서 시작하여 현재 이 애비 승원에는 22 명이 있다: 16 명의 비구니, 1 명의 비구, 5 명의 사미니/식차마나로 늘어났다. 10 년 이상 매년 영어로 포살, 안거, 자자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애비 승원은 다른 사람들이 계율을 배우고 중요한 계율 의식을 그들 자신의 불교교단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훈련 사원"("training monastery")의 역할을 한다. 2018 년과 2024 년에 애비 승원에서 국제 율장 강좌(International Vinaya courses)가 개최되었다. 2023 년에 애비 승원 비구니들은 인도 스라바스티에서 열린 국제 비구니 안거에서 조직, 진행 및 교육을 도왔으며, 이 행사에는 다양한 국가와 수행전통에서 온 145 명의 비구니가 모였고,¹⁵ 그 중에는 1 년 전 부탄에서 최초의 근본설일체유부(Mūlasarvāstivāda) 비구니 계를 수계 받은 네팔과 부탄의 비구니가 포함되어 있었다.¹⁶

게다가 애비 승원 승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그들은 교도소 봉사에 참여하고, 노숙 청소년을 위한 지역 지원 단체의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직접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불법을 가르치고, 종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학교와 교류한다. 몸, 말 마음의 행동을 청정하게 보장하는 계율과 사찰 의식에 따라 조화롭게 함께 살면서, 개인의 계율 수행은 빛을 발산하여 사회를 이롭게 한다.

이처럼 광범위한 활동이 여성에게 구족계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수행 전통(티베트 불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애비 승려들은 대만에서 사분율(Dharmaguptaka Vinaya)의 구족계를 받고, 대만 비구니들은 이 미국 비구니 불교교단의 발전에 모든 단계에서 실용적이고 심오한 지식을 아낌없이 제공한다. 티베트 불교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도, 스라바스티 애비 승원의 실제 경험과 영향력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비구니 불교교단의 변장은 가능하고 유익하다.

결론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부대중을 설립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셨다. 또한 불법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율과 규정된 율장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족계를 받은 승려 불교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부처님은 계율을 확립하는 데 있어 광범위하고 다면적인 목적을 가지셨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개별 계율 소지자가 해탈로 인도되며 공동체와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유도된다. 승려들의 외적 및 내적 변화에 의해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본보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의 효능(효과)이 구체화되고 선포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신앙)이 새롭게 생겨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견고하게 된다. 이러한 확실한 연기법을 보면서, 승려들은 불교교단에서 수행하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열 가지 이익이 따르도록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며, 규정된 불교교단 의식을 수행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태양이 결코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¹⁵ <https://sravastiabbey.org/sravasti-nuns-at-shravasti-varsa/>

¹⁶ <https://www.lionsroar.com/women-receive-full-ordination-in-bhutan-for-first-time-in-modern-history/>

산따짜리 스님 (Rev. Santacāri)

(thantacari@gmail.com, 전화: +94-754-345376)

[번역: 김은희(샤카디타 코리아)]

미얀마의 불교 비구니들인 틸라신(Thilashin)은 역사적으로 명상, 교육, 그리고 불교 가르침을 보존하는데 헌신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틸라신은 전통을 뛰어넘어 현대적 도전과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얀마의 불교 비구니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분석하며, 전통과 현대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탐구한다.

틸라신은 구조적·문화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테라바다 불교 체계 내에서 그들은 주변화되어 있으며, 완전한 계율 수계를 받지 못하고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틸라신은 빈곤, 교육, 성 불평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불교의 원칙을 혁신적인 옹호 활동 및 지역 사회 봉사 방식과 결합하는 그들의 접근법은 현대 사회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한다.

본 연구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틸라신의 교육에서의 역할이다. 많은 비구니원은 불교학을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며, 특히 담마차리아(Dhammācariya) 및 사마네카우(Sāmanekyaw) 과정, 승가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 및 컴퓨터 기술과 같은 세속적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틸라신은 불교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통해 전통적 역할에 도전하고 불교 여성의 평등을 촉진함으로써 성 평등을 위한 변혁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부처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불교 여성들이 전통과 현대성을 잇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참여를 통해 불교와 여성 권익 증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더 큰 교육적 기회와 변혁의 선구자로서 폭넓은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론

미얀마에서 불교 여성 수행자는 *틸라신(Thilashin)* 또는 *샤얄레이(Sayalay)*라 불리며, 이는 ‘계율을 지닌 이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틸라신*은 수행, 도덕적 규율, 사회 복지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제도적 소외와 구조적 장애에 직면해 왔다. *테라바다* 불교 전통 내에서 *틸라신*은 구족계(具足戒, upasampadā)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승단 내 위계질서에서 부차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틸라신은 회복력과 적응력을 갖고 전통적 제약을 넘어 현대 사회와 혁신적인 방식으로 소통해왔다. 초기 불교 경전 중 하나인 『*테리가타*』는 여성들이 불교 사회 내에서 영적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 문화적, 제도적 제약을 초월하려 했던 역사를 보여준다(Blackstone, 1998). 이러한 전통 속에서 *틸라신*은 지속적으로 가부장적 규범에 도전하고, 현대 사회에서 불교 가르침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구현해 왔다.

이 연구는 *틸라신*이 공동체의 중요한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의 발전을 살펴본다. 교육, 성평등을 위한 실천,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틸라신*은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며, 전통과 현대를 능숙하게 조화시킨다.

이들의 기여는 성 불평등에 맞서며, 동시에 불교의 원리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자극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테라바다 불교 위계 내 틸라신의 위치

미얀마에서 *틸라신*은 테라바다 불교 위계 구조 내에서 복잡한 역할을 담당한다. 비록 이들은 윤리적 행동과 수행의 모범으로 간주되나, 종교적 권위는 제한되어 있다. *비구*와는 달리 *틸라신*은 구족계를 받을 수 없어 승단 의식과 법회 참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제약은 『율장』 (*Vinaya Pitaka*)에 기반한 전통적 해석과 연결되며, 이 율장에서는 여성이 비구와 비구니 양측 승가의 공통 승인을 통해서만 출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비구니* 승가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Analayo, 2021).

역사적으로 *틸라신*은 교육과 공식 인정의 측면에서 상당한 장애를 겪었다. 교육받은 *틸라신*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파타마빠*(*Pathamapyan*)나 *담마차리야*(*Dhammacariya*) 같은 주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한은 『율장』 중 『줄라왈가』 (*Cullavagga*)와 같은 경전에 반영된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테라바다 불교 내 체계적 성차별을 상징한다. 다음은 현재 미얀마에서 시행되는 시험들의 개요이다.

국가 주관 시험

1. *파타마빠 시험* (기초 - *물라 Mūla*, 초급 - *파타만게 Pathamange*, 중급 - *파타말라트 Pathamalat*, 고급 - *파타마지 Pathamagyī*)
2. *담마차리야 시험*
3. *오부 니까야(Five Nikāya) 시험*
4. *삼장(Tiṭṭaka) 시험* (비구만 응시 가능)
5. *논장(Abhidhamma)* 및 『*칭정도론*』 (*Visuddhimagga*) 시험 (3 단계 구성)

유명 사찰 및 기관 시험

1. *삿가시하(Sakkyasīha) 담마차리야 시험* (35 세 이하 비구 대상)
2. *삿가시하 싸사날랑까라(Sāsānāṅkāra)* 시험 (20 세 이하 사미 대상)
3. *싸사날랑까라* 시험 (25 세 이하 사미 및 28 세 이하 비구니 대상)
4. *오부 니까야 시험* (미얀마판)
5. *논장구술 시험*
6. *피따까따야빠라고(Piṭakattayapāragū)* 시험

이러한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틸라신*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국가 및 민간 시험에 점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종교 교육과 인정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전은 존재한다. 예컨대 *삼장* 시험은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비구에게만 허용되어 있어, *틸라신*은 종교적 인정과 제도적 기회에서 지속적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의례에서도 상황에서도 *틸라신*은 종종 부차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문화적 규범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는 *비구*가 자신들의 지위를 *틸라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는 관행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주변화에도 불구하고 *틸라신*은 불교 수행 내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왔다. 그들은 초대 비구니였던 *대마하파자파티 고타미*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는다. *고타미*는 여성의 구족계를 끈질기게 주장했던 인물이다(Bartholomeusz, 1994).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교육은 *틸라신*이 현대 사회와 소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였다. 현재 미얀마의 여승원은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불교 교육과 현대 교과과정(외국어, 컴퓨터 활용 능력, 직업 훈련 등)을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접근 방식은 『*법구경*』에서 지혜(반야 *paññā*)를 최고의 덕목으로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한다(『*법구경*』 제 354 계).

*틸라신*은 세계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이들은 교육과정에 외국어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자신과 제자들이 점점 더 상호 연결된 세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노력은 *틸라신*을 불교 전통의 옹호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동시에 다문화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초기 불교 스님들이 다양한 지역의 요구에 맞추어 가르침을 조정했던 선례와 유사하다.

불교 교육과 승가 교육

*틸라신*은 불교 교리를 보존하고 널리 전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이다. 이들은 종종 불교 경전과 윤리 이론 중심의 *담마차리아(Dhammācariya)* 과정이나, 경전 암송 및 해석에 중점을 둔 *사마네교랑가라(Sāmanekyaw Lankāra)*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은 『*대반열반경 (Mahāparinibbāna Sutta)*』에서 부처님이 미래 세대에게 법을 보존하고 전파할 것을 당부한 말씀과 일치한다(『*장야함경*』 제 16 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틸라신*의 기여는 *비구*의 기여에 비해 충분히 문서화되지 않았다. 『*싸사나웅사 (Sāsanavum̐sa)*』, 『*싸사날랑가라 (Sāsanālankāra)*』 등 *비구* 중심의 포괄적 승가 역사 서술은 존재하나, *틸라신*에 대한 유사한 문헌은 부족하다. *틸라신 싸야 킨(Thilashin Saya Kin)*, *틸라신 매 낫 페(Thilashin Mae Nat Pe)*와 같은 저명한 *틸라신*들도 역사 기록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불교 내 여성 기여에 대한 일반적 문화적 무관심을 드러낸다.

세속 교육과 지역사회 성장

*틸라신*은 점진적으로 교육과정에 세속 교육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적 프로그램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 통합적 접근은 특히 여성과 소녀와 같은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많은 여승원은 현재 재봉기술과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재봉을 배운 여성들은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지역사회 내 빈곤과 의존의 악순환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일부 여승원은 문해 교육, 컴퓨터 교육, 리더십 훈련 등을 확대하여, 점점 더 상호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법구경*』 제 183 계에 나오는 ‘*건전한 행위(쿠살깜마파타 kusalakammāpatha)*’라는 부처님의 원칙을 구현한다. 이 원칙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행위를 장려한다. *틸라신*은 이러한 원리를 수행과 세속적 필요의 통합을 통해 실현하며, 전통 불교 개념과 실용적 기술을 접목한 총체적 교육 체계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과 소녀에게 세속 교육과 불교적 통찰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며, 뿌리 깊은 가부장적 규범에도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 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 접근 방식은 현대 사회 속에서 불교 이상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한다. *틸라신*은 자비, 지혜, 윤리행이라는 고대의 원칙을 현대 문제 해결에 적용함으로써, 고대 가르침을 오늘날에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들은 세속적 기술과 영적 성장을 연결하여, 전통 불교 원리를 현대적 맥락 속에서 구체화한다.

성평등의 발전

구조적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틸라신(Thilashin)은 성평등의 옹호자로 등장한다. 이들은 교육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를 촉진한다. 이러한 활동은 초기 불교 여성의 영적 성취와 문화적 제약에 대한 극복을 기리는 『테리가타(Therīgāthā, 比丘尼偈頌)』의 정신과 일치한다 (Blackstone, 1998).

틸라신은 지역 및 국제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별을 기반한 폭력의 감소, 교육 접근성, 경제적 자립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이러한 활동은 불교 여성들이 변화의 촉매자가 되는 전환적 역량을 드러내게 한다.

틸라신의 현대성과의 접점은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들은 국제 불교 회의와 수행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전 세계 불교 공동체를 강화한다. 이는 다양한 대중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의 지혜(方便, upāya)를 찬탄하는 『방편경(方便經, Upāya Kausalya Sūtra)』에서 드러나는 유연한 포교의 특성과 맥을 같이한다.

전통과 현대의 통합

틸라신이 수행에 임하는 태도는 전통과 현대의 통합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들은 팔계(八戒)를 준수하고 도덕적 규율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환경과 기술 발전 같은 현대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일부 비구니 수행처는 유기농 정원 조성이나 쓰레기 감량 활동 등 친환경적 활동을 도입하며, 모든 생명에 대한 자각과 공경이라는 불교적 가치가 생태학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틸라신은 교육 과정에 기술 혁신을 통합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가르치며 공동체가 현대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들은 고대의 가르침을 현대적 상황에 연결하고, 자비(慈悲), 지혜(智慧), 윤리적 실천[계율(戒律)]이라는 불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틀 안에서 구현한다.

결론

틸라신은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현대 문화의 복잡성을 능숙하게 헤쳐 나가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교육, 실천 운동,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며, 성평등, 포괄적 발전, 정신적 성숙을 증진한다.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일은 보다 포용적이고 공감력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목소리를 드높이고 제도적 장벽에 맞서면서, 틸라신은 전통과 현대 사이의 간극을 조화시키며 공동체 의식, 회복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 Dhammapada*, O. Von Hinuber and K. R. Norman. London, PTS, 1995.
Dhammapada Aṭṭhakathā, I-IV. H. C. Norman. London, PTS, 1970.
Therīgāthāṭṭhakathā, I-III. F. L. Woodward. London: PTS, 1971-1984.
Therīgāthā and Therīgāthā Pāli. H. Oldenberg and R. Pischel. London: PTS, 1966.

Secondary Sources

- Bartholomeusz, Tessa J. *Women Under the Bo Tree: Buddhist Nuns in Sri Lank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Falk, Monica Lindberg. *Establishing Fields of Merit: Buddhist Female Ascetics and Gendered Hierarchies in Thailand*.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 Kawanami, Hiroko. *The Renunciation and Empowerment of Buddhist Nuns in Myanmar (Burma)*. Brill Academic Publishers, 2013.
- Salgado, Nirmala S. *Buddhist Nuns and Gendered Practice: In Search of the Female Renuncia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chober, Juliane. "Buddhist Monasticism and Society: Myanmar and Southeast A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46, no. 3, 2015, pp. 391 – 413.
- Than, Tun. "Education in Myanmar: Role of Buddhist Nunneri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vol. 22, no. 1, 2019, pp. 45 – 58.
- Blackstone, Kathryn R. *Women in the Footsteps of the Buddha: Struggle for Liberation in the Therīgāthā*. Curzon Press, 1998.
- The Skill in Means.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1994.
- Bhikkhu, Analayo. *Daughters of the Buddha: Teachings by Ancient Indian Women*. Simon and Schuster, 2022.
- Bhikkhu, Analayo. *Superiority Conceit in Buddhist Traditions: A Historical Perspective*. Simon and Schuster, 2021.

세션 2A 변화하고 있는 부탄 비구니 승가의 여정에 관하여

2 On the Transformative Journey of Female Monastic in the Kingdom of Bhutan

남갈 라모 스님(Namgyel Lhamo)

nlhamo@bhutannuns.org

번역: #법현스님a

강한 여성은 자신을 위해 일어난다. 더 강한 여성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일어난다.

지난 10년간 부탄의 비구니 및 비구니 수행처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부탄의 여성 수도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비구니 및 수행처의 역사와 수행 방식, 생활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위대한 학자와 스승들의 전기를 읽으며 뛰어난 여성 수행자들과 비구니들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불교가 부탄에 전래된 이래 여성 수행자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서론

부탄은 국민총행복 vs well-being 개념으로 널리 알려진 작은 히말라야 왕국이다. 이 개념은 국가 발전을 물질적 부가 아닌 시민들의 정신적 웰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부탄은 불교국가로서 국민 대다수가 마하야나 불교, 대승불교, 를 따르고 수행하고 있다. 부탄의 불교는: 세기에 인도의 성자 파드마삼바바 구루 린포체, 가 부탄을 방문하면서 전해졌으며 이후 많은 티벳과 인도의 학자들과 수행자들이 티벳과 인도에서 부탄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페마 링파, 테시 텐진, 답게, 페카르, 중니, 같은 위대한 스승들도 부탄에서 태어나 불법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구루 린포체는 부탄의 구석구석 모든 곳을 축복하였으며, 우바새, 우바이, 남녀 재가자, 들에게 서원을 부여했다고 전해지며 오늘날까지도 모든 부탄국민이 이 서원을 지니고 있다.

부탄 첫 번째 승가의 기원

불교가 부탄에 전해진 것은 3세기이지만 사찰에 대한 첫 기록은 자브룽 응가왕 남겔이 부탄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고, 차그리 왕리, 함는 사찰을 창건하여 3명의 승려들이 수계를 받은 9세기에 나타났다. 부탄에서 최초의 비구니 사찰이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7세기와 8세기에 활동한 몇몇 유명한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페마 링파의 손녀인 아니 초르텐 장모는 그녀의 수행으로 유명한데, 드랍체, 드룹추, 곤파라는 사찰을 지었고, 이 사찰은 지금까지도 비구들의 승가대학으로 존재한다.

49세기에는 7대 트룩, 테시 텐진, 답게 부탄의 재가 통치자, 가 7명의 유명한 여성 제자를 두었는데 한 명은 테시와 자매인 요가 수행자 비구니 제춘마이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테시의 딸인 다참 쿤레였다. 4: 세기경에는 5대 제, 텐포, 소남, 요에세르의 제자였던 유명한 요가 수행자, 춤미, 제춤마, 로페마, 린첸 장모, 아니 응아왕, 페마가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7세기부터 부탄에 비구니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부탄에서 등장한 위대한 스승들의 전기를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 대부분은 수계와 교육, 가르침을 받기 위해 티벳으로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일을 했던 여성들도

변화하고 있는 부탄 비구니 승가의 여정에 관하여 (남갈 라모)

논문발표 세션 2A - 2: 2025. 6. 17. (화) 12:30pm ~ 1:40pm (70 분)

있었으니 #부탄의 #초대 #왕의 #딸인 #콘 추크 #왕모 #공주도 #그중 #한 #명으로 #그녀는 #나중에 #제49대 #카르마파의 #유명한 #여성 #체자가 #되었다 #

현재 #부탄에는 #63개의 #비구니 #사찰이 #있으며 #약 #833명의 #비구니가 #있다 #그리고 #내가 #부탄 #비구니 #재단 #QI, 에서 #일하는 #동안 #기쁘게도 #사찰과 #비구니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

여성들은 어떻게 비구니가 되기를 선택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는 #일반적인 #질문이 #있는데 #부탄에서는 #여성들이 #어떻게 #비구니가 #되는 #선택을 #하는가 B이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 4 #진심으로 #제 #속적 #삶을 #떠나는 #사람들 #
- 5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
- 6 #경제적으로 #필 #체택을 #받은 #가정에서 #은 #사람들 #

첫 #번째 #그룹은 #불교 #수행에 #인생을 #바치는 #반면 #나머지 #두 #그룹은 #비구니로 #삼거나 #나중에 #사찰을 #떠난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수행자를 #신성하고 #순수하며 #결점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데 #이러한 #요해는 #수행자들이 #불법과 #인연 #했는데 #쌍기적으로 #쌍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비구니는 #떠 #나온 #인간이 #되기 #위해 #불교의 #바르침을 #바르려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 #한다 #

비구니사찰의 기능

보통 #비구니사찰은 #제 #바지 #부분으로 #구 #성된다 # #드라창 #사미니들이 #기본 #승가교육을 #받는 #주요 #부분 # 5 #웨드라 #비구니들이 #주로 #정경과 #철학을 #공부하는 #승가대학 #6 #드롭드라 #비구니들이 #다양한 #단계의 #명상을 #수행하는 #안거 #센터 #그러나 #모든 #사찰이 #세 #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구니들은 #비구들과 #같은 #교육을 #받은 #수 #있는 #체택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은 #개선 #이 #이루어졌다 #

비구니 교육

과거에는 #비구니들이 #비구들과 #동일한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은 #수 #없었다 #그들은 #불교 #리레 #집전에 #대한 #훈련을 #받거나 #안거에 #들어가는 #것만 #했으며 #그때는 #그것에 #만족하고 #행복했었다 #나는 #346년 #QI 에 #합류하고서 #부탄을 #돌아다니며 #비구니 #사찰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몇몇 #사찰들만이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찰들은 #기본적인 #습의와 #의식 #집전을 #위한 #훈련만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비구니 #교육은 #중요한 #우선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다 #비구니 #사찰의 #리더들과 #은 #영자들은 #비구니들을 #위한 #고등 #교육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통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술이나 #영어와 #같은 #현대 #교육에도 #관심을 #가진 #비구니들을 #직접 #보았다 #좋은 #소식은 #지금 #거의 #모든 #비구니 #사찰이 #자체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역사 #및 #박사학위를 #비구들과 #숙련된 #교사들 #전통 #의학을 #교육받은 #비구니들도 #있다 #

권리와 역량 강화

비구니 #사찰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경제 #성장 #사회적 #이동성 #측면에서도 #활전을 #가져오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우리 #비구니들은 #자신의 #역량을 #인식하고 #작은 #체계를 #넘어 #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오한 #불교 #철학 #명상 #수행 #현대 #교육 #그리고 #생활 #기술 #훈련은 #그들이 #현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하도록 #도왔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힘이 #넘치지만 #내면에서는 #평화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불교의 #가르침이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의 #간극을 #연결하는 #올바른 #길을 #바르친다고 #믿는다 #우리는 #항상 #달라이 #

라마#존자##제: 3대#제킨포##가르마파##중사르#잠양#진체#진포제#같은#위대한#스승들로부터#이#메시지를#들어왔다#지성을#발전시키기#위해#교육은#매우#중요하지만#우리가#진정으로#지혜롭다고#여겨지려면#마음가짐과#행동을#정찰하여#평온하고#차비로운#사람이#되어야#한다고#하셨다#

‘3E; 교육(Education), 경험(Experience), 노출(Exposure)’을 통한 비구니들의 변화의 가능성#그들은#앞에#나서#모임에#당당히#참여하고##사신의#문제를#공유하며##태결책을#제시하기도#한다#비구니#사찰에서#나타나는#이러한#긍정적인#변화들을#보며#지역사회#사람들은#비구니#사찰을#방문하고##법회에#참여하며##필요한#경우#비구니들에게#조언과#지지를#구하기도#한다#많은#비구니들이#지역#주민들로부터#과거보다#훨씬#더#많은#존중과#감사를#받고#있다고#말한다#여성은#대체로#본능적인#모성애를#지니고#있기에#비구니들은#가정#내#문제들을#진심으로#다들#수#있다#그래서#사람들은#비구니들에게#상담을#요청하고##이는#상호#신뢰로#이어진다#이러한#이유로#많은#사람들이#비구니들의#법문을#듣고#깊어하고##그들을#침으로#초청해#의식을#해주길#바라는#것이다1

5349년#한#유엔#여성#직원과#처는#건강#인식#프로그램을#위해#사찰과#지역사회를#방문했다#우리는#한#여성#그룹에게#비구니에게#법문을#들으러#사찰을#방문할#의향이#있는지#물었다#그들은#순수한#표정으로#법문은#비구들로부터#듣는#것이#비구들로부터#듣는#것이#아니라고#대답했다#왜#그렇게#생각하느냐B는#질문에#그들은#그동안#라마나#비구들만이#법문을#하는#것을#보았고#비구니가#하는#모습을#본#적이#없다고#했다#그래서#우리는#비구니들이#법문하는#프로그램을#마련하겠다고#제안했고#그들은#동의했다#우리의#요청에#따라#비구니들은#법문#프로그램을#조직하기로#했고#일주일#후#그#여성들이#법당에#모여#비구니들의#법문을#듣게#되었다#그들은#자신감#있게#훌륭한#법문을#전하는#구입#비구니를#보고##가까이에#이렇게#지혜로운#비구니가#있다는#사실에#매우#놀랐다#이후#우리는#지역#여성들로부터#전화#연락을#받아#그들의#경험을#공유하며#올바른#길을#보여줘서#고맙다는#말을#들었다#

더#나아가#다양한#사찰에서#비구니들과#만나며#듣는#이야기#중에는#지역#주민들과의#관계가#시간이#지나며#긍정적으로#바뀌었다는#것이#많았다#한#예로#지역#주민들이#수확한#농산물을#비구들과#똑같이#비구니들에게도#공양하는#일이#생겼다#또한#비구니#사찰을#방문하며#채소#과일#달걀#등을#가져오는#모습을#자주#보았다#이는#그들만의#방식으로#존경심을#표하는#단단하면서도#아름다운#전통적#현이다#그들은#몇#번이나#이같은#현을#아며#나를#찾아왔는데#그들이#한#말#중#가장#아름다운#것은#여성을#교육하면#국가를#교육하는#것과#같다#는#것이#었다1

제도적 발전

초기에는#비구#주지스님들이#비구니#사찰의#모든#결정을#내렸다#그들은#비구니들이#무엇을#해야#할지#남성의#관점에서#결정했는데#중종#비구니들의#침장에서#적절하지#않은#경우가#있었다#예를#들어#화장실#설계조차도#남성의#시각에서#이루어져#비구니들에게#불편함을#주었다#또#다른#예로#비구니들이#이끄는#법회는#매우#길게#진행되어#비구니들이#개인적인#용무로#화장실을#가야#할#때#큰#어려움을#겪었다#현재는#몇몇#비구니#사찰이#시니어#비구니들의#리더십#아래에#있으며#이들은#비구니스님들의#편의와#복지를#고려해#그들만의#경험에#기반한#결정을#내린다#이는#매우#합리적인#변화라#하겠다#

비구니#사찰에는#다양한#배경을#가진#여성들이#들어오며#일부는#특별한#관심과#보살핌이#필요할#수#있다#수장이#비구니인#경우##이러한#상황을#더#적절히#대응할#수#있다#다양한#배경의#여성들이#한#공간에서#함께#살아가는#사찰을#관리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그러나#책임#진#비구니나#여성#위원회가#함께#협력함으로써#비구니들이#편안한#환경에서#지낼#수#있도록#하고#있다#이는#여성들이#스스로#책임#지고#나설#때#가능한#일이다1

비구니 수계

534: 년/EQI 의#지원을#받아#현#정적#지도자인#세: 3대#켄포#트롤쿠#지그메#드락#존자께서#부나가의#상첸#도르지#렌드룸이라는#비구니#사찰에서#드록파#카규#전통의#여성#출가자들에게#47: 명에게#갯술마+Weq irivme/#사미니, #계를#수여했다#이는#존자께서#여성#출가자들에게#처음으로#갯술마#계를#수여한#사례이며#이는#비구니들이#자신의#권리를#주장하며#앞으로#나아갈#수#있게#한#중요한#첫걸음이었다고#본다#5346년#5월#월린#제4회#국제회의에서는#비구니#구족계#수계에#대한#논의가#처음#제기#되었고#이후#EQI 는#처의#3년#동안#이#문제를#숙고해#왔다#구족계#수계#비구니계, 에#대한#논의는#수십#년#동안#중심적인#주제였다#나는#5337년부터#5346년까지#인도#바라나시에#있는#증양#티베트#고등#불교대학에서#공부하던#시절#몇몇#서양#비구니들이#진행한#구족계#수계에#대한#강연#시리즈에#몇#차례#참석한#적이#있었다#그#당시에는#이#주제에#대해#잘#몰랐지만#시간이#흐르면서#이것이#논의되고#실천되어야#할#중요한#사안이라는#것을#점차#깨닫게#되었다#그리고#마침내#5355년#9월#54일#그#꿈이#현실이#되었다#세: 3대#켄포#트롤쿠#지그메#드락#존자께서#부탄과#인근#국가#출신의#비구니#77명에게#최초로#구족계#비구니계, 를#설한#것이다#당시#나는#그#그룹의#일원으로서#수계를#받을#수#있었고#이는#매우#큰#영광이었다#그날의#경험은#우리#모두에게#인생을#바꾸는#사건이었으며#동시에#비구니들이#켄포#네 irq s #주지, #라마#린포체라는#사회적으로#깊이#존경받는#칭호를#받을#수#있는#길을#여는#큰#전환점이#되었다1

부탄의 비구니들과 비구니 사찰 지원

부탄에는#약#63개의#비구니#사찰이#있으며#이#중#곳은#부탄#정부의#지원#아래#증#드라창#왕실#승가단, #소속으로#운영된다#나머지#사찰들은#민간#단체#후원자#지역사회로부터#지원을#받아#운영되고#있다#533<년#왕비#어머니#세링#양돈#왕축의#후원#아래#부탄#내#비구니들의#복지를#위해#EQI 가#설립되었다#그#이후로#EQI 는#전국의#비구니#사찰들과#긴밀히#협력해#왔다#EQI 는#부탄#정부#유엔#그리고#기타#비정부기구+QJ R, 들과#파트너십을#맺고#비구니들의#교육#건강#기술#개발#원리#보호#등#다양한#분야의#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이외에도#개인#후원자와#자원봉사자들과#협력하여#비구니#사찰들이#기숙사#교실#부엌#화장실#식수#시설#등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특히#젊은#비구니들을#위한#영양식#비용도#일부#지원하고#있다#시대의#빠른#변화#속에서#비구니#사찰들은#단지#후원자들에게만#의존할#수#없는#상황에#직면하고#있다#이에#따라#각#사찰들은#자립과#지속#가능성을#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EQI 는#항상#비구니#사찰들에게#기생처럼#후원자에게만#의존해서는#안#된다#는#핵심#메시지를#전한다#이제는#모든#사찰이#스스로의#지속#가능성을#고민하고#공동체와#사회에#되돌려주는#방법을#생각해야#할#시점이다#비구니들과#채가#인자들#사이에는#항상#상호적인#관계가#존재해#왔다#인자들은#비구니들에게#공양금#음식#옷#등을#보시하고#비구니들은#그들을#위해#기도와#의식을#행한다1

도전 과제와 미래 전망

시대의#변화에#따라#비구니#사찰들의#필요#또한#다양한#방식으로#변화하고#있다#특히#교육#면에서#큰#어려움을#겪고#있으며#그#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고군분투하고#있다#비구들을#위한#승가대학은#비구들에#비해#특히#적으며#고등#교육을#받기#위해#인도나#기타#국가로#유학을#떠나야#하는#경우가# 많다#하지만#이러한#상황은#점차#개선되고#있다#과거에는#비구니들이#중중#종교적#역할#지도자#직책#의사#결정#과정에서#인정받지#못하고#배제되었다#여성#수행자들에게#대한#문화적#사회적#기대는#상대적으로#매우#낮았으며#많은#여성들이#출가보다는#결혼하라는#가족의#압력을#받곤#했다#또한#비구니들은#지역사회와#후원자들로부터#상대적으로#적은#지원을#받기#때문에#재정적#불안정성도#지속적으로#겪고#있다1

결론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부탄의 비구니들과 비구니 사찰이 겪어 온 큰 변화를 직접 목격해왔다.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노력해왔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나는 부탄의 비구니 사찰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과거 비구니들과 비구니 사찰에서의 생활과 수행의 역사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위대한 학자들과 스승들의 전기를 읽으며, 그 속에서 훌륭한 수행자이자 후원자였던 여성 인물들과 비구니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불교가 부탄에 전래된 이래로 여성 수행자들과 비구니들의 전통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명확한 증거이다¹

참고 문헌:

4 부탄 비구니 재단 연례 보고서

5 비구니 출트림 왕모 부탄의 비구니 사찰 / 안락환 내서 / 문셀 출판사 / 팀푸 / 5346

세션 2A 한국 비구니 승가 지도력의 역할 변화

3

The Changing Roles of Leadership of Korean Bhikkhuni Sangha

일문 스님(Cho, Ilmoon)

(imc2356@gmail.com, +821052751186)

전통적으로 불교 승가는 비구(Bhikkhu), 비구니(Bhikkhuni), 우바새(Upasaka), 우바이(Upasika)로 구성된 사부대중을 의미한다. 한국은 불교 국가로서 사부대중의 구조를 오래도록 유지해 왔으며, 역사적으로도 뛰어난 수행과 불교적 능력을 갖춘 비구니들에 대한 다양한 기록과 문헌이 존재한다.

현대 한국 불교에서 많은 비구니와 여성 불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불교 및 사회 전반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1. 서론
2. 한국 비구니 승가 개관
3. 한국 여성 불자의 현황
4. 현대 사회에서 여성 불자의 역할과 지도력
5. 결론

붓다 석가모니가 생존하던 때, 비구니 계단은 아난다의 거듭된 요청에 의해 성립되었다. 그러나 전통 불교의 관점에서 여성 수행자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점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 불교에서 여성 승려의 지위, 역할, 지도력은 남성 승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 불교 사찰에서는 여성 승려 역시 사찰의 대표나 주지로 활동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여성 승려의 권리와 의무는 보장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한국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이후 불교는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전통적으로 한국 불교 내에서 여성 불제자들은 종단과 사회 전반에서 폭 넓은 역할과 활동을 해 왔다. 오늘날까지 한국의 비구니스님들은 여타 불교권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다이나믹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 불교와 비구니 승가는 전례 없는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회 전반적인 추세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출가자의 감소와 기존 출가자들의 고령화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종교인구가 심각하게 감소되는 현상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 비구니 승가의 태동과 활동 상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향후 한국 비구니 승가가 풀어 갈 과제를 고찰해 본다.

2. 한국 비구니 승가의 태동과 현재

한국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B.C. 1 - A.D. 7)이며, 국가적으로 공인된 것은 고구려 왕조 소수림왕 2 년(A.D. 372 년) 이다. 당시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는 불교가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적합한 정신적인 지주로 여겼다. 따라서 불교는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공식적으로 국교로 채택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구니의 출가도 공식적인 기록을 가진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비구니 출가는 진흥왕 5 년(A.D. 544 년)에 공식으로 허용되었다고 한다.

삼국시대를 이은 고려시대(918-1392)는 ‘불교문화의 황금기’라고 불린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재위:918-943)은 「훈요십조」에서 고려왕조의 대업이 부처님의 위업으로 성취되었음을 알리고 불법을 잘 옹호하라는 유훈을 남겼다.

고려 시대 비구니스님들은 정식으로 계를 받고, 안거에 참여하고 수행과 각종 불사를 여법하게 하였다는 등의 수많은 역사적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비구니스님들이 가람을 수호하고 전법교화에 힘쓰는 등 각종 불사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불교 진흥과 개인의 계발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시대(1392-1910)에 들어서면서 한국불교는 조선 왕조의 ‘승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탄압을 받았다. 많은 불교 억압 정책 가운데, 특히 출가 승려가 되는 국가적인 관문인 ‘승과’가 폐지되고 비구 출가자 중심의 인재 양성과 보급에 차질이 생기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불교를 리더할 비구 승단의 정치적 역량과 체계가 급격히 무너져 가는 상황이었다.

이때 비구니 승가를 이끈 비구니 리더들은 왕실 등 상류층 재가불자 여성들과 협동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여 불교의 명맥이 이어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주체적이고, 자신감 있고, 민심과 정치적 동향을 잘 파악하여 시대적 흐름에 지혜롭게 대처하였다.

20세기 초 개항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불교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이 시대는 한국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고, 비구니공동체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초기 비구니 강원을 설립하여 배움의 장을 늘려 나갔다.

대선지식 만공스님과 한암스님 문하에서 훌륭한 비구니 선객들이 대거 배출되었다. 이로써 단기간에 비구니 동체의 응집력이 높아지고 리더십을 갖춘 비구니들이 많이 등장하여 오늘날 한국 비구니 승가 저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비구니스님들은 초토화된 전국의 사찰을 묵묵히 복원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버려진 사찰과 폐사지로 들어가 목숨 걸고 재건에 힘썼다. 그들은 어렵게 건립한 사찰을 중심으로 활발히 포교를 했고, 점차 여성 출가자가 늘어났다. 비구니스님들은 산내 암자나 별도의 비구니 수행처에서 독립된 상태로 사찰을 운영하고, 수행과 학문, 포교를 원활히 펼치면서 오늘날까지 경제권과 조직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3. 한국 비구니 승가 지도력의 변화

한국 비구니 승가 지도력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불교계 내외에서 역할의 확대

전통적으로 한국 비구니 승가는 수행, 전법, 가람 수호 등 승가 본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왔다. 오늘날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의 강화

비구니 승가는 학업과 수행은 기본이고, 현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이웃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비구니 승가는 일찍부터 전문적인 여성 성직자와 수행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셋째,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

오늘날 우리 사회 교계 안팎의 여러 분야에서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유능한 비구니스님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될 것이다. 일례로, 이미 입적하신 한마음선원의 비구니 대행큰스님(1927-2012)은 생전에 한국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한마음 선원 분원을 열고, 사부대중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와

같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구니 승가는 왕성과 전법과 포교활동으로 사회적 영향력과 호응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넷째, 제도적 불평등 극복을 위한 노력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특징은 사원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과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에서는 여전히 비구니 승가의 지위가 불평등한 제도들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유능한 비구니 스님들의 인지도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도 중앙 종단 교역직의 절대 다수는 비구스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권리 행사와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가진다.

한국 비구니 승가는 비구니스님들이 자체적으로 수행과 전문성의 강화,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다.

1) 한국 비구니 승가의 중심 전국비구니회

전국 비구니회는 한국의 비구니 승가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1968년 '우담바라회'로 처음 출범하였다. 1980년 전국비구니회로 개명하고 현재에 이른다. 전국비구니회는 1991년 세계여성불자대회 참석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 전국 비구니회관 법통사를 창건하여 다양한 교육 및 포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는데, 주요 활동과 성과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비구니 복지 확대

한국 불교의 승가는 복지시설 활용이 타 종교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병약하고 연로한 비구니스님들을 위해, 의약,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전용 복지요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복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수행과 전법활동 지원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들의 수행과 전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불교문화콘텐츠 포교 사업을 지원하는 등 수행과 전법활동을 지원한다.

(3) 교육의 체계화

전국 비구니회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연수교육 무료 실시, 템플스테이 등 전문가 과정 정기교육, 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한다.

(4) 사회적 참여

전국비구니회는 현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지도, 단위 사찰 운영과 포교 전법 활동, 복지시설 운영 및 문화활동 등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참여를 폭 넓게 실천하고 있다.

2) 한국 비구니 승가의 과제

현재 한국 불교는 출가자 감소, 출가자의 고령화, 출가자의 노후생활 복지 보장, 제도적 불평등 극복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출가자의 감소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한 현상으로, 저출가 시대에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다.

출가자의 고령화 문제는 한국 비구니스님들의 수행환경과 노후 생활, 복지 보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출가자의 복지 문제는 천주교나 원불교 등 이웃 종교들과 비교해 볼 때, 케어 시스템이 열악한 현실이다 이는 종단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끝으로, 종단 차원의 제도적 불평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능력 있는 비구니 인력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인력 활용에 있어서는 신심 있는 재가 여성 불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조를 유도하고,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여성 출가자와 재가자의 의견과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맺음말

한국 비구니 승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다. 그것은 한국 비구니스님들 특유의 겸손과 상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자신과 윗대 스님들에 대한 일화조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몇 십 년 사이 스님들의 인식이 변하여 기록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한국 비구니에 대한 학문적 전문적 자료화와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 비구니 승가가 사회와 종단 내에서 행사한 역할과 리더십에 관해서 한국 비구니 승가를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국비구니회는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 원력을 실천하고, 종단과 문증을 초월하는 한국 불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과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 본 과거와 현재의 한국 비구니 승가는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불교와 대중을 리드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비구니 승가의 역할과 리더십은 미래를 선도하는 희망으로써, 끊임없는 정진과 발전을 기대해 본다.

세션 2A 감사와 주도적으로 행동하기: 전환기에 있는 불교 여성으로서 변화 탐색

4

Gratitude and Taking Initiative: Navigating Change as a Buddhist Woman in Transition

사미니 아리야 담마지비 (Sāmanerī Ariyā Dhammajīvi)

(ariyadhammajivi@gmail.com)

[번역: 성경자(샤카디타 코리아)]

나는 사마네리 아리야 담마지비(Sāmanerī Ariyā Dhammajīvi)이며, 본명은 말라이 아우치(Dr. Marlai Ouch)로, 캄보디아 비구니 승가 이니셔티브(Cambodian Bhikkhuni Sangha Initiative) 공동 창립자이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서 교육 리더십(Educational Leadership)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담마다리니 사원(Dhammadharini Monastery)의 주지인 존경하는 타탈로카 테리(Venerable Tathālokā Therī)스님께서 지난 7년 이상 나의 비구니 지도자 역할을 해주었다.

캄보디아 비구니 승가의 부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4년 11월 15일 보름달이 뜬 날, 캘리포니아 왓 멩콜보른(Wat Meangkolvorn)에서 사마네리 파바자(Sāmanerī pabbajjā)를 받고, 타탈로카 테리 스님을 비구니 지도자로 삼아 니사야(nissāya)를 수행하며 담마다리니 공동체에 합류하였다.

사마네리로서 감사와 주도적인 태도는 내면에 자리 잡아 비구니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받은 교육에 감사하며, 승가 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나는 전환기를 겪고 있는 불교 여성으로서, 변화를 헤쳐 나가기 위해 감사와 주도성을 활용해왔다. 감사는 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하고, 내가 받은 도움을 깨닫게 하며, 자연스럽게 그 친절에 보답하게 한다. 주도성은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고향에 대한 감사로, 나는 캄보디아 공동체에 재정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불법)에 대한 감사로, 나는 부처님의 사부대중을 완성하고 내 공동체에서 포용성을 확립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시작했으며, 이는 최근 내가 출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사미니 아리야 담마지비(Sāmanerī Ariyā Dhammajīvi)이다. 본명은 말라이 우치(Dr. Marlai Ouch) 박사로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서 교육 리더십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캄보디아 비구니 승가 재건 프로젝트(Cambodian Bhikkhuni Sangha Initiative)의 공동 창립자로 활동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담마다리니 비구니 승가(Dhammadharini Bhikkhuni Sangha)의 창립자이자 비구니 계사인 타탈로카 테리(Tathālokā Therī) 존자는 지난 7년 동안 캄보디아 비구니 승가의 부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의 비구니 멘토로 활동해 주셨다. 2024년 11월 15일 보름날에 나는 사미니계(pabbajjā)를 받았다.

사미니로서 나는 내 수행 과정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주도성을 계속 실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덕목은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다 (아사두빠자하와가, Āsāduppajahavagga).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작은 일이라도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다(제 2 싱갈라경 Dutiyasingālasutta). 수행에 대한 감사함으로 승가의 화합을 이루는 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성취할 것이다.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58

제 19 차 2025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 논문집

불자로서 나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도움은 갚을 수 없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이 신심(信心)을 가지거나 윤리적이고 관대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면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사마찌따와가 Samacittavagga).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난민 청소년 시절 잘못된 행동을 피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을 찾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매년 생일 즈음에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의식을 개최했다. 지역 사찰에서 불법 강좌를 조직하여 부모님이 지혜를 쌓도록 도왔다. 또한, 부모님이 신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도록 후원했다. 더 나아가 내가 경전을 읽는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부모님께 들려드렸다. 나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아들경 Puttasutta).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는 내가 유익한 일에 집중하도록 도왔다. 가족의 짐과 돌봄을 떠맡으면서 나의 인격이 강화되었고, 이는 나로 하여금 가족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고향에 대한 감사

나는 캄보디아에서 태어났으며, 불교가 국교인 나라이다. 청소년 시절 난민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학교를 다니며 이곳에서 삶을 구축했고, 캄보디아 공동체에 보답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친척들, 가난한 사람들, 병원들, 빨리어 교사들, 스님들, 그리고 사찰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인도와 네팔에서는 캄보디아 사찰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했다. 미국에서는 캄보디아어 강좌를 가르치고 불법 강좌를 조직했다. 세 곳의 지역 캄보디아 사찰과 크메르 여성 연합(Khmer Women's Alliance)의 적극적인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북캘리포니아에서 캄보디아 난민들의 추방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그들의 석방과 미국 시민권 취득을 가능하게 했다.

고향에 대한 감사함을 통해 친구들과 후원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왔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저의 감사함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감사

나는 13년 전까지만 해도 비구니가 존재하거나 비구니 승가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역 사찰에서 캄보디아어 수업을 가르치던 중, 타탈로카 마하테리 스님과 다른 비구니 스님이 수업 후 나를 찾아왔다. 내가 처음 만난 비구니 스님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연구를 시작하여 사부대중(비구, 비구니, 재가 남성, 재가 여성)에 관한 긍정적인 가르침을 발견하며 비구니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아래의 다섯 가지 경전 구절은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을 설립하신 의도와 목표, 그리고 그 목적을 보여준다. 이는 부처님께서 불법을 세우신 "설립 미션 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후 사부대중을 설립하려는 의도를 가지셨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다 (대반열반경 Mahāparinibbānasutta).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이 스승, 가르침(불법), 수행,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할 때 가르침이 오래 지속된다고 말씀하셨다 (끼밀라경 Kimilasutta). 또한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의 화합이 신과 인간의 이익, 복지,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승가화합경 Saṃghasāmaggīsutta).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승가는 덕행이 뛰어난 비구, 학문이 깊은 비구니, 신심이 깊은 재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깨우쳐 주셨다 (소바나경 Sobhanasutta). 부처님께서 열반 후 비구와 비구니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은 승가에게 베풀어진 가장 높은 종교적 보시였다 (보시분별경 Dakkhiṇāvibhaṅgasutta).

위의 경전 구절들은 내가 사부대중을 완성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끼게 했다. 재가자로서 캄보디아 비구니 승가의 부흥을 주도했고, 2023년 제 18회 샤키타대회에서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상좌부 불교 전통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사부대중 설립 노력을 간과하는 다양한 믿음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바로잡기 위해 나는 부처님 생존 시 인도 외 지역에서 활동했던 비구니들에 대한 기록을 공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도 외 지역에서 위대한 고대 비구니들의 기록은 스리랑카의 팔리어 연대기에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는 기원전 3세기 아소카 대왕의 불교 전파 임무로 시작된다. 스리랑카 왕비 아눌라 데비(Anula Devi)는 1,000 명의 여성 동료들과 함께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출가한 여성이었다. 그들의 출가는 인도의 황제와 스리랑카 왕 사이의 불법 외교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라한 상가밧따 테리(Arahat Sanghamitta Theri)와 아라한 비구니 승가는 성스러운 보리수 묘목과 인도에서 온 전문 지식을 지닌 대표단과 함께 도착하여 출가 희망자들을 비구니로 출가시키고 재가 공동체와 지식을 공유했다. 수계를 받은 이 최초의 1,000 명의 비구니들은 곧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 아눌라 데비 왕비는 아라한 아눌라 티사 테리(Arahat Anula Tissa Theri)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스리랑카 최초의 아라한 비구니로 기록되었다. 이후 스리랑카 총리와 500 명의 남성 동료들도 출가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러한 연속적인 출가는 스리랑카에서 사부대중과 아라한 비구-비구니 승가를 설립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고고학적 기록과 유물에 보존되어 있다 (캄보디아 비구니 승가, 2025). 연대기는 이후 몇 세기 동안 스리랑카에서 계율(Vinaya), 경(Suttas), 논(Abhidhamma)을 가르쳤던 비구니들의 짧은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팔리어 연대기에는 아소카 대왕의 동일한 포교 기간 중 인도 외부 지역으로 파견된 사절단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본토로 추정되는 수반나부미(Suvannabhumi)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신통력이 뛰어난 아라한 소나 테로(Arahat Soṇa Thero)와 아라한 우따라 테로(Arahat Uttara Thero)가 파견되었다. 그들은 모인 사람들에게 경전 범망경(Brahmajālasutta) "범천의 그물"을 설하여 귀의하고 계율에 따르도록 했다. 60,000 명이 불법에 입문하고, 3,500 명의 남성과 1,500 명의 여성이 출가했다.

그러나 누가 수반나부미에서 이 1,500 명의 여성에게 계를 주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장로 비구들이 계를 주었는지 아니면 스리랑카와 유사하게 불법을 전하는 외교를 통해 비구니들이 계를 주었는지? 이들 중 일부 또는 모두가 스리랑카에서 출가한 사람들처럼 아라한 경지에 도달했는지? 그렇다면 당시 수반나부미에는 출가한 모든 사람이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아라한 비구와 비구니들이 거주했을 것이다.

수반나부미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은 캄보디아에서 발견된다. 첫째로 산스크리트어 석판(K.1419)은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수반나부미"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 석판에는 "...위대한 왕 이사나바르만(Isanavarman)은 영광과 용기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바다까지 국경을 이루는 수반나부미를 통치하며 이웃 국가들의 왕들이 그의 명령을 머리에 받드는 왕 중의 왕이다..."라고 적혀있다. 이 석판은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둘째로 캄보디아 불교 연구소(Buddhist Institute of Cambodia)에 의해 발간된 중국 수나라 시대 기록에는 왕 이사나바르만 통치 기간 동안 많은 비구들과 비구니들이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캄보디아 불교 연구소, 1958).

더 나아가, 산스크리트어 프라브라자(pravrajyā) (팔리어 pabbajja)는 캄보디아어로 오직 출가한 승려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 'buah'로 번역되며, 출가한 젊은 여성들에게도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까지 통치했던 캄보디아 왕 자야바르만 7세(Jayavarman VII)의

왕비였던 인드라데비(Indradevi)가 남긴 프메안아카스 대석판(Great Stele of Phimeanakas)에 기록되어 있다. pravrajyā 가 buah 로 번역된 것은 출가한 여성들이 비구니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미니였음을 암시한다.

아소카 대왕의 수반나부미 불법 포교와 위의 기록들과 연결한다면 소나 장로와 윗타라 장로 비구들은 오늘날의 캄보디아보다 훨씬 광활했던 지역으로 파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사미니 혹은 비구니들이 13 세기 초까지 캄보디아에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소 두 그룹의 스리랑카 싱할라 비구니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데바사라(Devasarā) 원로 비구니가 이끈 두 번째 그룹이 5 세기 중국으로 해로를 통해 건너가 난징 사원에서 300 명 이상의 중국 비구니들에게 이중 수계를 했다(Tsai, 1994; Ven. Tathaloka Theri, 2019). 이 비구니 계보가 스리랑카에서 약 1017 년경(Gunatilake, 1997) 사라지기 전까지 유지되었으며, 1996-1998 년부터 현재까지 스리랑카 비구니 승가 재건의 기반이 되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으로 최근 "출가하여"(go forth) 승려 생활을 시작했다. 이제 승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완전히 영적인 삶을 살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삶을 공유함으로써 신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고, 이미 신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더 큰 확신을 주는 삶을 나누고자 한다.

나의 수련에 대한 감사

나는 비구니를 지지하는데 침묵해 온 지역사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부대중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출가를 선택했다. 지역사회와의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기에 캄보디아 전통 불교 출가식으로 사미니계를 처음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이 출가는 사부대중의 축하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가 출가한 왓 메앙꼴본(Wat Meangkolvorn)은 여성 출가자를 위한 숙소나 교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비구니 스승이자 멘토로서 나를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타타로카 테리 존자님과 나를 받아들이고 교육해 준 담마다리니 비구니 승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담마다리니 승원은 나의 캄보디아인 계사이신 눈 찬다라 나나디파코 마하테로(Venerable Noun Chandara Ñāṇadipako Mahathero) 스님이 거주하는 왓 메앙꼴본 근처에 위치해 있다.

부처님의 비전대로 수련하고자 하는 결의와 나의 수련에 대한 감사함을 바탕으로 승가의 화합을 주제로 삼아 이를 실천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진심으로 화합하며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섞이며 서로를 친절한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이다(빠리사왓가 Parisavagga).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의도하셨던 대로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루고, 신과 인간 모두의 이익, 복지, 행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승가화합경).

감사와 주도적인 태도는 내 삶을 이끄는 원칙이었으며, 세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 기쁨, 그리고 영감을 가득 느끼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그분들을 돕기 위한 절절한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나 자신을 돕는 과정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세션 2B 초기불교의 여성관은 남성의 금욕주의를 위협에 빠뜨리는가?

1

Does The Early Buddhist Notion on Women Endanger Male Celibacy?

쩨 티 캄 반 스님(Ven. Tran Thi Cam Van)

(camvan8190@gmail.com)

[번역: 효은스님]

불교와 성별 논쟁에 관한 서구 학계의 최초 연구는 1893 년에 발표되었으며, 캐롤라인 리스 데이비스(Caroline Rhys Davids), 메이블 보드(Mabel Bode), I. B. 호너(I. B. Horner) 등 초기 여성 불교학자들의 저작에서 비롯되었다.

19 세기 후반과 20 세기 초반에 활동한 이들 여성 학자들은 초기 불교에서 여성에 대한 문헌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현대 페미니스트인 스폰버그(Sponberg)와 다이애나 폴(Diana Paul)은 불교의 가르침을 유대-기독교 전통과 비교하여 해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불교에서 여성에 대한 해석을 네 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구원론적 포용성(Soteriological Inclusiveness), 제도적 남성 중심주의(Institutional Androcentrism), 금욕주의적 여성 혐오(Ascetic Misogyny), 구원론적 양성성(Soteriological Androgyny).

연구자는 초기 불교 교리가 성별과 여성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특히 제도적 남성 중심주의와 금욕주의적 여성 혐오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는 반(反)종교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강하게 비판받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여성을 남성의 독신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는 견해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탐구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문헌 비평(Textual Criticism) 및 질적 연구 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을 적용할 것이다.

서론

초기 불교 전통에서 성별과 금욕주의 간의 역동성은 흥미로운 이중성을 드러낸다. 한편으로, 『테리가타』(Therīgāthā)와 같은 경전들은 여성의 정신적 성취를 찬탄하고 있으며, 부처님이 여성들을 승가(Saṅgha)에 포함시킨 것은 구원론적 포용성을 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율장』(Vinaya Piṭaka)에 규정된 제도적 틀은, 감각적 욕망과 집착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반영하여, 종종 여성을 남성 금욕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캐롤라인 리스 데이비스(Caroline Rhys Davids)와 메이블 보드(Mabel Bode)와 같은 선구적 학자들은 이러한 이중적 서사를 밝혀냈다. 리스 데이비스는 여성의 정신적 역량에 대한 부처님의 인정을 강조하며, 불교 가르침의 진보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반면, 보드는 제도적 남성 중심주의로 인해 여성에게 부과된 제약을 드러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앨런 스폰버그(Alan Sponberg)와 다이애나 폴(Diana Paul)은 이러한 불교의 명백한 모순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발전시켰다. 스폰버그의 네 가지 유형론—구원론적 포용성, 제도적 남성 중심주의, 금욕적 여성혐오, 구원론적 양성성—은 초기 불교에서의 성별 역학을 분석하기 위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활용한다:

1.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율장』과 『테리가타』를 포함한 일차적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식별
2. 문헌 비평(Textual Criticism): 해당 경전들의 역사적·문화적 맥락 분석
3. 페미니스트 학문과의 접점: 2차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의 맥락화

이 연구는 교리적 포용성과 제도적 우선순위 간의 간극을 연결하면서, 불교 교리 내에서 여성이 진정으로 남성의 금욕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묘사들이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제도적 맥락의 산물이었는지를 고찰한다.

역사적 맥락: 초기 불교 가르침에서의 여성

초기 페미니스트의 참여

초기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불교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재구성하는데 공헌했다. 캐롤라인 리스 데이비즈는 『초기 불교도들의 계송』(*Psalm of the Early Buddhists*, 1909)에서 『테리가타』에 기록된 비구니들의 정신적 업적을 묘사했다. 그녀는 이러한 계송들이 “열등감이 아닌 승리의 업적을 노래한 여성적 목소리”로 해탈을 자축했다고 적고 있다. 그녀의 작업은 가부장적 해석에 도전하면서, 불교 교리의 평등주의적 잠재력을 강조했다.

메이بل 보드는 불교에서 여성의 역사적 리더십 역할들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면서 이러한 결과들을 확장시켰다. 그녀는 교리적 포용성과 제도적 한계들 사이의 긴장을 주목했다. 호너(I. B. Horner)의 『율장』 연구는 팔경계(*garudhammas*)-비구니를 비구에게 종속시킨 남성주의적 규정들-를 새롭게 조명하기에 이르렀다. 호너는 이러한 규정들이 교리적 명령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The Book of the Discipline*, Vol. IV, pp. 234-240, 1938).

스폰버그의 유형론과 페미니스트의 비판

알랜 스폰버그의 유형론은 여성에 대한 초기 불교의 태도를 네가지 측면-구원론적 포용성, 제도적 남성 중심주의, 금욕적 여성 혐오, 그리고 구원론적 양성성-으로 나눈다. 스폰버그에 따르면, ‘금욕적 여성혐오’는 여성을 남성 금욕주의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Buddhist Women Across Cultures*, pp. 10-15, 1992).

다이애나 폴은, 불교, 힌두교, 그리고 유대교-기독교의 금욕적 이상주의들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면서, 종교적 전통 전반에 걸쳐 ‘금욕적 여성혐오’를 맥락화한다. 폴은 여성을 유혹하는 자로 묘사하는 것은 내재된 교리적 중오라기보다는 각각의 전통에 공유된 가부장적 불안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Women in Buddhism*, pp. 120-130, 1980).

팔리 경전에서의 여성, 그리고 남성의 금욕주의

초기 불교에서 승려 규율의 토대가 되는 『율장』은 승려와 재가자, 특히 이성과의 상호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승가의 청정함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규칙들을 체계화한다. 이러한 규정들 가운데 바일제법(*Pācittiya*) 8 번째와 18 번째 규정은, 금욕을 보호하고 감각적 혹은 감정적 얽힘들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반영하면서, 비구(남성 승려)들을 위한 경계를 명백히 설정한다. 바일제법(*Pācittiya*) 8 번째는, ‘만약 어떤 비구라도 여성과 육체적 접촉을 하게 된다면, 이는 참회의 죄(바일제)이다(*Yo pana bhikkhu itthiyā hatthasamsaggam samāpajjeyya, pācittiyam*)’. 이 규정은 남녀 간의 접촉이 비구의 규율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감각적 욕망의 발생에 육체적 접촉을 연관시킨다. 이와 비슷하게, 바일제법 18은 ‘만약 어떤 비구라도 은밀한 장소에서 여성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면, 이는 참회의 죄(바일제)이다(*Yo pana bhikkhu itthiyā vivittam kathā vasena saddhim samsattḥo nisajjāyam bhaseyya, pācittiyam*)’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행자적 초탈과 금욕주의 보존에 대한 광범위한 불안감을 반영하면서, 사적으로 발생하는 친밀감의 제도적 우려를 강조한다.

특히, 율장은 성별을 뛰어넘는 동등한 규율을 강조하면서, 비구니에게도 유사한 행동 기대치를 적용한다. 비구니 바일제법은 위와 동일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 비구니가 남성과 육체적 접촉을 한다면, 이는 참회의 죄(바일제)이다 (*Sace bhikkhunī purisena hatthasamsaggam samāpajjeyya, pācittiyam*)’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호주의는 금욕에 대한 공통된 기대치와 육체적 접촉이 정신적 수행의 길에 방해가 된다는 상호간의 인정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남성과의 사적인 대화의 금지 또한 비구니 바일제법에 반영되어 있다: ‘만약 비구니가 은밀한 장소에서 남성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다면, 이는 참회의 죄(바일제)이다 (*Yo pana bhikkhunī purisena vivittam kathāvasena samsatthā nisajjāyam bhaseyya, pācittiyam*)’. 이러한 상응하는 규정들은 수행자의 이상을 고수하는데 있어 공통된 위협을 강조하면서, 비구, 비구니 모두에게 잘 단련된 금욕주의를 지켜 나가게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반영한다.

호너는 이러한 조항들을 분석하면서, 이 조항들을 여성에 대한 교리적 증오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실천적 방법이라고 해석한다 (*The Book of the Discipline*, Vol. IV, pp. 234–240, 1938). 호너는 이러한 규율들이 승려들의 탈세속적 삶의 방식을 지탱해주면서, 방해물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재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너는 팔경계법-비구니를 비구에게 종속시키는 특정한 규율들-을 예로 들면서, 율장의 광범위한 남성중심주의적 프레임 또한 인정했다. 육체적 접촉과 사적인 대화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일정 정도 평등주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비구니에게 부과된 추가적 제한 사항들은 성문화된 가부장적 맥락을 반영한다.

이러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비구 바일제법 8 번과 그에 상응하는 비구니 바일제법과 같은 금지조항의 동등성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성적 취약성과 수행적 성취의 잠재력의 교리적 인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이며, 세속적 삶의 포기나 명상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규율이 잘 갖추어진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성 간의 상호 관계를 통제함으로써 비구 비구니가 동등하게 불교 깨달음의 길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율장은 승가 공동체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길을 추구한다. 평등과 실용주의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강조는 가부장적인 인도 사회안에서 금욕주의를 지속하는데 있어 위협이 되는 여러 도전사항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균형 잡힌 승가관을 반영한다.

불교 서사에서 여성의 상징성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감각적 쾌락과 욕망을 남녀 모두에게 중대한 장애물로 제시하며 성별을 초월한 보편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자타카 이야기』 (*Jātaka Tales*)와 『우다나』 (*Udāna*) 속의 서사들은 감각적 유혹에 남녀 모두가 취약함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형상이나 외모와 같은 색(*rūpa*)이 욕망을 불러 일으키고 금욕적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은 종종 남성의 금욕을 방해하는 유혹하는 여자 묘사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경전들은 남성의 외모와 같은 색 또한 여성들 사이에서 욕망을 부추길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신적 수양에 감각적 쾌락이 보편적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욕망의 원천으로써의 여성: 쿰바 자타카 (The Kumbha Jātaka)

쿰바 자타카 (Jātaka No. 512)는 남성의 정신적 수행의 잠재적 방해물으로써 여성을 묘사하는 좋은 예이다. 이 이야기에서, 적대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이용해 명상중인 수행자를 유혹하려 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육체적 아름다움의 본질이 무상하고 거짓됨을 사유하고 그의 명상을 굳건히 유지한다. 이 서사는 여성을 집착의 전형으로 규정 지으면서 남성의 정신적 수행의 장애물로

특징짓는 알렌 스폰버그의 ‘금욕적 여성혐오’라는 개념과 맥을 나란히 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묘사는 승가 생활에 있어 감각적 쾌락이라는 파괴적 잠재력에 대한 초기 불교 사회의 문화적 불안을 담고 있다.

욕망의 원천으로서의 남성: 『우다나』 3.2

반대로, 『우다나』 3.2는 감각적 쾌락의 역동적인 모습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면서, 남성이라는 색의 경계가 여성들 사이에서 욕망을 자극할 수 있다는 상반되는 서사를 제공한다. 이 경은 아름다운 약혼녀, 자나빠다 칼리야니 (Janapada Kalyāṇī)에 대한 애착 때문에 출가하기를 꺼려했던 부처님의 이복동생 난다(Nanda)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약혼녀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부처님은 난다를 도리천(Tāvātimsa Heaven)으로 데려가, 그녀의 약혼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선녀들을 보여주었다. 천상의 모습에 사로잡히게 하면서 동시에 부처님은 난다에게 덧없고 허상일 뿐인 감각적 즐거움의 본질에 대해 환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사는 표면적으로는 난다가 여성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또한 색의 경계(nūpa)가 성별에 관계없이 욕망을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감각적 쾌락이 여성들에게만 내재된 고유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

욕망에 대한 상호 민감성

쿰바 자타카와 『우다나』 3.2는 모두 감각적 쾌락과 관련된 도전들에 남녀가 비슷하게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욕망의 상호적 본질을 묘사한다. 『쌍웃따 니까야』 (SN 35.120)는 더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감각적 욕망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눈과 형상을 의지해서 안식이 일어난다; 눈, 형상, 안식 이 세가지의 만남이 축이다 (Cakkhuṅca paṭicca rūpe ca uppajjati cakkhuvññāṇam, tñṇam saṅgati phasso)”. 이 가르침은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경험들이 성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탈을 가로막는 보편적 장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서사들 속에서 상호 민감성의 인정은 욕망이 인간의 공통된 투쟁으로 특정한 성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깊이 있는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쿰바 자타카와 『우다나』 3.2의 서사는 남녀 모두가 직면한 보편적 도전으로써의 욕망을 제시하면서 감각적 쾌락과 집착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드러낸다. 색(nūpa)과 연관된 남녀 모두의 상호 취약성을 인정하면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수행자들의 공동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포용성은 성별과 별개로 해탈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기저에 놓인 평등주의의 원칙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전들은 성별에 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고수하기 보다는 통찰력과 잘 숙련된 수행에 의한 변혁적 힘을 역설하면서, 감각적 장애물들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테리가타』 Therīgāthā): 여성의 정신적 성취

여성의 승단 합류를 허락한 부처님의 결정은 여성들의 정신적 잠재력에 대한 인정을 증명한다. 이러한 포용성은 여성을 위협적인 존재로 기술하는 불교의 묘사가 교리적 진리라기 보다는 문화적 적응에 좀더 가깝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제도적 남성중심주의에 도전한다. 『테리가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여성들이 정신적 수행을 계발해 나가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테리가타』에서, 여성들은 부처님과 승가의 신뢰에 부응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신적 본질에 부응하며 살고 있다.

『테리가타』는 기사 고타미 (Kisā Gotamī)와 파타차레 (Patachārā)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와 해탈의 변혁적 힘의 완벽한 본보기를 제시하면서, 초기 불교에서 여성의 정신적 성취를 보여주는 심오한 증거가 되어 준다. 기사 고타미의 계승(vv. 213–223)은 가눌 수 없는 슬픔으로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그녀의 여정을 상세히 이야기한다. 오직 하나뿐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기사 고타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가간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죽음의 손길이 닿은 적 없는 집으로부터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지시한다. 언뜻 간단해 보이는 이 일을 통해 키사 고타미는 죽음의 보편적 본질을 마주하고, 날카로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왜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을 좇고 있는가? 죽은 아들은 결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거늘’ (*Theṅgāthā*, v. 219, 리즈 데이비드 번역, 1909). 이러한 통찰력은 무상을 받아들이도록 이끌고, 족쇄를 부수고 자유로워진 코끼리에 비유되는 해탈이라는 정점에 그녀를 이르게 했다(v. 214). 비슷하게, 파타차라의 계승(vv. 112-116)도 개인적 상실이라는 참혹한 이야기로부터 궁극적으로 정신적 성취의 승리를 일구어 낸 이야기를 풀어낸다. 온 가족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파타차라는 비통함과 슬픔에 잠식당한다. 그녀의 계승은 그녀의 절망을 절절하게 담고 있다: “슬픔의 화살이 꿰뚫고 지나가고, 고통으로 지쳐 쓰러져,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네” (v. 113).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파타차라는 고통의 원천인 갈애(*tanhā*)를 뿌리 채 뽑아버리고, 존재의 덧없는 본질을 사유한다: “이제 슬픔의 원천인 갈애를 뿌리 채 뽑아버리고, 나는 출가자가 되어 계를 받고 평화를 찾았네” (v. 116). 두 이야기 모두 여성이 선천적으로 집착과 감정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라는 남성중심주의의 관념에 도전하며 두 여성을 회복력과 정신적 성취의 본보기로 묘사하고 있다. 『테리가타』는 키사 고타미와 파타차라를 불교 수행의 귀감으로 삼으면서, 초기 불교의 교리적 포용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교가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

여성에 대한 초기 불교의 관념은 교리적 평등주의와 제도적 남성중심주의 사이에 미묘한 관계를 드러낸다. 제도적 체계가 여성을 승가 수행의 위협으로 묘사하는 반면, 교리적 가르침은 그들의 정신적 평등성을 단언한다. 그래서, 불교는 해탈에 대한 포용적이고 평등적인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금욕적 여성혐오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정의하는 것을 뛰어 넘는다.

매치 푸나폰 생쿰 박사 (Dr. Maechee Punyaporn Saengkhum)

(doiding@hotmail.com)

[번역: 박현주(샤카디타 코리아)]

태국 비구니 조직은 태국 내 불교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거버넌스, 교육 및 사회사업의 변혁적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테라와다 불교(Theravāda Buddhism)를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 사회 및 영적 요구에 대응하도록 변화해왔다. 1969년 설립 이후 포용성, 투명성, 집단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마하파자파티 불교 대학(Mahapajapati Buddhist College)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구니들이 영적 지식과 실무적 역량을 갖추어 종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이 조직은 공중보건 위기 및 자연재해와 같은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COVID-19 기간 동안 마스크, 식량, 소독제를 배포하며 피해 지역을 지원하였다. 또한 "산 등성이에서 형이 동생 돕기"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교육을 지원하며, 국경 근처의 10개 학교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태국 비구니 건강 역량 강화 프로그램(Thai Nun Health Empowerment Program)을 통해 전국 비구니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있다.

리더십 개발은 이 조직의 핵심 과제로, 불교적 원칙과 현대적 경영기법을 결합하여 비구니들이 현대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공동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불교 공동체 내 연대를 촉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태국 비구니 조직이 태국 사회에 미친 깊은 영향을 조명하며, 불교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적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전략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조직의 회복력, 자비, 적응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론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은 리더십, 거버넌스, 교육, 사회활동을 통해 영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태국 불교 여성들의 역량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좌부 불교에 뿌리를 둔 이 조직은 현대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본 논문은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 조직의 변혁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그 성과와 전략을 조명합니다.

역사적 배경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의 여정은 1969년 8월 28일 태국 사회에서 불교 여성수행자(매치, Maechee)의 역할을 공식화하기 위한 태국 여성수행자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여성수행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여성수행자 연구소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1977년, 이 재단은 시리킷 왕비(현 왕태후)의 왕실 후원을 받게 되어 그 정당성과 국가적 중요성이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이 조직은 태국 여성수행자 연구소 협회로 전환하여 법적, 운영적 역량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정표는 불교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직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리더십과 거버넌스: 교육과 사회 사업에서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의 역할 (푸나폰 생쿰)

논문발표 세션 2B - 2: 2025. 6. 17. (화) 150pm ~ 300pm (70분)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의 거버넌스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는 모든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과 포용성을 보장합니다. 각 지방은 수석 여성수행자가 이끌며, 이들은 지역 활동을 감독하고, 불교 원리를 준수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합니다. 협력적 리더십은 이 거버넌스 모델의 초석으로, 포용성과 공유된 비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 및 국가 차원에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이 조직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활동이 불교의 가르침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역사회, 정부 기관, 국제 파트너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은 영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모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교육 선도 사업

교육은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 사명의 초석으로, 여성수행자들이 영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조직은 전통적인 불교 가르침과 실용적인 현대적 기술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 **마하파자파티 불교대학:** 이 기관은 팔리어 연구, 명상, 리더십, 공동체 관리를 포함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합니다. 여성수행자들이 종교 공동체와 사회 모두를 이롭게 하는 주도적 활동을 이끌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 **지역사회 기반 교육:** 주말 학교와 봉사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와 재가 불자들에게 불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윤리적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을 함양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노력을 통해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은 영적 헌신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회 사업과 지역사회 봉사

사회 사업은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 활동의 핵심 요소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필요에 대응하는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 조직은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선도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조직은 자원을 동원하여 마스크를 생산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손소독제를 제공함으로써 긴급한 공중 보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홍수 구호:** 태국 북부와 북동부의 심각한 홍수에 대응하여 피해 가정에 식량, 식수, 생존 키트와 같은 필수 물품을 배포하며 재난 회복을 위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 **산간 오지의 형제가 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이 선도 사업은 오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성장을 위한 자원과 지도를 제공합니다.

- **태국 여성수행자 건강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국 여성수행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선도 사업들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와 선의를 증진하면서 자비와 봉사의 불교적 원칙을 구현하는 조직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리더십과 변화 관리

리더십 개발은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의 사명 중 핵심입니다. 자비, 마음챙김, 이타적 봉사와 같은 불교적 가치에 기반하여, 이 조직은 여성수행자들이 영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 **현장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수행자들은 지역사회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불교적 가치의 실제적 적용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워크숍과 세미나:** 정기적인 교육 과정은 거버넌스, 자원 관리, 갈등 해결에 중점을 두고,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르침과 현대적 관리 기법을 혼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여성수행자들이 영적 온전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국제 협력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은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실천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조직은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모범 사례로부터 배우며, 전 세계 불교 여성들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컨퍼런스 및 교류:** 국제 포럼 참여는 지식 공유와 역량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의 리더십 전략을 풍부하게 합니다.

- **글로벌 파트너십:** 국제 불교 단체와의 협력은 추가적인 자원과 관점을 가져와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이 지역 및 글로벌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직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불교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광범위한 담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향후 방향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은 거버넌스, 교육, 사회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한 활동은 여성수행자들의 삶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의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이 조직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더 많은 소외 계층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장
- 더 나은 자원 배분과 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불교 여성들 간의 글로벌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은 그 목표를 현대 사회의 필요성과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련성 및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론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은 거버넌스, 교육, 사회 사업의 조화로운 통합을 통해 영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모범적 사례입니다. 리더십을 육성하고, 윤리적 교육을 제공하며, 필수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단체는 불교 여성들이 자신감과 자비심으로 현대의 복잡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그 적응력과 현대적 도전 과제 해결에 대한 헌신은 태국과 그 밖의 불교 여성들에게 희망과 진보의 등불이 됩니다. 이 조직은 그 활동을 통해, "변화의 향해: 전환기의 불교 여성들"이라는 주제에 담긴 회복력과 변혁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거버넌스: 교육과 사회 사업에서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의 역할 (푸냐폰 생쿰)

논문발표 세션 2B - 2: 2025. 6. 17. (화) 150pm ~ 300pm (70 분)

참고 문헌

- 태국 여성수행자 연구소: "50주년 기념집", 2019년 8월 12일 발행
- 태국 여성수행자 연구소 재단: "운영 지침", 방콕: 사앵 인쇄출판사, 1983년
- 온라인 접속: 태국 여성수행자 재단 블로그

세션 2B 한국의 힙불교 시대, 여성 재가불자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3 The Hip Buddhist Era in Korea, the New Role and Leadership of Lay Buddhist Women

남진숙 (Jin-sook Nam)
 namhs k4Cl er q erpt i x#전화# ; 50430569: 03; 77,

불교는#단순한#대중화#차원을#넘어#새로운#형태의#사회적#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한국#불교에서#여성#재가#불자의#비율은#매우#높으며#전체#재가#불자의#약#30%#3(가#여성이다#또한#한국#최대#종파인#조계종에서#여성은#중요한#역할을#수행하며#비구니의#수가#전체#승려#인구의#절반을#차지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불자들은#전통적으로#공식적인#종교적#권위나#지도력을#행사하는#제한을#받아왔으며#불교에#대한#여성들의#기여와#역할이#종종#과소평가되어#왔다#

따라서#본#연구는#현대#불교에서#재가#불자들이#수행해야#할#구체적#역할과#새로운#리더십에#대해#심층적으로#고찰한다#여성#재가#불자들은#전통적#불교#가르침을#바탕으로#보살행#Bodhisattva#행위를#현대#사회적#협력#및#리더십으로#확장하는#방안을#제안하며#이를#통해#불교#공동체#및#사회적#조화에#기여하고자#한다#특히#여성#재가#불자들이#사회#변혁의#주체#대중적#가르침의#확산자#그리고#공동체#중심의#지도자로서#한국#불교의#새로운#흐름#속에서#역할을#확장할#수#있는#방안을#논의할#것이다#

주제어:#여성#재가#불자#힙#불교#보살행#불교#리더십#명상#불교#가치#지속가능한#불교

I. 서론

한국#불교는#최근#급변하는#시대적#흐름과#맞물려#전통적인#교리와#수행을#유지하면서도#현대적#삼각과#대중적#요구에#부합하는#방향으로#진화하고#있다#그#가운데#나타난#현상#중#하나가#바로#힙#불교#Hip Buddhism, #합는#새로운#불교의#패러다임이다#합하다#합는#신조어와#불교의#결합은#불교가#단순히#고전적인#종교적#틀을#유지하는#데#그치지#않고#현대#사회의#문화적#흐름과#교감을#이루어가고#있음을#나타낸다#

힙#불교는#불교의#전통적인#교리와#수행#방법을#현대적#삼각으로#재구성하여#대중에게#더욱#친숙하게#다가가려는#시도이다#예를#들어#부처#한점 #부처#한점 #목락도#목樂, #이다 #나는#절로 #뉴진스#니름 #템스 #등과#같은#용어나#활동은#젊은#세대가#불교를#쉽게#받아들일#수#있도록#하는#동시에#불교의#매력을#유머와#창의성을#통해#새롭게#재발견할#수#있게#해준다#이러한#흐름은#단순한#문화적#경향이#아니라#불교가#대중적#현대적#요구를#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특히#5357#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재밌는#불교#학는#주제로#진행된#행사에서#43대#후반에서#63대까지의#젊은#층을#주요#방문객으로#끌어들였으며#이로#인해#박람회#방문자#수는#전년#대비#6배#증가하였다#이는#힙#불교가#단순히#불교를#대중화하는#차원을#넘어#새로운#형태의#사회적#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을#보여준다#

한국#불교에서#여성#재가#불자의#비율은#매우#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재가#불자의#약#30%#3(가#여성이며#한편#한국#불교#최대#종단인#조계종에서#비구니가#절반을#차지할#정도로#여성의#역할은#적지#않다#그럼에도#불구하고#전통적으로#여성#불자는#공식적인#종교적#권위나#리더십을#인정받는#데#있어#제약을#받아왔으며#여성의#불교적#기여와#그#역할이#과소평가#되는#경우가#많았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여성#재가#불자들이#현대#불교에서#수행해야#할#구체적인#역할과#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 재가불자들은 전통적인 불교의 가르침에 기초한 보살행을 현대적인 사회적 힘력과 리더십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불교 공동체와 사회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특히 한국 불교의 힘찬 흐름 속에서 여성 재가불자들이 사회적 변화의 선도자, 대중적 가르침의 확산자, 공동체 중심의 리더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이어가고자 한다.

II. 힘불교 시대, 여성 재가불자들의 역할

전통적으로 여성 재가불자들은 가정과 공동체 중심의 신앙적 활동에 초점을 맞춰왔다. 기도와 공양 준비, 불교 축제 및 사찰 행사 참여 등은 여성 재가불자들이 수행해온 주요 역할로, 이는 가족의 안녕과 신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과거 여성 재가불자들의 역할은 공동체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행역시 대체로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에 머물렀으며, 가족과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집중되었다.

본고에서는 재가불자 중 여성 재가불자에 대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여성 재가불자들이 시대에 맞춰 현대 새롭게 하고 있는 역할로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 여성 재가불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확산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유튜브, 팟캐스트, 블로그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는 불교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대와 더 넓은 대중에게 불교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젊은 층의 증가와 관련하여 한국 불교의 VZ R W 분석에 따르면 Z R 전략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 활용, 에서 전법인력과 네트워크 전 문화 전법 콘텐츠와 방법론 개발¹ 역시 중요한 기회 중 하나라는 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할 만하고 이와 더불어 방법론의 개발이라는 점과 역할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둘째, 여성 재가불자들은 평화와 화합의 촉진자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활동이 필요하다. 성평등, 다문화 가정, CJ EWT.² 등 다양한 사회적 그룹을 포용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비와 평등을 바탕으로 불교가 추구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불교에서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한 사랑과 배려를 의미하며, 이는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여성 재가불자들은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웃종교,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런 활동이 활발한 반면, 불교는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한국이 점차 다문화 사회로 발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역할과 활동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 보이기

¹ 이상훈, 「한국 불교의 대학 생전법, 교화, 인종 방안」, 『한국교수불자연학회지』 제5권 5호, 한국교수불자연학회, 356-377, 쪽 1
² CJ EWT. 는 청소년 수자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약어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알파벳은 O 제비안, Qwert, 여성에게 불리는 여성, 케이, 성, 남성에게 불리는 남성 또는 남성에게 불리는 사람, 여성에게 자, erwiyep,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불리는 사람, 트랜스젠더 Ver wirhi, 태어난 날,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키워, yiy,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대해 지정된 정의를 거부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표현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 예를 들어, 사제, Dwi yep, 인터섹스, xw, 섹슈얼, Serwiyep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CJ EWT. 커뮤니티는 청소년 수자의 리더와 평등을 지지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며, 성적 지향과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때문이다. 불교는 공동체의 상호 존중을 중시하며, 이로 인해 여성 재가불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아우르는 현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의 핵심 가치인 이타심과 자비를 실천하며, 환경 보호 활동, 소외 계층 지원,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로 많은 여성 재가불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불교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며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앞으로 리더는 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거나 다시 조직을 만들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여성 재가불자들은 불교의 자비와 이타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활용 캠페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생태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여긴다.

넷째, 여성 재가불자들은 현대인의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챙김과 명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이미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³, '선명상위원회 출범'⁴, '국제 선명상 대회 및 글로벌 활동'⁵ 등을 강화하며, 선명상을 통해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실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 명상 위원에는 여성 재가불자는 부재하다.

다섯째, 여성 재가불자들은 지도자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불교 공동체와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현대적 교육 방식을 통한 불교 교육 혁신이다. 여성 재가불자들은 전통적인 불교 교육 방식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불교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불교 교육은 주로 사찰에서의 강의나 구술 중심의 교육 방식에 의존했지만, 현대 사회의 변화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여 불교 교육의 접근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인 교육 방식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더 직관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성 재가불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불교 교육의 범위와 영향을 확장하고 있다. 디지털 교재나 온라인 강의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물리적인 거리에 관계없이 불교의 가르침을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은 특히 바쁜 일정을 가진 직장인이나 육아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하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³ 535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무원 회의장의 의의를 진행했고, 8월 1일에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템플스테이를 개최하여 선명상을 실천하였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직접 선명상 배워보자」, 『불교신문』 5357년 164면 1
⁴ 5358년 11월 3일 선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선명상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스님과 재가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사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명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1년 1위로 추진된 재가법사에는 여성이 없었고 비구니 스님이 소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 선명상 보급으로 인류정신명명 선도」, 『법보신문』 5358년 153면 1
⁵ 5357년 11월 15일, 일광화문 광장에서 국제 선명상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한국 제일대학교에서 선명상 강연을 진행하여 글로벌 선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진화선으로 가는 선명상 마음건강 지키는 비법」, 『불교신문』 5357년 153면 4면 1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섯째, 문화예술을 통한 불교 가치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 재가불자들은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과 가치를 표현한다. 이러한 문화 예술 활동은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교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일곱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 교류의 역할이다. 여성 재가불자들은 해외의 불교 단체 및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적인 불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해외 불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국제적인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불교 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시구니 스님들과의 협력으로 가능하고 현재 시카다 세계대회에 참여하는 등 여성 재가불자들이 나서서 발표를 하고 여성 재가불자 자신의 역할은 물론 시구니 스님들의 역할 또한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과 평화 인간 존중의 가르침으로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한국 불교는 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점에서도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함께 종교가 풀어가야 하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재가불자들은 정책 제안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의 사비, 평등, 정의의 가르침은 그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여성 재가불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힙 불교 시대의 여성 재가불자들은 전통적 역할에서 넘어 현대적 사회 문제 해결과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도자와 교우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불교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서 불교의 발전과 현대적 실천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힙 불교의 대중화와 실용성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되도록 기여해야 한다. 또한 여성 재가불자들의 활동은 불교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과 연결되어 종교적 가치와 현대 사회적 요구를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적 실천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지속 가능한 영향을 발휘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종교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Ⅲ. ‘지속가능한’ 불교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 지향

리더의 생각과 가치관은 한 기관, 한 조직, 한 사회를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리더의 가치관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에 영향을 주며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리더의 행동은 갈등 관리와 외부 관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의 리더십의 영향력이 배어나올 때 대중은 거기에서 가치를 느끼고 영향을 받게 된다. 나아가 리더의 자아 정체성과 같은 내면적 자원과 구성원의 협력적 관계성 자원을 넘어서서 양자와 함께 발전해가는 공동체 자원으로 리더십의 판심은 바뀌었다. 이러한 변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하고 그것은 연기적이며 전일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다. 뭣다와 승가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불교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불교의 리더십은 일반적인 리더십과 다른 특징, 즉 불교적 사상과 이념을 담고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리더십 외에 불교적 이론과 실천의 하나가 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런 점을 염두해두고 본 장에서는 여성 재가불자들이 어떤 리더가 되어 어떤 리더십을 지향해야 하는지 제언하고자 한다.

⁶ 이상훈 「미래세대 위해 한국 불교가 준비할 것들」 『법보신문』 2023. 5. 16면

⁷ 정완스님 「한국 불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리더십」 『제4차 시카다 세계대회 자료집』 『주최 한국 시카다』 2023. 3. 3쪽

첫째, #창의적#소통#리더십이다 #불교의#가르침을#현대#사회와#디지털#환경에#맞게#혁신적이고#창의적으로#전달하는#리더십을#의미한다 #이는#전통적인#설법#형식에서#벗어나#디지털#플랫폼과#현대#미디어를#활용하여#다양한#연령층과#소통하고#참여를#이끌어내는#것을#중점으로#한다 #디지털#플랫폼과#현대적#미디어를#활용하여#사람들이#쉽게#접근하고#이해할#수#있도록#듣는#것이#핵심이다 #뛰어도#리더라면#이런#흐름을#이해하고#그런#방향으로#나아가갈#수#있도록#리더#자신이#갖추거나#구성원들을#적려하고#소통해야#한다 #

#창의적#소통#리더십을#효과적으로#발휘하기#위해서는#디지털#환경에#익숙하고#소셜#미디어와#온라인#콘텐츠를#능숙하게#다룰#수#있는#능력이#있다면#금상첨화이다 #주로#젊은#세대나#중년#이후의#세대보다#디지털#환경에#익숙한#세대에서#더#잘#발휘될#수#있는#특성이다 #특히#젊은#여성#재가불자들이#창의적#소통#리더십을#발휘하는#데#더#유리할#수#있다 #이들은#대부분#디지털#기와#인터넷#소셜#미디어를#일상적으로#사용하며#다양한#온라인#플랫폼을#통해#정보를#얻고#상호작용하는#데#익숙하다 #따라서#이러한#연령대의#여성#재가불자들은#창의적#소통#리더십을#발휘하여#불교의#가르침을#새로운#방식으로#전달할#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다 #

#반면#고령층의#여성#재가불자들은#디지털#기술에#대한#접근성이나#활용도가#상대적으로#낮을#수#있다 #이들은#전통적인#방식의#교류나#대면#소통을# 선호하며#디지털#미디어와의#거리가#떨어#창의적#소통#리더십을#발휘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다 #이러한#세대는#불교#가르침을#전파하는#데#있어#종교적#경험과#전통적인#방법을#더#잘#활용할#수#있지만#디지털#미디어를#통한#적극적인#소통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령층의#여성#재가불자들이#디지털#플랫폼을#배우고#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 #창의적#소통#리더십은#젊은#세대#여성#재가불자들이#특히#발휘해야#할#중요한#리더십이지만#고령층의#리더라면#이런#방향에#치지#않고#발휘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고령층의#여성#재가불자들도#디지털#기술에#대한#접근을#확대하고#이를#통해#창의적#소통을#시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이와#같은#세대#간#협력과#기술#습득이#이루어질#때#불교는#다양한#연령층에게#효과적으로#전파될#수#있고#더#넓은#사회적#영향력을#미칠#수#있을#것이다 #

둘째, #포용적#리더십은#다양한#사람들의#가치를#인정하고#그들#각각이#평등하게#채우받을#수#있도록#하는#리더십이다 #이는#성별#연령#문화적#배경#성적#지향성#그리고#사회적#지위에#상관없이#모든#사람을#수용하고#존중하는#태도를#바탕으로#한다 #포용적#리더십을#발휘하는#여성#재가불자는#불교의#자비와#평등#사상을#현대적#가치로#구체화하여#다양한#사회적#요구와#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역량을#지닌#사람이다 #

이는#여성#리더십의#특성으로#공유리더십과#유사하다 #즉#개인에게#집중되기보다#조직원들이#모두#동등한#인격체로서#유기적#관계를#통해#목적을#달성해나가도록#소력하는#것⁸을#말한다 #

포용적#리더십의#가장#중요한#특징은#다양성과#차이를#존중하며#이를#통합하려는#의지이다 #이는#불교의#자비와#평등#사상에서#기인하며#불교가#교든#존재가#교통에서#벗어나#평화를#원할#수#있도록#듣는#것을#목표로#한다는#핵심#교리와#일맥상통한다 #

셋째, #커뮤니티#기반#리더십이다 #커뮤니티#기반#리더십은#불교의#가르침을#기반으로#지역#사회와#깊은#연관을#맺으며#실질적인#활동을#통해#공동체의#문제를#해결하는#중요한#역할을#하는#리더십이다 #이#리더십의#핵심은#지역#사회#내에서#발생하는#다양한#문제들에#대해#자비와#공감을#바탕으로#실천적인#변화를#이끌어내는#데#있다 #커뮤니티#기반#리더십을#발휘하는#여성#재가불자들은#단순히#종교적#가르침을#전하는#데#초지#않고#봉사#환경#보호#심리적#지원#등의#활동을#통해#사회적#책임을#다한다 #

⁸김양희#『여성#리더#그리고#여성#리더십』#삼성경제연구소#339#9094쪽1

그들의 활동은 불교의 자비 사상을 실천으로 옮기며 지역 사회 내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대면적 통찰의 힘을 불교적 가치에서 끌어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세계와의 접촉에 적용하는 점에서 불교적 리더십의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 점⁹에서 삶과 일치하는 불교적 이론과 실천이 하나인 리더십을 의미한다.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은 지역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형성이다. 커뮤니티 기반 리더십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성 재가불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이해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불교의 가르침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연령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휘할 수 있지만 특히 중장년층 여성 재가불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그들은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어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또한 자녀를 둔 여성들이나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그들은 가정과 지역 사회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봉사와 지원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직업적으로는 교육, 복지,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커뮤니티 기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에 종사하는 여성 재가불자는 학생들에게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으며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취약 계층을 돕는 다양한 자비 실천을 할 수 있다.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면서 불교적 가치에 맞는 환경 보호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넷째, 심리적 및 정신적 자유 리더십이다. 현대인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직장 내 문제들이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 장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교의 철학과 마음챙김은 중요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은 매우 넓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이 판연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다. 직장인, 청소년, 중년층, 심지어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심리적 자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업무 압박과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 재가불자들은 불교의 명상법과 마음챙김 기법을 통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정신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공감의 바탕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심리적 및 정신적 자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성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 재가불자들이다. 이들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직장인이나 청소년과 같이 정신적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신적 부담을 털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상, 마음챙김, 불교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여성 재가불자들이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이들은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깊이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⁹ 존슨 수 「고양카 리더십 국제적 불교 리더십의 모델을 찾는다」 『佛敎學報』 #5 불교학술원 #34: #704: 8쪽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 명상 지도자나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불교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접근도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¹⁾

다섯째, 현대적 교육 리더십은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리더십이다. 이는 불교의 깊은 철학과 교리를 현대적인 언어와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이다. 불교가 고전적인 문헌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리들이 종종 난해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재가불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하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교의 철학이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¹⁾

이 리더십은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한 관심과 능력을 가진 여성 재가불자들이 적합하다. 교육적 접근을 통해 불교를 전달하는 데 있어 사람들에게 어려운 교리를 쉽게 풀어내고 그들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는 청소년 직장인 노년층 등 각기 다른 연령대와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적 교육 리더십은 단순히 불교 교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현대인의 삶에 맞춰 재구성하고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힙 불교 시대의 여성 재가불자는 디지털 기술과 현대적 사고 커뮤니티와의 연대 다문화적 이해 전문적인 교육 및 자유 능력을 활용한 다양한 리더십을 통해 불교를 현대적 맥락에 맞게 전파해야 한다. 창의적 소통 적용적 접근 공동체 기반 활동 정신적 자유 그리고 교육적 리더십은 불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도구로 자리잡게 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불교가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성장 모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리더십이라고 해서 연령층이 높은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누구나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IV. 결론

현재 한국 불교가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초기 불교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서 평화와 평등의 사상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역할과 자극이 큰 분기점¹⁰⁾에 있다. 바로 이 시점에 본 논문은 힙 불교라는 한국 불교의 현대적 흐름 속에서 여성 재가불자들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다.

여성 재가불자는 전통적으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가족의 신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들의 기도와 공양 준비 사찰 행사 참여는 공동체 신앙의 유지와 안정성을 제공했으나 주로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렀다. 그러나 힙 불교 시대는 여성 재가불자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이 필요하며 현대적 사회 문제 해결과 불교적 가르침의 확산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로 부상할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여성 재가불자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확산시키는 역할, 평화와 화합의 촉진자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구축, 마음챙김과 명상 확산, 교육자로서의 역할, 수행 문화 예술을 통한 불교 가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 교류, 정책 제언 및 사회 참여를 통한

¹⁰⁾ 조은수, 앞의 글, 26쪽.

제도적#변화추구#가#것이다#이를#타당으로#여성#재가불자들은#다섯#가지#주요#더십을#제안하였다#
첫째,#상위적#소통#리더십은#디지털#기술과#현대적#미디어를#활용하여#불교#가르침을#이해하기#쉽게#
 전달하는#것이다#유튜브#팟캐스트#소셜#미디어와#같은#플랫폼을#활용해#불교를#밖거리의#유산#이#나라#
 현대적#삶의#동반자#로#차리#잡게#한다#

둘째,#포용적#리더십은#성평등#다문화#가정#EWT.#등#다양한#배경을#가진#사람들을#포용하고#불교적#
 자비와#평등의#가치를#현대적#시각에서#재구성하는#역할을#한다#모든#중생을#존중하고#소외된#계층을#
 지원하는#이러한#리더십은#불교를#특정#계층에#국한되지#않고#모든#사람들을#위한#종교로#확장시킨다#

셋째,#커뮤니티#기반#리더십은#지역#사회와#인밀히#연결되어#공동체#문제#해결과#발전을#이끄는#역할을#
 맡는다#환경#보호#소외계층#지원#봉사#활동#등#공동체#중심의#활동을#통해#여성#재가불자는#공동체#
 내에서#신뢰를#형성하고#긍정적인#변화를#도모한다#이들은#불교의#자비와#이타심을#지역적#수준에서#
 실천하며#공동체와의#연대를#강화한다#

넷째,#심리적#및#정신적#치유#리더십은#불교의#마음챙김과#명상을#활용해#현대인의#스트레스와#불안을#
 줄이고#정신#건강#문제를#해결하는#최#초#점을#둔다#청소년과#직장인을#대상으로#한#명상#워크숍이나#상담#
 프로그램을#통해#여성#재가불자들은#정신적#치유와#내적#안정을#지원하며#개인과#공동체에#긍정적#
 영향을#미칠#수#있는#리더십이다#

다섯째,#현대적#교육#리더십은#전통적#불교#철학과#가르침을#현대적#패러에#맞게#재해석하여#대중에게#
 효과적으로#전달하는#것이다#청소년#직장인#노년층#등#다양한#대상에게#맞춤형#교육을#제공하며#불교의#
 가치를#쉽게#이해하고#실천할#수#있도록#한다#이러한#노력은#불교적#가르침의#사회적#확산을#가속화할#
 수#있다#

결론적으로,#여성#재가불자는#립불교라는#시대적#흐름#속에서#불교적#가치를#현대적으로#재구성하고#
 이를#실천으로#옮기는#제#있어#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이들은#전통적#역할에서#벗어나#디지털#기술과#
 현대적#리더십을#활용하여#불교#공동체와#사회#전반에#걸쳐#실질적인#변화를#주도해야한다#이러한#
 활동은#불교를#단순한#신앙을#넘어#현대#사회#문제#해결의#도구로#차리#매김하게#한다#

여성#재가불자라는#중요한#주체를#통해#불교가#사회적#역할을#확대하고#지속#가능한#종교적#
 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불교가#앞으로#더#넓은#대중과#
 연결되고#사회적#가치를#창출하며#지속#가능한#종교로#자리#잡을#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제#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섭 # 「대승경전을 통해 본 재가불자 수행론」 # 『전법학연구』 <호> 불광연구원 16349호 # ::0547쪽 1
 김광식 # 「근현대 여성 불교 운동의 판체와 그 주역」 # 『전법학연구』 46/불광연구원 1634; 16380684쪽 1
 김도연 # 閔星, # 「대한 불교 조계종 한국 여성 불자 회의 실행 방안 연구」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3561
 김동윤 # 「여성 불자의 수행 연구」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34; 1
 김양희 # 「여성 리더 리고 여성 리더십」 # 『삼성경제연구소』 16339/9094쪽 1
 김정희 # 「불교의 생명 윤리와 재가 여성 불자」 # 『한국 여성 철학』 7/한국 여성 철학회 16337/16608; 쪽 1
 김종인 # 「한국 재가 불교의 현황과 방향성 재가자가 불교 단체를 중심으로」 # 『전법학연구』 45호/불광연구원 1634; 16960739쪽 1
 권재인 # 「한국 재가 불교의 이론과 실천」 #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3541
 대한 불교 조계종 환경 위원회 # 「경전 속 환경 이야기」 # 1634; 16반 KF 리더십 인사업부
 민성효 # 「한국 여성 불자의 위상과 역할」 # 『불교평론』 5집 16호 16353/90453쪽 1
 박해숙 #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연구 0』 제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4/제 : 권 9호 16349/860:9: 쪽 #

카르마 타시 초드론 스님, 박사 (Ven. Dr. Karma Tashi Choedron)

(Karma.Tashi@nottingham.edu.my)

텐진 다돈 스님, 박사 (Ven. Dr. Tenzin Dadon)

(wangmo.sonam@gmail.com)

[번역: 민우 스님]

티베트 불교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변에 머무르다 리더십과 역량 강화로 변화해왔다. 본 연구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티베트 불교 여성들이 종교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역량 강화, 페미니즘, 리더십을 어떻게 탐색하는지를 분석한다.

역사적으로 티베트 불교 여성들은 차별을 받았으며 교육 및 지도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으나, 많은 여성들이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의 발전 과정과 지속적인 투쟁, 그리고 향후 리더십의 가능성을 조명한다.

차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티베트 불교 공동체 내에서 포용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 장벽과 전략을 검토하며, 대화와 치유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화해는 과거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치유와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회복과 저항의 사례를 통해 티베트 불교 여성들이 영적 수행을 활용하여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성평등과 사회 정의를 촉진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전통적 규범에 도전하는 저명한 티베트 불교 여성 지도자들의 기여를 강조하며, 그들의 성취를 축하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과제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배움과 성장의 장을 마련하고, 주변화된 목소리를 강화하여 티베트 불교 내 성평등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한다.

서론

1950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 이후 여성 지도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민주 개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들에게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주어졌던 것이다(Thonsur, 2003; Butler, 2003; McGranahan, 2010). 오랜 역사동안 여성들은 불교계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해왔으며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승단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본 논고에서는 히말라야 지역과 동남아시아에 걸쳐 등장한 티베트 여성 지도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겪는 역경과 기회,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계 여성들의 리더십과 역사적 역할: 역경과 차별

전통적으로 티베트 불교는 남성 지배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와 승단 구조로 인해 여성은 종교적 역할이나 지도자 위치에서 항상 제외되었다(Willis, 1987). 여성에게는 교육받을 기회, 리더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O'Brien, 2019). 1950년대 망명 정부가 들어서고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돌봄 역할에 국한되었고 구조계를 받은 여성 출가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부에 오를 기회가 드물었다(Davies, 2023; Holmes-Tagchungdarpa, 2015).

여성 지도자들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결단력과 여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문화적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Tremmel and Wahl, 2023). 특히 전통적인 성(性) 역할이 강조되는 문화에서 종교적, 직업적, 개인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기란 어려운 일이다(APA Committee on Women in Psychology, 2023). 많은 여성들이 가면 증후군이나 자기 의심, 판단의 유예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Tulshyan and Burey, 2021). 남성이 지배하는 구조에서 배제되어 사교관계를 맺거나 스승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Brancu, 2019). 여성은 종교적 추구나 전문 경력을 쫓는 것보다 가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문화적 기대가 지속되고, 조직 내 성별 다양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남성 위계 질서가 존속되는 한 여성들이 지도부로 나아가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Andrews, 2020; Janjuha-Jivraj, 2025). 이러한 여건들이 티베트 여성들이 불교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화합

티베트 불교는 달라이 라마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지도부의 여성 참여율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Tibetan Nuns Project, 2022). 역사적으로 여성은 전통적 규범에 구속되어 차별받았지만 비구니계 복원과 같은 움직임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Tibetan Nuns Project, 2022). 경전을 재해석하고 여성의 수계와 교육을 장려하는 등의 조화를 꾀하려는 노력들로 인해(Willis, 1987) 여성들이 일선으로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망명중인 티베트 불교 여성 출가자들에게 게세마(Geshema) 학위를 수여하거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주면서 이들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Tibetan Nuns Project, 2022; Central Tibetan Administration, 2022). 국민 다수가 불교인 국가들에서 여성 출가자나 여류 학자들은 가부장적 제도에 반기를 들고 지도부로 나아가고 있다(Willis, 1987). 이러한 노력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남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도부에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Tsomo, 2013).

티베트 비구니들의 최근 성과

티베트 불교의 여성 수행자들은 불교를 전파하고 보존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최근의 주목할만한 업적과 성과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헌신과 수행, 불교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티베트 역사상 최초로 여성 출가자들이 불교 박사 학위에 해당하는 게세마를 취득한 역사적인 순간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2012년까지 이 최고 학위는 남성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2016년 달라이 라마 주재 아래 게세마 학위 수여식이 열렸는데 이는 비구니 교육의 새 장을 열었다. 이후로 많은 비구니들이 그 전철을 밟았고 작년 게세마 단계별 시험에 응시한 이가 144명이나 되었다. 그 중 13명이 최종 시험에 합격해 이제 게세마 학위를 받은 비구니의 수는 73명을 헤아린다(Tibetan Nuns Project, 2023). 켈상 왕모(Kelsang Wangmo)는 티베트 출신은 아니지만 게세마 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으로 불교학과 수행 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Tibetan Nuns Project, 2023).

2025년 2월 아홉 명의 게세마는 돌마링 사원 연구소(Dolma Ling Nunnery and Institute) 근처에 위치한 규토 밀교 대학(Gyuto Tantric University)에서 1년간의 밀교 과정을 마쳤다. 티베탄 넌스 프로젝트(Tibetan Nuns Project)가 2017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비구에게만 허락되었던 불교 수행, 장학 지원, 정식 밀교 연구 기회를 비구니들에게 제공하고 있다(Tibetan Nuns Project, 2023).

켄모(Khenmo)는 불교 철학에서 박사에게 해당하는 학위로 여러 해 학문에 정진해 시험에 합격한 비구니들만 받을 수 있다. 켄모는 학업적 성취, 수행의 깊이, 승가 내의 지도력을 가리킨다. 이들은 불교를

당당한 외침: 리더십을 발휘하는 티베트 불교 여성들 (카르마 타시 초드론, 텐진 다둔)

전파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미래의 여성 출가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스승이 되어야 한다. 2022년 6월 14일 인도 우타라칸드주 데라둔에 위치한 사카 여성 출가자 대학(Sakya College for Nuns)에서 한 무리의 티베트 여성들이 켄모로 등극했다. 이 사건은 중요한 교육적 성취를 상징하며, 켄모들이 법을 위해 헌신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책임을 지도록 허락하는 뜻깊은 사건이었다(Tibetan Nuns Project, 2022). 켄모 쿵가 팔돈(Kunga Paldon), 켄모 쿵가 웨초(Kunga Woetso), 켄모 응왈 양가(Ngawang Yangga)는 선구적인 위치에서 여성 출가자들의 교육과 리더십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금은 다른 비구니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스승이자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톡덴마(Togdenma)는 드룩파 까규(Drukpa Kagyu) 법맥에서 여성 요가 수행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엄격하고 금욕적인 수행을 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년간 안거에 들어간다. 톡덴마 전통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동유 가찰 링 사원(Dongyu Gatsal Ling Nunnery) 등지에서 다시 복원되고 있다. 톡덴마 전통의 복원은 드룩파 까규 법맥의 깊은 수행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톡덴마 수행을 하는 여성 수행자들은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에 전념하며 높은 수행력과 실천으로 널리 존경받는다(Dongyu Gatsal Ling Nunnery, 2022).

날조르마(Naljorma)는 밀교의 여성 명사가 또는 요가 수행자이다. 독신 수행자일수도 있고, 재가자일수도 있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밀교 수행과 명상을 수련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날조르마 체링 돌마(Naljorma Tsering Dolma)는 히말라야 지역에 요가 수행을 알리고 밀교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Tibetan Buddhist Encyclopedia, 2022).

로펜마(Lopenma)는 높은 수준의 교학을 마치고 제자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 여성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칭호이다. 이들은 불교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펜마는 후배 여성 출가자를 교육하고 이끌어 승가에 생기와 지혜가 넘치도록 돕는다. 불교 철학과 수행이 전파되고 발전하는데 기여가 크다(Tibetan Nuns Project, 2022).

지금 언급하고 있는 칭호들은 티베트 불교 여성들의 업적과 활약을 여실히 보여준다. 승가 내에서 이와 같이 존경받는 지위를 얻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헌신, 수행력, 깨달음 등을 증명하고 있다. 이 여성들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은 티베트 불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영하는데 필수적이다(Tibetan Nuns Project, 2022).

주목할만한 티베트 불교 여성 지도자들 중 칸드로 린포체(Khandro Rinpoche)는 여성의 리더십 참여를 적극 지지하고, 게셰마 델렉 왕모(*Geshema Delek Wangmo*)는 뛰어난 리더십과 높은 학문으로 감명을 주고 있다. 또 로펜마 데첸 장모(Lopenma Dechen Zangmo)는 불교를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춘마 텐진 팔모(Jetsunma Tenzin Palmo)와 톡덴마 아초스(Togdenma Achos)와 같이 잘 알려진 톡덴마들은 톡덴마 전통을 부흥하는 주요 인물로 꼽힌다. 톡덴마 아초스는 따시중 캄파가르 사원(Tashi Jong Khampagar Monastery)의 원로 요가 수행자이며 여성 출가자들이 톡테마가 될 수 있도록 직접 교육하고 있다(Tibetan Nuns Project, 2022).

2024년 10월 17일 동유 가찰 링 사원의 네 명의 여성 수행자는 16년간의 안거 수행을 마치고 붉은 색과 흰색이 섞인 가사를 받아 공식적으로 톡덴마로 인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사라지고 있는 톡덴마 전통이 되살아나고 제춘마 텐진 팔모가 제 8대 캄트룰 린포체(Khamtrul Rinpoche)에게 특별히 부여받은 임무가 완수되었다.

2025년 2월 19일 부탄의 드룩파 까규의 스승이신 간첸 툴쿠 린포체(Gyaltzen Tulku Rinpoche)는 부탄에서 12년동안 엄격한 안거 수행을 끝낸 네 명의 여성 요가 수행자들에게 마하요기니라는 칭호를 내렸다. 이 사건은 티베트의 나로파 육법과 마하무드라를 수행하고 티베트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의 족적을 잇는 여성 수행자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사례이다.

뛰어난 티베트 여성 출가자들은 남아시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비구니 라마 카르마 페마 솔트림(Lama Karma Pema Tsultrim)은 국제 종교간 대화와 사회 문제에 자비로운 대처로 지도자의 모범을 보였다. 원래 천주교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비구니 수계를 받고 은둔 수행을 한 행적은 그녀의 영적인 성숙과 지도력을 증명한다. 소남 왕모(Sonam Wangmo)는 텐진 다둔 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그녀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티베트 여성 출가자이자 선도적인 지도자로서 남녀 평등, 환경 문제, 비구니의 권익 향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푸자 다브랄(Pooja Dabral)은 불교 철학과 심리학에서 학구적인 공헌을 해왔으며 저명한 교육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니 초잉 돌마(Ani Choying Drolma)는 학교를 세우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제 자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체링 팔모(Tsering Palmo)는 라다크 여성 출가자 협회를 설립하여 라다크 지역의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과 의식 고취에 리더십을 보였다. 체링 초츰(Tshering Choezom)은 다람살라의 티베트 의학 및 점성 연구소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티베트 전통 의학을 전문으로 하며 연구소에서의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릭진 라모(Rigzin Lhamo)는 부탄 전통 의학을 전문으로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모습이 끈기있는 리더십을 증명하고 있다. 남겔 나모(Namgyel Lhamo)는 부탄 여성 출가자 재단을 통해 여성 출가자의 교육과 복지를 옹호하며 종교와 사회 영역에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겐덴 라무(Genden Lhamu)는 불교학과 여성의 권리신장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현대 불교계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텐진 렉드론(Tenzin Lekdron)은 타라 랑카 연구그룹(Tara Lanka Study Group)을 창설하고 약사불 프로젝트등을 이끌며 스리랑카에서 티베트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수계

부탄에서는 여성 수행자를 인정하고 승가 내에서 그들을 지도부로 수용하려는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22년 6월 21일 제 켄포 존자(His Holiness the Je Khenpo)는 144명의 여성 출가자에게 비구니계를 주었으며 이는 남녀 평등을 향한 첫 걸음이자(Bhutan Nuns Foundation, 2022) 티베트 불교의 제도화된 불평등을 종식하고 지도부에 여성 참여를 증작시키는 거대한 출발이었다(RNS, 2022). 대규모로 이루어진 이번 수계식 덕분에 비구니 승가가 오래도록 계승될 것이며 다른 불교 전통에서도 전철을 밝아 불교계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더욱 인정받기를 기대한다(RNS, 2022).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저명한 티베트 여성 출가자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티베트 불교 여성, 특히 출가 여성들의 위상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교육과 리더십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은 지역 내 티베트 불교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활동 중인 주요 여성 출가자들과 그들이 불교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르마 예쉐 팔모(Karma Yeshe Palmo)는 쿠알라룸푸르의 카르마 까규 법회(Karma Kagyu Dharma Society)의 존경받는 수행자로 교육과 법회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녀의 노력은 지역 불교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카르마 타시 초드론(Karma Tashi Choedron)은 환경 사회학자이자 명상 지도자이다. 불교계 성평등과 소외된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YBAM, 2022). 말레이시아 노팅엄 대학교 부교수, 말레이시아 금강승 불교협의회 교육 부국장, 국제불교연합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아니 초드론(Ani Chodron)은 티베트 불교 전파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수행 지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아니 예쉐 파드마삼바바(Ani Yeshe Padmasambhava)는 클랑(Klang) 지역에 '파드마삼바바 어린이 사랑 협회(Padmasambhava Children Loving Association)'를 설립하였다.

당당한 외침: 리더십을 발휘하는 티베트 불교 여성들 (카르마 타시 초드론, 텐진 다둔)

논문발표 세션 2B - 4: 2025. 6. 17. (화) 15:00pm ~ 3:00pm (70 분)

고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미혼모 및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자비로운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며 많은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눈에 띄는 티베트 불교 여성 수행자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태국 출신의 부나타칸 파사로(Boonattakarn Passaro)는 2011 년 초에진 삼드룹(Choejin Samdrup)이라는 법명을 받고 출가하였다. 자원봉사, 불교 공부, 여성 리더십 증진에 헌신하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 평화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수자타 싯갈라야 센터(Sujata Sikkalaya Center)에서 여성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다(OWBA, 2022).

결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티베트 불교 여성 출가자들은 공로를 인정받아 위상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수행과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 또한 인정받고 있다. 리더십, 교육, 수행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승가 내에서의 성평등을 촉진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여성 수행자들은 지도부의 여성 참여와 평등한 환경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References:

- Andrews, S. (2020) 'How Culture Impacts Our Value Of Women', Forbes. Available at: <https://www.forbes.com/sites/forbescoachescouncil/2020/04/06/how-culture-impacts-our-value-of-women/>.
- APA Committee on Women in Psychology (2023) 'How working women can manage work-life bala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vailable at: <https://www.apa.org/topics/women-girls/work-life-balance>.
- Bhutan Nuns Foundation (2022) 'Historic ordination ceremony in Paro'. Available at: <https://www.buddhistdoor.net/news/144-buddhist-nuns-receive-full-ordination-at-landmark-ceremony-in-bhutan/> (Accessed: 6 March 2025).
- Branco, M. (2019) 'Solutions to 5 Common Networking Challenges for Women', Psychology Today. Available at: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a-new-look-at-womens-leadership/201904/solutions-to-5-common-networking-challenges-for-women>.
- Butler, C. (2003) 'Empowering Future Tibetan Women Leaders'. Available at: <https://www.academia.edu/83618467/WomenBeyondTeaFosteringTibetanWomenLeadersofTomorrow>.
- Central Tibetan Administration (2022) 'Empowering Future Tibetan Women Leaders'. Available at: Central Tibetan Administration (Accessed: 6 March 2025).
- Davies, B. (2023) 'Women in Buddhism: Seeking Enlightenment and Equality', Culture Frontier. Available at: <https://www.culturefrontier.com/women-in-buddhism/>.
- Dongyu Gatsal Ling Nunnery (2022) 'Revival of the Togdenma tradition'. Available at: Dongyu Gatsal Ling Nunnery (Accessed: 6 March 2025).
- Explore Tibet (2022) 'The Most Prominent Women in Tibetan History'. Available at: <https://www.exploretibet.com/blog/the-most-prominent-women-in-tibetan-history/> (Accessed: 7 March 2025).
- Gyatso, J. and Havnevik, H. (2020) *Women in Tibetan Buddhism: Reclaiming the Feminine in the Spiritual Tra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lmes-Tagchungdarpa, A. (2015) 'Can Women Become Leaders in the Buddhist Tradition?', Berkley Center. Available at: <https://berkeleycenter.georgetown.edu/forum/can-women-become-leaders-in-the-buddhist-tradition> (Accessed: 7 March 2025).
- Janjuha-Jivraj, S. (2025) 'Time For A Change - Why Women Still Aren't Getting Leadership Roles', Forbes. Available at: <https://www.forbes.com/sites/shaheenajanjuhajivrajeurope/2025/03/06/time-for-a-changewhy-women-still-arent-getting-leadership-roles/>.
- McGranahan, C. (2010) 'Empowering Future Tibetan Women Leaders'. Available at: <https://www.academia.edu/83618467/WomenBeyondTeaFosteringTibetanWomenLeadersofTomorrow>.
- Nordon, T. (2020) 'Empowering Future Tibetan Women Leaders'. Available at: <https://www.academia.edu/83618467/WomenBeyondTeaFosteringTibetanWomenLeadersofTomorrow> (Accessed: 7 March 2025).
- O'Brien, B. (2019) 'Is Buddhism a Sexist Religion? The Status of Women in Buddhism', Learn Religions. Available at: <https://www.learnreligions.com/buddhism-and-sexism-449757>.
- Outstanding Women in Buddhism Awards (OWBA), 2025. Available at: <https://iwmc.net/award/2025> [Accessed 8 Mar. 2025].
- Paudel, A. and Dong, Q. (2017) 'The Discrimination of Women in Buddhism: An Ethical Analysis', Open Access Library Journal, 4(4), pp. 1-8. doi: 10.4236/oalib.1103578.
- RNS (2022) 'Je Khenpo ordains 144 women as bhikshunis in Bhutan'. Available at: <https://religionnews.com/2022/06/21/buddhist-leader-in-bhutan-fully-ordains-144-women-resuming-ancient-tradition/> (Accessed: 7 March 2025).

- Tibetan Buddhist Encyclopedia (2022) 'The Stories of the Women Ancestors'. Available at: https://www.tibetanbuddhistencyclopedia.com/en/index.php?title=The_Stories_of_the_Women_Ancestors (Accessed: 7 March 2025).
- Tibetan Nuns Project (2022) 'First group of Khenmos enthroned'. Available at: <https://tnp.org/historic-khenmo-enthronement/> (Accessed: 6 March 2025).
- Tibetan Buddhist Encyclopedia (2022) 'The Stories of the Women Ancestors'. Available at: https://www.tibetanbuddhistencyclopedia.com/en/index.php?title=The_Stories_of_the_Women_Ancestors (Accessed: 7 March 2025).
- Tibetan Nuns Project (2022) 'A Paradigm Shift for Tibetan Buddhist Nuns'. Available at: <https://tnp.org/a-paradigm-shift-for-tibetan-buddhist-nuns/> (Accessed: 7 March 2025).
- Tibetan Nuns Project (2022) 'Achieving the *Geshema* degree'. Available at: <https://tnp.org/achieving-the-geshema-degree/> (Accessed: 6 March 2025).
- Tibetan Nuns Project (2022) 'A Paradigm Shift for Tibetan Buddhist Nuns'. Available at: <https://tnp.org/a-paradigm-shift-for-tibetan-buddhist-nuns/> (Accessed: 7 March 2025).
- Thonsur, T. (2003) 'Women Beyond Tea: Fostering Tibetan Women Leaders of Tomorrow'. Available at: <https://www.academia.edu/83618467/WomenBeyondTeaFosteringTibetanWomenLeadersofTomorrow>.
- Tremmel, M. and Wahl, I. (2023) 'Gender stereotypes in leadership: Analyzing the content and evaluation of stereotypes about typical, male, and female leaders', *Frontiers in Psychology*. Available at: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3.1034258/full>.
- Tricycle (2019) 'Khandro Rinpoche: A Tibetan Buddhist teacher and lineage holder'. Available at: Tricycle (Accessed: 7 March 2025).
- Tsomo, K.L. (2013) 'Buddhism for Women, Women for Buddhism: Institutional Problems and Solutions', *Buddhistdoor Global*. Available at: <https://www.buddhistdoor.net/features/buddhism-for-women-women-for-buddhism-institutional-problems-and-solutions/>. (Accessed: 6 March 2025).
- Tulshyan, R. and Burey, J.-A. (2021) 'Stop Telling Women They Have Imposter Syndrome', *Harvard Business Review*. Available at: <https://hbr.org/2021/02/stop-telling-women-they-have-imposter-syndrome>.
- Willis, J. (1987) *Feminine Ground: Essays on Women and Tibet*. Ithaca, N.Y.: Snow Lion Publications
- YBAM (2022) 'Interview - Joy amidst Challenges of Being a Nun'. Available at: <https://ybam.org.my/en/joy-amidst-challenges-of-being-a-nun/> (Accessed: 7 March 2025).

세션 3 승가(僧伽, Sangha)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

1 Healing Trauma through Sangha

미아 리빙스턴(Mia Livingston)

(mialivingston9@gmail.com)

[번역: 이영희(국제포교사, 샤카디타 코리아)]

본 연구는 확장된 '승가(Sangha)' 개념을 통해 복합적 외상(Complex Trauma)에서 회복한 개인적 경험을 탐색한다. 이 진단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PTSD)"로 알려져 있으며, "무력한 자의 고통"(Herman, 1992)으로도 언급된다. 공식적으로는 "극도로 위협적이거나 끔찍한 사건에 반복적으로 혹은 장기간 노출되어, 탈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장애로, 반복적인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포함할 수 있다"(ICD-11, 2022)라고 정의된다. 본 논문은 불교적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지지망이 외상 회복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논의하며, 정신적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조명한다.

* **내용 경고:** 트라우마 및 성폭력 관련 서술 포함

본 논문은 보다 확장된 의미의 승가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 내가 복합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병명의 진단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CPTSD 로도 알려져 있다.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 1992)은 이를 "무력한 이들의 고통"이라 언급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도피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극도의 위협적이고 참혹한 사건에 장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반복적인 성적 혹은 신체적 학대가 포함된다"고 정의되어 있다 (ICD-11, 2022).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남성 군인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교 정신과 의사 주디스 허먼은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를 겪은 여성과 아동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외상 증상이 있음을 알아채고,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PTSD)' 개념을 개척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복합 외상에 대한 페미니즘적 이해는 이후 30 년이 지나서, 2022 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 의해 비로소 의학계 주류로 받아들여졌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압도적이고 침습적인 기억, 부정적 사고 패턴에 대한 통제력 부족, 과도한 경계심과 과장된 놀람 반응 혹은 적절한 반사 행동의 결여, 정서적 무감각 및 해리,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깊은 믿음, 대인관계 유지 및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등이 있다 (Herman, 1992; 2022).

CPTSD 는 단일 외상과는 달리, 수년에 걸쳐 때로는 평생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외상적 피해 사건이 변화하거나 반복되며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적이다. 즉 외상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단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양상은 심리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별점과 더불어, 나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회복의 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나의 가족은 광범위하게 이동하며 생활했는데, 18 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세 개 대륙을 가로질러 아홉 개 학교를 다녔다. 게다가 나의 부모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하였기에, 나와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자유와 독립성을 주고자 하였다.

그들의 의도는 본래 훌륭한 것이었으나, 좋은 것에는 때로 이면이 존재한다. 어린아이였던 우리는 많은 시간을 혼자서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지내야 했고, 일곱 살 무렵 나는 훨씬 나이 많은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직감은 그와 단둘이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나, 어린 소녀의 직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어른은 거의 없었다. 나는 부모에게 이 사건을 말하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에 나에겐 어떤 지원이나 정의의 심판도 없었다. 개인적 경험이 없다면 근친상간과 같은 일이 자신의 가족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나의 부모의 비폭력적 의사소통에 대한 좋은 의도의 신념은 그들의 갈등 회피와 순진함을 강화시킬 뿐이었다.

다행히도 나의 두 형제자매는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 나의 피해는 내가 여성이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도록 사회화되었으며 특히 연장자에게 무조건적인 존경과 애정을 보여야 한다는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잦은 국가 이동으로 인해 나는 가족 외부에 지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없었다. 열 두 살 무렵,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나는 각자의 학대 경험을 나누었는데, 그녀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후 나는 곧 그 나라를 떠나 다시 시작해야 했다. 교사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CPTSD 는 결코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CPTSD 는 첫 번째 성폭행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즉 나의 특별한 유형의 취약성과 상황들의 조합으로 시작된 것이다. 설령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비슷한 일이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폭력이 CPTSD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삶의 다른 영역에서 회복력과 지지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외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 해당 사건은 나의 고립감을 심화시켰고, 마음속에 냉소와 절망의 씨앗을 심었다. 나의 유일한 가치가 타인의 쾌락을 위한 대상인 것만 같았고 나의 감정, 생각, 선호, 재능, 사랑, 그리고 원하는 관계는 무가치한 것 같았다. 나는 희망 없이 성장하였으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였지만, 방어적인 마음으로 인해 진정한 내적 소망을 들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나는 애정도 없고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일과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를 쏟았으며, 이러한 방향성 부재는 결국 직장에서의 실패와 폭력적인 관계로 이어졌다.

위험을 제한하려는 나의 능력은 손상되었고, 20 대에 이르기까지 다시 여러 차례 성폭행을 겪었다. 나는 건강한 경계 설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과도할 정도로 관대했으며, 작은 애정 한 조각에 절절 매었다. 30 세가 되었을 때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계심, 그리고 지지의 부족으로 나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었다.

나는 거의 평생 동안 불교 수행에 관심을 가졌었고 20 대에 위빠사나 명상 수행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고 나서야 진지하게 불교수행을 하게 되었다. 30 세에 당시 거주하던 영국 북부의 선종 사찰에서 1 년간 승려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직장과 임대 아파트를 정리하였다.

이는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다. 수행 초기 3 개월 동안, 나는 마침내 이해 받고 받아들여졌으며, 안전하다고 느꼈다. 마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같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가 전통적 불교 수행 안에서도 다시 발생했다. 적어도 나와 같은 초심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통제된 수행 방식, 명상 동안의 해리

가능성, 신체적 필요의 부정, 엄격하고 무비판적인 위계와 복종의 요구 등이 그런 문제들이다. 트라우마 생존자에게는 이러한 환경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생존자는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전이 불가피하게 위협받을 때, 안전을 창출하고, 지키며, 유지할 수 없었다.

한편, 나의 스승들 관점에서는, 트라우마 생존자인 내가 감정적이고, 연약하며, 어린아이 같아 보였을 것이다. 즉 불교 수행의 관점에서는 내가 명상에 자유롭게 몰두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율과 정서적 지원의 부재, 관계적 연결의 부재의 필요성이 있어 보였을 것이다. 불교는 종종 "영적으로 다 자란 성인"에게만 적합한 수행이라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사원들처럼 내가 머물렀던 사원 역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신입 수련자를 현명하게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심지어 당시 나 자신조차 PTSD 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수련의 초기에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면, 스승은 누가 수련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다. 실제로 나는 부정적 증상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지만, 불교 수행은 다른 많은 부분에서 나의 치유를 도왔다. 나는 수련하고 배울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사원에서 1년 거주 수련을 마칠 무렵에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삶을 다시 시작하였다.

나는 스스로가 훨씬 행복하고 회복력이 강해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알지 못한 사이, 그러한 "행복"은 나의 진정한 감정으로부터 분리(dissociation)하는 능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유롭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거나 다양한 관계 표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을 잘 다루지는 못했다.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지 못하였고 설상가상, 불교 수행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탐구를 멈추어 버렸다.

불교 수행에서는 강한 자아 감각이 유익하다고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은 자아 감각이 망상을 조장한다고 경고받는다. 그러나 평생 동안 자아 감각을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나로서는, 그것이 특권이며 생존에 필수 요소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다: 자아 감각은 살아있다는 것의 강력하고 긍정적이며 건강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에게 기쁨을 갖고 오는 것들을 찾도록 도와주고, 삶에 방향성을 부여하며,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관을 가능하게 한다. 타인과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거짓 자아를 부풀리는 자기애(narcissism)와는 반대로, 타인과 우리를 구별짓는 진정한 자기(self)를 아는 것은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낸다. (Blackstone, 2018; 2024).

인간에 의해 서로에게 저질러지는 폭력은 초기부터 자아 감각을 침식시키며, 피해자의 발달을 저해한다. 그 결과 피해자는 "옆으로 성장"한다. 마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경험 속에서 그 다름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을 숨기거나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또는 과장되고 위압적인 인공적 자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반사회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생기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PTSD는 지속된다. 그리고 관계로 인해 발생한 상처는 관계적 방식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나는 사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집단적으로서 기능하였지만, 좋든 싫든 실용적 의미에서 불교 수행 특유의 보수성은 정신적, 신체적 고립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나는 건강과 수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상호연결성을 실현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세속의 방식을 새롭게 배우는 데 불교를 공부한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사원을 떠난 후, 불교 수련생이라는 기대에서 벗어나서 나는 정신적 외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심리-사회적 경계(boundaries)를 치밀하게 연구하였다. 나는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

반인종주의(anti-racism, Williams, 2002; 2016), 신체화 심리치료(embodied psychotherapy, Blackstone, 앞서 언급)와 순수미술, 성찰적 돌봄(contemplative care, 뉴욕 선 센터, 2024)을 훈련하였다. 사원만큼 진지한 명상 안거에도 참석했지만, 놀랍게도 어떤 계율도 어기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춤추고, 포옹하고, 노래하고, 웃고, 울면서, 기존의 틀을 부수었다. 심지어 인터넷 데이트에도 도전하였다. (이는 끔찍하지만, 혹시 하고자 한다면 제니 영 박사의 페미니즘적 비판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2025)을 참고하고 하기를 바란다.)

수년간에 걸쳐 천천히 나는 가족과 화해하였다. 그들은 나의 큰 곤경의 시기에 도와주지 못했던 점을 사과하였고, 나는 이를 이해하였다. 나는 사랑했던 장소들로 돌아갔고, 모국어를 다시 배우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다. 나는 남편과 사랑에 빠졌으며, 우리는 서로의 종교를 배우고, 현재는 함께 사원에 다니고 있다. 도의 길은 결코 곧지 않고, 또한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다시 내 마음의 소망을 듣고, 찾을 수 있었다.

References

- Blackstone, Judith. *Belonging Here: A Guide for the Spiritually Sensitive Person*. Boulder, Colorado: Sounds True, 2024.
- . *Trauma and the Unbound Body: The Healing Power of Fundamental Consciousness*. Boulder, Colorado: Sounds True, 2018.
- Herman, Judith.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4th trade paperback edition, New York: Basic Books, 2022.
- .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I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1992: pp. 377-391.
- New York Zen Center, *Foundations in Contemplative Care: A Training Program In Spiritual Carepartnership*. <https://www.zencare.org/foundations-in-contemplative-care>, 2024.
- Williams, angel Kyodo, and Owens, Rod. *Radical Dharma: Talking Race, Love, and Liberation*. Berkeley: North Atlantic Books, 2016.
- . *Being Black: Zen and the Art of Living with Fearlessness and Grace*. Compass East Rutherford: Penguin Publishing Group, 2002.
- World Health Organization. *ICD-1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 2022. <https://icd.who.int/>
- Young, Jennie. *Burned Haystack*. <https://jennieyoung.com/my-channels/burned-haystack/>, 2025.

비구니 틱 느 리엔 안(Bhikkhuni Thich Nu Lien Anh(Le Thi My Hieu))

(lemyhieu2022@gmail.com)

새넌 창(Shannon Chang)

(shnnnchang@gmail.com)

[번역: 김성경(국제포교사)]

본 연구는 가정 폭력, 억압, 정신 건강, 그리고 다르마(Buddhadhamma)을 기반으로 한 치료적 접근의 교차점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치유와 회복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 개념들이 조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불교 비구니와 미국 나로파 대학(Naropa University)에서 정신 건강 상담사로 훈련 중인 재가 수행자로서, 우리는 가정 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비폭력 진보 연대(SPAN)에서의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유럽 중심적 심리학과 불교의 다르마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를 지원하는 임상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더 나아가 다르마를 통해 이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정 폭력의 근본 원인을 사회적 억압의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폭력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식하는 글로벌 공동체가 있어야만 포괄적이고 평등한 돌봄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다.

서론 (Introduction)

친밀한 파트너 및 가족 간 폭력, 흔히 가정폭력(DV)으로 불리는 이 문제는 국가를 초월한 만연한 고통의 형태이다. DV는 모든 성별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역사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여성으로 신원이 확인된 개인이 가장 높은 폭력 피해율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은 생존자에게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의 파급효과를 초래하며, 그들의 가족과 더 넓은 사회적 관계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존자들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지리적, 심리적, 감정적 변화를 마주하게 되며, 이런 변화 중에 대처방안은 존재론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 억압, 정신 건강, 그리고 불법(佛法, Buddhadhamma)에 기반한 치료적 접근 사이의 교차점을 검토한다. 우리는 이 통합적 틀이 조화롭게 치유와 회복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교 비구니와, 미국에 불교기반의 나로파 대학교(Naropa University)에서 정신 건강 상담가로 훈련 중인 재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SPAN(Safehouse Progressive Alliance for Nonviolence)에서 가정폭력 생존자들과 함께한 실천적 경험(통찰력)을 공유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이 유럽중심 심리학과, 내담자와 상담사 모두를 위한 임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더 나아가, 불법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근본 원인을 사회적 억압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전체적이고 공정한 돌봄 체계는, 전 지구적 공동체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개인의 회복과 사회적 변화를 아우르는 정의로서의 치유(healing as justice)의 통합된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활동가들이 개인적 해방과 집단적 해방이라는 이중 렌즈를 포용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자 한다.

배경 및 맥락 (Background & Context)

고타마 붓다 당시에도 폭력과 성별 억압은 존재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것은, 그것을 해결하고 없애기위해 이를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려는 능력이다. 매 10 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고 있으며, 2023 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51,100 명의 여성과 소녀가 친밀한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매일 평균 140 명의 여성 또는 소녀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된다는 의미”이다 (UN Women, 2024).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여성의 약 3분의 1 이 일생 동안 친밀한 파트너의 신체적, 성적 폭력, 또는 비파트너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WHO, 2024). 더 충격적인 통계는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40% 미만만이 도움을 구한다”는 점이다 (UN Women ECA, 2023). 불교와 많은 종교 및 영적 공동체는 수 세대에 걸쳐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세상을 지향해 왔지만, 여전히 어떻게 폭력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난다 말인가. 거리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서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SPAN 에서는 우리를 단순한 치료사로서 뿐만아니라, 옹호자이자 변화의 주체로 바라볼 것을 독려한다. ‘옹호’란 목소리를 내는 행위이며, ‘변화의 주체’란 우리가 억압적이라고 느끼는 현 상태에 저항하려는 사람이다. 우리는 불교도들이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고 보다 공정하고 덜 억압적인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후의 장에서는 불교가 우리의 임상 실천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사회적 불의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가정폭력 생존자들과의 작업에 사용될수있는 통합적인 틀을 채택하는 가치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임상에서의 불교 적용 (Buddhism Applied Clinically)

가정폭력을 경험한 내담자들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고통은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웰빙뿐 아니라 사랑, 소속감, 자존감, 자기 실현 능력에 파괴 등 삶의 여러 차원에 걸쳐 있다. 그들은 내면의 경험뿐 아니라 외부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할것을 희망하며 치료 공간을 찾는다. 불교에 기반한 실천을 겸비한 심리상담가는, 내담자가 미해결된 감정적 상처를 다루고 자신의 내적 잠재력을 키워 자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인간의 일에 참여할수 있는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불교적 가르침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 치료(talk therapy)에 응용되어 왔으며, 특히 삼법인(三法印, Three Marks of Existence)—무상(無常, impermanence), 무아(無我, not-self), 고(苦, suffering)—은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내담자들과의 작업에서 중심 주제로 활용된다.

첫째로, 가정폭력과 같은 큰 변화를 겪는 것은 단순한 학대뿐만 아니라, 상실의 경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 힘든 일이 된다. ‘무상(anicca)’의 가르침은 삶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점을 내포하며, 내담자가 자신을 포함한 삶에 모든것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변화에 대한 수용은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몸과 마음이 적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한다.

둘째로, ‘무아(anatta)’의 관점을 통해, 내담자가 특정 사건이 자신의 통제나 범위 밖의 다양한 외부 요소와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 무아의 개념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적 과정에 집중하도록 격려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을 겪은 내담자들은 종종 "왜 트라우마적이며 부당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질문과 함께 상담실을 찾을 때,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 함께 압도적 무력감으로 고심한다. 이때 '고(dukkha)는', 즉 삶에 내재된 불완전은 만연된 고통과 끈임없는 불만족으로 인한것이고, 그들의 가정폭력 경험이 고(苦)이며, 그것은 변화 가능하고 더 이상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자각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 근본적인 진리를 (치료 과정에) 적절히 통합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는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그 변화는 무한한 평화와 치유로 이끌수 있다.

요컨대, 불교적 가르침은 이미 다양한 치료 공간에서 잘 받아들여져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삼법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8)에 따르면, 상담가는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조언이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불법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임상가는 자신을 '돕는 자' 또는 '치유자'로 여기는 자아를 강화하기보다는, 자각과 깨달음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상담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생존자와 함께 일하는 불교 수행자이자 정신건강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곧 하나의 영적 수행이다. 생존자의 심오한 고통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자신의 자아와 마주하고, 자신의 내면의 자비와 내담자를 다시 연결할 기회와,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불교와 사회적 억압 (Buddhism & Societal Oppression)

이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교 수행에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룬 방대한 문헌을 접할 수 있었다. 수많은 불교 학자들이 사회참여적 불교(Socially Engaged Buddhism)에 헌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수행의 근본적 구성요소로 불교의 길에 사회 정의를 통합하는 개념은 아직까지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이 작업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특히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외된 단체에게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억압적인 사회 구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여성으로 정체화된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불교 수행의 길을 걷는 우리는, 성별에 기반한 억압과 다른 교차적 차별(소외)의 경험을 통해 독특한 시각을 지니게 된다. 우리는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살아갈 것을 설파한 부처의 길을 따르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고통을 인식하는 것과 억압적 구조를 해체하고자 하는 동기 사이의 이중 과정은, 억압과 해방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우리를 놓이게 한다.

우리는 타인의 세계관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내담자의 가정폭력 경험을 야기한 구조적 원인과 조건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SPAN은 모든 성별의 개인을 지원하지만, 다수의 내담자는 시스젠더 여성이거나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개인으로, 이는 성별 기반 억압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내담자 중 다수는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니며,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사회 시스템을 헤쳐 나갈 때 계층 차별과 불평등한 지원 접근성에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사회적 역학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기 비난을 계속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불교는 가정폭력 생존자와의 작업에서 매우 귀중한 통찰(지도안내)을 제공하지만, 그들의 경험을 형성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결부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통찰을 전문적 실천과 개인의 삶에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적 틀을 제안한다.

통합적 틀 (Framework)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 HON)과 개인의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생존자들은 다층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매슬로우(1943, 1954)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요약설명했는데, 이는 생리적 욕구(음식과 물에 대한 접근)를 시작으로, 안전, 사랑과 소속, 자존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self-actualization)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이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HON 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폭력 생존자들의 욕구를 다층적인 시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이 모델은 사회적, 문화적, 지적 욕구에 대한 선형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는다(Hofstede, 1984; King-Hill, 2015). 이것은 왜 매슬로우가 원래 제안한 피라미드 형식이 아닌, 다음의 원형 파이 차트 형태로 다섯 가지 욕구 단계로 재구성된 이유를 말해준다.



치유의 통합적 바퀴 (The Integrative Wheel of Healing)

위의 치유의 통합적 바퀴 프레임워크는, 중심에 생존자들의 고통 경험을 나타내는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외곽을 둘러싼 치유에 필요하다고 믿는 세 가지 측면인 사회 정의, 정신 건강 상담, 불교 가르침(Buddhadharma) 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통해, 우리는 가정폭력 생존자들이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존중받고 이해받는 느낌을 가지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프레임워크는 가정폭력 생존자들과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론 (Conclusion)

불법(Buddhadhamma)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성찰을 권장합니다. 불교 비구니이자 재가 수행자로서 내담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 그리고 맥락이 그들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없이는 깨달음은 얻어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성찰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에 대한 병행적 탐구를 필요로 합니다. 이 글에 제시되어진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불교 수행자들이 이와 같은 복합적인 역동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단지 가정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보다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글로벌 승가(Sangha)****로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의 생존자들을 지지하고, 폭력을 지속시키는 행동과 태도를 규탄하며,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추구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춘 시스템과 구조를 창조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8). Code of ethic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www.apa.org/ethics/code>
- Hofstede, G.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King-Hill, S. (2015). Critical analysis of Maslow's hierarchy of need. The SAGE Encyclopedia of Theory in Education. <https://doi.org/10.4135/9781483346229.n155>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 - 396. <https://doi.org/10.1037/h0054346>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UN Women. (2024). Gender-related killings of women and girls (femicide/feminicide).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feature-story/2024/03/gender-related-killings-of-women-and-girls-femicide-feminicide>
- UN Women ECA. (2023).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eca.unwomen.org/en/focus-areas/evaw>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estimates, 2018.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violence-against-women>

세션 3 순례, 연구,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성찰
3 Reflections on Pilgrimage, Research, and Coping with Changes

산드라 응 시우 산 (Sandra Ng Siow San, PhD)
(siowsan@gmail.com)

[번역: 정형은(샤카디타 코리아, 국제포교사)]

본 연구는 연구자와 순례자로서의 교차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개인적 성찰을 담고 있다. 불교 순례 경험에 대한 박사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 개인적·직업적 변화를 촉진한 여정을 분석한다.

Ray 와 McFadden(2001)의 '망(Web, p. 203)'과 '퀼트(Quilt, p. 205)' 개념을 활용하여, 연구 과정과 순례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조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여정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듯, 연구자 자신의 학문적 여정 또한 불확실성, 통찰, 변화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변혁적 수행의 길이었다.

이러한 전환점은 불교적 지혜와 보다 깊고 의도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하였고 학문적 압박 속에서 회화와 일기 작성과 같은 창조적 실천을 정신 건강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자기 성찰과 자비를 기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공인 코치는 아니었지만, 마음챙김 수행과 코칭 철학에 대한 관심이 이미 변화와 도전, 그리고 자기 자신 및 타인을 지원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러한 관점은 불교적 지혜와 결합하여, 순례의 과정적 본질—즉, 여정 자체가 목적임을—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 경험을 정신 건강과 회복력이라는 보다 넓은 주제를 탐색하는 렌즈로 삼아, 본 논문은 의도적이고 느린 실천이 현대의 빠른 삶 속에서 치유와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문과 삶을 연결하며, 개인적 깨달음, 수용, 양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순례로서의 박사과정 여정

순례란 외적인 여정이자 내적인 여정으로, 이는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바버 Barber, 1991, 1). 외적이고 물리적인 여정은 순례자를 "멀고 신성한 장소"로 데려가며 그곳은 "새롭고, 낯설고, 위험한" 곳일 수 있다 (바버 Barber, 1991, 1).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내적인 여정에서 이루어진다. 순례는 내면의 각성과 화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성장시키며, 깊은 자기 발견과 영적인 성장,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낸다. 순례자에게 있어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지형을 가로질러 자신도 몰랐던 낯설고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리밍 (Leeming, 2020)은 순례에서 "세 가지 필수 단계"를 제시한다: "일상 생활에서로부터의 분리 (separation)," "신성한 것과의 상호작용 (interaction with the sacred)," 그리고 "새로운 느낌으로 귀환(the return with a sense of renewal)." 이러한 단계들은 박사 과정 동안 나의 경험과 깊이 공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학문적 틀에서 벗어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낯선 아이디어와 방법론에 몰입했던 경험과 유사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의 나의 가정들을 되짚어보고 나의 한계와 사고를 확장시킨 새로운 정보를 접했던 순간들과 일치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박사 과정이

끝나갈 무렵 발생했다. 나는 초기 단계의 연구 질문뿐만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인식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귀환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도전과 경험, 통찰을 통합하며 나의 연구와 진화하는 자신을 재구성한 과정이었다.

즉, 박사 과정은 단순한 학문적인 추구가 아니라 지식과 목적에 대한 개인적인 탐구였다. 순례자가 신체적 및 감정적인 도전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 대한 감각도 변화했다. 한때 확립된 진리처럼 보였던 것들이 더 깊은 질문으로 바뀌었고, 고정된 사고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나의 연구의 미지의 영역과 내면 세계라는 또 다른 미지의 영역에 몰입하도록 촉진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연구는 단순히 외부 지식 탐구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영적인 성장의 여정이 된 것이다. 이는 주변 세계에 대한 질문과 내면의 가정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비유로서의 웹 (Web)과 퀼트 (Quilt)

레이 (Ray)와 맥패든 (McFadden)의 웹 (web, 2001, 2003)과 퀼트 (quilt, 2001, 2005)라는 비유는 불교 가르침과 수행이라는 더 넓은 맥락 안에서 나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두 은유 모두 나의 개인적, 지적, 영적 성장의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본질을 요약한다.

웹이라는 비유는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를 나타내는데, 거미줄처럼 "물질적인 (material)" 형태이든, 월드와이드 웹처럼(www.) "가상적인 (virtual)" 형태이든 (레이 Ray 와 맥패든 McFadden, 2001, 2003) 마찬가지다. 두 형태 모두 교육하고, 공동 창조하고, 영감을 주고,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계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과 역동성을 보여준다. 나의 학문적인 여정에서 웹은 각 가닥이 중요한 요소를 상징하는데, 지도 교수의 지원, 연구 참여자들과의 대화 (공식적 및 비공식적), 동료들과의 상호 작용, 그리고 수집된 자료와 데이터를 통한 고독한 성찰의 순간들을 나타낸다. 이 가닥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고, 나의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진화했으며, 동료와의 예상치 못한 대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하거나 고독한 성찰의 순간이 개념과 데이터 간의 창의적인 연결고리로 이어지기도 했다. 계획되었든 즉흥적이든 각 상호 작용은 나의 프로젝트의 더 큰 그림을 함께 엮어가는 가닥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나의 개인적, 지적, 영적 성장의 상호 의존적인 본질을 강조했다. 더욱이, 그들의 길과 수행을 헤쳐나가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의 여정, 그 여정의 문제점, 통찰력, 변화와의 유사점을 발견했다. 박사 과정은 결코 선형적이지 않았다. 길을 잃고, 발자취를 되짚고,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탐색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여정의 불확실성에 계속 열려 있고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 자체에서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었다. 혼란과 우회로를 통해 나는 연구를 하면서 나의 목소리를 찾았고, 예상치 못한 통찰력과 아이디어와의 연결을 불러일으켰다.

퀼트의 비유는 여정을 이루는 여러 면모들과 다양한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이해를 한층 더 돕는다. "조직적인 구조 (an organizing structure)"를 따르든 "혼합 퀼트 (crazy quilt, 비대칭 비정형의 퀼트)"를 형성하든 (레이 Ray 와 맥패든 McFadden, 2001, 2005) 각 조각을 전체의 일부로 볼 때 고유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우리는 모든 일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길 바라지만, 퀼트를 만드는 과정처럼 치유와 마음챙김, 영적인 여정은 반드시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종종 일정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으며 뜻밖의 방식으로 흘러간다. 퀼트의 비유는 나의 학문적인 경험과 공명한다. 그 과정은 때때로 혼란스럽고 의심과 좌절의 순간들과 함께 단절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다양한 가닥들(연구 질문, 방법론, 이론적 프레임워크, 현장 조사 및 수집된 데이터와의 상호 작용)이 서로 얽히면서 나의 논문을 완성한 "정교한 바느질 (intricate stitching)" (레이

Ray 와 맥패든 McFadden, 2001, 205) 패턴을 형성했다. 혼란, 의심, 좌절의 순간에 나는 결과를 향해 서두르기보다는 과정을 포용하는 법을 배웠다.

대처 전략으로서의 창의적인 실천

박사 과정은 종종 나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웰빙에 타격을 입혔고, 그래서 균형을 회복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거의 매주 아팠다. 나의 피부 민감성이 악화되었다. 지속적인 두통과 눈의 피로가 나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한때 나는 간이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입원했다. 요가와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4~6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 운동은 나의 신체 건강에 유익했지만 결국에는 따분한 일이 되었고 스트레스가 되어버렸다. 엄격한 일상은 나의 학문적인 여정의 압력을 반영하는 것 같았고, 나에게 더 넓은 공간과 유연성을 갈망하게 했다. 나는 더 적게 하기를 원했다. 덜 하고, 덜 움직이고, 덜 가지기를 원했다. 동시에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더 많은 자기 표현, 더 많은 가벼움, 더 의미 있는 창조, 나의 내면의 안내자와의 더 많은 소통과 일치. 이러한 상반된 욕망 사이의 갈등은 내가 진정으로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촉진했다.

결국 나는 글쓰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엉망진창이고 진흙투성이이며 조각난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비논리적이고 일관성 없는" (골드버그 Goldberg, 2016, 13)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시금 신뢰하고, 참을성 있고 비공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글쓰기 연습"을 시작했다 (골드버그 Goldberg, 2016, 12). 이 연습을 통해 나는 유기적이고 비판단적으로 편견 없이 "에너지를 모으고" (골드버그 Goldberg, 2016, 13), 나 자신만의 속도로 한 장(章) 한 장 써내려 가면서 내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다. 나의 내면의 혼란과 투쟁에 목소리를 냄으로써 나는 개인적, 지적, 영적인 성장과 치유를 위한 길을 닦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은 경직된 나의 학문적인 가설과 기대의 한계에 대한 해독제가 되었고, 이전에는 숨겨두었거나 만나지 못했던 나 자신의 원초적이고 취약한 부분을 탐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했다.

돌이켜보면, 내가 더 간혀 있고 밀려났다고 느낄수록 내부에서 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외부의 요구를 잠시 내려놓고 싶었다. 그림, 특히 직관적인 그림은 자기 표현을 위한 공간과 매체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수행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계획 없이 그림을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이 종이나 캔버스에 시각적 표현되도록 하는 이유이다. 나는 종이 앞에 30 분 또는 1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단 하나의 붓 터치 혹은 펜으로 점 하나만 그리는 시간을 기억한다. 이 과정은 내게는 명상의 한 형태가 되었고, 나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느림의 미덕

‘느림’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순례 경험의 내재적이며 본질적인 측면이다. 성지를 향해 장거리를 걸어가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우리의 발걸음과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순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순례의 맥락을 넘어 느림은 예상되든 예상치 못했던 삶의 변화를 탐색하는 데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속도와 생산성이 특징인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느낌은 속도보다 깊이를 우선시하고 진행보다 과정을 우선시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지적인 작업 영역에서 느림은 "신중하고, 신중하며,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그 자체로 느림이 아닙니다" (버블스 Burbules, 2020, 1443).

나의 연구 여정 내내 나는 느림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 학습, 성찰, 통합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느림을 나의 직업적 및 개인적인 삶에 통합하려면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했다. 나는 일반적인 기존 척도로 생산성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려는 충동에 저항해야 했고, 여전히 그럴 때도 있지만,

순례, 연구,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성찰 (산드라 응 시우 산)

그보다 각 작업에 대한 나의 충실도에 집중하고자 했다. 나에게 이것은 시간이나 프로젝트 관리를 더 잘하거나 최종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인적인 리듬과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존중하는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느림은 수행이 된다.

속도를 줄이거나 서두르지 않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나는 무상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불확실성의 순간에 잠깐의 멈춤, 그리고 즉각적인 답변에 대한 필요성을 기꺼이 포기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또한 연구 과정과 자아의 무상함을 인정함으로써 기대치를 버리고 나의 박사 여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데 더 편안함을 느꼈다. 더욱이, 느림은 나의 작품이 나의 개인적, 직업적 관계의 영향과 나의 연구 프로젝트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연과 상호 작용하는 힘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 주었다. 점점 더 나는 나의 박사 학위를 지식의 상호 연결된 웹의 일부, 훨씬 더 큰 퀼트의 작지만 필수적인 패치로 이해했다.

결론

나의 학문적인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코칭 작업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정식으로 훈련받지 않았지만 코칭과 마음챙김의 철학과 원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나의 접근 방식에 얽혀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라이프 코치로서 나의 꾸준한 훈련, 인증 및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나의 여정의 개인적 및 직업적 측면을 더욱 연결했다. 또한 나의 박사 학위 연구는 나의 연구의 개인적 및 직업적 차원이 얽혀 있는 복잡한 방식을 조명했다. 내 여정의 변화를 담고 있는 순례의 틀에서부터, 내 작업의 상호 연결성을 알게 해준 웹과 퀼트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각 경험은 오늘날의 나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연구든 삶이든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서 명확성과 균형을 찾는 데 핵심이 되었다. 직관적인 그림에서 명상수행으로서의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탐구한 창의적인 수행들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여 전통적인 학문적 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의 생각, 감정 및 통찰력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었다. 궁극적으로 이 여정은 연구자, 코치 또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인내심, 존재감, 그리고 미지에 대한 열린마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계속 진화함에 따라 나는 변화가 목적지가 아니라 고요함, 성찰, 상호 연결성의 순간에서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참고 문헌

- 바버 (Barber), R. 1991. 순례 (Pilgrimages). 우드브리지 (Woodbridge): 보델 프레스 (Boydell Press).
- 버블스 (Burbules), N.C. 2020. "미덕으로서의 느림 ("Slowness as a virtue. ")." *교육 철학 저널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54 (5): 1443-1452. 도이 (doi): 10.1111/1467-9752.12495.
- 골드버그 (Goldberg), 나탈리 (Natalie). 2016. 뼈에 글쓰기: 내면의 작가 해방 (Writing Down the Bones: Freeing the Writer Within). 30주년 기념판. 샴발라 (Shambhala).
- 리밍 (Leeming), D.A. 2020. "순례 ("Pilgrimage. ")." *심리학 및 종교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Psychology and Religion)*, D.A. 리밍 (Leeming) 외 편집. 스프링거 (Springer), 챔 (Cham). https://doi.org/10.1007/978-3-030-24348-7_511.
- 레이 (Ray), R.E., 및 S.H. 맥패든 (McFadden). 2001. "영적 발달을 향한 영웅적인 여정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웹과 퀼트 ("The Web and the Quilt: Alternatives to the Heroic Journey toward Spiritual Development. ")." *성인 발달 저널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 (4): 201-211. 도이 (doi): 10.1023/A:1011334411081.

세션 3 태국 불교 부적 신성화 및 상품화 의례에서 여성의 역할

4 Women and the ritual of sacral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Buddhist amulets in Thailand

암누아이폰드 키드프롬마(Amnuaypond Kidpromma)

(Amnuaypond.k@cmu.ac.th)

[번역: 김은희(사카디타 코리아)]

본 연구는 현대 태국에서 불교 부적-메달(탈리스만)의 신성화 및 상품화 의식에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과 변화하는 지위를 조명하고자 한다.

Stengs(1998), Tambiah(1984), Kitiarsa(2007), Soontravanich(2013), Seeger(2013), Reynolds(2019) 등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적 및 다양한 불교 성물은 남성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이러한 물질적 성물의 의미와 의식은 남성 승려와 그 계보에 의해 구축, 전달 및 유지된다.

부적은 남성에 의해 신성화되고 상품화되며, 이를 인증하는 자들은 "부적 전문가"(Sean Phra 또는 Nak Leng Phra)로 불린다. 반면, 여성은 전통적으로 신성 영역에서 '접촉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며, 그들의 불결하고 오염된 몸이 성물과 접촉할 경우 그 신성성이 훼손되거나 파괴된다고 여겨져 왔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은 여성들이 부적 숭배 및 교환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 성별 가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부적의 신성화 및 상품화 의식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부적 숭배에서 의식 수행자 및 부적 전문가로서의 여성의 새로운 역할은 현대 태국 사회에서 성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현대 태국에서 불교 부적(부적 메달리온 및 탈리스만(talismans))의 신성화와 상품화 의례에 있어 여성의 전통적 및 변화하는 역할과 지위를 조명한다. 스텝스(Stengs, 1998), 탐비아(Tambiah, 1984), 키티아사(Kitiarsa, 2007), 순트라바니치(Soontravanich, 2013), 지거(Seeger, 2013), 레이놀즈(Reynolds, 2019) 등의 선행 연구들은 부적과 다양한 불교 성물(sacra)과 같은 종교적 물품이 남성 중심으로 해석되고 유지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성물의 의례 및 의미는 남성 승려들과 그들의 계승자들에 의해 해석되고 전승되어 왔다. 부적은 남성에 의해 신성화되고 상품화되며, 부적을 인증하는 자들은 '부적 전문가'(Sean Phra 또는 Nak Leng Phra)로 알려져 있다. 반면, 여성은 전통적으로 불결하고 오염된 신체를 지녔다는 이유로 신성한 영역에서 '접촉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여성의 신성한 물건과의 접촉은 부적의 신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이러한 문화적 설명은 여성들이 부적 숭배와 부적 거래 네트워크 참여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다.

본 논문은 진행 중인 연구의 일환으로, 이러한 문화적 성별 규정을 비판하고, 신성화 및 상품화 의례에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들의 새로운 역할은 의례 수행자 및 부적 전문가로서 현대 태국 사회의 성별 전환(gender transition)을 수반한다.

주제어: 여성, 부적, 신성화, 불교, 태국

라마 4 세(재위 1851-1868) 시대 태국의 불교 개혁은 승려 및 재가 불자에 의해 수행되던 초자연적 및 마법적 의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암묵적 및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개혁은 마법을 불교가 아니며

무지와 맹신(*gnom-gnay*)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여 배제하였다(Jackson 2022). 다양한 형태의 마술과 초자연적 관행, 부처와 고승의 부적까지 포함하여, 이러한 것들은 문명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절하되었다. 또한 마법과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사람들은 무지한 시골 사람(*ban nog*)으로 여겨졌다.

오늘날에도 태국 승가(Sangha)는 사찰 내에서 마법과 초자연적 의례를 금지하고 있다. 승려들은 점술, 신성한 물품 제작, 신성한 문신 새기기(*sakyant*)와 같은 어떤 형태의 마법 행위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국 불교 내에서 마법과 초자연적 믿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근대화와 자본주의가 태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오히려 마법, 초자연적 현상, 미신이 다시 부활하였다. 부적 숭배 문화의 확산은 태국 현대 사회경제 속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Tambiah 1984). 잭슨(Jackson, 2022, p.24)은 부적과 다양한 마술적 형태가 세계 자본주의 시기에 남은 전근대적 잔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적 신자유주의, 디지털 미디어화, 군부 지배, 군주제 중심의 태국은 마법을 새롭게 재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p.24).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젠더 연구 학자들, 예컨대 칸델왈(Khandelwal, 2001), 카와나미(Kawanami, 2001), 팔크(Falk, 2007), 푸이란(Pui-Lan, 2002)은 여성 신체가 주변화와 억압의 장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태국의 신성 공간에서의 여성 억압은 유동적이다. 한편으로는 여성 신체가 열등하고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체액과 하의가 신성한 의례에서 강력한 힘으로 변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과거 시골 마을에서는 남성들이 무역이나 먼 곳으로의 모험을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이 전통이었으며, 이들은 악한 사람이나 영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행운을 얻기 위해 부적, 신성한 물건, 신성한 문신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남성이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어머니의 낡은 사롱(*sarong, chai pha thoong*)을 휴대하는 것이 필수였다고 한다. 이 사롱은 여성의 체액으로 인해 오염되었다고 여겨지면서도 악운을 쫓는 데 사용되었으며, 어머니의 사롱은 다른 모든 부적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힘은 남성의 신성한 권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많은 사찰의 성스러운 장소들은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성이 사찰이나 파고다(체디, *chedi*) 아래에 묻힌 신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은 내재적 힘을 지니고 있지만, 이 힘은 부적이나 신성 물건 제작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힘은 오히려 신성한 영역에서 억제되거나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의 체액이나 경건한 불교 수행을 통해 얻어진 여성적 힘은 규범적 성물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여성이 부적을 비롯한 신성 물건 제작과 상품화에 관여하지 못하는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스탠리 J. 탐비아(Tambiah, 1984), 파타나 키티아사(Pattana Kitiarsa, 2007), 찰롱 순트라바니치(Chalong Soontravanich, 2013), 마틴 지거(Martin Seeger, 2013) 등의 방대한 연구들은 부적과 다양한 성물이 남성 중심으로 생산되고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부적은 도시 남성들 간에 상품화되었으며, 부적 전문가(*Sean Phra* 또는 *Nak Leng Phra*) 역시 대개 남성이었다. 부적은 남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 될 수 있었다. 유명 부적(예: 프라그링, 프라 솜땃 토, *Pragrang and Prasomdet To*)을 소유하는 것은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는 방법이였다(Tambiah 1984). 초기 연구자인 바스 터윌(Bas Terwiel)은 부적은 여성용이 아니며, 여성이 이를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1975). 그러나 스텝스(Stengs)는 여성도 승려들로부터 부적을 받아, 이를 목걸이에 넣어 간직한다고 지적하였다(1998). 마틴 지거(Martin Seeger)는 그의 연구(2013, 2018)에서 소외된 여성 불자들을 연구하며, 여성들이 남성의 개입 없이 부적을 제작하고 신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러한 여성들의 적극적 역할은 과소평가되거나 심지어 은폐되었다.

여성과 신성 및 부적 세계

시대의 변화와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여성들이 부적 제작과 상품화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부적 숭배 문화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남성 구성원들에 의해 주변화된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부적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남성들은 여성의 불결한 신체가 부적이 신성한 힘을 훼손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때문에 많은 부적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부적을 손대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들이 신성 부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부적 전문가로서 더 나은 소득과 명성을 얻을 기회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믿음과 관행에 도전하며 자신을 부적 전문가로 탈바꿈한 여성들도 있다. 이들은 부적을 판매하고, 거래하며, 직접 다루기도 한다. 이 여성들은 금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 중심 체계 속에서 협상하며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 때로는 남성 동료들보다 더 많은 구매자를 유치하거나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많은 남성 구매자들은 여성 부적 전문가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부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값비싼 부적을 더 낮은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남성 구매자들은 여성 부적 판매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여러 부적을 동시에 선택하고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렇게 하면 여성 판매자들이 혼란에 빠져서 비싼 부적을 싸게 판다."

- 여성 부적 판매자 A

또한 일부 남성들은 여성 부적 전문가들과 거래하기를 선호하는데, 이는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일부 남성 부적 판매자들이 거칠고 오만하며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고 느끼고, 이러한 남성들과 대화하기를 꺼려한다(특히 그 남성이 유명하거나 확실한 진품 부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더 그러하다).

"나는 남성 판매자보다 여성 부적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여성들은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부적에 대해 설명할 때 친절하고 상냥하다. 또한 남성보다 더 많이 나누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 남성 구매자 A

또 다른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여성 신체에 대한 낙인이다. 현대 사회는 여성들이 부적 전문가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여전히 일부 남성들은 여성 신체가 부적이 신성한 힘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생각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다룰 수 있는 부적과 자신들을 받아들이는 남성들과 거래하는 방식을 택한다.

본 논문이 다루는 또 다른 주제는, 여성이 부적 신성화 의례의 수행자나 신성화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전통적으로 이 역할은 승려나 재가 남성의 몫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서는 지역 조직이 주최하는 의례 수행자 양성과정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종교적 또는 영적 행사에서 의례 수행자가 될 자격을 얻게 된다. 여성들은 종교 의례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실제로 의례 수행자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여성이 의례 수행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직접 의례를 집행할 수는 없다. 여성들이 의례 수행자로 활동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한 유명한 의례 수행자이자 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여성도 배울 수는 있다. 그러나 직접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성이 의례를 집행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화와 자본주의는 여성들이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영역, 즉 의례 수행자나 부적 판매자 및 전문가의 역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여성들의 이러한 진입은 단지 남성 전유였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성별 이데올로기와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성들은 부적

태국 불교 부적 신성화 및 상품화 의례에서 여성의 역할 (암누아이폰 키드프롬다)

판매자로 일하면서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일부는 남성 동료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영적 영역에서는 무지와 아름다움이 여성의 본성으로 여겨진다. 부적 숭배 문화에 발을 들인 여성들은 지성과 능력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무지와 아름다움으로 인식된다. 이 세계에서 여성들의 성공은 그들의 지적 능력이나 거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지와 매력을 기반으로 평가된다.

References

- Jackson, Peter. 2022. *Capitalism Magic Thailand: Modernity with Enchantment*. Singapore: ISEAS Publishing.
- Kitiarsa, Pattana. 2008. "Buddha Phanit: Thailand's prosperity religion and its commodifying tactics." In *Religious Commodification in Asia: Marketing Gods*, by Pattana Kitiarsa, 120-43. New York: Routledge.
- Kitiarsa, Pattana. 2012. *Mediums, Monks, and Amulets: Thai Popular Buddhism Today*. Chiangmai: Silkworm Books.
- Kitiarsa, Pattana. 2005. "Magic monks and spirit mediums in the politics of Thai popular religion." *Inter-Asia Cultural Studies* 6 (2): 209-226.
- Seeger, Martin. 2013. "Reversal of Female Power, Transcendentality, and Gender in Thai Buddhism: The Thai Buddhist Female saint Khun Mae Bunruean Tongbuntoem." *Modern Asian Studies*, 47 (5): 1488-1519.
- Seeger, Martin. (2019). *Gender and the Path to Awakening: Hidden Histories of Nuns in Modern Thai Buddhism*. Silkworm Books.
- Soontravanich, Chalong. 2013. "The Regionalization of Local Buddhist Saints: Amulets, Crime and Violence in Post-World War II Thai Society." *Sojourn* 28 (2): 179-215.
- Stengs, Irene. 1998. "Collectable Amulets: The Triple Fetishes of Modern Thai Men." *Etnofoor* 11 (1): 55-76.
- Tambiah, Stanley J. 1984. *The Buddhist saints of the forest and the cult of amule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James. 1999. "(Post)-Modernity, remaking tradition and the hybridisation of Thai Buddhism." *Anthropology Forum*, 9(2): 163-187.

세션 3 비구니 담마난다의 정신적 유산 또는 업적 - 여성 불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자의 삶

5 Bhikkhuni Dhammananda's Legacy as a Leader for Buddhist Women Seeking Empowerment

신디 라시콧(Cindy Rasicot)

(cindy.rasicot@gmail.com)

[번역: 이정란(샤카디타 코리아)]

비구니 담마난다(Bhikkhuni Dhammananda)는 관습을 깨고 태국에서 테라와다 불교 전통 최초의 완전한 비구니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기, 인내, 자비의 실천이다. 태국 언론은 그녀를 "반항하는 승려(Rebel Monk)"라 불렀으며, 2001년 사미니(Samaneri) 계율을 받은 이후 언론, 대중, 그리고 정통 태국 승려들로부터 강한 비판과 개인적 공격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논란 속에서도 담마난다는 한결같은 인내와 결의를 유지하였고 그녀의 삶과 용기는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불교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종교 지도자로서 비구니 담마난다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그녀의 리더십을 차별화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용기와 자비이다. 논의는 그녀의 학문적·사회운동적 배경에 대한 개요로 시작하여 출가 과정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불교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그녀의 비전을 제시한다.

담마난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불교 학자이자 사회참여적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이다. 현재 태국 최초의 여성 불교 사원인 송담마갈야니(Songdhammakalyani) 사원의 주지로서, 여성 출가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그녀의 영향으로 285 명의 여성이 비구니로 출가하였다. 1,000 명 이상의 여성에게 일시적인 사미니 계율을 수여하였다. 2019년 BBC는 그녀를 아시아에서 테라와다 승단 계보를 복원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 인에 선정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샤카디타(Sakyadhita) 지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비구 및 비구니 스님들, 그리고 법우 여러분께도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여성 불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도자로서 담마난다(Dhammananda) 스님의 삶과 업적입니다. 저는 스님의 헌신적인 제자로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님과 함께 해왔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의 용기와 자비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대부분은 제가 최근 집필한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스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스님은 태국 테라와다 불교 전통에서 최초로 완전한 비구니 수계를 받은 인물로 관습을 넘어선 길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존경하는 스님은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으며 내 손자들이 여성불자로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할머니로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존경하는 담마난다 스님의 수계는 평등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고 태국 여성들이 수계를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현재 태국 77개 주 가운데 약 30개 주에 걸쳐 약 285명의 비구니가 있습니다.

비구니 담마난다 스님은 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테라와다 비구니 승가를 강화하는 데 평생을 바쳐오셨습니다. 태국과 아시아에서 테라와다 전통의 여성 승가 계보를 복원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2019년 BBC는 스님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여성 100인에 선정하였습니다.

스님은 사회참여불교 실천가이자 환경운동가이기도 하십니다. 1987년 스님은 아야 케마(Ayya Khema) 스님, 카르마 렉셰 초모(Karma Lekshe Tsomo) 스님과 함께 샤카디타(Sakyadhita)를 공동 창립하셨습니다. 스님은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셨지만 오늘 저는 여성 불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페미니스트 종교 지도자로서의 스님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스님의 지도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두 가지 자질은 용기와 자비입니다. 이제 스님의 학문적 배경과 사회운동가로서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출가의 여정을 소개한 뒤 불교 여성 지도자에 대한 스님의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적 배경과 사회운동가로서의 배경

스님께서 초기 페미니스트 불교 학자로서 기여하신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님은 현재의 비구니 부흥 운동의 기초가 된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 하셨습니다.

스님의 속명은 찻수만 카빌싱(Dr. Chatsumarn Kabilsingh) 박사이며, 방콕의 탐마삿(Thammasat) 대학교에서 27년간 불교학을 가르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불교학자입니다. 스님은 부처님 생애에 여성에게 수계를 내리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오랜 시간 원전 연구에 몰두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최초의 페미니스트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처음으로 남성과 여성이 영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셨을 때 여성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황금 같은 말씀입니다. 밑줄을 두 줄 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그들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담마난다 스님은 1983년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학자에서 활동가로 전환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셨습니다. 그해 스님은 태국 테라와다 비구니들의 미래에 대해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발표하였고 이 주제에 대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 학회에서 하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찻수만 카빌싱(Chatsumarn Kabilsingh) 박사는 점차 태국 내 비구니 운동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학회(conference)에 참석하기 전까지 스님은 불교와 비구니들의 고난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었지만 스님의 말에 따르면 “세상의 혼란과 동떨어진 상아탑 속 학자로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원(Harvard Divinity School)에서 스님은 처음으로 서구의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직접 경험한 적은 없었어요. 당당한 여성 페미니스트 40여 명과 함께 있으면서 큰 자극을 받았죠. 그중 일부는 분노와 투쟁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한 여성은 너무 자주 투옥되어 머리카락이 하얗게 섰을 정도였죠. 그 경험은 제게 감정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성들이 겪은 고통의 이야기들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스님은 말했습니다. “저는 투쟁적인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분노에 차 있었죠. 저는 그들의 주장에 공감했지만 그들처럼 분노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태국(Thailand) 문화에서는 누구와 공개적으로 맞서거나 망신을 주지 않아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 그렇죠. 아시아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의 질서에 맞서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제가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처럼 행동했다면 아무것도 이를 수 없었을 거예요.”

스님은 여성들이 비구니로 출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에 더 깊이 참여하고자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따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염려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때 스님은 자신의 불교적 뿌리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뿌리가 있어야 해요.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언제든지 길어 올릴 수 있는 원천이지요. 불교는 정말로 강한 힘이에요. 정말 강한 힘이에요.”

스님은 언제나 자신은 먼저 불교도이고 그 다음이 페미니스트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교에 대한 수행과 이해 덕분에 저는 더 나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었지만 불교적인 방식으로, 자애(慈愛)롭게 하고 싶었어요.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페미니스트로서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과 20 년 넘게 함께 수행해오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봉사’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스님이 정의하는 자비입니다. 단지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2011 년 스님은 나콘 빠툼 교도소(Nakon Pathom Prison)에서 여성 수감자들을 위한 10 주간의 수행 프로그램인 ‘감옥 안의 마음의 자유(Mental Freedom in Prison)’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환경운동가이기도 하며, 스님이 이끄는 사원은 100% 재활용과 재사용을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정책을 갖춘 모범적인 에코 사원(eco-temple)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출가의 길

스님은 50 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렵 스님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불교학자이자 사회참여적 페미니스트 교수로, 27 년 동안 불교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스님은 일종의 유명 인사로, 출가 이전 7 년간 인기 있는 TV 법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100 권이 넘는 책을 출간하셨고, 30 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세 아들을 둔 어머니이기도 하셨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어떻게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중 거울을 보았는데, 영어로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하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보셨어야 해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아래 세트로 맞춰 입고 손톱은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죠. 보석도 많이 하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외로웠고, 제 인생에서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발표 서두에서 저는 담마난다 스님을 페미니스트 불교 지도자로서 돋보이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용기와 자비입니다. 지금부터 먼저 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님은 출가를 위해 스리랑카(Sri Lanka)로 가야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90%가 불교도인 태국(Thailand)에서는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1 년 스님이 사미니 수계(초기

출가)를 받았을 당시, 태국에는 약 30 만 명의 비구가 있었지만, 출가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스님이 고향인 태국으로 돌아왔을 때, 태국 언론은 스님에게 ‘반항하는 스님(Rebel monk)’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고, 스님은 수많은 증오에 찬 이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 스님은 2 년 동안 신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제가 혼자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개인적인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스님은 분노나 증오로 대응하지 않으셨고, 인내와 결단으로 맞서셨습니다. 심지어 스님은 뒤에서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절로 와서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셨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용기에 관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용감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제가 출가를 결심한 것은 학문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경전을 공부했고, 부처님께서 세우신 사부대중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 자체를 특별히 용감한 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용기를 느꼈던 순간은 2001 년, 수많은 남성 승려들 사이에 혼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은 부처님의 본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리더십의 자질은 자비입니다. 2000 년, 제가 여성의 신분이던 찻수만 카빌싱 박사는 대만으로 가서 재가 보살계(Bodhisattva vows)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담마난다 스님이 타인을 위한 자비로운 돌봄에 얼마나 깊이 헌신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계를 받는 순간부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고, 사회와 세계를 돌보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님은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사회참여불교에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정신입니다.”

잠시 앞 내용을 되짚어보자면, 스님의 여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스님에게 깊은 영향을 준 태국 최초의 비구니이셨던 어머니 보라마이 카빌싱(Voramai Kabilsingh)의 존재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라마이 카빌싱은 현대 태국불교에서 출가한 최초의 비구니였습니다. 담마난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의 규범을 정한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랐죠.” 1956 년 5 월 2 일, 보라마이 카빌싱은 스님들이 자신의 출가를 허락해주시기를 기다리는 데 지쳐 머리를 깎고, 왓 부위니웨트(Wat Boovornnives) 사원의 부주지였던 프라 프론무니(Pra Pronmuni) 스님에게 팔계(八戒)를 청했습니다. 보라마이 스님은 노란색 가사를 입기로 결정하고 스스로를 “출가한 사람”이라는 뜻의 낙부엣(nakbuad)이라 불렀습니다. 1960 년 그녀는 송담마칼야니 사원(Songdhammakalyani Temple)을 창건했으며, 이곳은 현재 담마난다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는 여성 승원입니다.

1971 년, 보라마이 스님(Venerable Voramai)은 대만(Taiwan)으로 가서 법장부(Dharmaguptaka) 계율에 따라 구족계를 받았으며, 이로써 현대 태국 불교에서 최초로 비구니 수계를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경우 태국 승가와 사회가 이 수계를 테라와다가 아닌 대승불교의 전통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강한 반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담마난다 스님의 삶에 큰 영향을 준 또 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스님은 아버지가 자신이 만난 첫 번째 페미니스트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셨고,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국회의원이었던 꼬키엣 샷세나(Korkiat Shatsena)는 태국 남부 프랑(Trang) 주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평생을 헌신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세 차례 연속으로 총선에서 당선될 정도로 신뢰를 받았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군부 정권에 미움을 사 여러 차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담마난다 스님은 출가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가르쳐준 아버지에게 그 공을 돌리셨습니다. “이 나라 땅을 테라와다 전통의 단 한 명의 비구니로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체제에 맞서 싸우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저는 사회적 책임감은 아버지에게서, 수행자로서의 삶에 대한 전념과 헌신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결론

1 월에 저는 태국을 방문해 담마난다 스님을 찾아 뵙고, 앞으로의 불교 여성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스님의 비전을 여쭙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샤카디타가 불교 여성 지도자들의 변화하는 역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구니 승가를 부흥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구니 승가는 이미 확립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이 승가를 잘 돌보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불교 여성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친절하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갖추고 자신이 살아가는 더 넓은 사회적 맥락을 인식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복잡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단지 불교 지도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즉, 기독교, 불교, 이슬람을 넘어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긴박함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성과 불교도로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제기되는 특정한 질문들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맥락과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환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크리스티 위링 장(Christie Yu-Ling Chang)

(yulingchang@gmail.com)

[번역: 김희정(샤카디타 코리아)]

본 연구는 불교 학문과 교육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비구니 Dr. Shi Heng-Ching(1943-2024)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녀의 유산은 학문적 성취, 불교 경전의 디지털 보존, 비구니 계율 발전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학문적 엄밀성과 개인적 성찰을 결합하여 그녀가 불교 공동체와 저자의 삶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며 또한 그녀의 불교 가치 증진에 대한 헌신, 자애로운 멘토십, 전통과 현대적 요구 사이의 연결 역할을 조명하며 기린다.

초록

이 논문은 불교 학문과 교육의 선구자인 비구니 형칭(Shi Heng-Ching) 박사(1943-2024)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녀의 유산은 학문적 성취, 불교 경전의 디지털 보존, 그리고 비구니 수계의 발전을 포함한다. 학문적 엄격함과 개인적 성찰을 결합하여, 이 글은 그녀가 불교 공동체와 저자의 삶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을 탐구한다. 이 논문은 그녀의 불교 가치 증진에 대한 헌신, 자비로운 멘토링, 그리고 전통적 수행과 현대적 요구를 연결하는 그녀의 역할을 기념한다.

서론

형칭(Shi Heng-Ching)스님의 2024년 7월 입적은 불교 학문과 활동의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다. 불교계에 획기적인 공헌을 남긴 그녀는 학문적 탁월함과 영적 겸손함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인물이었다. 이 글은 학문과 디지털 분야에서의 활동, 비구니 수계 발전에 있어서 그녀의 중추적 역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준 그녀의 깊은 개인적 멘토링을 강조하며 그녀의 다면적 유산을 회고한다. 형칭스님(Venerable Heng-Ching)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헌사는 스승, 멘토, 그리고 선구자로서의 그녀를 기리고자 한다.

학문적 성취

형칭 스님의 학문 여정은 여러 가지 '최초'로 특징지어진다. 그녀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Ph.D.)를 취득하였으며, 이는 미국에서 대만 대승불교 비구니가 이룬 최초의 업적이었다. 귀국 후에는 대만 최고 명문인 국립대만대학교(National Taiwan University, NTU) 철학과에 임용되었고, 그곳에서 승복을 입고 강의하였다¹. 이는 전통적인 불교 가치와 현대 학계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상징적인 행보로, 그녀의

¹ 비구니 형칭 박사는 대만 최고의 대학인 국립대만대학교에서 승복을 입고 강의를 진행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불교 승복을 착용한 채 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칭 스님은 자신의 강의가 설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는 학생들이 자신을 '스님'이 아닌 '교수'로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문적 역할과 승려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경력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최초’였다. 그녀의 가르침은 교실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지도하며, 그들이 불교 철학과 수행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².

그녀가 남긴 학문적 업적은 방대하고 지속적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선과 정토불교의 융합(*The Syncretism of Ch'an and Pure Land Buddhism*)』, 『불성(*Buddha Nature*)』, 그리고 『보리도 위의 선여성(*Good Women on the Bodhisattva Path*, 菩提道上的善女人)』이 있다. 이 중 마지막 저서는 특히 대만의 샤카디타(Sakyadhita) 명명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을 통해 “Sakyadhita”의 중국어 번역이 “선여성(善女人)”로 확립되었고, 이 용어는 불교 경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중국어를 사용하는 불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다. 나는 2002년 대만에서 개최된 샤카디타 세계 대회(제7회 샤카디타 세계 대회 이자 내가 처음으로 참석함)에서 이 이름을 사용했으며, 이는 나의 20년에 걸친 헌신의 여정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 이름은 샤카디타 대만(Sakyadhita Taiwan)의 활동에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형칭 스님의 학문으로부터 받은 깊은 영감을 반영하고 있다³. 그녀는 공식적인 직함을 맡지 않았음에도 항상 뒤에서 중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멘토 역할을 했다. 형칭 스님은 디지털 기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널리 퍼뜨리는 데 중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일찍이 인식한 선구자였다. 그녀는 중국불교전자문헌협회(Chinese Buddhist Electronic Text Association, CBETA)를 창립하여, 한문 대장경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였다⁴. 이 엄청난 작업은 불교 경전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전 세계의 학자들과 수행자들에게 귀중한 자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형칭 스님은 1995년 국립대만대학교(NTU)에 불교학연구센터(Center for Buddhist Studies)를 설립하였다. 그녀의 지도 아래 이 센터는 불교학 인터넷 데이터베이스(Buddhist Studies Internet Database)를 개설하였고, 이는 불교 연구 자료를 세계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하도록 한 획기적인 저장소였다. 그녀의 디지털 보존에 대한 노력은 부처님의 지혜가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비구니 수계 발전에 대한 옹호

형칭 스님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비구니 수계를 발전시키려는 그녀의 헌신이었다. 그녀는 달라이 라마 성하(His Holiness the Dalai Lama)에 의해 서양 비구니 위원회(Western Nuns Committee)의 자문으로 임명되었고, 수계에 대한 질문을 다룬 안내서를 공동 집필하였다⁵. 이 지침서는 전 세계의

² 비구니 형칭박사를 추모하는 논문들을 수집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나는 많은 저명한 학자들과 헌신적인 수행자들이 크든 작든 그녀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³ 샤카디타 대만 (Ve)ehlmcWem er, 은 #533; 년 샤카디타 인터넷 서널 (Ve)ehlmc#rxivexnrep의 #승인을 #받은 #후 #5345년 #대만 #에서 #정식으로 #국가 #QR 2QSR 로 #등록되었으며 #샤카디타 인터넷 서널의 #최초 #국가 #지부로 #설립되었다 #당시 #본인은 #샤카디타 인터넷 서널 위원회에서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이후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위원회는 #지부 #및 #분회의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만을 #신청 #절차의 #기준 #책으로 #활용하였다 #월립 #후 #샤카디타 대만은 #국제회의 #번역 #위원회 #자 #성 #를 #함한 #양한 #식으로 #샤카디타 인터넷 서널을 #지속적으로 #지원 해 #다 1

⁴ 형칭 스님은 CBETA 프로젝트를 다르마 드럼 팀 (Dharma Drum Team)에 맡겼다. 그들이 이 프로젝트의 배급과 유지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불교백과사전 (Encyclopedia of Buddhism)'에서 그녀의 CBETA 프로젝트 참여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항의 서한을 보냈으나 결국 소용없었다. 형칭 스님은 프로젝트의 주요 initiator로서 초기 자금을 확보하고, 출판사와 협상하며,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여는 기록에서 무시되었다.

⁵ "서양 비구니 위원회"는 2005년 가을, 대만의 두 명의 자문의 지도를 받으며 서양의 6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결성하였다. 그 두 자문은 형칭 비구니 스님 (197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겔롱마 (Gelongma)로 출가, 대만 국립대학교 철학 교수)과 우인 비구니 스님 (율사 (律師), a Vinaya Master)이었다. 이 활동은 달라이 라마가 잠파체드로엔 비구니 스님 (Bhiksuni Jampa Tsedroen)에게 서양 비구니 스님들이 티베트 불교 전통 내에서 비구니 수계의 확립을 돕는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 이후 시작되었다.

비구니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모든 불교 전통에서 비구니 수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칭 스님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였다. 나는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또렷이 기억한다.“모든 전통에서 비구니 전통이 되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2018 년, 나는 형칭 스님과 함께 부탄(Bhutan)을 방문하여 비구니 수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 여정 중 우리는 부탄 왕국의 왕태후(Queen Mother)를 만나 수계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형칭 스님의 자비심에 감동한 왕태후는 그녀를 따뜻하게 포용해 주었다. 우리는 왕태후께 이중언어 소책자를 전달하였고, 여행 중 들른 여러 사찰에도 이 소책자들을 인쇄본과 디지털 형식으로 배포하였다. 이 뜻 깊은 만남은 2022 년 부탄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비구니 완전 수계식(full ordination) 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형칭 스님의 끊임없는 헌신과 세심한 후속 조치는 이 혁신적인 사건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불교 교단 내 성평등을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의미하였다.

개인적인 회고

나에게 시형칭 스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였다. 우리 관계는 ‘淡如水(담여수, 물처럼 담백하면서도) 그리고 ‘甜如蜜(첨여밀, 꿀처럼 달콤한) 관계였다. 스님은 언제나 겸손하고 조용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함과 유머는 매 순간을 즐겁게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칸다까(Khandhaka)”라는 율장 문헌을 번역하던 그 따뜻했던 나날을 기억한다. 그 시간은 웃음과 사명감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었다.

나는 2001 년 호놀룰루에서 대만으로 돌아와 제 7 회 샤카디타 국제대회를 위해 일하고 도울 때 처음 형칭 박사를 만났다. 처음에 그녀는 나에게 조심스럽고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관대함과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11 명의 비구니들의 여행 비용을 지원하고 국제대회 개최식을 위해 국립대만대학교(NTU)에 장소를 확보했다. 그녀의 결단력과 관대함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님의 유머 감각 또한 그녀의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의 대학 제자들은 스님을 애정 어린 별명으로 “멸절사태(滅絕師太, The Abbess of Total Annihilation)” 또는 “모든 것을 지우는 스님(The Abbess Who Erases All)” 라고 불렀다고 한다⁶. 이는 중국 무협 소설 속, 엄격하면서도 사랑 받는 인물에서 따온 이름이다. 나는 종종 스님이 내 어머니를 닮았다고 농담하곤 했는데, 성격도 비슷하고 생일도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런 가벼운 농담과 웃음은 우리 관계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부탄으로의 여행 외에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억은 형칭 스님과 함께한 중국 여행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우리는 중국의 오대산(五臺山) 보수사(普壽寺)의 주지 스님에게 2017 년 홍콩 샤카디타 국제대회의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스님은 이미 그 주지 스님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임무를 수락하였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북경이었다. 그곳에서 형칭 스님은 매우 깊은 울림을 주는 법문을 하였고, 청중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지혜와

⁶ “滅絕師太”(Mie Jue Shi Tai)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죽이는 비구니” 또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비구니”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滅絕은 “소멸하다”, “파괴하다”, “절멸시키다”라는 의미이고, 師太는 “비구니”를 뜻한다. 이 용어는 주로 중국 무협 소설이나 대중문화에서 무자비하거나 냉혹한 사람을 표현할 때 장난스럽게 사용되는 과장된 별명이다. 나는 이 별명을 형칭 스님의 퇴직 전 제자였던 젊은 법형(法兄, Dharma sister)에게서 처음 들었다. 이 별명을 형칭 스님께 언급하자, 스님은 크게 웃으셨다. 이후, 이 별명은 푸이위안(Pu Yi Yuan)의 비구니들에게 퍼졌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내가 형칭 스님의 임종을 지켰을 때, 침울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별명에 대해 농담을 했다. 스님은 자신의 약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은 “女魔王”(여마왕, 즉 “악마여왕(The Demon Queen)”)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언급하며 웃으셨고, 우리는 함께 크게 웃었다.

겸손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이후 유명한 용천사(龍泉寺)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스님은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 승려와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스님은 승가 교육의 중요성, 즉 비구와 비구니가 출가 전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건강한 불교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였다. 그 후 우리는 보수사의 주지 스님에게 초청장을 성공적으로 전달하였고, 이어 고대 수도 서안(西安)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대장경 번역 대가인 현장(玄奘)스님에게 경의를 표하였고, 유명한 법문사(法門寺) 산하의 비구니 사찰도 방문하였다. 이 방문은 형칭 스님이 그곳 비구니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사찰의 비구니들은 이런 훌륭하고 겸손한 선배 비구니, 진정한 롤모델로부터 배우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녀의 마지막 나날과 유산

형칭 스님의 마지막 날들은 그녀의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병을 앓는 동안에도 스님은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신이 맡은 책임에 집중하였다. 나는 운 좋게도 병원에 계신 스님을 찾아 뵈 수 있었고, 스님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며 나에게 축복을 전해주었다. 입적 일주일 전, 스님은 공동체를 안심시키기 위해 영상 메시지를 남겼고, 그 속에서 그녀의 침착함과 지혜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⁷.

스님의 입적은 크나큰 상실이지만, 그녀의 유산은 살아남은 이들 속에서 계속된다. 스님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약속드린 대로, 나는 앞으로 ‘보리도 위의 선여인(Good Woman on the Bodhi Path)’으로 계속 정진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가 함께 나눈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그녀의 자비와 지혜, 헌신은 스님을 알았던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영감으로 남을 것이다.

결론

비구니 스님 형칭 박사의 삶은 헌신, 자비, 그리고 혁신의 등불이었다. 그녀는 불교 학문, 디지털 보존, 그리고 비구니 승단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유산을 남겼다. 나에게 그녀는 단순한 멘토 그 이상의 존재였고, 삶의 길을 밝혀준 영적인 어머니였다. 그녀의 인도와 따뜻함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이 글은 학문적 헌사이자, 동시에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친 한 위대한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헌정이다.

참고 문헌

- Chodron, T. (2006, September). *Team ordination research*. Thubten Chodron. <https://thubtenchodron.org/2006/09/team-ordination-research/>
- Damcho, Diana Finnegan and Dr. Carola Roloff. (2018). *Bhutanese nuns receive full ordinat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Retrieved from <https://www.lionsroar.com/women-receive-full-ordination-in-bhutan-for-first-time-in-modern-history/>
- National Taiwan University Digital Library of Buddhist Studies. (n.d.). *About CBETA and Bhiksuni Dr. Heng-Ching*. Retrieved from <https://buddhism.lib.ntu.edu.tw/en/aboutus/aboutus.jsp>
- Sravasti Abbey. (2024). *Professor Venerable Heng-Ching Shih (1943-2024)*. Retrieved from <https://sravastiabbey.org/guest-teacher/professor-venerable-heng-ching-shih/>

⁷ https://m.youtube.com/watch?v=nlh_sdGDRk

틱 느 슈랏다 가우타미 스님, 박사(Dr. Venerable Thích Nữ Shraddha Gautami)

(revagar07@gmail.com)

[번역: 이정란(샤카디타 코리아)]

네팔에서 수행하고 가르치며 존경받는 법사인 비구니 Dr. 담마와띠(Ven. Dr. Bhikkhuni Dhammawati)의 많은 업적과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91 세인 담마와띠는 다양한 종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담마와띠 구루마(Ven. Dhammawati Guruma)의 수행과 불교 전파에서 그녀가 가진 권위와 법의 전달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미 2016 년까지의 생애를 다룬 저서가 출판되었기에, 본 연구는 2016 년부터 2024 년까지 국내외 학생들을 위한 그녀의 활동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고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가 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전파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나의 존경하는 담마 스승인 담마와띠(Dhammawati) 비구니 스님께서는 네팔에서 수행하고 가르치며 살아가시는 분으로, 그분의 업적과 많은 세세한 일들이 알려져 있다. 현재 91 세이신 스님은 여전히 다양한 종교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계신다. 본 논문은 담마와띠 구루마(Guruma) 스님의 수행, 그리고 불교를 널리 전하는 스님의 정통성과 법맥의 계승에 초점을 맞춘다. 2016 년까지의 삶을 다룬 전기가 이미 출판된 바 있으므로, 본 논문은 국내외 제자들을 위해 2016 년부터 2024 년까지 스님의 활동을 조명한다. 또한 끊임없는 투쟁과 도전 속에서도 스님이 어떻게 불법(法)을 위해 헌신해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비구니 담마와띠 스님의 소개

가장 존경받는 담마와띠 구루마 비구니 스님¹은 모든 제자들에게 불교 법사이자 설법자, 저술가, 학자, 그리고 사회 개혁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속명은 가네쉬 꾸마리 샤카(Ganesh Kumari Shakya)이며, 1934 년 7 월 라리트푸르(Lalitpur)의 오푸바할(Okubahal)²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하르쉬만 샤카(Harshman Shakya), 모친은 헤라타쿤 샤카(Herathakun Shakya)였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테라와다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당시 네팔 정부는 여성의 정규 교육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붓다고사 테로(Ven. Buddhaghosa Thero) 스님과 함께 테라와다 불교를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14 세가 되던 해, 불교를 배우기 위해 네팔을 떠나 버마(현재의 미얀마)로 향하였다. 버마에 도착하기 전, 인도 쿠시나가르(Kushinagar)에서 담마우다(Dhammawudha)라는 이름의 버마 스님에게 수계받았다. 스님은 1950 년대까지 버마에서 수행하고 있던 유일한 네팔 비구니였다. 이후 라트나만자리 구루마(Ratnamanjari Guruma)와 다른 비구니 스님들이 미얀마의 케마라마(Khemarama) 비구니 사원에 합류하였다. 스님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미얀마 테라와다 불교 교육 체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사산다자 담마짜리야(Sasandhaja Dhammacariya)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다. 뛰어난 설법 능력으로 인해 미얀마에 남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불교를 널리 알리고 대부분이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집 안에 머물던 네팔의 가정주부들에게

¹네와르(Newari) 불교도들은 여성 스승을 "구루마(Guruma)"라고 부르며, 특히 테라와다 비구니 스님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²라리트푸르(Lalitpur)'는 파탄(Patan)시의 옛 이름이다.

불교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일깨우기 위해 네팔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구루마 마 구나와띠(Guruma Ma Gunawati)와 함께 네팔력 2020 년(서기 1963 년)에 네팔로 돌아왔다. 1965 년, 스님은 카트만두 중심부에 달마끼르띠 비하라(Dharmakirti Vihara)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네팔에서 가장 활발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는 비구니 사찰로 남아 있다. 스님은 종교적, 영적 기도의 공간에서 “역동적인 배움의 중심지(Dynamic Learning Center)”로 비구니 사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달마끼르띠 비하르에서의 활동

스님은 달마끼르띠 사찰(Dharmakirti Monastery)을 설립한 이후, 학생들이 불교 수행과 불법(Dhamma)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네팔 여러 지역에 테라와다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달마끼르띠 사찰의 여러 분원을 설립하였고, 그 분원들은 학식과 능력을 갖춘 제자들에게 위임하였다. 현재 달마끼르띠 비하르의 주요 분원 사찰은 다음과 같다.

빠드마끼르띠 비하르(Padmakirti Vihar) - 카말 포카리(Kamal Pokhari), 바그마띠 주(Bagmati Province)

달마끼르띠 비하르 (Dharmakirti Vihar) - 바순다라(Basundhara), 바그마띠 주

니르바나무르띠 비하르(Nirvanamurti Vihar) - 킴돌(Kimdol), 바그마띠 주

술라첸끼르띠 비하르(Sulachenkirti Vihar) - 초바라(Cobhara), 바그마띠 주

고따미 비하르(Gautami Vihar) - 룸비니(Lumbini), 룸비니 주(Lumbini Province)

또한, 이들 사찰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 부서(유닛)들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달마끼르띠 비하르에는 총 7 개의 유닛이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달마끼르띠 붓다뿌자(Dharmakirti Buddhapuja):

붓다뿌자(Buddha Puja)란, 매달 다섯 차례에 걸쳐 승가 구성원들과 재가 신도들이 함께 삼보(三寶)의 공덕을 찬탄하고 예경하는 의식이다. 예불은 매월 1 일, 보름, 초여드레(상현 8 일), 하현 8 일(음력 23 일경), 그리고 그믐에 거행된다.

2. 달마끼르띠 붓다 아다나 고쉬띠(Dharmakirti Baudha Adhyana Gosthi):

이 부서는 재가 및 출가 승가 교육을 위한 불교 학습 모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계율 교육 지도, 농촌 지역에 불교 전법, 장례 의식에 돈을 쓰기보다 불교 관련 서적 출판에 하도록 장려, 해외 법사들을 초청하여 법문을 준비하고 설법하도록 지원, 소년소녀를 위한 단기 출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출가자 및 재가자들을 위한 삼장(三藏) 강좌 개설 등이 있다. 이 부서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 a. 성인 및 아동을 위한 토요일반
- b. 달마끼르띠 불교 도서관
- c. 방학 기간 중 재가 아동 대상 단기 출가 수행[사마네라(Sāmaṇera) 및 리시니(Risini) 파빠자(pabbajjā)]

3. 달마끼르띠 월간지(Dharmakirti Monthly Magazine):

담마와띠 구루마 스님은 1973 년부터 발행되어 온 불교 월간지 『달마끼르띠』의 발행인이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잡지는 매년 12 회 발행되며, 대중이 테라와다 불교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 월간지는 달마끼르띠 사찰의 불교 활동과 네팔 전역의 다양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소식과 활동들을 조명하고 있다.

4. 달마끼르띠 보건부(Dharmakirti Health):

‘요 길라남 우뻏타티, 소 맘 우뻏타티(Yo gilanam upatthati, so mam upatthati)’는 “병든 이를 돌보는 이는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찰 경내에 위치한 무료 진료소인 달마끼르띠 보건부는 출가 수행자들과 재가 신도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83년부터는 매년 헌혈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진·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5. 달마끼르띠 가나말라(Dharmakirti Gyanamala):

가나말라(Gyanamala)는 ‘부처님의 지혜로 엮은 화환’이라는 뜻이다. 담마와띠 구루마 스님에 따르면, 대부분의 네팔 사람들은 법(Dhamm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네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신심 어린 찬불가가 널리 사용되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가나말라 음악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 가나말라의 노래와 연주는 모든 특별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

6. 달마끼르띠 교육부(Dharmakirti Education):

달마끼르띠 교육 공동체의 주요 목적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교육하는 것이다. 또한 달마끼르띠 비하르는 어린 비구니들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담마와띠 비구니 스님은 아난다꾸띠 중등학교(Anandakuti Secondary School)에서 출가 수행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7. 달마끼르띠 퍼블릭 이미지 채널(Dharmakirti Public Image Channel):

이 부서는 1985년부터 방송 라디오를 통한 불교 전법을 주요 활동으로 삼아왔다. 승가의 법문, 특히 담마와띠 구루마 스님의 아비담마(Abhidhamma) 및 기타 경전(Sutta)에 관한 설법을 음성과 영상으로 녹음하여 불교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에마가 채널(Emaga Channel)은 이러한 법문들을 CD, DVD 와 같은 매체로 변환하여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스님의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요 공적

2016년, 스님은 스리랑카 대사³의 주최로 출간이 공식 발표된 『여래의 삶(The Life of Tathagata)』을 출간하였다. 또한 자신의 생애를 담은 『사랑받는 딸, 담마와띠 구루마 이야기(Beloved Daughter: The Story of Dhammawati Guruma)』를 영어로 출판하였다. 이 전기적 저서를 통해 스님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⁴

2017년 아동 대상의 불교 퀴즈 대회와 불교 미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어린이 재능 발표 대회는 매우 독창적이었다. 이 대회에서는 “최우수 부처님 예경상”, “최우수 빠리타(Paritta) 염송상”, “최우수 불교 찬불가상” 등과 같은 특별상을 수여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수상자들에게 직접 시상 이루어졌으며 이 행사는 현재도 매년 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속되고 있다.⁵

³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207937307086259&set=t.100069622052734>

⁴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207937307086259&set=t.100069622052734>

⁵ <https://www.facebook.com/Dharmakirti.nepal/photos/t.100069622052734/1079943045417758/?type=3>, 「다르마끼르띠: 불교 월간지」, 2024년 12월 15일, 제 9호, 15쪽.

2018 년 - 미국의 시인 윌라 슈네버그(Willa Schneberg)를 초청하여 미국 불자 시인⁶들의 시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2019 년 -

A. 비록 외국 출신의 비구니 스님이었으나, 네팔에서 불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신 도 구나와띠(DO Gunawati) 스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⁷

B. 일생을 네팔 사회 속에서 법을 위해 헌신하신 제 6 대 승가나야까(僧伽領袖) 아사가호사 마하 테로(Asaghosa Maha Thero) 스님의 열반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⁸

2020 년 - 네팔의 장관들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 윤리에 관한 귀중한 법문을 설하셨다.⁹

2021 년 - 네팔 제 7 대 승가나야까(僧伽領袖) 지야나뿌르니카 마하 테로(Gyanapurnika Maha Thero)의 축복을 기원하며 비구니들이 마하빠리따(Mahāparitta)를 염송하는 법회를 주관하였다. 그는 『Beloved Daughter: 담마와띠 스님의 삶』을 네와르어로 번역한 인물이기도 하다.

2022 년 - 새로운 달마끼르띠 비하르 건립의 주요 시주자인 드라베마나 싱 툴라다르(Drabemana Sing Tuladhar) 거사의 열반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였다.¹⁰

2023 년 - 90 세 생신을 기념하여 ‘담마와띠 담마 프라시크체나(Dhammawati Dhamma Prasikchhena)’ 교육 기금을 설립하였다. 이 부서는 비구니들을 위한 다양한 수행 교육 및 훈련—불교의식 진행자(MC) 교육, 대중 법문 훈련 등을 포함하여—을 제공함으로써 수행자의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¹¹

2024 년:

A. 『사랑받는 딸, 담마와띠 구루마 이야기(Beloved Daughter: The Story of Dhammawati Guruma)』를 태국어로 번역·출판했다.¹²

B. 담마와띠 구루마 스님의 91 세 생신을 기념하여, 비구 대승가(Bhikkhu Mahasangha), 대승불교 승가(Mahayana Sangha), 금강승 구루들(Vajrayana Gurus)이 함께하는 7 일간의 아비담마(Abhidhamma) 염송 법회를 봉행했다.

C. 사카디따 네팔(Sakyadhita Nepal) 제 11 차 교류 프로그램에서, 수자따 스님(Ven. Sujata)의 21 세기 테라와다 불교 진흥 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¹³

D. 네팔의 모든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암 전문 병원과 기타 두 병원에 후원금을 기부하였다.¹⁴

수상 내역 (Awards)

⁶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157028338002538&set=t.100069622052734>

⁷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218976847952400&set=t.100069622052734>

⁸ <https://myrepublica.nagariknetwork.com/index.php/news/bhikkhu-aswaghosa-s-last-rites-to-be-performed-with-state-honour>

⁹ 『다르마끼르띠: 불교 월간지』, 2024 년 8 월 19 일, 제 10 호, 25 쪽.

¹⁰ 『다르마끼르띠: 불교 월간지』, 2022 년 1 월 1 일, 제 5 호, 64 쪽.5

¹¹ 『다르마끼르띠: 불교 월간지』, 2024 년 1 월 25 일, 제 10 호, 21 쪽.

¹² <https://www.un.org/en/en/observances/ending-violence-against-women-day/stories>

¹³ 『다르마끼르띠: 불교 월간지』, 2024 년 9 월 18 일, 제 6 호, 25 쪽.

¹⁴ 『다르마끼르띠: 불교 월간지』, 2024 년 10 월 16 일, 21 쪽.

1. 2023년 - 담마와띠 비구니 스님의 불교 전법 공로를 기리며, 네팔 내무부 장관 나라야나카지 슈레스타(Narayanakaji Shrestha)가 수여하였다.

2. 2024년 - 『삼약 산테샤(Samyaka Sandesha)』 불교 영성 국가 잡지사로부터, 네팔 내 불교 전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삼약 아비난단(सम्यक् अभिनन्दन)’ 상을 수상하였다.

a. 타이완 가오슝의 이다 로열 호텔(E-Da Royal Hotel)에서 열린 제 23 회 세계 불교 우수 여성상(Outstanding Women in Buddhism Awards, OWBA)을 국제 여성의 날 시상식에서 수상하였다.

b. 룸비니 불교대학(Lumbini Buddhist University)에서, 불교 교육과 종교 발전 및 세계적 전파에 대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철학 박사 학위(Honorary Doctor of Philosophy)를 받았다.

담마와띠 스님의 권위와 전승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성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의도를 지닌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마찬가지로, 담마와띠 스님의 권위와 가르침의 전승도 네와르(Newar) 사회의 전통적 규범—종교, 문화, 정치, 교육 등—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브라만교(Brahminism)와 사문주의(Sramanism)의 관점에 따르면, 여성이 궁극적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였다. 스님은 “청정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으로 누구나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스님의 고무적인 인품은 여성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도록 이끌었으며, 그 결과 정기적인 부타뿌자(Buddha Puja), 명상 수행, 불교 공부, 도덕 교육, 마음을 정화하는 실천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스님의 지도력은 출가 수행자와 재가 신도를 아우르는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가르침과 실천을 이어받아 불교를 가르치고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91 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자타카(Jataka)』에서부터 『아비담마(Abhidhamma)』에 이르기까지 핵심 불교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불교 교육 덕분에 많은 소년·소녀들이 불교에 친숙해졌다. 스님의 헌신적인 여성 제자들 가운데 다수는 분원 사찰의 종교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룸비니 대학교(Lumbini University), 로터스 대학교(Lotus University) 등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며, 사찰과 소셜 미디어에서도 법문을 설하고 불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스님의 재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정치인, 교사, 학자, 의사 등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밖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스님의 생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구루마 스님은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되었으며, 이는 스님의 불법(Dharma)에 대한 권위와 뛰어난 전법 능력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팔의 다양한 불교 종파뿐 아니라 비불교계 인사들까지도 그녀에게 국내외 여러 상을 수여하며 존경을 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팔 정부가 고령이 된 스님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으며, 이는 매우 큰 영예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시련을 마주하셨던 것처럼, 구루마 스님 또한 불법(Dhamma)을 전하기 위해 오늘날까지도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비구니’라는 호칭의 사용과 비구니 수행 전통에 관련된 의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네팔의 비구 승가에서는 이 용어 사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가부장제와 성차별은 네팔 내 모든 불교 공동체가 여전히 겪고 있는 지속적인 문제이며, 담마와띠 구루마 스님 또한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늘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불법을 설하고 있다. 스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신다. 진심을 다해, 나는 스님을 가장 자비로운 법사로 깊이 존경하고 경배한다.

결론

“사랑받는 딸(Beloved Daughter)”로 알려진 담마와띠 스님은 14 세에 법의 길에 입문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불교 전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스님은 수행자와 재가자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자, 스승이며, 법사요, 저술가이자 조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도는 물론 비불교도들로부터도 깊은 존경을 받고 있다.

네팔 총리를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 또한 스님의 행사에 참석하고, 스님의 탁월한 전법 공로에 대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스님의 공헌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1995년에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아가 마하간타 와짜까 뻬디뜨(Agga Mahagantha Vācaka Paṇḍit)”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스님은 진정한 “옴하 마야(Yomha Mhyaya, 세상의 어머니 같은 존재)”이자, 세상의 자비로운 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 Frances Klatzel, 2016, Beloved Daughter the Story of Dhammawati Guruma
Bhikkhu Gyanapurnika, 1990, 'Isnehi Chori' (beloved daughter) in Nepali language.
Sarah Levine and David N. Gellner, 2008, Rebuilding Buddhism: The Theravada Movement in twentieth – Century Nepal.
Locanatar Tuladhara , 2019, From the Pen of Dhammawati (in Newari language)
Samyaka Sandesh Magazine, 2023–2024
Dharmakirti Monthly Magazine 2016–2024
Dharmakirti Vihar 50th Golden Jubilee, special book 2016
Amata Guruma, 2020, Contribution of Dharmakirti Monastery to Propagate Theravada Buddhism in Nepal in Nepali Language
Dr. Bhikshu Amritananda, 1984, A short History of Theravada Buddhism in Modern Nepal
Ratna Sundar Shakya, 1992, Anagarika Dhammawati in Nepali Language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207937307086259&set=t.100069622052734>
<https://www.hfa.ucsb.edu/news-entries/2024/3/25/the-story-of-dhammawati-guruma-translating-buddhist-texts>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25134487565281&set=t.100069622052734>
<https://www.facebook.com/Dharmakirti.nepal/photos/t.100069622052734/1079943045417758/?type=3>
<https://myrepublica.nagariknetwork.com/index.php/news/bhikkhu-aswaghosha-s-last-rites-to-be-performed-with-state-honour>
<https://bhikkhunis.com/most-venerable-bhikkhuni-dhammawati-guruma>
<https://tilakacharya.com/2024/11/30/celebrating-success-the-3rd-special-convocation-of-lumbini-buddhist-university>

식차마나 틱 느 트엉 후에 (Thích Nữ Thường Huệ)

(2156120121@hcmussh.edu.vn)

비구 틱 티엔 푸 스님 (Thích Thiện Phú)

[번역: 이정란(샤카디타 코리아)]

킨족은 여러 차례 중앙 고원 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일부 재가 불자들과 함께 승려들도 이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 불법을 전파하였다. 불교 개혁 운동과 안남 불교 협회의 설립에 영향을 받아, 승려들은 불법을 고원 지역에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였다.

특히 비구니 마스터 후인 리엔(Bhikkhuni Master Huynh Lien)은 국가 변경 지역에서 캣 시(Khat Si) 불교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캣 시 불교는 독자적인 베트남 불교 전통이며, 후인 리엔의 지도 아래 중앙 고원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응오 딘 디엠(Ngo Dinh Diem) 정권하에서 종교적 차별에 직면하면서, 그녀는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하였으며 또한 여성 권리 운동을 지원하며, 닥락(Dak Lak)과 콘툼(Kon Tum)에서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조직하였다.

비구니 마스터 후인 리엔은 비구니 교육을 위한 사원을 설립하고, 노인과 아동을 위한 고아원을 운영하였으며, 경제적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또한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 지원을 제공하였다.

출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녀는 불교 학교 건립을 위해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달하였으며, 비구니들이 해외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승단 공동체를 강화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스승에게서 겸손과 단호한 리더십을 결합한 모범적인 수행자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중앙 고원 지역에서 다수의 유능한 비구니를 양성하였다.

문학적 재능을 지닌 그녀는 불교 경전과 주석서를 시 형식으로 변환하여 후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녀의 시와 산문은 베트남 문학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며들게 하였다.

불법을 전파하는 데 대한 확고한 헌신으로, 비구니 마스터 후인 리엔은 중앙 고원 지역에서 독자적인 베트남 불교 형성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녀의 노력은 지역 내 불교 영향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변경 지역을 보호하고 붉은 현무암 대지를 불법의 빛으로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그녀의 탁월한 공헌과 캣 시 불교가 중앙 고원 지역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 **핵심 용어:** 불교, 비구니 스승, 중앙고원지대

1. 중앙고원지대에서 컷시 불교의 발전

1956년부터 1961년 사이, 컷시 불교 종파의 포교단이 중앙고원지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공화국 정부가 컷시 불교 교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1966년 4월 22일이었다. 후인 리엔 비구니 스승은 “지혜의 등불을 잇는다”는 사명을 실현한 중심 인물이었다.

1967년, 스님은 플레이꾸(Pleiku)시 흥브엉(Hùng Vương)가에 응옥바오 사찰(Ngọc Báo)을 세웠다. 초기 이 지역은 이름조차 없는 공동묘지에 불과한 땅이었다. 사찰 설립 후, 비구니 한 리엔 스님이 주지직을 맡았다. 1968년에는 비엔호아(Biên Hòa)에 넷찌마이 고아원(Nhất Chi Mai)을 설립하였고, 이 시설은 1972년에 람동(Lâm Đồng)성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스님은 아유파(Ayun Pa) 시에 응옥푸(Ngọc Phú) 사찰을 세웠으며, 완공 후 이 사찰은 비구니 끼엠 리엔(Kiem Lien) 스님에게 맡겨졌다. 1969년에는 같은 지역에 지금은 화미 유치원(Họa Mi Kindergarten)으로 알려져 있는 타인짱 고아원(Thanh Quang Orphanage)을 세워 고아들과 노인을 돌보았다. 현재는 폭 리엔 비구니 스님이 주지 역할을 하고 있다.

흐인 리엔 비구니 스승과 더불어 고승 각안(Giác An) 스님은 중앙고원지대, 특히 지아라이(Gia Lai)성에서 사찰을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존경받는 승려였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출가 수행자들을 양성하는 데 헌신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컷시 불교의 법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컷시 승가 공동체 안에서 8년 동안 수행하며 증생 교화를 위한 포교의 사명을 다한 후, 고승 각안 스님은 제자를 받아들이고 사찰을 창건하기 위해 베트남 중부와 중앙고원지대로 이동하였다. 1957년, 스님은 플레이꾸 시에 컷시 불교 제 3 교단(Đoàn III)의 지도 아래 응옥푹 사찰(Ngọc Phúc, 일명 ‘황가사(黃袈裟) 사찰’)을 창건하였다. 1960년, 안케(An Khê) 군에 응옥푹 사찰(Ngọc Túc)을 창건하였고, 이후 이 사찰은 비구니 깐 리엔 스님에게 위임되었다. 포교(傳法) 활동에 전념하던 스님은 1974년 플레이꾸의 응옥푹 사찰을 각푹 고승에게 이양하였으며, 각푹 스님은 그 뒤를 이어 사찰을 발전시키고 제자들을 받아들였다. 이후 각푹 스님의 뒤를 이어, 고승 각탄(Giác Thành) 스님이 그 법맥을 계승하였다. 응옥푹 사찰은 이 지역에서 수많은 컷시 사찰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중앙고원지대에 자리한 컷시 불교 제 3 교단의 본산(本山)으로 기능하였다.

2. 흐인 리엔 비구니 스승의 생애와 업적

초기 생애와 출가

흐인 리엔 비구니 스님의 속명은 응우옌 티 쩌(Nguyễn Thị Trù)이며 1923년에 태어나 프랑스 식민 통치와 베트남의 남북 분단 시기를 겪으며 성장하였다. 혁명운동 가문에서 자란 스님은 호찌민 주석의 독립 투쟁 호소에 깊이 감화되어 처음에는 항전 운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수행의 길로 나아가 1947년 민당광(Minh Đăng Quang) 고승에게 출가 수계를 받았다. 그때부터 평생을 불교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였다.

문화 및 교육에 대한 공헌

“석가모니의 바른 가르침을 계승하고 널리 펼친다”라는 베트남 컷시 불교의 사명을 이어받아, 흐인 리엔 비구니 스님은 비구니 수행자들과 재가 신도들 사이에서 불교 문화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님은 종교적 공헌뿐만 아니라 1963년부터 1975년 사이 남베트남에서 평화, 자유, 민족 통일을 위한 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20세기 동안 불교 중흥운동은 불교를 보존하는 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핵심 요소로 강조하였다. 고승 카인 호아(Khánh Hòa) 스님은 한때 “불교의 쇠퇴는 신도들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감화를 받은 흐인 리엔 비구니 스님은 특히 중앙고원지대에서 청년 수행자들의 교육과 양성에 헌신하였다. 스님은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의 규율뿐 아니라 지식 또한 갖추어야만, 소수 민족 공동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스님은 경전 공부를 장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출가자와 재가신도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법문 강좌와 단기·장기 수행 정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사회 및 인도적 실천

교육 활동 외에도, 흐인 리엔 비구니 스님은 헌신적인 사회운동가이자 자비를 실천한 분이였다. 스님은 중앙고원지대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 센터, 학교, 지역 공동체 센터 등을 설립하였다.

1968년, 스님은 비엔호아(Biên Hòa)에서 넷찌마이(Nhất Chi Mai) 고아원을 설립하였으며, 이곳을 이후 지아라이의 응옥바오(Ngọc Báo) 고아원과 푸본(Phú Bồn)의 디에우광(Diệu Quang) 고아원을 비롯한 고원지대의 고아원 설립에 본보기가 되었다. 또한 175 나병병원, 벤산(Bến Sắn) 나병촌, 투티엠(Thủ Thiêm) 나병센터, 비엔호아 정신병원, 고땃(Go Vấp) 영혼의 집, 티응에(Thị Nghè) 양로원, 티응에 장애아동센터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기관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

스님의 헌신적인 공헌은 자비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하였으며, 중앙고원지대에서 불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수계와 승가 수행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무아(無我)의 서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탁발”이라는 서원을 지닌 흐인 리엔 비구니 스님은 베트남 중부 지역으로 포교 영역을 넓히며, 다음 세대 불교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았다. 스님은 젊은 비구니들이 고등 교육과 불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후원하였다.

스님은 제자들을 깊이 아꼈으며, 형편이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했다. 한 신도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스님은 모든 ‘자식들’을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과일 껍질을 직접 벗겨 주시고,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땅콩과 코코넛 사탕까지 하나하나 골라내며 영양을 챙겨 주셨습니다.”

중앙고원지대에서 수많은 사찰을 창건하고 많은 제자들에게 수계를 주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비구니 한 리엔(Hạnh Liên), 비구니 끼엠 리엔(Kiểm Liên), 비구니 폭 리엔(Phúc Liên) 스님과 같이 컷시 불교의 걸출한 스님도 있었다.

번역 및 문학적인 활동

시(詩)에 대한 타고난 재능과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닌 흐인 리엔 비구니 스님은, 대중이 쉽게 불교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베트남 국민 문자(쯔꾸옥응으, chữ Quốc ngữ)를 선구자적으로 사용했다.

스님은 『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우란분경』, 『사십이장경』 등 주요 대승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널리 보급하였다. 더불어 『길상경』, 『시의경』, 『방생경』, 『선정발원경』, 『무아경』 등 불교 경전 또한 번역하였다.

민당광 고승의 가르침을 따라 『삼보찬송』, 『삼보참회문』, 『삼업참회문』 등 중요한 불교 의식문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수많은 불교 시와 문학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혜를 담아 베트남 불교 문학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영원한 유산

호인 리엔 비구니 스님은 단순한 정신적 지도자를 넘어, 자비와 지혜, 그리고 사회 실천의 등불이었다. 스님은 중앙고원지대에 컷시 불교를 굳건히 정착시키고, 승가 교육과 인도주의 활동을 함께 이끌어 나갔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나라를 향한 변함없는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불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스님의 업적은 중앙고원지대 붉은 현무암 대지 위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찬란히 빛나며, 베트남 불교의 불꽃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밝히게 하고 있다.

3. 현실 참여적 불교 정신

나라의 분단과 미-지엠(Mỹ-Diệm)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마주하며, 비록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호인 리엔 비구니 스님은 조국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시(詩)와 실천적 행동을 통해 스님은 참여불교 정신을 표현했다.

비구라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의 국민이네,
사랑과 정의를 위해, 나는 굳게 서 있네.
평화 속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리,
영원한 행복과 번영이 이 땅에 머물도록.

(평화의 노래(*Khúc Thanh Bình*))

이 네 구절은 호인 리엔 비구니 스님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분명히 보여준다. 스님은 비구니 수행자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끊임없이 염려하며 독립과 평화, 공동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실천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진실한 애국자였다.

스님의 투쟁 정신은 불교적 자비심과 깊은 참여불교 정신을 함께 담고 있었으며, 종교와 삶을 밀접하게 연결하는 실천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참여의 또 다른 한 면은 남베트남 공화국 정부에 맞선 다양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었으며, 특히 반전(反戰) 운동에 앞장섰다. 스님은 초기부터 불교의 종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며 행동하였다.

결론

호인 리엔 비구니 스님은 베트남 컷시 불교 전통의 뛰어난 인물로, 평생을 불교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였다. 굳건한 의지와 한없는 자비심으로 중앙고원지대에서 컷시 불교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의 빛을 먼 지역까지 널리 퍼뜨리고, 교육·문화·사회 자선 분야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승가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종교 및 사회 기관을 설립하며, 깊이 있는 문학 작품들을 창작한 스님의 노력은 귀중한 유산으로 남았다. 스님의 삶과 수행은 참여불교의 정신과 공익을 위한 무아의 희생을 보여주는 찬란한 본보기가 되었으며, 후세에 불교의 가치를 지키고 널리 펼치며 나라의 발전과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영감을 주고 있다.

틱 티엔 푸 스님 (Ven. Thich Thien Phu)

(thichthienphu87@gmail.com)

팜 티 탄 빈 (Pham Thi Thanh Vien)

[번역 : 조정희(국제포교사)]

1930년대 베트남 불교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세계적 불교 개혁 운동과 베트남 전역에서 진행된 불교 개혁을 통해 발전하였으며, 안남 불교 협회(An Nam Buddhist Association)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이 협회는 띠 킨(Tinh Khiet), 짝 티엔(Giac Tien), 찌 투(Tri Thu), 돈 허우(Don Hau)와 같은 저명한 중앙 지역 승려들뿐만 아니라 바오 다이(Bao Dai) 왕, 응우옌 코아 토안(Nguyen Khoa Toan), 태후 투 쑹(Queen Mother Tu Cung), 레 딘 탐(Le Dinh Tham) 등의 지식인과 군주들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베트남 불교의 변형은 비구니 디어우 콩(Venerable Nun Dieu Khong)의 공헌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출가 이후 그녀는 후에(Hue)에서 호찌민(Ho Chi Minh City)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아원을 설립하여 불우한 아동들을 보호하였고 교육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비구니들이 학습과 수행을 할 수 있는 사찰을 건립하였으며, 불교 문화 센터와 불교 아카데미의 설립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여성 단체를 조직하고 직업 교육 강좌를 운영하였다. 그녀는 월간 연화지(Nguyệt San Liên Hoa, Lotus Journal)를 창간하여 불교 경전 출판의 중심을 마련하였다. 비구니 디어우 콩은 보살의 정신을 구현하며, 여성으로서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으로 베트남 비구니 수행의 길을 밝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그녀가 베트남 불교에 기여한 철학적, 윤리적, 그리고 영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 소개

귀족 가문인 호닥(Ho Dac) 가문에서 태어난 디어우콩(Dieu Khong) 비구니 스님은 유년 시절부터 유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불교 경전과 유교 고전을 접하며 자랐고, 불교 이론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후, 리에우 판(Lieu Quan) 선종의 지각선사(Giac Tien) 문하에 출가하여 ‘Trung Hao’라는 법호와 ‘Dieu Khong(디어우콩)’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녀는 젊은 시절 그림, 시, 바둑, 음악 등 전통 예술에 능통하여 “역사적인 도시 수도 후에(Hue)의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여성”으로 찬사를 받았다.

스님의 부친인 호닥중(Ho Dac Trung)은 당시 교육부 장관이자 왕실의 고위 관료였으며 국왕 카이딘(Khai Dinh)의 장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국사(國師)’의 지위에 올랐던 인물이었다. 부와 권력이 있는 집안에 막내딸로 태어난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맺어 디어우콩(Dieu Khong)이라는 법명을 받고 불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불교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고승들과 함께

활동하며, 응오딘지엠(Ngo Dinh Diem) 정권 아래에서 불법을 수호하고자 안남불교협회 (An Nam Buddhist Association)를 창립하였다.

2. 불교 부흥 운동과 안남불교협회의 창립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베트남을 장악하고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를 세 지역으로 분할한 이후, 베트남은 지속적인 내부 혼란을 겪으며 공동체에는 무질서가 초래되었다. 후에 에서는 지각선사와 다른 존경받는 스님들, 지식인들이 함께 안남불교협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중부 베트남에서의 불교 개혁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1932년 8월 16일, 바오다이 황제는 황성 후에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단체 설립을 허가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협회의 회원 구성은 세 가지 주요 범주로 이루어졌는데, 서양에서 교육을 받고 불어에 능통한 지식인들, 왕실의 귀족들, 그리고 유교와 불교에 해박하며 청정한 삶을 살아온 뛰어난 비구 및 비구니 스님들이다.

안남불교협회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조직 구조를 발전시켰으며, 다음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위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중앙 조직인 안남불교협회를 최상위로 하여, 그 아래에 성(省) 단위 협회, 군(郡) 및 읍(鎭) 단위 지부, 면(面) 단위 조직, 그리고 최하위인 마을 단위 그룹이 있었다. 이 이벤트는 틱낫한(Thich Nhat Hanh) 선사가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40년경, 안남불교협회의 조직 기반은 확고 해졌고, 도시로 부터 농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온 힘과 결의를 다하였으며, 베트남 불교 부흥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의 베트남 불교에 대한 주요 공헌

3.1.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의 생애와 활동

사회복지 활동

충명함과 자비심을 겸비한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15세에 자선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공주라 불리던 스님은 담프엉(Đàm Phương) 여사가 이끄는 자선 단체에 가입하여 회계 담당으로 활동하였다.

● 1926년, 디어우콩 스님은 ‘여성회’를 설립하였고, 그녀의 지도 아래 이 단체는 투아 티엔(Thừa Thiên) 지역에서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중부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협회는 전통 문화적 가치의 보존을 장려하고,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며, 당대 베트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1928년,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락티엔회(樂天會)’를 설립하였으며, 그 사명은 다음과 같았다:

“혁명 정신을 지닌 동지들을 돕고, 일본의 꾸엉데(Cường Đệ) 운동을 지원하며, 중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을 돕고, 안남유학생기금에 기여하며, 응해안(Nghê An)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고아들을 지원하는 것.”

● 1944년,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출가 후 사회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녀는 후에에서 사이공까지 이어지는 고아원을 설립하기로 결심하였다. 또한, 후예의 홍덕사(Hồng Đức 사)에서 무료 진료소를 개설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문화활동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항상 베트남 문화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항상 국가 정체성에 뿌리를 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서양 문화와의 동화화를 피하려고 했다... 스님은 여성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 문화적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또한,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전통적인 수공예 마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남화(Nam Hoa)’라는 상점을 설립하였다.

“나는 ‘남화’라는 상점을 열었고, 그곳에서는 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며, 여성들이 지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이 상점은 외국으로부터 베트남 장인들이 만든 제품을 주문받기도 했다.”

또한,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Nguyệt san Liên Hoa’(1952)라는 잡지를 창간하였으며, 그 사명은 다음과 같았다:

“세속의 사람들을 정신 세계로 이끌고, 불법을 일상 생활에 통합시키며, 세상과 불법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교육 활동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베트남 불교의 미래를 위해 스님과 비구니들의 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다. 그녀는 후에에서 비구니들을 위한 첫 번째 교육 기관인 지여덕사(Dieu Duc Pagoda)를 설립하였다. 또한, 인근에는 여러 다른 비구니 사원이 설립되었으며, 그 중에는 지여덕(후에), 지여원, khai 안, 홍안, 규담, 정후에, 동튀엔, 홍덕, 연지, 연화(후에), 바오탕(호이안), 바오광(다낭), 정념(광응아이), 지여광(나짱) 등이 있다.

또한,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사이공에 첫 번째 불교 대학을 설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 대학은 틱 민초(Thich Minh Chau) 대덕 스님이 교장으로 이끈다. 그와 함께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후에에 리우관 문화센터(Lieu Quan Cultural Center)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덕담 스님의 지도 아래 운영되었다. 그녀는 세속 교육과 불교 교육 모두를 증진시키는 데 헌신하였다. “조건만 맞으면,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세속적 지식과 영적 지식을 위한 교육 기관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승가와 지역사회 지원

스님은 겸손한 삶을 살았으며 항상 민중과 가까이 지냈고, 위엄 있는 몸가짐에서부터 바른 행실, 학문과 수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그녀의 삶 대부분은 깊은 수행 속에서 보내졌으며, 사찰을 세우고 수행자를 지도하며, 불법과 인류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데 바쳐졌다.”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승가에 깊은 존경심을 지녔으며, 어린 사미에게조차도 극진한 예우를 다하였다. 이러한 삶은 그녀가 후대에 ‘겸손’의 가치를 가르쳐 준 고결한 본보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틱 타이 호아(Thich Thai Hoa) 스님의 회상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연세로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자식과도 같고, 수행 연륜으로 보면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우리보다 30 년 이상 선배이며, 불법과 인생에 대한 기여로 보면 그분은 참으로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항상 법도에 따라 정중히 인사하며 극진한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스님이 수행의 모습이 눈부시게 빛나는 이유였습니다.”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일생 동안 팔정도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셨다. 이는 “스님께서서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시고 조사가 전법의 맥을 이어오며 보존해 온 팔정도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번역 및 저술 활동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일생을 불법과 세상 모두를 위해 헌신하셨다. 불사(佛事)의 책임은 언제나 무거웠지만, 그녀는 조금도 게으름 없이 경전과 논서를 번역하고 집필하는 데 온 힘을 다하였으며, 후세에 귀중한 유산을 남기셨다. 그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있다: 《능가심인(楞伽心印)》, 《대지도론(大智度論)》, 《성유식론(成唯識論)》,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현실론(現實論)》,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 《중관론 약해(中觀論略解)》 등이 있으며, 그중 《대지도론》은 80 세가 넘는 생애 후반기에 번역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스님의 시집 《디어우콩 시집(Diệu Không Thi Tập)》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1 편의 시와 연 couplets 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문학적 가치를 넘어, 그녀의 삶 전체에 걸친 해탈의 메시지와 역사적 여정을 담아낸 기록이기도 하다.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이 불법에 바친 삶이, 이 시편들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3.2.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의 철학

인생관과 세계관

디어우콩 비구니 스님은 생애 동안 연기(緣起)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며 세상을 무상(無常)한 것으로 인식하셨다.

“천 겹 구름 속의 학을 말해 무엇하랴, 육신은 덧없는 형상, 머지않아 사라지리라.”

스님은 외부 세계의 현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마저도 무상함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으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를 ‘꽃의 생’, 혹은 ‘비둘기의 그림자’처럼 찰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셨으며, 인생은 꿈결 같다고 여기셨다.

“꽃의 생은 잠깐이요, 인간의 운명도 그러하도다.”

또한 ‘무상’과 ‘고(苦)’의 세계관 속에서, 모든 고통의 근원을 깊이 이해하셨다.

“무상은 우리에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음을 가르친다.”

그러한 통찰은 스님의 시 「삶」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덧없는 인생, 무엇을 남기는가?
만남엔 웃음, 이별엔 눈물.
이름과 재물은 허깨비 같고,
높은 지위와 명예 또한 진실한 가치가 없도다.”

모든 것은 고정된 자성이 없으며, 집착과 무명이 있기에 중생은 생사의 윤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디어우콩 스님은 깊은 통찰로 모든 법이 결국 무상함을 보셨다.

“모든 현상은 걸림 없이 펼쳐지나,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망상이 생긴다.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면 마음은 집착하지 않나니,
그제야 참되고 묘한 성품을 볼 수 있으리라.”

수행과 해탈

비구니 디어우콩 - 20 세기 베트남 비구니 교단의 위대한 기둥 (틱 티엔 푸, 팜 티 탄 빈)

논문발표 세션 4A - 4: 2025. 6. 18. (수) 12:30pm ~ 1:40pm (70 분)

믿음은 늘 스님 삶의 중심에 있었다. 스님은 삼보(三寶)에 의지함으로써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삼보에 대한 깊은 신심과 굳은 확신,
그리고 진실한 귀의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큰 공덕을 이끌어낸다.”

이렇듯 신심은 모든 선행의 어머니이다.

“신심과 서원에 의지하여 수행의 기반을 세우고, 일단 귀의하였다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삼보에 맡겨야 하며,
외부 영향이나 샅된 길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

스님은 평생 수행의 여정 속에서 항상 서원을 세우셨다.

“삼보에 귀의하오니
영원히 그 뜻을 따르리다.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다.”

4. 계승과 발전

덕과 계율을 갖춘 비구니로서, 스님은 이 세상에 나타난 살아 있는 보살이셨다. 디어우콩 스님은 ‘속세를 초월한 고결한 수행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 **응오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공정하고 편향된 정권 아래 살며 나는 내 생명을 바쳐 인간의 양심 회복을 호소 하노라. 권력으로 약자를 억압하지 말지 어다.”

스님의 본질은 **검소하고 꾸밈없는 삶**이었으며, 그럼에도 스님의 존재는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드러내지도, 가르치려 하지도 않으시고, 생사윤회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마음과 조화를 이루고 부처님과 선사들의 가르침을 공경하셨다.”

스님의 행동은 **법의 진리를 반영한 것**이며 그 자체로 **삶을 통한 가르침**이었다. 스님의 삶은 **단순함 속의 위대함, 겸손 속의 강한 서원, 그리고 세속과의 깊은 연결**이었다. 그 모습은 **보살행을 걷는 이들에게 큰 깨우침**이 되었다.

5. 결론

디어우콩 스님은 **삶과 불법에 온전히 헌신한 분**이셨다.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전하고자 하는 보살의 삶**을 사셨고, **귀족 혈통의 고귀한 기품과 해탈의 법의를 함께 지닌 베트남 여성의 위대한 모습**을 구현하셨다.

스님의 삶은 **세속의 티끌에도 물들지 않은 자유로운 삶**이었으며, **여성이지만 위대한 남성 못지않은 큰 뜻을 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나, 93년의 생애와 53년의 출가생활을 자유자재 하게** 걸어가셨다.

스님의 삶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서원과 행적은 영원히 법계에 올려 퍼질 것이다.

TÀI LIỆU THAM KHẢO

1. Thích Hạnh Bình (2008), *Triết học Cổ và Không của Phật giáo Ấn Độ*, Nxb. Phương Đông, Thành phố Hồ Chí Minh.
2. Thích Minh Châu (1995), *Đạo đức học Phật giáo*, Viện Nghiên cứu Phật học Việt Nam ấn hành.
3. Minh Chi (1995), *Các vấn đề Phật học*, Viện Nghiên cứu Phật học Việt Nam ấn hành.
4. Chùa Hồng Ân (2017), *Ái đạo dư hương tưởng niệm 20 năm Ni tưởng Thích Nữ Diệu Không viên tịch (1997- 2017)*, Nxb. Thuận Hóa, Huế.
5. Thích Nguyên Đạt (2020), *Kinh Pháp Hoa từ hệ chiếu đ vương đ ai*,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Hà Nội.
6. Hội đồng Gia tộc Hồ Đắc, Bác sĩ Hồ Đắc Duy (2017), *Các câu chuyện trong gia phả họ Hồ Đắc*, Lưu hành nội bộ.
7. Thích Nữ Diệu Không (2007), *Diệu Không thi tập*, Nxb. Thuận Hóa, Huế.
8. Thích Nữ Diệu Không (Lê Ngân-Hồ Đắc Hoài biên soạn) (2009), *Đường thiền sen nở (Hồi ký)*, Nxb. Lao Động-Trung tâm Văn hóa Ngôn ngữ Đông Tây, Hà Nội.
9. Thái Kim Lan (2015), *Đốt lò hương ấy*, Nxb. Hồng Đức, Hà Nội.
10. Nhiều Tác giả (2016), *Nữ giới Phật giáo Việt Nam truyền thống và hiện đ ai*, Nxb. Đại học Quốc gia, Thành phố Hồ Chí Minh.
11. Phân Ban Ni Giới (2016), *Quá trình hình thành và phát triển của Ni giới Bắc tông Thừa Thiên Huế (từ thế kỷ XVII - XX)*, Nxb. Hồng Đức, Hà Nội.
12. Tỉnh Hội Phật giáo Thừa Thiên Huế (1999), *Kỷ yếu tang lễ Ni tưởng Thích nữ Diệu Không*, Nxb. Tôn giáo, Hà Nội.
13. Thích Nữ Từ Thảo (biên soạn) (2016), *Lược sử Ni giới và Hành trạng chư Ni Phật giáo Việt Nam*, Nxb. Văn hóa-Văn nghệ,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세션 4B 성폭력 문제를 조명하는 원탁토론

1 Roundtable on Sexual Violence

셰린 서 (Sharon Suh) - 좌장

초엘라 카르마 초드론 (Choela Karma Chodron)

초엘라 텐진 다돈 (Choela Tenzin Dadon)

앤 글레이그 (Ann Gleig)

사라 제이커비 (Sarah Jacoby)

에이미 랭겐버그 (Amy Langenberg)

불교 승단과 재가 공동체에서 성적 비행과 학대 문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심각한 과제이다. 율장(Vinaya)에는 강간과 성적 동의와 관련된 문제가 명확히 나타나며, 이는 문화, 언어, 종파를 초월하여 불교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드러내기를 꺼려하지만, 특히 비구니, 젊은 승려, 소녀, 여성 불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본 학술회의는 불교와 성폭력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 학술 대회로 보이며, 2024년 10월 25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티베트, 부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발표자들이 참가하여 국제적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생존자 중심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피해 경험을 직접 공유하는 발표자들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조명한 점이다.

샤카디타(Sakyadhita) 회장인 샤론 서(Sharon Suh)가 진행하는 이번 원탁 토론은 2019년 샤카디타 회의 및 2024년 노스웨스턴 대학교 학술회의에서 시작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교 수행 환경에서 성적 비행과 학대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불교 여성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5 씨앗 심기: 세속 세계에서 불교의 가치를 가르치다

1 Planting Seeds: Teaching Buddhist Values in a Secular World

말리아 웡 (Dr. Malia D. Wong)

(mwong2@chaminade.edu)

[번역: 이영희(국제포교사, 샤카디타 코리아)]

본 발표는 가톨릭 대학 환경에서 불교적 원칙을 활용하여 사회적 조화를 증진하는 혁신적 교수법을 탐구한다. 특히 비종교적인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문화적·언어적으로 내부 지향성이 강한 인접 불교 공동체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마음챙김, 자비, 상호의존성과 같은 불교적 가르침을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존중, 포용, 사회적 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타 종교 간 교류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외부 종교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 신중한 불교 공동체의 선호를 존중하는 전략을 검토할 것이다.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

“왜 다른 종교 전통을 공부해야 하나요?”

“전 종교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종교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요.”

“나는 기존 종교보다 영성(spirituality)을 믿어요.”

“나를 납득시킬 만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학생들은 종교 전통은 포기하면서도 종종 이성과 빅뱅 이론,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삶의 의문에 대한 대안적 의미와 도덕의 근원을 우선시한다. 교육자로서 나는 어떻게 학생들의 마음뿐 아니라 가슴도 함께 일깨워 그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을까? 이 세상은 한 세대의 아이들이 오직 전쟁, 두려움, 불신, 그리고 평화롭지 못한 세상만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깊은 고통 속에 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세속 교육과 종교 간 대화의 접점을 가르치는 가톨릭 교수로서, 보편적 타당성과 문화 및 종교적 감수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풍부한 불교 철학, 역사, 문화 표현은 사회적 조화를 증진시키는 중도의 길을 제시한다. 불자이든 아니든 모든 학생에게 유익한 포용적인 학습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집단 사이에 상호 존중과 대화가 촉진될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종교 간 대화의 맥락 속에서 일반인 세대에게 사회적 조화를 위한 불교의 가치를 가르치는 섬세한 균형을 다루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불교 가르침의 보편적 틀 짜기
2. 불교 단체와의 존중 어린 협력
3. 공유 가치에 대한 대화 촉진

이 여정을 함께 하기 위해 먼저 아비나 자타카(Abinha Jataka)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한다.

코끼리와 작은 개

씨앗 심기: 세속 세계에서 불교의 가치를 가르치다 (말리아 웡)

논문발표 세션 5 - 1: 2025. 6. 19. (목) 09:00am ~ 11:30am (90 분)

옛날 옛적, 어느 분주한 도시에 왕이 소유한 훌륭한 코끼리가 살고 있었다. 매일 한 마리의 작은 떠돌이 개가 코끼리가 밥을 먹을 때 흘리는 쌀을 먹으려고 코끼리의 마굿간으로 몰래 숨어 들어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둘은 최고의 친구가 되었고 함께 놀고, 함께 먹으며, 절대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도시를 방문한 한 남자가 그 개를 보고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코끼리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먹지도, 목욕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매우 슬퍼 보였다.

왕이 이를 알아차리고, 현명한 조언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 명했다. 조언자는 코끼리를 찾아가 곧 그가 친구인 작은 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왕은 다음과 같이 공포했다. “누구든 코끼리의 개를 데려간 사람은 돌려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그 남자는 즉시 개를 풀어주었고, 개는 곧장 코끼리에게 달려갔다. 코끼리는 기쁨에 넘쳐 개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왕은 크게 감동했고, 현명한 조언자에게 상을 주었다. 그는 진정한 우정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도 불교의 가치를 가르침에 있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보자.

1. 불교 가르침의 보편적 틀 짜기: 교육에서의 실천적 적용

점점 다원화되고 세속화된 현대 교육 환경 속에서, 불교의 핵심 원리인 마음챙김, 자비, 상호 의존은 종교적 교리라기 보다 실천적 도구로 효과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예술, 음악, 영화 등에서도 불교적 지혜의 보고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복지 향상, 윤리적 의사결정,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상호 연결성 함양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씨앗을 심음으로써 학생들은 행복이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동기를 얻고,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탐구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 속의 마음챙김

가톨릭 전통에서, 수도사인 십자가 성 요한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 영적 수련을 통해 평화를 기를 수 있음을 가르쳤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정 지능을 개발하며, 내적 평화를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준다.

일본의 곳곳이 예술 '이케바나'는 불교 철학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단순함 속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일본 무도인 아이키도, 유도, 검도, 한국의 태권도, 선무도, 심검도, 중국의 소림 무술 등도 모두 불교적 영향에서 비롯되어 마음챙김, 자기 절제,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예와 다도(茶道) 역시 내면의 조화를 기르는 수행이다.

영화를 통한 교육

영화는 불교의 개념을 소개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인데 특히 소셜 미디어에 경도된 세대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포스가 함께 하길(May the Force be with you)”이라는 대사는 직접적인 불교 가르침은 아니지만, *스타워즈(Star Wars)* 시리즈 속 ‘포스’ 개념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 철학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또한, 요다 마스터는 이타심, 즉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자세, 자비, 집착 없는 삶이라는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 번은 어느 젊은 가톨릭 수녀가 *쿵푸 팬더(Kung Fu Panda)*의 내용을 유치원 수업에 활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녀는 아이들을 모을 때, “평화(Peace)”라고 외치면, 아이들은 곧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카펫 위에 모여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으며 쿵푸 팬더 ‘포(Po)’의 자세를 따라 했다. 전통적인 훈육 방식 대신 마음챙김을 통해 정돈되는 유치원 교실을 상상해 보라.

요즘 학생들은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막이 있는 장편 영화나 자막이 있는 영화는 수업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대신 짧은 영상 클립을 활용해 불교 철학이나 가치를 주제로 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웃집 토토로(My Neighbor Totoro)* 같은 작품은 자연에 대한 존중과 보살(菩薩)의 개념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좋은 예들이다.

자비와 사회적 책임

어느 해, 나는 도널드 로스버그(Donald Rothberg)의 저서 『The Engaged Spiritual Life: A Buddhist Approach to Transforming Ourselves and the World(참여하는 영적 삶: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불교적 접근)』을 수업 교재로 사용했다. 그날 오후, 한 학생이 어떤 이유로 체포되어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책을 읽었다. 나중에 그 학생은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도 그 책을 읽고 싶어 했어요”라고 말했고 출소 후, 그는 그들을 위해 책을 몇 권 더 사서 나누어 주었다.

이처럼 불교의 자비(karuna)개념을 단순한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교육적 도구로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된다. 반성적 저널쓰기와 윤리적 사고 훈련을 수업에 포함하여, 보건의료, 형사사법, 비즈니스, 교육,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원칙을 자신의 직업 윤리에 통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상호의존성(연기): “세상은 하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기의 예를 떠올릴 때, 나는 디즈니랜드의 *It's a Small World* 놀이기구와 노래를 생각한다. 이 놀이기구와 노래는 전 세계의 연결성과 다양성을 축하하며, 관용, 공감, 친절, 그리고 국제 평화를 세속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줘서 결국 글로벌 시민성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혼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부탄 역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연기의 좋은 예이다.

선사 틱낫한(Thich Nhat Hanh)스님이 창립한 ‘상호존재의 수행공동체(Order of Interbeing)’에서는 승려와 재가자가 함께 마음챙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생명 간 깊은 연결성을 인식할 것을 서약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달라이 라마(Dalai Lama) 존자가 강조하는 ‘마음 교육’ 역시 환경보호와 사회적 조화를 증진하는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2. 불교 공동체와의 존중 어린 협력

2019년, 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제 불교 수업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불교 수행자 친구들이 있었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호놀룰루 다이아몬드 상가(Honolulu Diamond Sangha)의 클락 래틀리프(Clark Ratliff)는 선불교를, 혼파 혼간지(Honpa Hongwanji)의 클라이드 휘트워스(Clyde Whitworth)는 선불교를, 프랑스 출신 테라와다 숲의 스님, 프레드 스님(Venerable Fred)은 숲속 명상을, 탄 후인 박사(Dr. Thanh Huyn)와 부인 수안(Xuan)은 위빠사나 통찰명상을, 다르마 지도자 어네스틴 에노모토(Ernestine Enomoto)는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소개해 주었다. 정말 모든 수업을 직접 듣고 싶을 정도였다.

하와이에서 자란 저는, 매주 토요일 할머니를 따라 두 개의 오렌지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 쉰윤(Hsu Yun)사원에 공양하러 갔다. 그 사원에는 조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는데, 당시에는 불교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증조할머니로부터 깊은 공경심을 배웠다.

이후, 저의 첫 명상 스승인 선불교의 로버트 아이켄 로시(Robert Aitken Roshi)를 만났고 그가 이끌던 코코안(Koko-An)센터는 지금의 호놀룰루 다이아몬드 상가가 되었다. 우리는 명상 후에 함께 차와

과자를 나누며 공동체로서의 삶을 배우고 사무(samu, 공동노동)를 함께하며 팔로로 계곡에 새로운 도량을 지었다.

1994년, 달라이 라마 존자가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붉은 가사를 입은 한 비구니스님이 흰 옷을 입은 가톨릭 수녀인 저를 “입양”하기로 했고 저를 품어주시고 종교 간 대화와 학문적 협력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 그해, 카르마 렉셰 초모(Karma Lekshe Tsomo)스님은 저를 하와이의 육불사(Yuk Fut Temple)의 루이 먀오 스님(Venerable Rui Miao)스님에게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 사원의 일원이 되었다.

아이켄 로시가 은퇴한 후, 저는 마음챙김(사띠, Sati) 수행을 더 깊이 하기 위해 함께 할 새로운 명상 공동체를 찾기 시작했고, 위빠사나 하와이(Vipassana Hawai'i)의 스티븐 스미스(Steven Smith)와 미셸 맥도널드(Michelle McDonald) 아래에서 통찰 명상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2000년, 초모스님은 저를 네팔에서 열린 첫 샤카디타(Sakyadhita) 대회에 초대하셨고, 여성 권리를 위한 교육 활동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후, 자비회(Tzu Chi)의 병원 원목 훈련 프로그램, 하와이 국제불자협회, 혼파 혼간지 선교회, 불교전도협회(Bukkyo Dendo Kyokai)의 후지타니 종교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해 왔고, 현재는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서로에게 큰 배움이 되었으며, 고통 경감, 환경 보호, 사회 정의라는 공통된 목표를 중심으로 함께해왔다.

3. 공동 가치에 대한 대화 촉진

하와이에는 다음과 같은 활발한 종교 간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 하와이 종교간 연합 (The Interfaith Alliance of Hawai'i)
- 실천 공동체 연합 (Interfaith Communities in Action)
- 선라이즈 재단 (Sunrise Foundation Hawai'i)
- 하와이 종교 간 에너지 네트워크 (Hawai'i Interfaith Power and Light)
- 하와이 종교 평화회의 (Hawai'i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샤미나드 대학교에서는 BDK-요시아키 후지타니 목사의 종교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근 몇 년간, 저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교 간 행사들을 기획하고 이끌도록 지도해 왔다:

- “조상을 기리며: 신앙과 전통”
- “급변하는 시대의 영성”
- “왜 그럴까요? 신성한 공간 속 의례 탐구”
- “폭력을 해체하기: 관조적 대안”
- “나는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요: 중도에서 길 찾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화를 촉진하고, 윤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길러준다. 교리의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공유하는 가치와 사회적 조화를 위한 협력적인 기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불교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동시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하와이 전통 신앙 등 다양한 종교 공동체와 의미 있는 연결을 경험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민감한 접근

물론 어떤 불교 공동체는 문화적 특성과 언어적 장벽이 뚜렷하고, 자신들의 의식, 성스러운 공간, 승단 전통을 보호하려고만 해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공간에서 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질문할 때, 저는 깊은 경청과 존중의 태도를 가르친다.

결론

아비냐 자타카(Abinha Jataka)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진정한 우정과 이해는 경계를 초월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조화를 위한 불교 가치의 교육은 우리에게 종교, 문화, 교육의 경계를 넘어 의미 있는 연결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준다.

보편적 지혜, 존중의 협력, 공유 가치에 대한 대화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학생들이 자비, 마음챙김,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도구를 갖추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세션 5 세계 불교 여성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물 고통 경감에 관한 연구

2 Using Global Buddhist Women's Networks to Relieve the Suffering of Animals

캐서린 슈에체 박사 (Dr. Catherine Schuetze)

(vajracat@gmail.com)

[번역: 박현주(샤카디타코리아)]

본 발표는 불교 공동체 및 불교 여성들의 지역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국제 수의학 중심 동물 복지 단체인 Vets Beyond Borders 를 사례로 분석한다.

이 단체는 남아시아에서 동물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불교 여성 및 여성 수의사들의 협력을 통해 설립되었고 이후, 인도의 전통 불교 공동체에서 지역 및 국제 불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여러 프로그램이 구축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동물 복지 및 구조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사회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및 국제 동물 복지 단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서구 수의학은 한때 남성 중심적 분야였으나, 현대에 들어 여성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아시아의 수의학 졸업자들도 점점 여성 비율이 증가하며, 여성들에게 확대된 기회가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수리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지속적 살육을 방지하는 윤리적·실용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떠돌이 개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수술은 살처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발표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분석하며, 불교적 가치와 수의학적 전문성을 통합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불교의 고통 경감 원칙은 자연스럽게 동물 복지로 확장되며, 이는 불교 공동체에서 영적·윤리적 우선 과제가 된다.

또한 동물은 윤회 과정에서 인간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본 발표는 Sikkim SARAH 프로그램과 같은 성공적인 협력을 조명하며, 불교 윤리가 새로운 수의학 프로그램, 동물 구조 센터, 지역 사회 교육 사업에 어떻게 영감을 제공했는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및 국제 불교 네트워크가 자원을 동원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문화적 공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여성 리더십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으며, 독특한 관점과 지역 사회의 신뢰를 형성한다. 특히, 여성들은 기초 자금 조달, 자원봉사 조직, 공공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동물 복지 프로그램의 문화적·윤리적 조화를 보장한다.

여성들의 참여는 특히 농촌 및 취약 지역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동물이 생계 및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 더욱 필수적이다.

서론

불교 철학과 수행 안에는 동물 복지와 구조 활동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규범과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열망은 *메타*(자애), *카루나*(연민),

아힘사(비폭력), 카르매(인과), 그리고 연기(緣起)의 개념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됩니다. 육도윤회의 존재 가운데, 동물은 대부분의 불자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존재입니다¹. 따라서 저는 불교의 철학적, 도덕적 성찰의 논리적 귀결은 동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모든 전통의 스승, 수행자, 철학자들은 같은 주장을² 해왔습니다.

실천 불교 활동들은 동물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도살 예정인 동물들을 자연 수명대로 살 수 있도록 풀어주는 생명방생(체타르, 팡생, 자비 방생)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환경과 동물에게 의도치 않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야생동물 특화 시장이 형성되어 판매 목적으로 포획되거나 사육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시키고, 결국 이 관행의 이점을 훼손시킵니다³. 이에 대응하여 여러 불교 지도자와 환경 단체들은 불자들에게 도살용으로 판매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 따라서 자비 방생의 필요성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생활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자들은 채식주의자 또는 완전채식(비건) 생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도살을 위해 사육되거나 포획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채식 식단을 하루 지킬 때마다 한 마리의 동물 생명을 구하며, 4,164 리터의 물, 18kg의 곡물, 3m²의 숲, 9kg의 이산화탄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⁴. 이는 육류를 위해 도살될 뻔한 동물을 구하고 전지구적 건강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통해 환경, 야생동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장기적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유익한 동물 활동 외에도 불자들은 우리 거리에서든, 동물 보호소에서든, 야생동물 구조 활동 등을 통해서든 우리 지역사회의 도시 동물들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단체와 정부는 종종 길거리 개들에게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중성화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는 광견병 전염을 통제하고 이 끔찍한 질병으로 인한 인간과 동물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ABC-AR(동물 출생 통제-광견병 예방) 또는 TNVR(포획, 중성화, 예방접종, 방사)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이전에 사용되던 개체수 조절과 광견병 통제를 위한 길거리 개 살처분을 효과적으로 대체했습니다. ABC-AR의 압도적인 이점은 사람, 가축 및 기타 동물들을 광견병으로 인한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폭되는 건강상의 이점은 우리의 인간-이상의 세계가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ABC-AR과 같은 수의학 공중보건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 개선이 모든 생명체의 복지와 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저는 23년 전 인도에서 ABC-AR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불교계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 보드가야(Bodhgaya), 다람살라(Dharamsala), 타시종(Tashi Jong), 시킴(Sikkim)에서 소개와 지역 사회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습니다. 호주의 수의사로서 저는 자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이러한 지역사회가 유기견과 마을 개들을 중성화, 예방접종, 그리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인도에 대한 저의 초기 방문은 주로 여성 호주 수의사들과 불교도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인 '국경 없는 수의사회'(Vets Beyond Borders, VBB)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수의사회는 자원과 자원봉사자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ABC-AR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의 공중보건, ABC-AR 프로토콜

¹ (슈에츠, 2012)

² 참조(Kapleau, 1981, 2001; Walters and Portmess, 2001; Balsys, 2004; Tsem Rinpoche, 2011; Ambros, 2012; Cheng, 2014; Stewart, 2015; Gaerang, 2016; Barstow, 2017; Gayley, 2017; Rinpoche, 2021; Pang, 2022; Simonds, 2023).

³ (리우, 맥게리티, 리, 2012)

⁴ (비건 계산기, 2025)

및 기술에 대해 많은 현지 동료들을 교육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다람살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로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프로그램은 살처분을 종식시키기 원하는 새로운 지역사회로 확산되었습니다. 불교 공동체는 종종 동물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보드가야, 시킵, 다람살라, 라다크(Ladakh), 빌라쿠페(Bylakuppe), 그리고 부탄(Bhutan)과 같은 인도 불교 및 티베트 난민 지역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습니다. 국경 없는 수의사회(VBB)는 이후 태평양,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로 활동을 확대하였으며, 여전히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여성, 동물, 그리고 불교가 어떻게 교차하여 동물과 그들의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켰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불교신자와 여성의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도덕적 관심을 인간을 넘어 동물까지 포함하는 승가(Sangha) 공동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논문은 또한 생태여성주의, 여성주의 돌봄 윤리, 불교, 그리고 전지구적 건강의 상호의존성 간의 연관성을 도출합니다. 오늘날 여성은 국제 동물 복지 이니셔티브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수의학 전문가, 옹호 단체 및 자금 지원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협력이 불교 지역의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해결책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살펴봅니다.

젠더와 동물

수십 년간 동물 복지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수의사로서 저는 불교, 동물, 여성의 흥미로운 교차점을 목격해 왔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수의사들, 그리고 국경 없는 수의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수의사들은 대부분 여성이며, 동물 복지 단체와 서구 불교 센터는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여성주의, 전환기 여성주의, 동물 연구, 수의인류학 학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생태여성주의 연구는 여성을 종속시키는 전 지구적 억압시스템이 인종적 소수자, 비인간 동물, 자연 환경, 식민지화된 민족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연결 짓습니다⁵.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종차별주의, 장애인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공통된 서사를 설명하는 문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과 유사한 폭력과 억압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다른 억압받는 존재들을 더 쉽게 인식합니다. 이러한 '바라 보기'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키웁니다. 이는 왜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동물복지 인식 점수가 높고⁶, 동물 보호소 및 야생동물 구조 단체의 자원봉사자 중 70~80%를 차지하는지⁷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 복지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주의 돌봄 윤리가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여성주의 돌봄 윤리의 철학적, 윤리적 접근은 도덕적 의사 결정에서 관계, 상호의존성, 책임을 강조합니다. 여성주의 돌봄 윤리는 성별, 인종, 계급 및 기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돌봄과 도덕적 기대를 형성하는지 강조합니다. 이는 종종 여성, 인종화 된 공동체, 소외된 집단에 의해 수행되는 돌봄 노동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아래에서 어떻게

⁵ (친스야, 2024)

⁶ (헬레스키, 메르티그, 자넬라, 2004; 랜들러 외, 2021; 카노발레 외, 2022)

⁷ (노이만, 2010; Haering 외, 2020; 제이콥스와 리스, 2021)

저평가되는지 비판합니다⁸. 불교와 조화롭게, 여성주의 돌봄 윤리는 연민, 공감, 세심함을 필수적인 도덕적 역량으로 꼽습니다.⁹

동물복지에서의 여성 리더십

여성의 리더십은 동물 복지 프로그램의 성공에 핵심적이며, 독특한 관점과 지역사회 신뢰를 제공합니다. 디키 팔무 박사(Dr. Diki Palmu)의 시킴(Sikkim)에서의 SARAH 프로그램에 관한 예정된 발표는 좋은 예입니다. 여성주의 학문은 젠더와 돌봄 역할의 교차점을 강조하며, 여성들이 종종 풀뿌리 모금 활동, 자원봉사 조정, 그리고 대중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참여는 특히 동물이 생계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촌 및 소외된 지역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여성주의 지역사회 리더십 이론은 협업, 집단적 의사결정, 포용성을 우선시하는 여성의 리더십 스타일을 기반으로 합니다¹⁰. 이러한 특성들은 상호 연결성, 순환을 통한 친족 관계,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적 틀을 가진 불교 동물 복지 프로그램에서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주의 불교 리더십의 통합은 여성들이 어떻게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틀을 제시합니다. 여성주의 윤리는 관계적 돌봄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이는 자비와 상호의존성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불교 신자이든 아니든 동물 복지 분야에서 여성의 성공은 관계 윤리에 기반한 리더십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성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도덕적 리더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불교 윤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동물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를 모델링합니다. 이들은 종종 동물 복지 활동의 핵심 참여자이며 교육 프로그램에 관여합니다. 여성 주도의 선도활동들은 불교 윤리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지역 사회와의 장기적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여성주의 리더십은 특히 불교 맥락에서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사원 전통은 역사적으로 남성 중심이었고 여성을 종속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불교 여성들은 위계질서보다 집단적 행동을 우선시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리더십 역할을 되찾았습니다.¹¹ 수의학 및 동물 복지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하여 여성주의 가치가 불교 운동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례 연구: 국경 없는 수의사회와 SARAH 프로그램

불교에서 영감을 받은 동물 복지 프로그램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시킴 광견병 방지 및 동물 건강(SARAH)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처음에 개체수 조절과 광견병 통제를 위해 정부가 길거리 개를 사살하는 것에 반대한 지역 불교계와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시킴 주 수의학과 부서, 국경 없는 수의사회, 브리짓 바르도 재단이 협력하여 이 혁신적인 주 차원의 동물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디키 팔무 박사와 틴레이 부티아 박사는 현지의 불교 네트워크를 통해 시킴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인식 제고, 기금 마련, 자원봉사자

⁸ (창과랄프, 2013)

⁹ (Simonds, 2023)

¹⁰ (Gross, 1993)

¹¹ (Gross, 1993)

확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 승가 네트워크는 또한 지원과 격려의 토대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채로 일하면서 계속되는 내외부의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불교 수행은 계속할 수 있는 정신적 안정과 동기를 제공했으며, 이는 건강한 모험심과 유머 감각과 함께 동등하게 중요했습니다.

중성화 및 백신 접종 캠페인을 장려함으로써 SARAH 는 불교의 가치인 *아힘사*(비폭력)와 *카루나*(연민)에 부합하는 동시에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SARAH 이니셔티브는 광견병 사례를 거의 없애고 유기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개 입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도사업의 성공은 불교적 가치가 공중보건 정책과 동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물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른 불교 지역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영향력 확대: 국제 불교 네트워크의 힘

국제 불교 네트워크는 자원 공유, 지식 교환, 옹호를 통해 지역적 노력의 영향력을 증폭시킵니다. 불교계와 수의학 및 동물권 단체 간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범위와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여 동물 복지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촉진합니다. 사카디타 컨퍼런스, 불교 잡지, 다큐멘터리, 지역 및 국제 뉴스 등 다양한 불교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통해 불교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물을 위한 다르마 보이시(DVA)¹²와 전 세계의 다양한 불교 동물 구조 단체들은 실천적 불교의 관점에서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들의 미래 생애 불법(佛法)의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적 동물 복지 활동의 측면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일부는 동물의 현재 생애에 대한 복지뿐 아니라, 미래 생애에 대한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불교적 실천의 중요한 요소이며, 불교 프로그램이 비불교적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원봉사의 세계적 혜택은 단방향성이 아닌 상호적인 흐름을 이룹니다. 지난 20 년간 수백 명의 호주 및 국제 수의사와 수의 간호사들이 시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이러한 문화적 몰입을 통해 불교 문화와 불교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들이 시킴 지역의 동료들로부터 배우는 기술은 단순한 수의학적 실용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은 종종 불교, 동물의 유정성(有情性), 불교적 우주관, 업(業), 그리고 과거세(過去世)와 미래세(未來世)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귀국 합니다. 이러한 귀국 자원봉사자들은 SARAH 와 같은 프로그램이 지닌 심오한 혜택을 직접 경험한 이들로써, 향후 네트워크 형성의 새로운 자원이 됩니다

결론

많은 불교 여성들은 자비, 윤리, 그리고 수의학을 통합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는 변혁적 실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인 불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윤리적·실천적 과제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하고 문화적으로 공감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경 없는 수의사회(Vets Beyond Borders)'와 SARAH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에 영감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불교 여성들이 동물 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전통 불교 공동체 내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감에 따라, 그들의 기여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윤리적·영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과 교육 중심의

¹² www.dharmavoicesforanimals.org

실천은, 장차 불교적 원칙이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동물 복지 실천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정에서 만난 모든 훌륭한 여성분들께 진심 어린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국경 없는 수의사회와 SARAH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동물이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제 삶은 메말랐을 것이고, 여러분이 전해 주신 따뜻함과 지혜, 빛을 누릴 수 없었을 것 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법우(法友)들, 특히 다음 발표를 맡은 디키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엠브로스, B. (2012) *논쟁의 뼈: 현대 일본의 동물과 종교*. 하와이 대학 출판부.
- 발시스, B. (2004) *아히 사: 불교와 채식주의의 이상*. 문시람 마노할랄 출판사 제한.
- 바스토우, G. (2017) *죄악 된 악마의 음식: 육식, 채식주의, 티베트 불교의 한계*. 컬럼비아 대학 출판부.
- Carnovale, F. 외(2022) '중국의 동물 복지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지식에 대한 성별 및 연령 영향', *Animals*, 12(11), 1367 면. 이용 가능: <https://doi.org/10.3390/ani12111367>.
- 창, C. 및 랄프, I. (2013) '여성과 종간 돌봄: 대만의 개 어머니', *페미니스트 생태 비평의 국제적 관점*. Routledge.
- Cheng, C. (2014) *초기 중국 불교에서 동물의 윤리적 대우: 신념과 관행*. 캠브리지 학자 출판.
- 친스야, B.A.D. (2024) '여성과 자연: 환경 보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에코 페미니스트 연구', *An-Nisa 젠더 연구 저널*, 17(2), 149-164 쪽. 이용 가능: <https://doi.org/10.35719/annisa.v17i2.309>.
- Gaerrang, K. (2016) '지역을 초월한 티베트 정체성과 티베트 불교: 티베트(중국) 목축 지역의 현대 채식주의', *Études mongoles et sibériennes, centrasiatiques et tibétaines* [Preprint], (47). 출처: <https://doi.org/10.4000/emscat.2755>.
- Gayley, H. (2017) '동물에 대한 자비로운 대우', *종교 윤리 저널*, 45(1), 29-57 쪽. 이용 가능: <https://doi.org/10.1111/jore.12167>.
- 그로스, R.M. (1993) *가부장제 이후의 불교: 불교의 페미니스트 역사, 분석 및 재건*. SUNY Press.
- Haering, R. 외(2020) '보다 효과적인 야생동물 보호 및 재활 모델을 향하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자원봉사자 설문조사', *호주 동물학자*, 40(4), 605-627 쪽.
- 헬레스키, C.R., 메르티그, A.G., 자넬라, A.J. (2004) '농장 동물 복지에 대한 태도 평가: 동물 과학 교수진에 대한 전국 설문 조사 1', *동물 과학 저널*, 82(9), 2806-2814 쪽. Available at: <https://doi.org/10.2527/2004.8292806x>.
- 후크스, B. (2000) *페미니스트 이론: 여백에서 중심으로*. 플루토 프레스.
- 제이콥스, J. 및 리스, L.A. (2021) '동물 보호소 자원 봉사자들의 연민 피로: 개인 및 조직 위험 요인 조사', *인류학*, 34(6), 803-821 쪽. 사용 가능: <https://doi.org/10.1080/08927936.2021.1926719>.
- 카플 로, P. (1981) *모든 생명을 소중히하기 위해: 동물 도살과 육식에 대한 불교의 견해*. 젠 센터.
- 카플 로, R.P. (2001) '육식과 첫 번째 계율', K.S. 월터스 및 L. 포트 메스 (eds) *종교적 채식주의: 헤시오도스에서 달라이 라마까지*. 알바니: 뉴욕 주립대 출판부, 84-86 쪽.
- 리우, X., 맥개리티, M.E., 리, Y. (2012) '전통 불교 야생동물 방생이 생물학적 침입에 미치는 영향', *보존 편지*, 5(2), 107-114 쪽. Available at: <https://doi.org/10.1111/j.1755-263X.2011.00215.x>.

- 노이만, S.L. (2010) '동물 복지 자원 봉사자: 그들은 누구이며 왜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는가?', *Anthrozoös*, 23(4), 351-364 쪽. Available at: <https://doi.org/10.2752/175303710X12750451259372>.
- Pang, R.H. (2022) '동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채식주의와 동물의 윤리적 대우에 대한 샤브카르의 내러티브 주장', *불교 윤리 저널*, 29, 61-.
- 랜들러, C. 외(2021) '동물 복지 태도: 22 개국 대학 표본에서 성별과 식단의 영향', *동물*, 11(7), p. 1893. 이용 가능: <https://doi.org/10.3390/ani11071893>.
- 린포체, D.K. (2021) *린포체의 편지, #LESSMEATMORELOVE*. 위치: <https://www.lessmeatmore.love/letter-from-rinpoche> (엑세스: 2024 년 10 월 11 일).
- 슈에체, C. (2012) *동물학에서 아힘사 의학으로: 티베트 의학에서 동물에 대한 태도 변화*. 호주 국립 대학교.
- 시몬스, C.H. (2023) '불교적 돌봄의 생태 윤리를 향하여', *종교*, 14(7), p. 893. 이용 가능: <https://doi.org/10.3390/rel14070893>.
- 스튜어트, J. (2015) *현대 불교의 채식주의와 동물 윤리*. Routledge.
- 템린포체 (2011) '황소를 구하는 라마 쿤장 도르지', *템린포체*, 6 월 20 일. 출처: <https://www.tsemrinpoche.com/tsem-tulku-rinpoche/animals-vegetarianism/lama-kunzang-dorjee-saves-bulls.html> (엑세스: 2024 년 10 월 11 일).
- 비건 계산기* (2025) *VeganCalculator.app*. 출처: <https://vegancalculator.app/> (엑세스 날짜: 2025 년 3 월 16 일).
- 윌터스, K.S. 및 포트메스, L. (2001) *종교적 채식주의: 헤시오도스에서 달라이 라마까지*. SUNY Press.

세션 5 전통 불교 사회에서 여성 수의사, 공동체 네트워크 및 동물 복지

3

Female Veterinarians, Community Networks, and Animal Welfare in a Traditional Buddhist Society

디키 팔무 셰르파 박사(Dr. Diki Palmu Sherpa)

(dikipalmu17@yahoo.co.in)

[번역: 조정희(국제포교사)]

불교 공동체가 빠르게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불자 여성으로서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참여형 불교 프로그램인 SARAH(시킴 광견병 예방 및 동물 건강) 프로그램이 불교 수행을 활용하여 개인의 성장과 자비 및 평정의 불교적 이상을 통해 동물 복지와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2005 년, 정부의 대규모 길거리 개 사살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수의학 동료들과 함께 인도적인 개 개체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SARAH 프로그램은 현대적 중성화 및 대규모 광견병 예방 접종 방법을 활용하여 개 개체 수를 조절하고 동물 및 인간의 광견병 사망을 예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 불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두 개의 국제 동물 복지 기관과 협력하며, 독창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주 전체 광견병 예방 및 동물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이는 인도 및 아시아에서 최초로 정부가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한 주 전체 프로그램이다.

향후 대규모 개 사살이 금지되도록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더 수용 가능한 비폭력적 방식으로 길거리 개 개체수 및 광견병을 관리하는 접근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수많은 수의사 및 보조 수의사를 해당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하였으며, 우리 프로그램은 인도의 다른 주와 해외에서도 유사한 활동을 지원하고 영향을 미쳐 그 혜택을 확산시켰다.

끊임없는 어려움과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 년간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프로그램은 더욱 강력해졌다. 여성 수의사로서 임상 부문을 책임지는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며, 보수적인 불교 공동체 내에서 개인적 도전을 극복하고 강점을 발견하였다.

여성 네트워크 및 응네이(Ngung Ney) 수행과 같은 여성 주도 공동체 그룹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여성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핵심 교육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설정한다. 공공 교육 및 참여를 위해 여성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이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이었다.

나는 차세대 여성 수의사 및 보조 수의사들이 동물 복지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였고 현재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팀이 외딴 마을과 지역에서 개 중성화 및 광견병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ARAH 프로그램은 사회참여형 불교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르마를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내 여성 리더들은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전통 불교 사회에서 여성 수의사, 공동체 네트워크 및 동물 복지라는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직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청정한 금강심은 우리 모두 안에 있으며, 그저 그것을 인식하고 모든 중생을 위해 선행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2005년부터 시킴 주정부 축산수의서비스국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라 프로그램(SARAH: Sikkim Anti-Rabies and Animal Health Programme)**—전인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프로그램—의 근간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랑, 자비, 그리고 비폭력이라는 불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중 보건과 동물 복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시킴은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지역에 위치한 주로, 불교 공동체와 문화유산이 깊이 뿌리내린 지역이다.

변화의 촉매로서의 여성

시킴(Sikkim)은 전통 불교 사회로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문화와 종교적 가치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여성은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자이며 도덕적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 네트워크와 여성 주도의 모임들이 지닌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사라 프로그램(SARAH Program)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여성 불자들이 주도하는 기도와 명상이 실천인 능네이 (Ngung Ney)와 같은 활동은 우리가 자비와 봉사의 가치를 키우는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여성을 지역사회의 교육자이며 지도자로 역량을 강화시켜서, 우리는 대중의 참여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변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차세대 여성 수의사 및 보조 수의사 (paraveterinarians) 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리더십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오늘날,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이 오지 마을 곳곳에서 개의 중성화 수술과 광견병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성 뿐 아니라 불교적 봉사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준다.

불교적 가치와 수의학: 조화로운 시너지

불교도 여성 수의사로서 과학적 지식과 불교의 **아힘사(ahimsa, 비폭력)** 및 카루나(karuna, 자비)의 원칙을 결합할 때, 더욱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탄생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사라 프로그램(SARAH Program)은 광견병과 떠돌이 개의 과잉 개체 수 문제를 이런 불교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개체 수 조절과 광견병 예방을 위해 유기견을 살처분하는 비인도적인 방식이 흔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불교의 정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효과적이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사라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동물 탄생 조절 및 광견병 예방 프로그램(ABC-AR: Animal Birth Control and Anti-Rabies)과 같은 인도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집단 안락사를 없애고, 광견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프로그램 초창기에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강한 저항감을 보였다. 일부는 중성화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다는 **문화적 신념**을 이유로 들었고, 또 다른 이들은 **장기를 제거당한 동물은 올바른 운회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 교육, 그리고 모든 중생의 고통과 평등함에 대한 불교 가르침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했다. 공공 인식 캠페인을 통해 인간, 동물, 환경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점차적으로 지역 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큰 변화를 이루려는 노력에는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다. 헌신적인 불교도로서, 이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교 수행과 공동체의 힘을 바탕으로 결단력과 용기를 더욱 강화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대신에, 불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했다. 마을에서 **3년 동안 지속적인 능네이** 실천을 후원하고 주도했다. 불교 승려들에게 동물의 중요성과 프로그램의 의미, 특히

인과의 상호 연결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이 작업은 매우 유익했다. 현재 그들은 백신 접종과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마을에도 이 정보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덕분에 프로그램이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끈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대중 교육**이었다. 시킴 전역의 사찰과 학교에서 여러 차례 인식 캠프를 진행하여 지역 사회에 동물의 중요성과 살생이 **비윤리적**이며 **우리 사회에 파괴적**이라는 점을 교육했다. 많은 사람들이 **광견병**과 **개 물림**을 두려워하여 개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과거에 사람들 또는 동물들이 광견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개를 죽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 교리를 따르지만, 이런 위험 때문에 개들에 대한 **자비심**은 없었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개와 공존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불교의 원칙에 의지하며, 개들을 **중성화**하고 **백신 접종**을 했을 때 개들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역 사회가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 사회 변화**는 종종 **여성들**에 의해 지역 사회에서 주도된다. 시킴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효과를 거두었고, 이제 지역 사회는 사라 프로그램(SARAH Program)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다만,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서는 꿈을 꾸고 자신의 내면의 자각을 신뢰해야 한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여성 네트워크의 사회 변화에 대한 역할

여성 네트워크와 지역 공동체 그룹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그룹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여성들이 보호자이자 의사결정자로서 가정과 마을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 여성들의 내면에 깃든 자비심은 그들을 동물의 인도적 처우와 지속 가능한 실천을 옹호하는 데 있어 자연스러운 동반자로 만들어 주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농촌과 도시 환경에서 조용한 보호자로서 개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개들은 야생동물의 침입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히말라야 흑곰과 자칼과의 충돌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여성 주도의 지역 교육 프로그램은 개를 귀찮은 존재로 보던 인식을 생태계의 소중한 일원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중성화 수술과 백신 접종 사업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킴의 광견병 방역 혁신

사라 이전에는 시킴에서 광견병이 자주 발생하여 매년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개 도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는 질병을 억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고통을 초래했다. 불교를 신봉하는 시킴 주민들에게 이러한 방식은 큰 충격과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사라 프로그램은 보다 인도적인 해결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시작되었다.

사라는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 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도입하여 통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광견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개 백신 접종
- 중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인도적인 개체 수 조절
- 부상당하거나 병든 동물 치료를 통한 전반적인 복지 향상
- 동물과의 공존과 존중을 장려하는 지역 사회 교육 프로그램

사라는 설립 이후 수천 마리의 개에 백신을 접종하고, 개체 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을 시행했으며, 지속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시킴에서의 광견병 발생 사례는 극적으로 감소하였고, 시킴은 현재 인도 내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광견병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라의 철학에서 훈련과 멘토링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젊은 여성 수의사와 보조 수의사 들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그들이 동물 복지 분야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도록 격려했다. 이제 이 여성들은 시킴의 가장 외진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이끌며, 회복력, 자비심, 그리고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노력은 단순한 기술적 업무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사회참여적 불교의 원칙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자비와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젊은 세대의 롤모델이 되어, 수의학을 봉사에 기반한 고귀한 직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영감을 주고 있다.

사회적 문화적 영향

사라 프로그램은 사회적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 흔히 벌어졌던 개들의 집단 총살과 같은 충격적인 장면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대신, 불교적 가치에 부합하는 자비로운 접근 방식을 보게 되었고 이런 변화는 시킴 주의 문화적·윤리적 기반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고, 지역 사회에 평화와 조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동물 돌봄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학교에서는 동물 복지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어릴 때부터 자비와 공감의 가치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문화적 변화는 공중 보건과 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더 넓은 목표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면, 동물을 더 잘 돌보는 것은 식품 안전의 향상, 인수공통 전염병의 감소, 그리고 더 건강한 지역 사회로 이어진다.

도전과 교육의 교훈

사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다. 문화적인 저항, 외진 지역의 물리적·물류적 어려움, 제한된 자원 등은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동시에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 교육이 핵심이다. 과학적 실천과 문화적 가치를 연결하는 대중 인식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 여성은 강력한 변화의 주체이다. 여성들을 리더십 역할에 참여시키면, 이는 전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 자비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다. 실질적인 문제에 불교적 원칙을 적용하면, 수용과 혁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이 핵심이다. 과학적 실천과 문화적 가치를 연결하는 대중 인식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 여성은 강력한 변화의 주체다. 여성들을 리더십 역할에 참여시키면, 이는 전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 자비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다. 실질적인 문제에 불교적 원칙을 적용하면, 수용과 혁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 실천으로 구현된 다르마

사라 프로그램은 자비와 비폭력을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속에서 실천하는 **사회참여적 불교**의 모범을 보여준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여성 리더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와 타고난 자비심을 바탕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킴이 집단 총살에서 자비로운 동물 복지로 나아간 여정은, **가치와 행동이 일치할 때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SARAH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교 가르침을 실천적인 해결책에 통합함으로써,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고, 수많은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광견병으로부터 보호했으며, 지역 사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올해는 SARAH 프로그램이 20 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몇몇 헌신적인 동물 복지 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시작된 이 작은 프로그램은, 시킴을 깊이 있고, 유익하며, 지속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SARAH 팀은 이 자비로운 사명을 확장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근 지역과 국가로 전파하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의 유기견 문제에 대해 **비 폭력적이며 자비로운 접근 방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다.”

이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변화의 물결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고, 타인을 복돋우며, 자비가 넘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라셀 사루야(Rachelle Saruya)

(rachellesaruya@gmail.com)

[번역: 김은희(샤카디타 코리아)]

어머니의 삶과 상징성이 동남아시아에서 테라와다 불교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음이 제시된 적이 있다(Andaya 2002). 반면, 자녀를 두지 않는 삶 또한 불교 성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정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여성들이 출가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Langenberg 2017).

본 논문은 불교 어머니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의 세계를 탐구하며, 그들이 자녀를 갖고 출산하기를 원하는 과정과 임신 및 출산 경험이 재가 불교도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민족지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미얀마 여성들의 삶과 일본 및 미국 내 버마 디아스포라 공동체 여성들의 경험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불교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기록하며, 그들의 종교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문서화하고, 미얀마 안팎에서 불교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론

출산과 양육은 여성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시키며, 이를 인류학자들은 *모성 전이(matrescence)*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여성의 종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아이를 갖기를 원하거나 이제 막 어머니가 된 불자 여성들의 세계,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그들을 재가 불자(religious lay Buddhist)로서 어떻게 (재)정의하게 되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불교 경전』에서 어머니를 위한 길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Engelmajer 2020, Langenberg 2017, Ohnuma 2012)에 기반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현대의 실제 불교에서 어머니의 길은 어떤 모습인가? 출산과 육아는 여성을 더 종교적으로 만드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나는 미얀마 안팎의 불교 여성들의 실제 경험을 탐구하며, 빨리어 경전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부각시킨다.

이 연구를 위해 현재까지 내가 수집한 자료는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와 30 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포함한다. 본 발표에서는 주로 몇 개의 설문 응답과 한 건의 심층 인터뷰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삶 속의 불교: 임신에서 출산까지

불교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실제 경험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나는 수전 스타 세레드(Susan Starr Sered, 1991)가 이스라엘 여성 55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모성/출산 경험과 종교성 변화에 관한 연구가 본 연구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녀의 연구 참여자 중 90%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어느 하나의 문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여러 상반된 문화적 맥락

사이를 오갔다”(9 쪽)고 세레드는 설명한다. 즉, 이 여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지만, 세계 여러 지역의 유대 디아스포라에서 이주한 이들이었으며, 유대 전통을 계승했다라도 반드시 엄격한 의미에서 유대교를 실천하는 유대인은 아니었다.

세레드는 이 여성들이 출산 직후 자신의 경험을 종교적 또는 영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종교는 남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할례식을 돕거나 특정 기도를 암송했기 때문이다. 세레드는 여성들이 자기 몸에 더욱 집중해 있었고, 종교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게 해 줄 종교 언어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캐롤린 바이넘(Caroline Bynum, 1991)이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의례 이론을 비판한 내용을 지지한다. 즉, 여성은 “급작스러운 새로운 시작(rupture)”을 경험하지 않는데, 이는 “여성은 여성에 의해 길러지고, 연속적인 자아로 성숙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나의 연구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미얀마와 해외에 거주하는 불교 여성들은 출산 중 영적/종교적 경험을 자주 하며, 이는 보다 강한 종교적 감각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출산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로 작용한다. 이처럼 임신, 출산, 육아는 남성이 필요로 하는 구조계나 사미계 같은 형식적인 의례의 대체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여성들의 어머니됨의 여정에서 가장 첫 단계로서, 아이를 갖기 위한 기원 의례에 주목하였다. 여성이 자녀를 원하며 세운 서원이나 기도는 경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나는 특히 수자타(Sujātā)의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녀는 전생의 방대한 공덕과 인연으로 인해 부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인물이다. 잘 알려졌듯이, 수자타는 아들을 낳기를 기원하며 반얀나무 신에게 쌀죽을 바치려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수자타가 했던 것처럼 반얀나무 아래에서 자녀를 기원하는 관행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각 반얀나무가 ‘부처님의 유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론 자녀를 기원하는 기도는 탑이나 다른 성지에서도 행해지며, 이에 대해서는 나의 이전 연구에서도 논의하였다(Saruya, 출간 예정). 설문 응답자 29 명 중 17 명(58.6%)이 버마어로 “아들을 기원한다”는 뜻의 *따수판(tharsupan)*을 수행했다고 응답하였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기원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설문은 해당 여성이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특정 성별이나 특성을 기원했는지, 아니면 임신 전 단계에서 임신 자체를 기원했는지 구분하지 못했다. 인터뷰 자료에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심층조사에서 한 명의 버마 여성은 일본에서 출산을 경험하였으며, 아이를 위한 기원 의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저희] 엄마는 첫 손주였기 때문에 아들을 원했어요. 엄마가 저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엄마의 바람을 이루고 싶었어요. 임신 사실을 안 이후부터는 선행을 하고 악행은 피하려 노력했어요. 오계(Five Sila)를 지키며 더욱 조심하려 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인데, 호르몬 변화도 있어서 스스로 통제해야 했어요. 일본에서 일하면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선행을 하니, 그 대가로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죠. 꼭 아들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엄마는 아들을 원했고, 가족들은 *신평(shinpyu, 사미계 수계)*를 하고 싶어했거든요.”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되듯, 미얀마 불교 문화에서 아들을 갖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 특히 어머니가 아들을 사미로 출가시키는 *신평*을 수행하고 싶기 때문이다. 낸시 에버하트(Nancy Eberhardt, 2006)는 이 행사가 최대 3 일간 지속되며, 주된 대상은 실제로는 아들보다는 그 어머니와 가족임을 지적한 바 있다.

나의 자료에서는 미얀마에서 아들을 기원하는 비율(29.2%)이 딸을 기원하는 비율(12.5%)보다 2 배 이상 높았고, 응답자의 41.7%는 상관없다고 응답하였다(도표 1 참조). 이는 가족 전체, 특히 어머니가 아들을 승가에 입문시키기를 바라는 마음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미 딸이 있는 경우, 아들을 원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딸을 기원하기도 한다. 승가를 위해서는 아들이 중요하지만, 내가 방문한 시골 마을들에서는 전통적으로 딸이 부모를 돌보며, 결혼 후에도 일정 기간 아내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영적·구원론적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딸이 노년에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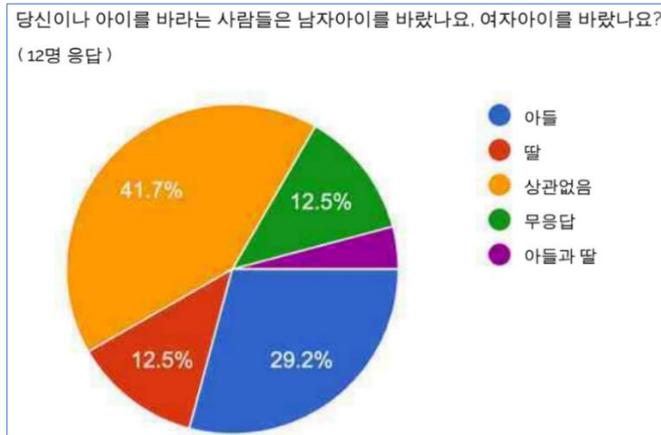


도표 1. 기원의 대상과 그 결과에 대한 설문 항목

설문 문항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경험하셨다면, 불교나 다른 종교가 임신과/또는 출산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요? 앙굴리말라 수타(Angulimāla Sutta)와 같은 특정 계송(gāthā) 또는 경전 독송, 명상, 혹은 스님으로부터의 가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앙굴리말라 수타(Angulimāla Sutta)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한 응답자는 명상이 임신 중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며, 그 평온이 태아에게도 전달될 것이라 믿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응답자는 임신 초기부터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명상, 『빠리따(paritta)』 경전(보호 계송), 그리고 『빠따나(Patthāna)』 독송을 수행했다고 하였다. 어떤 이는 『자애경(mettā sutta)』을 암송했고, 또 다른 이는 "종교가 무엇이든"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6%가 임신과/또는 출산을 통해 더 종교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하였다(도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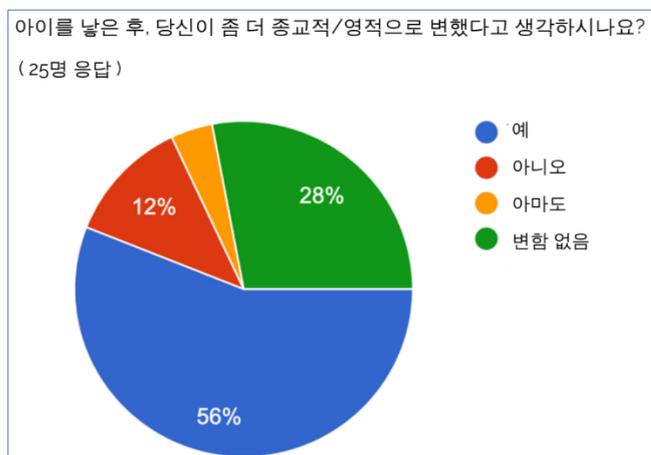


도표 2. 종교성 변화에 대한 설문 항목과 그 결과

다만 설문만으로는 출산 후에도 ‘종교성에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이들이 원래부터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종교적으로 더 깊어졌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과 도덕적 성품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은 후, 제 걱정과 탐욕(lobha), 분노(dosa), 무지(moha)가 더 늘어났습니다. 명상할 때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꾸준히 명상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위험에서 벗어나길 기도했어요.”

“불교를 믿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 많은 수행을 하고 싶어졌어요.”

요컨대, 아이가 더 종교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촉매로 작용했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그 이유는 다양했다. 아이의 안전, 미래, 그리고 부모로서 탐욕·분노·무지와 같은 ‘나쁜 마음작용’을 줄이려는 노력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찾으려는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

처음 인용했던 인터뷰 참여자, 즉 어머니가 첫 손주로서 아들을 원했던 그 여성은 출산 당시 남편과 어머니가 병실에 함께 있었고, 남편은 *앙굴리말라 수타*를 암송했다고 한다. 그러나 분만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워 결국 의식을 잃었으며, 그 직후 다음과 같은 비전을 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부처님의 얼굴, 중국의 세 복신(福·祿·壽 Fu, Lu, Shu), 관음보살의 형상을 보았다고 하였다. 자신은 중국인이 아님에도 왜 중국 신들이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신들은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들을 “보편적인 존재들”이라고 묘사하였다. 이 얼굴들을 본 이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경험이 이후 자신의 종교성이 깊어진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그 이후 명상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와 같은 이유로 실천을 지속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진통 중에 명상을 했는지 묻자, 고통이 너무 심해 집중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는 세레다가 말한, 여성이 출산 당시 “자기 몸에 깊이 몰입되어 있다”는 묘사와 유사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교는 자녀 양육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질문했을 때, 몇몇 인터뷰 참여자와 정보 제공자, 응답자는 *악쿠토*(akutho)와 *쿠토*(kutho), 즉 선하지 않은 생각과 선한 생각, 그리고 인과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들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부처의 가르침으로, 한 사람은 훌륭한 품성인 *짜리따*(cārita, ‘행동’)를 함양할 수 있다. 마음속에 누군가가 보살펴준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심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좋지 않다.”

“신심 깊은 불자로서, 그들은 아이에게 천천히 쿠토 또는 악쿠토를 알도록 가르친다.”

“그들이 어릴 때는 그들의 종교를 가르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모든 종교를 배우게 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적절한 종교를 선택하게 한다.”

성인이 된 자녀가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부모는 불교의 ‘최초의 교사’로 여겨지며, 자녀에게 *담마*(Dhamma)를 가르침으로써 공덕을 쌓고 탐욕, 분노,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결론

그렇다면 어머니 됨 또는 모성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이들에게는 반얀나무(banyan tree) 아래나 타수판(tharsupan, 득남기도)을 위한 헌신의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른 이들은 임신 중이나 출산할 때, 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욱 종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 길은 자녀의 안녕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위를 포함하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 중 누구도 고위 남성 승려를 언급하지 않았다. 점성가와 함께 스님들이 자녀를 얻기 위한 의식이나 자녀의 안전을 위한 기도에서 가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여성과 그들의 배우자가 그 과정의 주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 왜 서원을 세울지 스스로 결정하고 명상이나 기도를 할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안마 안팎에서 자녀를 두는 일은 이들의 더 깊은 종교적 실천의 기반이 되었다. 모성, 혹은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며, 보다 심화된 종교 실천으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어쩌면 언젠가는 열반(nibbāna)에 이를 수도 있다.

References

- Bynum, Caroline Walker. 1991. *Fragmentation and Redemption: Essays on Gender and the Human Body in Medieval Religion*. New York: Cambridge, Mass: Zone Books; Distributed by the MIT Press.
- Eberhardt, Nancy. 2006. *Imagining the Course of Life: Self-Transformation in a Shan Buddhist Commun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Engelmajer, Pascale F. 2020. "Like a Mother Her Only Child": Mothering in the Pāli Canon." *Open Theology* 6 (1): 88–103. <https://doi.org/10.1515/opth-2020-0009>.
- Langenberg, Amy Paris. 2017. *Birth in Buddhism: The Suffering Fetus and Female Freedom*. London: Routledge.
- Ohnuma, Reiko. 2012. *Ties That Bind: Maternal Imagery and Discourse in Indian Buddhism*. Oxford [Engl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ered, Susan Starr. 1991. "Childbirth as a Religious Experience? Voices from an Israeli Hospital."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7 (2): 7–18.

세션 5 사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구축: 모바일 게임 중독과 이슬람 TPQ에 대응하는 이야기

5

Building Education Through Temple Education Program: A Story in Countering Mobile Game Addiction and Moslem TPQ

쿠스티아니 박사(Kustiani, Ph.D)

(kalis_sambikala@yahoo.com, 전화: +62-87724832623)

[번역: 이재순(샤카디타 코리아)]

배경

이 프레젠테이션은 “불교와 교육: 혁신과 사회 조화”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아이들이 모바일 게임을 하는 습관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저해하고 학습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지역의 불교 아동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중부 자바 지역에서 시행된 *다르마 심화 공원(Taman Pendalaman Dhamma, TPD)*이라는 사찰 프로그램이 불교 아동들의 게임 활동을 줄이고 긍정적인 인격 특성을 개발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수따를 암송하고 수학, 과학, 지리, 영어 등 일반 교과목을 공부하도록 가르칩니다. TPD는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며, 다르마 교육이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슬림 공동체는 이와 같은 아동들의 게임 중독 문제에 대응하여 매일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활동인 *알꾸란 교육 공원(Taman Pendidikan Al-Quran, TPQ)*을 만들었습니다. TPQ의 실천을 보고, 사찰 관리자들은 더 이상 불교 아동들이 게임만 하도록 방지할 수 없었고, 사찰에서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내는 데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TPD는 이전에는 시행된 적이 없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수따 암송을 위해서는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불교 아동들 사이에 긍정적인 성품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교과 교육에 있어서도 아동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식견과 교육 훈련을 받은 유능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게임 중독: 사회의 새로운 현상

장시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면 게임 중독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의 게임 중독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사회적, 개인적 문제와 연관된 반복적 습관 패턴”입니다. 게임 중독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중심성(salience), 기분 변화(mood modification), 내성(tolerance), 금단 증상(withdrawal symptoms), 갈등(conflict), 재발(relapse).

비디오 게임은 어떻게 중독을 유발할까요? 사람마다 다른 자극에 대해 다른 보상을 느끼기 때문에 중독이 발생합니다. 그 보상은 내적인 것일 수도 있고(예: 높은 점수 갱신, 친구 기록 능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 올리기, 게임 마스터하기), 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예: 또래로부터의 존경).

현재 게임 중독은 심리학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로, 이는 이 현상이 다양한 집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임 중독은 도시뿐 아니라 외딴 마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의 증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 연구자는 중독된 사람들을 사회적 유형(socializers), 탐험가(explorers), 성취자(achievers), 파괴자(killers)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찰의 역할: 교육 구축과 게임 중독 완화

비록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비공식적일지라도, 도덕 윤리 습득과 일반 지식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원후 5세기, 마하비하라 날란다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기관 중 하나가 되어 결국에는 당대에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란다 대학의 위대한 역할은 인도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날란다 대학의 존재는 인도네시아에서 고대 대학인 무아라 잠비(Muara Jambi)의 탄생을 촉진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에 사찰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감안할 때, 현대에도 사찰 환경에서 비공식적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육 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대 불교 교육은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불교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목표는 현대적 제도와 교수법을 ‘방편(Upaya)’으로 활용하여 세계 종교 시장 속에서 불교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쉽게 말하면, 교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하고 세계적 도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주의 여러 사찰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르마 심화 공원(Taman Pendalaman Dhamma, TPD) 프로그램의 정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프로그램의 초기 목적은 불교 아동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게임 중독 현상을 완화하고 대처하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다르마 심화 공원(TPD): 그 목적과 진전

다르마 심화 공원의 활동은 두 가지 주요 초점으로 수행됩니다. 첫째는 삼보(불·법·승, Tri Ratna)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반 지식의 강화를 통한 교육입니다. 신앙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많은 불교도들이 기본적인 불교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배우자가 종교를 바꾸기를 요구하면 아무런 저항 없이 개종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주의 여러 마을에서 자주 발생하며, 통계에 따르면 불교 인구는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불교 청소년 세대의 일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불교 청소년들이 수학, 자연과학, 영어 등 기본적인 지식을 아직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아이들이 이후 교육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수학적 기초 능력입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지구와 태양의 공전에 따른 1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진, 무지개, 비, 홍수 등 자연 현상이 자연법칙(니야마, niyama)에 따라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암송할 경전으로 *망갈라 수따(Manggala Sutta)*를 선택했습니다. 왜 TPD 프로그램에서는 망갈라 수따를 선택했을까요? 벤 칸티팔로(Ven. Khantiphalo)는 “이 수따는 복잡한 인간 문명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데 보람 있는 경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성별, 신분,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망갈라 수따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경전이 노력과 성실함을 통해 이 생에서 축복과 행운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망갈라는 축복받은 삶이란 외부의 초월적인 창조자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선행과 노력의 축적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어떤 의견에 따르면, 망갈라 수따는 사람들을 미신과 비합리적인 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개혁의 훌륭한 자극제가 된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수따를 통해 사람들이 미신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깨달음에 가까운 관점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다르마 심화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인생의 성공은 단지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복권을 사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반드시 노력해야 하며 이 경전에서 가르치는 38 가지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매 회 모임마다 이 38 가지 선행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가르침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친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게임에 중독되도록 유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사고력과 일하는 능력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친구를 선택한다고 해서 성별,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친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합니다.

다르마 심화 공원의 운영 방식

다르마 심화 공원 활동에서는 처음 30 분을 *망갈라 수따(Manggala Sutta)*를 암송하고 번역 내용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며, 이후에는 매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일반 지식 강화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학습할 일반 주제는 보통 아이들의 요청과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되어, 그들의 관심과 필요에 맞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바람뿐만 아니라, 주제는 매주 바뀌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영어를 공부했다면, 다음 주에는 수학을, 그 다음 주에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식입니다. 그 결과, 이제 아이들은 “1 년”이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약 365 일의 시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낮과 밤이란 현상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동시에 태양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 발생하며, 지구 중 태양에 가까운 쪽은 낮이고, 반대쪽은 밤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르마 심화 공원: 그 도전 과제들

다르마 심화 공원은 불교 공동체 내에서 아직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과 교육 자료 양 측면에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지도자들이 21 세기 일상생활 속에서 다르마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맥락화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누가 그 교육을 시행할 것인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누가 강사가 될 것인가? 등등, 탐구가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다르마 학습 그룹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사들을 위한 WhatsApp 그룹을 관리할 미디어 코디네이터를 지정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공되는 모든 교육 자료가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불교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가치들은 학교와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관련 있고 실천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내에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이 매뉴얼을 작성하고 WhatsApp 그룹을 운영할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르마 심화 공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다르마 심화 공원이 불교 공동체 내에서 여전히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불교 사찰이 단지 부처님 상을 예배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참여하는 아동들의 영적·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션 5 수행에서 세속으로: 전환기에 있는 히말라야 환속 불교 비구니들 삶의 조명

6

From Monasticism to Modernity: Exploring the Lives of Former Himalayan Buddhist Nuns in Transition

젠둔 라무 슨님, 박사 (Ph.D Gendun Lhamu)

(genlham.75@gmail.com)

[번역: 조정희(국제포교사, 샤카디타 코리아)]

본 연구는 "히말라야 지역 대승 비구니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나의 박사 논문의 일부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의 한 축은 히말라야 지역 출신 비구니들의 삶과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며, 특히 현재 유럽에서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전직 비구니들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출가에서 세속적 삶으로의 전환 과정, 전환의 이유, 이중적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문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드워크 과정에서 인도 히말라야 지역의 50 개 이상의 비구니 사찰**을 방문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비구니들과 교류하였다.

많은 비구니들이 고국과 승가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꿈꾸었으며, 이는 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했다.

최근 두 명의 협력자(도미니크 수녀와 올리비에 형제)의 도움을 받아 유럽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전직 비구니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연구하는 오랜 숙원을 이루었다.

출가 서원을 철회한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구니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이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깊이 탐구할 수 있었다.

개인적 만남을 통해 세속적 삶 속에서 전직 비구니들이 경험하는 윤회의 현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를 기록하며, 출가와 세속적 삶 사이에서의 변화와 도전을 조명한다.

1. 소개

히말라야 지역은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다양성으로 잘 알려져 있어 과학적 연구, 모험 관광, 문화 탐방의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환경 보존, 지속 가능한 개발, 인접 국가 간의 지정학적 긴장과 관련된 여러 도전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티베트 불교 전통을 따르는 사원들, 비구니 사원, 그리고 승단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사원들과 비구니 사원은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티베트 불교 전통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본 논문은 저의 박사 연구 주제인 "히말라야 지역 대승 비구니들의 역사적 기록"에 기반하고 있다. 연구의 한 측면은 현재 유럽에 거주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출신의 환속한 비구니들의 삶과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다. 수행자에서 세속인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 그 과정에서의 이중성, 그리고 그들이 겪은 문제와 어려움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사 학위 논문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 위치한 50 곳 이상의 비구니 사원을 방문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비구니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비구니들이 고향과 사원을 떠나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이는

그들에게 하나의 꿈이며 희망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비구니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최근에 두 분의 훌륭한 분들—도미니크 수녀와 올리비에 형제(Sister Dominique and Brother Olivier)의 도움으로 유럽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유럽으로 가기 전 비구니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비구니 생활을 그만두고 환속한 분들의 삶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 왔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의 맥락 속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만남들은 환속한 비구니들이 처한 윤회의 조건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출가할 것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와 비구니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용기를 북돋우며, 동기를 부여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구니들이 가사를 벗고 출가할 때 세운 서원을 깨려는 생각과 이유는 사찰 밖의 일반적인 삶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 현실에 대한 제한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지난 10 여 년 동안,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 타왕(Tawang)지역의 사원 들에서는 40 명 이상의 젊은 비구니들이 사원을 떠나 환속하였으며, 주된 이유로 사원 내에 적절한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환속한 수행자의 삶 탐색: 사원 밖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파리에서 머무는 동안, 전직 스님들과 비구니들이 털어놓은 깊은 후회의 감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힘겨운 변화 과정을 되돌아보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로 가득한 새로운 삶의 이면을 드러냈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회들에 대한 말 못 할 그리움을 내비쳤다.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각각 두 명의 환속한 비구니와 비구스님께서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도착이후 며칠 동안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며, 출가를 했던 사원을 떠난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중 일부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는데, 그들은 변화 과정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그들과 한 대화 중 가장 인상 깊고 놀라웠던 내용 중 하나는 “와, 당신은 정말 운이 좋네요”라는 말이었다. 그 말 속에서 그들의 깊은 후회의 감정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수궁하며 반응했다. 이들의 표현은 그들이 외부 세계의 현실에 충분히 접해 보지 못한 상황이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파리에서 3주간 머무르는 동안 그들의 일상을 관찰했는데, 그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힘겨운 것으로 보였다. 그들 스스로도 직접 이야기한 감정이기도 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현재 유럽의 여러 도시에 약 500 명가량의 환속한 스님들과 비구니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주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이들의 연령대는 대체로 30 세에서 50 세 사이였다. 이들 중 약 열 명과 직접 교류할 기회를 가졌고, 그 중에는 어린 시절 친구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출가 생활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게 된 결정에 대해,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실망, 성취감, 일상생활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긴 근무 시간과 과도한 기대 속에서, 자신들의 과거 영적인 수행과 새로운 삶의 가혹한 현실을 조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후회, 불안, 그리고 평화의 상실을 겪고 있었다.

환속한 스님들과 비구니들의 약 98%는 식당 산업에 종사하며, 그들은 힘든 근무 일정에 시달리고 있었다. 평일에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13 시간 근무) 일하며, 주말에는 오전 9 시부터 자정까지 (15 시간 근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달에 4 일의 휴일이 주어지며, 보통 월말에 쉰다. 이들은 개인적인

수행에서 세속으로: 전환기에 있는 히말라야 환속 불교 비구니들 삶의 조명 (겐돈 라무)

시간과 사회적 상호교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특히 사원에서 그토록 열심히 기른 마음 수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들의 결정을 후회하게 하고, 이 후회는 결국 우울증과 불안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정신적인 평화를 파괴한다. 또 다른 큰 도전은 언어 장벽이다. 유럽에서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며, 학문적인 배경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된다. 특히 학문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도전적이다. (전직 비구니들의 의견)

또한, 그들은 해외로 온 경험을 끊임없는 고난의 순환으로 표현한다. 처음에는 비자를 얻기 위한 길고 고된 과정을 견뎌야 하며, 그 후에는 비자를 얻기 위해 빚을 지고 이를 갚기 위한 고투가 이어진다. 그 다음에는 필요한 근로 허가를 얻고, 거주할 집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물리적 장애물들이 해결된 후, 그들은 가족들로부터 더욱 높아진 기대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 이 끊임없는 어려움의 연대기는 그들이 "끝없는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을 말해 준다. 사원 밖의 삶이 주는 외적인 매력을 목격한 젊은 비구니들이, 사원과 고향을 떠난 후 그들을 기다리는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수십 년간 사원을 지키며 머물다 떠나게 되며, 이로 인해 세속적인 삶으로의 변화 과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3. 역량 강화와 교육

교육은 삶을 역경에서 열망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다리이며, 고난에서 기회로 나아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비구니 스님들이 사찰에 상주하던 하지 않던지 간에,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육은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음식점 일이나 도로 공사와 같은 제한된 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다. 교육이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오랜 세월 동안 여성 출가 수행자들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었고, 특히 히말라야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스님들의 경우에는 단지 경전 암송이나 의식 수행 같은 기초적인 교육만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비구니 스님들이 현대 교육과 전통 출가 수행 교육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교육 방식은 스님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활발한 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스님들의 교육적 성장과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은 수행을 심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준다. 또한 심도 깊은 불교 교리공부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통 불교 가르침을 보존하고 사회 안팎으로 지혜를 전승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스님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받은 교육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비구니 스님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출가하였고, 부모들은 딸들이 비구니 사원에서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가를 선택하게 한다.

비구니 사원을 떠난 후, 대부분의 환속한 비구니 스님들은 자신이 어디에 살든 도로 공사 현장이나 식당 등에서 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인도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들은 공통된 이야기는,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타왕(Tawang), 잔스카르(Zanskar), 스피티(Spiti)와 같은 히말라야 외곽 지역 출신의 환속한 스님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직접 목격한 바 있다. 현재 델리 북부 티베트 난민 정착촌인 마즈누 카틸라(Majnu Ka Tilla)에서 25 세에서 30 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교육 수준이 제한적이고, 정규 학위가 없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도 매우 좁다. 이러한

현실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외 비자를 얻지 못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타왕(Tawang) 지역의 비구니 사찰 내에 견고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적은 여성 스님들의 신성한 전통 교육뿐만 아니라, 아직 중요하다고 인식되지 못한 현대 교육까지 강화하는 데 있다. 환속을 한후의 어려운 삶을 통해 드러난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출가한 비구니 스님들이 자신들의 서원을 지키고, 사찰 내에 마련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통해 여성 승가가 현대 사회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 사원내에서 기쁨 속에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결국 그들의 가장 큰 행복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늘날 승려와 비구니 스님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가족 문제, 건강상의 어려움,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그리고 특히 히말라야 외곽 지역의 사찰과 비구니 사원내에 잘 갖춰진 교육 시스템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들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순히 비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 건강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출가 생활을 지속할지에 대한 재고를 어렵게 만든다. 반면, 교육의 부족과 외적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젊은 비구니 스님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귀하의 따뜻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의 비구니 스님 교육을 향상시키는 이 뜻 깊은 사업에 귀하의 관심과 헌신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젊은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염원을 품고 출가한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4. 누가 비구니가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젊은 여성들이 종교 생활을 위해 보내지지만, 자신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가치 있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가의 길이 개인적인 소명의 결과가 되어야지, 필요나 외부의 압박에 의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비구니 스님들은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더라도)교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배경인 경우가 많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출가시키는 이유가 사회적 편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매력적이지 않고, 학문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정은 실용적인 생각으로 포장되지만, 그로 인한 당사자 개인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감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출가를 선택하는 것이 외부적 필요나 사회적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한 결정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여러곳의 공립학교들이 폐쇄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은 자녀를 사립학교 입학을 선호하는, 그렇지 못한 가정은 종종 자녀를 비구니 사원이나 사찰에 보낸다. 사찰에는 학교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비구니들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학교는 없으며, 유일하게 13 대 초나 린포체(Tsona Rinpoche)께서 설립한 TCVB(티베트 어린이 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일반적으로는 소녀들을 위해, 특히 우리 지역의 젊은

수행에서 세속으로 전환기에 있는 히말라야 환속 불교 비구니들 삶의 조명 (겐둔 라무)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린포체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학교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며 자격을 갖춘 교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행동을 촉구하며: 히말라야 오지 지역 소녀들의 교육 향상을 위하여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몇몇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의복과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일부는 즉각적인 가족의 돌봄마저 부재한 현실을 보며, 저 역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기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2015 년, 티베트 공동체의 자비로운 분들의 도움으로, 타왕(Tawang)의 어린 소녀들을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 다람살라(Dharamshala)에 위치한 티베트 아동 마을(TCV Tibetan Children Village)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써 그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활동은 학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총 20 명의 소녀들이 정규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특별활동 훈련을 받는다. 이런 교육은 그들이 원래환경에서는 결코 접할 수 없었을 기회이다. 이 경험은 필요한 자원과 지원이 갖추어질 경우,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승가 공동체를 위한 교육 시스템은 린포체, 게세, 켄포(Rinpoches, Geshes, and Khenpos)와 같은 존경받는 인물들의 지도 아래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히말라야 지역의 많은 비구니 사원은 아직까지 교육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동일한 라마나 린포체에 의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구니 사원도 교육의 질과 제공되는 시설 면에서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게세마(Geshema), 켄모(Khenmo), 톡텐마(Togdenma) 등과 같은 교육받고 학위를 받은 비구니 스님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비구니 교육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분들의 참여는 여학생 전반의 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특히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촌 지역 소녀들을 교육을 통해 자립하게 하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꿈이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시골 지역에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과 같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도로 공사현장이나 잡일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안타까웠다.

오늘날 타왕(Tawang) 지역에 위치한 툽탄 초엘링 발리카 비디알라야(Thuptan Choeling Balika Vidyalaya)에서 약 200 여 명의 어린 비구니들과 소녀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아이들의 미래가 제 어깨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어린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축복과 가능한 모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일은 혼자 힘으로는 결코 쉽게 해낼 수 없는 어려운 과업이기 때문이다.

6. 결론

히말라야 지역 비구니들의 교육은 영적 전통을 보존함과 동시에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이다. 그들은 공부와 수행, 그리고 리더십을 조화롭게 갖춘 존재로서, 불법(佛法)과 인류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길을 열어준다.

비구니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들의 교육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비구니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은 나라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불법(佛法)과 사회 전반을 지원하는 데 훨씬 더 능숙하다. 고등 교육의 부족은 역사적으로 히말라야 지역 사회의 비구니들과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쳐 왔다. 제한된 자원과 기회 속에서도, 아니(Anis)/조모(Jomos)라 불리는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불교의 오랜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계율(도덕과 서약 vows/Vinaya), 공부(사유와 토론), 수행과 삼마야(Sadhana/Samaya) 명상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수행과 교육에 대한 끈기, 그리고 교육자이자 지도자로서 역할을 통해, 여성 수행자들은 21 세기에 불법(佛法)과 인류를 이롭게 할 놀라운 공헌을 이어갈 것이라 믿는다. 히말라야 지역의 출가·재가 공동체 모두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소중한 불교 정신 전통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점점 더 물질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 종교의 보존은 교육의 통합 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

지천 스님[釋 知泉; Shi Zhiquan]

(baby926@gmail.com)

[번역: 전영숙(샤카디타코리아)]

전후 대만 불교 발전 과정에서 비구니 공동체는 불법 홍포에 있어 중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대만 불교의 제도화와 현대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저명한 비구니인 티엔 이(Tian Yi), 츠 후이(Tzu Hui), 츠 중(Tzu Jung)을 중심으로, 계율 수여, 교육, 불법 홍포 분야에서 이들이 남긴 공헌을 분석한다.

티엔 이는 일본 식민지 시기에 태어나, 식민 시대에서 전후 불교 부흥기로 변화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계단(Precept Altar)을 주도하며 비구니의 종교적 위상을 크게 향상시켰다.

한편, 츠 후이와 츠 중은 1953년 상윈 대사(Master Hsing Yun)의 지도 아래 60년 이상 불법을 홍포하며, 교육, 문화, 자선, 영적 수행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이 세 비구니를 전후 대만 불교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며, 그들이 대만 비구니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과정과 대만 불교에 남긴 깊은 공헌을 조명하고자 한다.

논문요약

세계 각 지역의 불교 중에서 대만 비구니(比丘尼)의 활약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불교 교육의 영향뿐만 아니라, 전후(戰後) 수많은 비구니들의 노력과도 관련이 있다. 전후 대만 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비구니스님들은 고도의 홍법(弘法)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대만 불교의 제도화와 현대화에 없어서는 안 될 추진력을 제공했다.¹ 본 연구는 천을 법사(天乙法師)와 자혜 법사(慈惠法師)를 대상으로, 두 분의 전계(傳戒)와 교학 분야에서의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 천을 법사(天乙法師)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식민지 시기부터 전후(戰後) 부흥기에 이르는 대만 불교의 변혁기를 겪었으며, 계단(戒壇)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만 불교계 안에서 비구니의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자혜 법사(慈惠法師)는 1953년부터 성운 대사(星雲大師)를 따라 60여 년간 홍법(弘法) 사업에 헌신하며,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다.

키워드: 비구니, 대만 불교(台灣佛教), 홍법(弘法), 승니(僧尼), 전후(戰後)

1. 서론

광복 이후 대만 불교에서 여성은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탁월한 비구니스님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비구니 항청 법사(恆淸法師)는 대만 불교의 발전을 세 시기로 구분했다: 1946년 광복 이후부터 1960년까지는 제 1 시기로,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후: 역자 추가) 중국 불교 계단(戒壇)의 재건과 불학원(佛學院) 설립에 주력하며 대만 현지에서의 불교 교육을 심화시켰다. 1961년부터 1980년까지는 제 2 시기로, 대만 경제 성장과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진 시기였으며, 대학 불학

¹ 李玉珍, 〈受戒施教: 戰後臺灣比丘尼身分的形成與凝聚〉, 《近代中國婦女史研究》第 25 期, 2015 年 6 月,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pp.1-52 참조.

동아리가 설립되고 대학 내 불교 여름 캠프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불법(佛法)을 접하면서 승속(僧俗)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는 대만 불교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는 제3시기로, 대만 불교는 의료, 자선, 교육, 불교학 연구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² 천을 법사(天乙法師)는 제1시기부터 제2시기까지의 발전을 경험했고, 불광산(佛光山)의 비구니 자혜 법사(慈惠法師)는 1953년 의란(宜蘭, 이란: 대만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이베이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의 관광지: 역자주)의 뇌음사(雷音寺)에서 성운 대사(星雲大師, 1927-2022)를 따라 홍법(弘法)을 시작해 대만 불교 제1기부터 제3기를 이끌었다.

본문에서 연구하는 천을 법사와 자혜 법사는 모두 대만 불교의 전환기를 겪었으며, 일본에 유학해 현대식 교육을 받았다. 천을 법사는 계단(戒壇)에서 비구니 계율 교육에 힘썼고, 자혜 법사는 승가 교육, 대장경 편찬 지도, 대학 설립 등에 기여했다. 이들은 전계(傳戒)와 교학 지도를 통해 대만 불교에서 남성 위주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켰고, 비구니승가의 제도화와 현대화를 촉진하며 대만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비구니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출판된 서적(생애사 및 구술사)을 참조할 수 있으며,³ 본문은 주로 집단적 시각에서 그들의 업적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2. 전통에서 현대로: 두 비구니의 홍법 공헌

이 두 비구니스님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일제강점기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정치적 변화를 모두 경험했으며, 일본식 교육을 받았고, 평생을 홍법 사업에 바쳤다. 여기서는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1) 천을 법사: 비구니 계단의 전범(典範)을 수립하다

천을 법사(天乙法師, 1924-1980)의 속명은 홍금주(洪金珠)로, 아버지는 고웅(高雄, 가오슝) 봉산(鳳山, 평산)에서 과자점을 운영했다. 1940년 일본 도쿄 쇼와 대학(昭和大學) 문과에 입학했고, 1947년 귀국해 아버지를 도와 과자점을 관리했다. 1948년 등산사(東山寺)의 원융 법사(圓融法師)를 따라 출가했으며, 이후 사찰 총무를 맡아 일했고, 불교회 사무를 처리하고, 불교회 이사장을 대행하며 법회 주재, 강연, 염불회 조직, 인재양성 등을 주도했다.⁴ 등산사에서 직책 훈련은 대부분 "관리"와 "전범, 교화"에 집중되었다.

1953년, 대선사(大仙寺)에서 전후 첫 삼단대계(三壇大戒)가 열렸을 때, 비구 백성 법사(白聖法師, 1904~1989)는 대만의 여성출가자 수가 남성출가자 수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계단에서 수계식을 할 때 여성출가자를 위한 전용 구역을 별도로 설치했다. 천을 법사는 스승 원융 법사와 제자 을순(乙純) 법사와 함께 3대가 동반 수계했으며, 백성 법사로부터 사미니 대표로 임명되었다.⁵ 1954년 사두산(獅頭山, 스티우산)에서 두 번째 전계식이 열렸을 때, 백성 법사는 상례를 깨고 특별히 "인찬사(引贊師)"를 두어 새로 계를 받은 비구니 신참자들을 지도하도록 했다.⁶ 천을 법사는 그 중 한 명이 되었다. 이후 스님은 백성

² 釋恆清, 〈現代台灣佛教의善女人〉, 《菩提道上的善女人》, 台北: 東大出版社, 1995年, pp.169-171

³ 釋見暉, 《走過台灣佛教轉型期的比丘尼: 釋天乙》, 台北縣: 中天出版社, 1999年. 慈惠法師口述, 蔡孟樺記錄, 《星光雲水——隨侍大師七十年: 慈惠法師訪談錄》, 高雄: 佛光文化, 2024年

⁴ 釋見暉, 〈第一章 導論〉, 《走過台灣佛教轉型期的比丘尼: 釋天乙》, 台北縣: 中天出版社, 1999年, p23

⁵ 釋見暉, 〈第二章 成長與出家、修學〉, 《走過台灣佛教轉型期的比丘尼: 釋天乙》, pp52-53

⁶ 釋見暉, 〈第一章 導論〉, 《走過台灣佛教轉型期的比丘尼: 釋天乙》, pp31-32

법사가 이끌던 수계 행사에서 중요한 조력자로 활동했다.⁷ 인찬사는 계율과 교학에 대한 소양을 모두 갖춰야 했기 때문에, 계단은 전후 대만 비구니 엘리트 양성의 요람이 되었다.⁸

1976년 용호암(龍湖庵, 룡후안)에서 열린 전계식은 천을 법사가 주도했다. 이 수계식은 천을 스님이 이끈 수계식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천을스님은 비구니 파트에서 득계 화상니(得戒和尚尼)와 개당화상니(開堂和尚尼)로서 활동했고, 특히 개당화상니로서 비구니가 직접 비구니들을 가르치는 연례(演禮, 예행연습: 역자 주)를 지도했는데, 이는 대만 계단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혁신이었다.⁹ 천을 법사는 1954년부터 20여년간 계단에서 활동하며 중국 계사의 대만어 통역을 맡았고, 인찬사, 대인찬(大引贊), 니단득계화상(尼壇得戒和尚) 등을 역임했다. 1963년 이후 비구니 계율 강의는 천을 법사가 주관하며 "비구니가 비구니를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을 실현했다.¹⁰ 스님은 "비구니 계율은 반드시 비구니가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며,¹¹ 대만 불교 계단에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비구니스님의 지위를 확립했으며, 비구니의 능력이 교계(敎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단 외에도, 천을 법사는 "차라리 불가(佛家)의 노예가 되겠다"는 신념과 "새 사찰을 짓지 않고 기존 사찰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반천암 자운사(半天岩紫雲寺, 반티엔엔 쓰윈사), 고웅 흥륭사(高雄興隆寺, 가오슝 싱룽사), 창화 백운사(彰化白雲寺, 장화 바이윈사), 대북 원통학원(台北圓通學苑, 타이베이 위안통학원) 등 4곳의 사찰을 인수하여 흥법과 중생 교화에 힘썼다. 천을 스님은 비구니의 불교적 책임을 강조하며, "비구니승단을 조직해 비구니를 훈련시켜 위의(威儀)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¹² 견엽(見曄) 스님이 쓴 천을 스님의 전기에 따르면, 천을 법사는 비구니가 자립·자강해야 하며 비구에 의존해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록 계율상 비구니는 비구의 허락 없이 계를 받을 수 없지만, 생활에서는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순적이게도, 천을 법사는 "승가 교육"이 승려 양성의 핵심이며 출가자는 "복혜쌍수(福慧雙修)"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실제로는 복(福)을 더 중시했다. 그는 출가자는 운력과 농선(農禪)으로 수련하며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혜(慧)"를 닦는 방법으로는 예불과 독경만을 강조할 뿐, 법의(法義)를 이해시키는 교육은 하지 않았다.¹³ 천을 법사 본인이 현대 불학 교육을 받은 인물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 자혜 법사(慈惠法師): 교육과 문화의 추진자

자혜 법사(慈惠法師)는 속명 장우리(張優理)로, 1934년 의란(宜蘭, 이란)에서 태어났다. 1953년 성운 대사(星雲大師)가 의란 뇌음사(雷音寺)에서 흥법할 때, 청년 합창부와 청년 흥법부에 참여했다. 1956년 성운 대사의 지시로 "타이중 보육원 훈련반(台中保育員訓練班)"에 입학했고, 이듬해 의란의 자애유치원(慈愛幼稚園) 원장을 맡았다. 1965년 성운 대사가 고웅(高雄, 가오슝)에서 수산불학원(壽山佛學院)을 설립하자,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혜 법사는 감학(監學)의 직을 맡아 학생들의

⁷ 釋見曄, 〈第一章 導論〉, 《走過台灣佛教轉型期的比丘尼：釋天乙》, pp 23-27

⁸ 李玉珍, 〈受戒施教：戰後臺灣比丘尼身分的形成與凝聚〉, 《近代中國婦女史研究》第 25 期, p15

⁹ 釋見曄, 〈第四章 天乙與他當代的佛教〉, 《走過台灣佛教轉型期的比丘尼：釋天乙》, p151

¹⁰ 釋見曄, 〈第四章 天乙與他當代的佛教〉, 《走過台灣佛教轉型期的比丘尼：釋天乙》, p162

¹¹ 釋見曄, 《走過台灣佛教轉型期的比丘尼：釋天乙》, p140

¹² 釋見曄, 《走過台灣佛教轉型期的比丘尼：釋天乙》, p142

¹³ 釋見曄, 〈第四章 天乙與他當代的佛教〉, 《走過台灣佛教轉型期的比丘尼：釋天乙》, 165

생활 관리를 담당했다. 같은 해 성운 대사를 스승으로 삼아 출가했으며, 법운사(法雲寺)에서 삼단대계(三壇大戒)를 받았다.¹⁴

1969 년 불광산(佛光山) 창건 초기, 성운 대사는 제자 자혜·자이(慈怡)·자가(慈嘉)를 일본의 불교대학(佛敎大學)으로 유학을 보냈다.¹⁵ 자혜 법사는 불교학과에서 학사부터 오타니 대학(大谷大學) 석사 과정까지 마쳤는데, 이는 천을 법사와는 상당히 다른 경험이었다. 천을 법사는 출가 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유학했지만, 자혜 법사는 출가 후 전후(戰後) 시기에 불교학 연구에 전념했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 후학 지도에 있어 두 사람의 교육방법론이 다르게 된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57 년 유아 교육에 투입된 이래, 자혜 법사는 불광산의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었다: 1965 년부터 수산불학원·불광산 종림학원(叢林學院)을 책임졌고, 이후 국내외 16 개 불교대학을 설립하며 행정·교수부터 승가 교육 제도 확립까지 주도했다. 1977 년에는 보문중학(普門中學)을 개교했고, 1990 년부터는 불광산 계열 대학의 교육 사무를 지도했다. 스님은 이처럼 교육사업 분야에서 수많은 불교 인재를 양성했다.¹⁶

스님은 불교 문화 사업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불광대장경(佛光大藏經)》과 《불광대사전(佛光大辭典)》 편찬을 이끌었으며, 1995 년 "불광산 전자대장경(佛光山電子大藏經)" 제작팀을 만들어 불전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1988 년 불광산 문교 재단(佛光山文教基金會)을 설립한 후, 다양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외 불교 학술 교류를 촉진했다.¹⁷

또한, 자혜 법사는 음악을 통한 흥법에도 힘썼다. 1979 년 불광산 범패 찬송단(梵唄讚頌團)을 창단해 국내외 공연을 기획했고, 2003 년 "인간음연(人間音緣)——성운 대사 불교 가곡 발표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5 대륙 20 여 개국 음악인들이 참여해 가사를 10 여 개 언어로 번역하며 작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¹⁸

자혜 법사의 생애를 보면, 성운 대사의 "인간불교(人間佛敎)" 이념을 따르며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 불법을 널리 전파한, 한 평생을 문교 발전에 바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흥법 이념의 차이

천을 법사는 4 개의 사찰을 관리했지만, 현대식 교육을 받았음에도 스님이 운영한 사찰은 대부분 농사와 경전 독송 및 참회이식 위주였다. 스스로의 수행에 치중하고 철학적 연구는 소홀히 했다. 스님이 신도에게 경전을 강의하는 경우도 드물어 전통 사찰의 흥법 스타일을 고수했다. 이는 스님의 동산사(東山寺)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천을 법사의 제자 오인 법사(悟因法師)는 스승 천일 법사가 "고학력 출가자가 일반 사찰에서 재능을 펼칠 곳이 없어 고생만 하고 대우받지 못한다."¹⁹며 탄식하던 것을 들었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자 첨가) 천을 법사는 출가자는 염불·독경·농사·계율 준수에 충실해야 하며,²⁰ 사찰이 반드시 다양한

¹⁴ 慈惠法師口述, 蔡孟樺記錄, 〈第三章 弘法的鑼聲響起〉, 《星光雲水——隨侍大師七十年: 慈惠法師訪談錄》, p141-142

¹⁵ 慈惠法師口述, 蔡孟樺記錄, 〈第四章 日本留學生涯〉, 《星光雲水——隨侍大師七十年: 慈惠法師訪談錄》, p170-172

¹⁶ 慈惠法師口述, 蔡孟樺記錄, 〈慈惠法師榮譽事蹟〉, 《星光雲水——隨侍大師七十年: 慈惠法師訪談錄》, p928

¹⁷ 慈惠法師口述, 蔡孟樺記錄, 〈第八章 佛敎文化的播種〉, 《星光雲水——隨侍大師七十年: 慈惠法師訪談錄》, pp548-551

¹⁸ 慈惠法師口述, 蔡孟樺記錄, 〈第八章 佛敎文化的播種〉, 《星光雲水——隨侍大師七十年: 慈惠法師訪談錄》, p638

¹⁹ 釋見曄, 〈第四章 天乙與他當代的佛敎〉, 《走過台灣佛敎轉型期的比丘尼: 釋天乙》, p165

²⁰ 釋見曄, 〈第四章 天乙與他當代的佛敎〉, 《走過台灣佛敎轉型期的比丘尼: 釋天乙》, p201

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이런 모순적 태도는: 역자 주) 천을 법사가 대부분 학력이 낮고 연장자 제자를 받아들인 것과도 연관이 된다.

반면, 성운 대사는 고향 출가자를 위해 해외 유학을 계획했고, 제자들이 학업을 마치면 중요한 직무를 맡도록 했다. 불광산은 창건 초기부터 교육·문화·자선을 불교 사업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자혜 법사는 성운 대사의 지도 아래 국내외 16 개 불교 학원·중등학교·대학 및 사회 교육을 설립했다. 성운 대사는 불교 흥법 인재 양성뿐 아니라 사회에 인격과 사상이健全한 청년을 배출하려 했다.

두 비구니의 흥법 방향에서 볼 수 있듯, 대만 불교는 시대와 함께 발전했고, 비구니들도 교육을 받으며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다.

4. 결론

두 비구니스님의 흥법의 발자취에서 볼 수 있듯,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인연은 각기 다른 흥법 형태를 낳았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대만 불교의 세 단계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940~1960 년대: 대만 광복 이후 중국 대륙의 승려들이 대만으로 건너와 중국 불교를 부흥시키고 계단(戒壇)을 재건함으로써 불교 교육이 확산되었다. 비구니 천을 법사(天乙法師)는 이 시기의 대표적 인물로, 비구니의 계율 교육과 사찰 관리에 주력하며 전통적 흥법 방식을 고수했다.

둘째, 1960 년대 이후: 대만 불교계는 점차 승단(僧團)을 조직화했고, 1967 년 불광산(佛光山)이 고웅(高雄, 가오슝)에 창건되며 비구니의 흥법 모델도 변화했다. 즉 개인 중심에서 집단 협력으로 전환되었고,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경전과 예불(禮佛) 외에도 문화·교육·학술·자선·음악·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흥법 영역이 넓어졌다.

셋째, 글로벌 시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대만 불교는 국제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인간불교(人間佛教)"의 실천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현되고 있다. 자혜 법사(慈惠法師)가 주도한 교육·문화 사업과 음악 흥법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두 비구니의 삶은 대만 불교가 전통적 계율 수호에서 현대적 사회 참여로, 지역적 활동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는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천을 법사가 비구니의 독립적 지위를 확립했다면, 자혜 법사는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이끌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교의 제도화와 성별 권력 구조 변화에 기여했다는 점이며, 차이점은 수행(修行) 중심과 사회적 실천이라는 각자의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결국, 대만 비구니의 역사는 '계율의 토대 위에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열어간'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一' 단행본

- 1 釋恆清, 《菩提道上的善女人》, 台北: 東大出版社, 1995 年
- 2 釋見擘, 《走過台灣佛教轉型期的比丘尼——釋天乙》, 台北: 中天出版社, 1999 年
- 3 釋見擘, 釋見甯紀錄整理: 《政府遷臺與臺灣女性修行者: 十八位「出家人」訪談錄》, 台北: 國史館, 2010 年
- 4 李玉珍, 《戰後臺灣佛教與女性: 李玉珍自選集》, 台北: 博揚文化, 2016 年
- 5 慈惠法師口述, 蔡孟樺記錄, 《星光雲水——隨侍大師七十年: 慈惠法師訪談錄》, 高雄: 佛光文化, 2024 年
- 6 慈容法師口述, 妙願法師記錄, 《有容乃大——走進佛光走向世界: 慈容法師訪談錄》, 高雄: 佛光文化, 2024 年

二' 논문류

- 1 李玉珍, 〈受戒施教: 戰後臺灣比丘尼身分的形成與凝聚〉, 《近代中國婦女史研究》第 25 期, 2015 年 6 月,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pp1-52
- 2 李玉珍, 〈齋姑與尼僧教育資源之比較〉, 《比丘尼的天空: 佛教僧伽教育國際研討會論文集》, 台北: 財團法人伽耶山基金會, 2010 年, pp51-69
- 3 釋慧嚴, 〈一九四五年前臺灣尼僧教育實況〉, 《比丘尼的天空: 2009 佛教僧伽教育國際研討會論文集》, 台北: 財團法人伽耶山基金會, 2010 年, pp33-50
- 4 摩迦, 〈我對四年來佛教教育的感想〉, 《人生》第 5 卷第 1 期, 1953 年 1 月, p6

三' 인터넷 자료

1. 星雲大師, 〈第五章當代人間佛教的發展〉, 《人間佛教佛陀本懷》, 星雲大師全集網路版, <https://books.masterhsingyun.org/ArticleDetail/artcle133> (검색일: 2024 年 9 月 18 日)
2. 星雲大師, 〈太虛大師〉, 《參學瑣憶 1》, 星雲大師全集網路版, <https://books.masterhsingyun.org/ArticleDetail/artcle9929>. (검색일: 2024 年 9 月 18 日)

아야 예셰(Ayya Yeshe)

(moondakini@hotmail.com)

[번역: 원혜영 (샤카디타 코리아)]

본 연구는 젊은 비구니였던 필자가 인도 중앙부 나그푸르(Nagpur)의 암베드카르 불교 공동체를 만난 경험을 다룬다. 나그푸르는 산업 도시이자 달리트(Dalit) 운동과 힌두 근본주의의 중심지이며, 이 공동체는 1950년대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교로 개종*였다.

이들의 지도자인 비므라오 암베드카르(Dr. Bhimrao Ambedkar)는 달리트 공동체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필자는 한때 보드가야(Bodhgaya)에서 특권층 외국인들이 에어컨이 설치된 사찰과 6 피트 높이의 철조망 뒤에 자리한 모습과 가난한 인도 여성들이 머리에 벽돌을 이고 다니며, 16 세에 결혼하고 50 세에 사망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만약 부처님이 살아 있다면 어떤 편에 설 것인지 고민하였다.

필자는 강간과 남성 폭력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자비에 보답하고 소녀들을 돕겠다고 결심하였다. 또한 불교 내에서 여성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서적·영적 학대를 목격하였다.

처음 나그푸르에 갔을 때, 사람들은 삼보(Three Gems)와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불교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다. 필자에게 푸자(Pooja)를 수행하고, 설사로 죽어가는 아기들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여성들은 가정 폭력 문제가 공동체 내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속삭였다.

이들에게 단순히 염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깨닫고 보디치타 재단(Bodhicitta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

현재 나그푸르에서 16년간 활동하며 여성 보호시설, 방과 후 학습 센터 4곳, 연간 6,000 식의 아동 급식, 55 명의 학생 교육 지원, 여성 직업 훈련 센터, 불교 일요 학교 및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암베드카르 불교 공동체는 억압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보이며, 사찰 출입 금지, 우물 사용 금지, 말 타기 금지, 비옥한 땅 소유 금지, 정당한 임금 및 교육 기회 박탈이라는 끔찍한 역사를 극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암베드카르 불교 공동체와의 만남이 불교 실천과 사회적 변혁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

1956년, 그들의 영웅이자 해방자인 빘라오 암베드카르 박사(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아래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으로 알려졌던 지역사회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여름철 기온이 118 /48 까지 치솟을 수 있는 인도 중부의 뜨거운 산업 도시 나그푸르에서였다.

분수령이 된 순간이다. 적어도 2,000 년 동안, 이 공동체는 힌두 카스트 제도에 의해 노예로 전락했다. - 힌두교의 한 형태로, 대다수의 인구가 천박한 노동자나 최악의 경우 눈에 띄거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불순하게 만드는 열등한 지능과 영적 본성을 가진 노예로 간주되는 사회적 위계질서를 선호했다.

수천 년 동안 이 노예들은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거나, 양질의 땅을 소유하거나, 읽고 쓰는 법을 배우거나, 만트라나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심지어 물에 접근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의 발자국은 옷에 묶인 종려나무 잎에 의해 지워져야 했고, 땅에 닿기에는 너무 "불순하다"고 여겨져 침을 뱉을 향아리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접근 방식을 알리기 위해 종을 울렸다. 갠단 강간, 린치, 폭력이 흔했다. 고대 로마나 미국의 노예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차이점은 이러한 차별이 종교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중동의 노예는 교회나 모스크에 가서 신이 자신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힌두교에서는 달리트(Dalits 예 '불가촉천민')가 신의 발에서 파생된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반면, 브라만은 그의 머리에서 태어났다[고 여긴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을 받은 최초의 달리트인 중 한 명인 암베드카르 박사는, 진흙 벽돌 집에서 태어난 열 번째 아이이다. 그는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문 밖에 앉아 있어야 했지만, 컬럼비아 대학교와 런던 정경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암베드카르 박사는 남은 생애를 비폭력적으로 카스트리즘과 성차별의 종식을 옹호하는 데 보냈다.

부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도인 중 한 분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인도인들에게 그가 누구였는지 물어보면 힌두교 신들의 화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부처님은 반-카스트적이고 반-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여성과 하층 계급 사람들을 승가에 받아들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할 수 있으며 신을 찬양하기 위해 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것은 인도 사회 질서와 브라만들의 권력에 대한 큰 위협이었다. 불교가 점점 더 작은 종파로 나뉘고, 승려들이 부유한 후원자(브라만인들이 연결한)에게 의존하며 농민 대중과 접촉이 끊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브라만들의 적극적인 박해를 통해서도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졌다.

대승과 아드바이타 베단타, 또는 힌두교와 불교 탄트라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카스트, 자아, 영혼, 신을 포용하고 사회 질서에 대한 봉건적 충성이 아닌 더 자유롭고 개인적인 책임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히말라야의 케다르나트(Kedarnath) 사원과 아마르나트(Amarnath) 사원은 원래 불교 사원이었으며 강제로 끌려가 힌두교로 만들어졌다. 또한, 남부의 많은 불교 사원들은 금으로 덮인 부처님들을 힌두교 사원으로 개조했다. 마지막 타격은 브라만들이 많은 힌두교도들에게 부처님이 비슈누의 화신이지만 반-다르마를 보여주는 "나쁜" 화신이라고 설득한 후, 모두가 자신의 계급과 의무만을 따르도록 상기시켰을 때 일어났다. 따라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의무"로서 남아있어야 했고, 자유를 추구하지 않았고, 하층 계급 사람들은 노예제가 그들의 나쁜 업보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에 노예제와 같은 노동 조건에서 유대감을 유지했으며,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는 사실상 종교를 이용해 노예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호주에서 나는 길거리 아이였고 노숙자 10 대 소녀들의 원시적인 취약성에 대한 어두운 이면을 직접 보았다. 내가 14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로 인해 삶의 의미에 의문을 품으며 실존적 위기에 처했다. 내가 17 살 때 히피로서 삶의 의미를 찾아 인도에 갔다.

내가 29 살 때 보드가야에 있었고, 거기서 부처님의 세상에 대한 자비에 감동받아 인도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는 존재로 여겨졌던 인도 여성들을 도와 그 자비에 보답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인도 여성의 22%가 18 세 미만으로 결혼했으며,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 폭력은 40% 발생한다. 하지만 빈민가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신성한 장소인 보드가야에서는 가난한 여성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일상적으로 결혼하여, 최대 열두 명의 자녀를 낳았고, 죽거나 완전히 지쳤고 50 세쯤에는 백발이 되었다.

보드가야나 비하르 주 전체에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토지 없는 농민들은 지주들의 자비심에 달려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는 이 신성한 마을은 두 개의 세계에 걸쳐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하얀 대리석 휴양지의 세계, 에어컨과 6 피트 높이의 철조망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무장 경비원들이 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이 이질로 사망하고, 여성들이 남편에 의해 폭력적으로 통제되며, 수백만 명의 여자 아기들이 성별로 인해 사라진 지역 주민들의 세계이다. 부처님이 돌아오시면 철조망의 어느 쪽에 앉아 계실지 궁금하던 중, 어느 인도 남자가 정중하게 불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다가와 나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이 인도 불교 신자이자 암베드카리트라라고 말했다. 나는 인도 불교 신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나를 나그푸르로 초대했다.

나그푸르에서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인도 사람들은 문명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영적 길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인구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서양 법전 센터에서의 경험과는 매우 달랐다. 그곳에서 나는 "진짜 티베트 승려만큼 좋지 않다"고 여겨졌고, 방문한 티베트 라마로부터 남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코판 사원에서 서양 수녀들이 구입하고 설립하며 은행을 운영하는 동안 나는 이렇게 들었다: "왜 우리가 당신을 지원해야 하나요? 당신은 단지 관광객일 뿐이다."

나그푸르에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공덕(은혜)을 원했다. 그들은 인권을 위한 투쟁이 인정받고 불교를 포용하는 것이 진지하게 다루어지기를 원했다. 많은 암베드카르인들은 카르마와 환생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카르마와 환생은 브라만들에 의해 무기화되어 수천 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르마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차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게 되지만,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완전한 교육을 받은 교법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슬픈 사실은 다르마에 대한 좋은 지식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의 첫 번째 과제는 단순히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빈민가는 정말 매력적이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적은 양, 때로는 한 방에 다섯 명씩만 있어도 서로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도 살아남고, 매일 깨끗하고 장엄하게 등장할 수 있는지에 놀랐다. 마치 여신이나 영화 속 영웅들처럼 화려한 사리와 갓 짜낸 셔츠를 입고 말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 기도를 외우고 불교 철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 이질로 죽어가는 아기를 자신 품에 안았을 때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호주에서는 아기를 살리기 위한 약 한 알에 2 달러가 든다. 인도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교복을 구입하며 여성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다. 믿음이 공유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다르마를 가르치는 동시에 사회 활동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했다.

호주에서는 불교 센터까지 몇 마일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발우에 음식도 받지 못했다. 인도에서는 거리의 끝에 도착하기 전에 발우에 넘쳐날 것이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엄청난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용감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나의 양딸에 대해 말하겠다: 라키는 15 살, 몸무게 16kg, 척추가 심하게 뒤틀리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끊임없이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키는 동네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모아 사원으로 데려왔다. 포레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나이 든 사람들과 함께 사원에서 명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위안을 주었다. 라키는 점차 우리 집에서 매일을 보내러 왔고, 우리는 함께 모든 곳을 다녔다. 그녀는 수년 전 장애로 세상을 떠났지만 나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진정으로 사랑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나는 아티를 8 살때 만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9 학년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과 결핵으로 막 돌아가셨다. 그녀는 양철 판잣집에 살면서도 기쁨과 낙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를 믿었다고 말했다. 아티가 자라면서 나는 그녀의 아버지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를 읽고 임시 비구니 안거에 참여했다. 우리는 정원을 방문하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으며, 종종 커피와 음식을 먹으러 나갔지만, 어머니의 수입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이었다. 아티는 사회 일과 다르마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녀는 샤카디타 학회에 참석하여 간호사가 되었다.

마니샤는 아버지가 마약 빚을 갚기 위해 매춘 업소에 팔려가는 것을 피한 후 우리에게 왔다. 마니샤는 겨우 15 살이었다. 그녀는 배수관을 타고 내려와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니샤는 열심히 공부하여 상급 형사이 되었다. 오늘날 그녀는 인신매매로부터 취약한 소녀들을 보호하고 있다.

몇몇 소녀들은 열 살이었고, 여덟 명의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던 중 큰 냄비가 떨어져 화상을 입고 집에 들어갔다. 일부는 아동 노동 공장, 매춘 업소, 아동 결혼, 강간이나 구타를 당하는 가정에서 왔다. 일부는 외딴 마을에 살았다. 이 소녀들은 여성과 변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많은 사람이 물리학 전공자, 의사, 변호사, 교수 또는 사회복지사로 졸업했다. 모든 존재는 사회적, 영적, 경제적, 문화적 원인과 조건에 의해 조건화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과 격려를 제공하면 약간의 사랑과 쾌활함, 약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의만 있으면 잠재력과 꿈을 꽃피우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티나 암릿 길 (Teena Amrit Gill)

(teenagill06@gmail.com)

[번역: 성경자(샤카디타 코리아)]

인도 아대륙에서 가부장제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부처가 여성의 출가를 허용한 것은 당시 여성들이 결혼, 출산, 가사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초의 기회 중 하나였으며, 이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또한, 모든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하게 영적 해탈(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성차별뿐만 아니라 카스트 및 계급 계층 구조에도 도전한 것이었다.

본 발표는 인도 히말라야 지역(라다크, 히마찰프라데시, 타왕)의 불교 및 여성 수행자들의 변화 과정을 조망한다. 현대 비구니들의 투쟁, 성취, 주체성을 분석하며, 초기 불교 여성 수행자들의 여정과 그 유사점 및 차이점을 검토한다.

또한 세기별로 변화한 불교 환경 속에서 여성들의 경험을 탐색하며,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논의한다. 연구와 필드워크를 통해 현대 교육과 승가 교육이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 자신감, 그리고 존중을 제공하는 중요 요소임을 확인한다.

특히 2016 년 티베트 불교 1000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히말라야 여성들에게 개방된 겐룩파(Gelugpa) 계열의 계셰(Geshe) 시험, 그리고 삭야(Sakya), 닝마(Nyingma), 카규(Kagyü) 종파에서 시작된 로폰(Lopon) 및 켄모(Khenmos) 전통은 여성들이 교육자, 비구니 사원장, 역사 기록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2022 년 6 월 부탄에서 시행된 비구니의 완전 출가는 7 세기 티베트 불교의 확립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성 수행자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인도 아대륙의 가부장제는 뿌리가 깊고, 그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른다. 나는 부처님이 여성들을 승가에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여성들에게 결혼, 출산, 가사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으며, 분명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더 나아가, 모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영적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인식은 단순히 성차별뿐 아니라, 카스트와 계급의 위계질서까지도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비구니 승가를 설립할 때 비구와 비구니 승가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테리(Theris)라 불리는 초기의 고승 비구니들의 목소리는 이러한 평등의 깊은 반영이다. 비구니들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비구니 승원을 운영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수행자이자 스승으로서 명성을 얻었다.

비구니 담마딘나(Dhammadinna)와 바다 카필라니(Bhadda Kapilani) 등 많은 비구니들은 부처님 당시 저명한 설법가로 활동했고, 부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정받았다.

“비구니 담마딘나는..(중략).. 큰 지혜를 지녔다.”고 부처님은 재가 수행자 비사카(Visakha)에게 말했다.

“나에게 이 의미를 물어보았다면, 나도 똑같이 설명했을 것이다. …(중략)…이것이 그 의미이니, 반드시 기억하라.”

(맛지마 니카야, Majjhima Nikaya)

이처럼 부처님은 초기에는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결국 승가에 받아들였고, 여성 비구니는 번성하며 비구들과 동등한 수준의 출가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부처님이 비구니 승가를 설립할 때 비구니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여덟 가지 특별 규율, 즉 팔경법(八敬法, Garudharma)은 비구니들의 제도적 종속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세속에서 여성들이 겪던 차별을 승가 내에서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모든 비구니는 비구에게 항상 종속되어야 했고, 이는 여성이 남성만큼 유능하지 않으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세계관을 강화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차별적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팔경법이 생긴 시기에 대해서는 남녀 출가자와 학자들 모두 의문을 제기해왔다. 논란이 되는 규율 중 하나는 출가 전에 2년간의 수련 기간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칸티팔로(Ven. Khantipalo) 스님과 담마난다(Venerable Dhammananda) 스님과 같은 학자들은 마하프라자파티(Mahaprajapati)가 출가할 때는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팔경법의 규율들이 실제로는 훨씬 후대에 추가되어 율장(Vinaya)에 소급 적용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특별 규칙들이 부처님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구니들은 지적·영적으로 자신감을 키우고 성장했다.

불교는 브라만적 정통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차별적 시각이 불교 경전에도 스며들게 되었다. 부처님 시대 이전에 편찬된 사타파타 브라흐마나(Satapatha Brāhmaṇa)에는 여성, 수드라(Sūdra, 불가촉천민), 개, 까마귀를 허위, 죄악, 어둠의 화신으로 간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1세기경 불교 경전인 밀린다팡하(Milindapañha)에서는 남편 없는 여성이 대식가, 죄인, 품행이 없는 자 등 10 가지 불명예스러운 사람 중 하나로 언급된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단일한 체계가 아니며, 그 영향력은 지역, 공동체,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불교가 출현하기 약 250년 전, 브라만교에서 분리된 또 다른 종교였던 자이나교의 근본 스승인 성자 파르샤반타 (Parśvanātha)는 대규모 여성 공동체를 출가시켰다. 부처님과 동시대인 마하비라(Mahāvīra)의 시대에는 비구보다 두 배가 넘는 수의 비구니가 자이나교 승가에 입문했고, 30만 명이 넘는 재가 여성들이 자이나교도가 되었다! 여성들은 최고의 종교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단 내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교사와 설법가로 활동할 기회를 가졌으며, 자이나교 재가 여성들은 국가의 정치·행정 활동에도 참여했다. 여성들은 분명히 존중과 명예,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새로운 종교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이끌렸다. 여기에는 카스트 차별과 억압을 겪던 하층 카스트 여성들도 포함되었다.

테리들, 즉 테리가타에 기록된 고승 비구니들은 빈곤과 가사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행한 결혼을 피하기 위해, 교육과 문해력을 얻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불교 승가에 입문했다. 때로는 부모의 압력도 한 몫 했다. 오늘날 인도 히말라야 벨트 전역, 서쪽의 라다크에서 동쪽의 타왕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이와 비슷한 이유로 비구니가 되기를 선택한다.

타왕 출신 박사과정생 춘마 겐덴 라무(Tsunma Genden Lhamu)는 “타왕에서 비구니가 되려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마을 생활의 빈곤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타왕의 모든 비구니 승원은 사찰의 관할 아래 있으며, 자체 학교는 없다. 많은 어린 비구니들은 정부 학교에 다니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거나, 지역 밖의 학교로 이동해야 한다.

13대 초나 린포체(Tsona Rinpoche)의 선견지명과 헌신 덕분에, 춘마 겐덴 라무의 싱소르(Singsor) 비구니 사원 근처 타왕에 학교가 설립되어, 비구니들이 현대 교육과 함께 티베트어와 불교 철학을 8학년까지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는 비구니들이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거나, 초나 린포체가 설립한 다홍의 히말라야 문화 중앙 연구소 등 다른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이 학교에는 약 200명의 여학생이 재학 중이며, 그 중 30명은 비구니이다.

키나우르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문해율이 낮았으나, 현재 히마찰 프라데시 북부의 장셈링 폰다(Jangsemling Ponda) 비구니 승원과 데첸 초링(Dechen Choling)을 포함하여 스피티의 네 개 비구니 승원에서 비구니들을 위한 강력한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승원에서는 티베트어 문법, 불교 경전, 철학, 논리와 토론, 영어 등 현대식 승가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있다.

라다크에서는 이전에는 비구니 승원에 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었으나, 비구니 협회가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라다크 비구니들은 교육을 위해 주 밖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부처님 생전에 많은 여성이 불교 승가에 입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니가 비구니에게만 가르침을 전할 수 있고 비구나 사부대중을 가르칠 수 없다는 규정이 비구니들이 법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켰다. 비구니들의 지위가 인정받지 못하면서, 후원자들의 지원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아마도 비구니 사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점차 고갈된 주요 원인일 것이다.

기원전 2세기와 1세기에 산치(Sanchi)의 기록에 따르면 비구니들이 번성했고, 재가 여성들과 함께 주요 후원자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8세기경에는 인도에서 비구니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실제로 기원후 1세기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부상하면서, 여성은 더 이상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고, 극락정토에서 남성으로 태어날 가능성에 희망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1~2세기 비문에는 비구니들이 여전히 불교 수행과 불교 미술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여성을 우주적 에너지로 보고 긍정적인 여성원리를 주장하는 전통이 발전했는데, 이는 반야바라밀다(Prajñāpāramitā)를 모든 부처의 어머니로 숭배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대승불교 시대에는 21타라와 금강요기니를 포함한 여성 신, 보살, 요기니와 비구니 성인이 발전했다.

초기 인도불교와 대승불교의 분열 시기에 여성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증가했고, 남성들이 불교 위계와 신화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5세기경 아상가(Asaṅga)의 보살지론(Bodhisattvabhūmi)에서는 모든 여성이 본성상 번뇌로 가득하고 지능이 약하다고 주장하며, 여성은 불완전한 불교도로 간주되었다.

대승경전에 비구니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여성 재가 제자보다도 더 드물게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고 영향력 있는 경전으로 여겨지는 일부 경전에서는 여성의 영적 성취에 대한 자유로운 묘사가 발견된다.

유마경(Vimalakīrtinirdeśa Sūtra)에서 사리불은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며, 뛰어난 여성 수행자와 논쟁을 벌인다. 그러나 결국 “여성의 모습과 타고난 특성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

화엄경(Avataṃsaka Sūtra)에는 가르침이 매우 뛰어나고 인상적인 사자하품(Lion-Yawn)이라는 이름의 비구니가 묘사되어 있다. 그녀는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으며, 대승불교 문헌에서 흔히 고매한

보살에게 부여되는 권위와 풍모를 지녔다. 반면 스리말라 왕비의 경전(Sutra of Queen Srimala)은 그녀의 매우 진보적이고 효과적인 가르침을 찬양하고 있으며, 때로는 여성불로 묘사하고 있다,

대승불교 말기, 10세기 무렵에 이르면 경전에서 여성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인도에는 비구니가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아예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발전하는 것과 병행해 3~4세기경 금강승불교가 등장했고, 이후 티베트와 중국에도 전파되었다. 금강승불교는 여성 우주적 어머니(feminine cosmic mother)의 개념을 흡수하여 여성 원리를 심화하고 확장했다. 그러나 티베트의 민간 속담에서는 여성의 출생을 불행으로 여기고, 티베트어로 ‘여성’을 뜻하는 말은 ‘낮게 태어난 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남성들이 종교적 권력과 명예, 존경, 권위를 독점했다.

7세기 무렵 인도의 비구니 승원들은 힌두교의 대중적 형태가 부상하면서 점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남아 있던 비구니들은 기록에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그 이름조차 드물게 언급된다. 또한, 그들은 당시 날란다(Nalanda) 대학을 포함하여 명성을 떨치던 불교 대학들의 학생 집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금강승불교가 7~10세기 인도에서 티베트로 전해질 때, 비구니 계보는 티베트에 전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비구니들은 평생 사미니로서 36 계율(36 vows)만을 지키며 살아야 했고, 교육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거주 환경도 열악해서, 대부분 스스로 거처를 마련해야 했고, 물이나 땀감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했다.

승가가 비구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저명한 여성 수행자들은 유망하는 수행자나 밀교수행자인 요기니(Yoginis)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금강승불교는 이러한 여성들을 찬탄하고 격려했으나, 그들의 계율은 출가자도 재가자도 아닌 독특한 것이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부처님은 남녀 출가·재가 사부대중(四部大衆) 모두의 강력한 공동체를 만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느끼셨다. 부처님은 대열반경(Mahāparinirvāṇa Sūtra)에서 “나의 비구와 비구니, 재가 남녀 신도들이 모두 진정한 제자가 되어, 지혜롭고 잘 훈련되며,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를 설하고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나 부처님 열반 후 몇 달 만에, 제 1 결집에서 이미 갈등이 시작되었다. 부처님의 신뢰받는 시자이자 수제자인 아난다 존자는 비구니 승가 도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범했다고 비난받았고, 승가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당시 고승 비구니들은 뛰어난 수행자이자 공동체의 존경을 받았음에도 결집에 참석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부대중의 한 축인 비구니 승가가 크게 쇠퇴한 것이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름이 분명히 바뀌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비구니 승가는 천천히, 그러나 자신감 있게 다시 성장해왔고, 히말라야 지역의 비구니들은 다시금 독립적으로 승원을 운영하고, 부처님 시대와 유사하게 비구와 동등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티베트에서 사라졌던 요기니 계보는 캅그라(Kangra)의 DGL 비구니 승원에서 부활하고 있으며, 전통의 깊은 가르침과 지혜가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다시 비구니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티베트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꺄룩파 여성들이 권위 있는 게세마(Geshema) 시험을 치렀고, 다른 종파에서도 석사학위와 동등한 로뽀(Lopon)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6년 이후 70명 이상의 비구니가 게세마가 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2년 6월, 티베트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이 비구니로서 완전한 구족계인 게롱마(Gelongma)를 받은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으나, 비구니들이 다시 교육받고, 교사와 지도자가 되며, 수행을 심화하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여성 수행자들이 이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지켜봐야 한다. 그들은 다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여성의 시각에서 불법을 설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발표 후에는 관련 영상 프로젝트의 주요 장면이 상영될 예정이다.

Sources:

Uma Chakravarti, Conceptualising Brahmanical Patriarchy in Early India – Gender, Caste and State
Uma Chakravarti, Freedom from Mortar and Pestle–The Rise of Buddhism as Experienced by Women
Ellison B. Findly (ed) –Women’s Buddhism Buddhism’s Women–Tradition, Revision, Renewal
Chatsumarn Kabil Singh, Thai Women in Buddhism
Rita Gross, Buddhism after Patriarchy
Susan Murcott, First Buddhist Women: Poems and Stories of Awakening
Majjhima Nikkaya

틱 느 리엔 히엔 스님 (NCS. Thich Nu Lien Hien)

(23931063003@hcmussh.edu.vn)

[번역: 성경자(샤카디타 코리아)]

21 세기에 들어서며 베트남 비구니들은 현대적 흐름에 따라 재능을 발전시키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얻고 있다. "불교는 국가와 함께한다"라는 신조 아래, 비구니들은 불교를 홍보하고 불법을 전파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교육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계절 수행, 여름·학생 수행회, 유치원 개설, 야외 수행, 생활 기술 교육, 온라인 강좌, 명상 교육, 저술 활동, 장학 사업, 빈곤 학생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실천적 불교 활동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정신으로 청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고, 도덕적 인식을 함양하며, 평온하고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도록 돕고, 사회적 해악에서 벗어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핵심어: 베트남 비구니 교단, 청년을 위한 불법 포교, 혁신적인 방법, 통합 시대의 불교, 청년 도덕 교육

1. 서론

세계화와 국제 통합의 맥락에서 불교 철학과 가르침을 젊은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베트남 비구니들에게 중심 과제가 되었다. 현대 청년들은 전통적 가치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디지털 기술, 현대 사회의 압박 등으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불법 포교를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적 경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베트남 비구니들은 불교 역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청년들이 불법의 핵심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고, 새로운 시대에 지속 가능한 영적 및 윤리적 삶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베트남 비구니 승가의 포교 역사와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 종합,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실질적인 조사로는 비구니, 청년 불자, 불교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교육 방법을 평가한다. 또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수련회와 강좌에서 시험하고 전통적 접근법과 비교한다.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분석되어 적절한 혁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활용된다.

2. 연구 내용 및 논의

2.1 청년 대상 불법 포교 개념

청년 대상 불법 포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치를 전달하여 그들이 인격을 형성하고 영성을 개발하며 삶에서 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현대 청년들의 심리와 필요에 맞춰 설계된 교육 방법, 수련회, 교육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 원로 비구니인 틱 느 후에 작(Thích Nữ Huệ Giác) 스님은 그녀의 저서 『현대 시대 불법 포교 사명에서의 베트남 비구니들』 (*Vietnamese Bhikkhunis in the Mission of Propagating the Dharma in the*

Modern Era, 종교출판사, 2015) 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청년은 미래의 씨앗이며,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은 그들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인격을 형성하고 평화를 찾도록 돕는 등불이다.” 그녀는 묘법연화경 (Saddharma Pundarika) 제 20 장을 인용하며, 열린 마음으로 가르침에 접근할 것을 권장하였다: “법사는 등불을 든 스승과 같아야 하며, 청년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내면의 빛을 발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구니 틱 느 찌 하이(Thích Nữ Trí Hải) 스님은 그녀의 저서 『불교와 청년』 (*Buddhism and Youth*, 종교출판사, 2009)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우리가 단순히 불법을 가르치기만 하고 청년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르침은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자비와 지혜는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청년들이 불법을 삶의 신선한 바람으로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라는 대반열반경(Mahāparinirvāṇa Sūtra)의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불법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에서 혁신과 유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청년들이 현대 사회에 깊이 통합되면서도 불교의 핵심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자비와 지혜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승하고 전파하는 존재가 되도록 돕는다.

2.2 사회적 맥락과 도전 과제

기술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전통적이고 영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불교 가르침과의 단절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불교 승가는 약 54,773 명의 승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약 60%가 비구니(32,800 명 이상)이다. 베트남에는 18,491 개의 불교 시설이 있으며, 여기에는 사찰, 승원, 명상센터, 법당 등이 포함된다. 비구니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을 전파하고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대승불교 사원이 가장 큰 그룹으로, 총 12,912 개를 차지한다.

가장 존경받는 틱 찌 광(Thích Trí Quảng) 스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비구니들은 모든 활동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성별 편견이 각 개인의 초월적 잠재력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두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불법을 구축하는 것은 부처님의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며, 윤회의 세계에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현대 시대에서 비구니들은 미디어의 경쟁적인 역학 속에서 창의성을 요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비구니들의 역할은 이제 단순히 불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실용적인 활동, 수련회, 야외 프로그램 및 자선 활동을 조직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윤리적 가치, 지혜 및 자비를 삶 속에서 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2.3. 현대 청년들을 위한 베트남 비구니 승가의 불법 포교의 혁신적인 방법

오늘날 통합 트렌드에 부응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베트남 비구니 승가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3.1. 기술과 미디어를 통한 교육 및 포교 방식의 혁신

베트남의 여러 사찰은 현대적인 불법 포교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더 잘 소통하고 있다. 많은 사찰이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며, 많은 젊은 참여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줌, Google Meet 와 같은 온라인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 세계 불자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틱 닛 투(Thích Nhật Từ) 스님은 저서 『불교를 통한 윤리와 삶의 가치 교육』 (*Education in Ethics and Life Values Through Buddhism*, 2022) 에서 현대적이고 유연한 불법 교육 방법이 젊은 세대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교육 방법은 시청각 자료, 생동감 있는 영상,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더욱 향상되었다. 수업 중 5~10 분간의 짧은 명상 실습은 청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노력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빈 투언(Bình Thuận)에 있는 부우 리엔 (Buu Lien) 사찰은 비구니 틱 느 후에 민(Thích Nữ Huệ Minh) 스님의 지도 아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 기술 강좌에서 응용 명상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결합한 교육을 진행한다. 카인 호아(Khánh Hòa)에 있는 푸옥 비엔 (Phước Viên) 사찰은 비구니 틱 느 띠 자악 (Thích Nữ Tịnh Giác) 스님이 이끄는 대학생 대상 명상 세션에 매회 200 명 이상이 참여한다. 빈 즈엉(Bình Dương)의 티엔 팡 (Thiền Quang) 사찰은 비구니 틱 느 흐엉 느 (Thích Nữ Hương Như) 스님의 지도아래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 봉사를 장려하는 윤리 교육과 연계된 자선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쩐 터(Cần Thơ)의 다이 팡(Đại Pháp) 사찰은 상좌 비구니 틱 느 뉴 후에 (Thích Nữ Như Huệ) 스님의 주도 하에 "이해와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여름 수련회가 효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수백 명의 젊은 참가자를 모은다. 빈 롱(Vĩnh Long)의 롱 호아(Long Hoa) 사찰은 비구니 틱 느 탐 평 (Thích Nữ Tâm Tịnh) 스님의 지도 아래 긍정적 사고와 갈등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소프트 스킬 강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일부 사찰에서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명상 공간을 조성하며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불교를 젊은 세대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르고 책임감 있는 청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2.3.2. 창의적 체험 활동

비구니 틱 느 뉴 응우엣(Thích Nữ Như Nguyệt) 스님은 호치민시에서 쉐 방 유치원(Sen Vàng Kindergarten) 시스템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1 캠퍼스는 2020 년에 빈 찌안(Bình Chánh) 구에 설립되었으며, 2 캠퍼스는 호치민시 8 구 16 동에 위치한다. 쉐 방 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 활동, 다양한 학습 환경, 생활 기술 개발,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 실용적 기술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상급 교육과 미래 삶에 대비하도록 돕는다.

비구니 틱 느 후에 당(Thích Nữ Huệ Dâng) 스님은 2023 년 5 월에 호치민시 사회과학인문대학교 종교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상 실습 세션을 진행했다. 이 세션에서 그녀는 명상 기법과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또한 람 동(Lâm Đồng)의 디 다 사원(Di Đà Temple)에서는 중앙 비구니 위원회 산하 재가불자 소위원회가 "고향으로 돌아가기(Returning Home)"라는 제목의 수련회를 개최하여 350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조직위원장인 틱 느 후에 당 스님은 축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이틀 간의 수련회를 통해 평온한 에너지를 얻어 새해를 기쁨과 성공으로 맞이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난 10 년 동안 명상 실천과 불교 가르침을 젊은 세대와 지역사회에 가까이 전달하려는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비구니 틱 느 누언 빈(Thích Nữ Nhuận Bình) 스님은 2024 년까지 총 9 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여기에는 "마음챙김 관찰"정신이 담긴 두 권의 단편 소설집과 일곱 권의 책이 포함된다. 주요 저서로는 『사랑의 길 열기』 (*Opening the Path of Love*, 2018), 『행복의 씨앗 심기』 (*Sowing Seeds of Happiness*, 2019), 『삶의 굴곡 극복하기』 (*Overcoming Life's Ups and Downs*, 2019),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If You Knew Tomorrow Would Be Your Last Day*, 2020), 『무상(無常)의 꽃잎을 부드럽게 줍기』 (*Gently Picking Up the Petals of Impermanence*, 2024)가 있다. 이 작품들은 젊은 독자들에게 주는 영적 선물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격려와 영감을 제공한다. 그녀는 책 판매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돕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불교 가르침과 생활 기술 및 예술을 결합하여 청년들이 자기 계발과 자비심을 함양하도록 돕는다. 이 활동에는 명상, 그림 그리기, 지역사회 자선활동 등이 포함된다.

비구니들은 불교 가르침과 생활 기술 및 예술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조직하여 젊은이들이 명상, 그림 그리기, 지역사회 자선활동 등을 통해 자기 계발과 자비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데이비드 브라지어(David Brazier)의 책 『학생들을 위한 마음챙김』 (*Mindfulness for Students*, 2015)에 따르면, 명상과 불교 가르침은 감정 관리와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과 사회적 인식에도 기여한다. 벤 쟈(Bén Tre)의 띠 싹(Thích Nữ Huệ Tâm) 스님이 매년 600 명 이상의 젊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혜 양성(Nurturing Wisdom)" 수련회를 개최하며, 참가자의 약 80%가 삶의 압박감을 더 잘 다룰 자신감을 얻게 된다. 비구니 띠 싹 히에우(Thích Nữ Tịnh Hiếu) 스님의 지도 아래 동나이(Đồng Nai)의 지에우 쩡 사원(Diêu Quang Temple)에서 여름 수련회가 열리는데, 음악 명상, 그림 그리기, 요가 등 프로그램에 500 명 이상의 젊은이가 참여한다. 속짱(Sóc Trăng)의 홍 안 사원(Hồng Ân Temple)에서는 비구니 띠 싹 뉴이(Thích Nữ Như Ý) 스님의 지도 아래 매년 명상 음악 세션과 미술 전시회가 열리며 약 400 명이 참석한다. 동 탑(Đồng Tháp)의 부우 롱 사원(Bửu Long Temple)에서는 명상과 불교 가르침을 예술과 결합한 청소년 캠프를 개최하며 약 350~400 명이 참여한다. 호치민시 푸억 퐁 사원(Phước Thịnh Temple)의 비구니 띠 싹 한 띠 싹(Thích Nữ Hạnh Tâm) 스님은 매년 "자비의 씨앗(Seeds of Compassion)" 과정을 운영하며 700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 갈등 해결 및 긍정적 사고를 가르친다. 빈즈엉(Bình Dương)의 뚜 쩡 사원(Tu Quang Temple)은 비구니 띠 싹 디에우 민(Thích Nữ Diệu Minh) 스님의 지도 아래 불교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명상 및 감정 조절 교육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2024 년에 다운로드 수가 12,000 건을 넘었다.¹

약 20 년 동안 청소년 불법 포교 클럽은 명상, 법문, 예술 및 연극 활동, 자선활동 등을 결합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며 매년 수천 명의 젊은 참가자를 끌어들이었다. 특히 2024 년에는 동 나이(Dong Nai)의 껍 안 카이 프엉 사원(Quốc An Khải Tường Temple)에서 제 14 회 "청년과 불교" 캠프를 개최하여 약 5,000 명이 참여했다. 캠프에서는 명상 산책, 촛불 의식 및 대규모 게임 등이 진행되었으며, 디엔 토 탑(Diên Thọ Tower) 주변에 여덟 송이 연꽃 형상과 "연결된 손"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베트남 기록 2 개도 달성했다.

2.3.3. 국제 교류 강화

베트남 비구니 승가는 유엔 위삭의 날과 같은 국제 불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발표하고 전법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까인터우(Cần Thơ)의 다이 팜(Dai Phap) 사원과 동 나이(Đồng Nai)의 띠 싹 잉(Thích Nữ Nghiem) 사원에서 열리는 국제 불교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세계 불교 문화를 배우고 국제 사회와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태국과 스리랑카에서는 생활 기술 프로그램에 불교 가르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스리랑카의 켈라니야 대학교²의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78%가 스트레스 관리와 집중력에서 개선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론과 명상과 같은 실습을 결합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학업에서 불교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¹ Reports on Buddhist activities of the temple, Giac Ngo Online, and the Journal of Buddhist Studies.

² Research projects of Kelaniya University

또한,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Dharma) 지도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비구니들의 교육 능력, 현대 기술 활용 능력, 창의적 접근 방식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활동은 불교를 청년들에게 더 친근하게 만들고 자비, 지혜, 윤리적 가치를 일상생활에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비구니 승가의 국제적 노력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구적인 역할을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세계적인 문화 및 기술 통합 추세와 조화를 이루며, 불법을 전파하기 위한 글로벌 불교 청년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결론

베트남 비구니들은 국제 통합 시대에 청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을 포교하는 방법을 혁신해 왔다. 기술을 활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불교는 젊은 세대에게 더욱 접근 가능하고 유의미한 종교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혁신은 전통적인 문화와 윤리적 가치를 보존하고 고취하는 동시에 도덕성, 지혜, 자비를 지니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

비구니들은 승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불교 메시지를 특히 미래의 불교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청년들에게 전달한다. 이는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책임이며, 비구니들이 베트남 불교 승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계속하도록 보장한다.

참고문헌

- Brazier, David (2015). *Mindfulness for Students: The Role of Buddhist Teachings in Modern Education*, Routledge.
- Thich Nu Tri Hai (2009). *Buddhism and Youth*, Religious Publishing House.
- Thich Nu Hue Giac (2015). *The Vietnamese Nun Order in the Mission of Propagation in the Modern Era*, Religious Publishing House.
- Most Venerable Thich Tri Quang. *The Role of the Vietnamese Nun Order in Today's Society*.
- Thich Nhat Tu (2022). *Education in Ethics and Life Values Through Buddhism*, Religious Publishing House.

마두리 쿠드왈카르 (Madhuri Kudwalkar)

(m.kudwalkar@somaiya.edu)

[번역: 효은 스님]

고대 불교 경전 테리가타(Therigatha)는 부처님 생전과 열반 후 영적 수행을 이어간 여성들을 조명하였다. 고타미 마하파자파티(Gautami Mahapajapati)는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 승가(Bhikkhuni Sangha) 지도자였다.

지리적 변화, 사회 규범, 정치, 교육 정책, 가부장제와 모권제의 대립, 인류학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전 세계 불교 여성의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불교가 태동하고 아쇼카(Ashoka) 대에 그의 딸 상하미트라(Sanghamitra)에 의해 확산된 인도와 같은 아시아 내 소외된 불교 국가들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비구니 승가의 창립 역사와 이후 수세기 동안 지속된 불교 쇠퇴 과정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오늘날 불교 여성들은 사회적 평등주의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 재가 수행자와 출가 수행자 모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 비구니 수행자들인, 비구니 담마난다(Bhikkhuni Dhammananda), 카르마 렉셰 초모(Karma Lekshe Tsomo), 비구니 수니티(Bhikkhuni Suniti), 비구니 비자야 마이트레야(Bhikkhuni Vijaya Maitreya), 아야 담마디나(Ayya Dhammadina)는 승단 계율과 성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고대 불교 경전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재해석하고 있다.

젊은 재가 여성들은 고대 가부장적 의례와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고타미 마하파자파티 재단(Gautami Mahapajapati Foundation), 보디팍키야 재단(Bodhipakkhiya Foundation), 트라일로키야 바우드하 마하상가(Trailokya Bauddha Mahasangha), 바우드하잔 판차야트 사미티(Bauddhajan Panchayat Samiti), 바우드하 마하사바(Bauddha Mahasabha)와 같은 불교 사회 단체에서 불교 철학과 부처님의 실천적 가르침을 학습하고 실천하며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오래된 불교 경전인 『테리가타』(Therīgāthā)¹는 불교 문학 전통의 초석으로 초기 비구니들의 정신적 여정, 존재론적 도전, 그리고 구원론적 성취에 대한 심오한 해석을 제공한다. 비구니 승단에 있어 고타미 마하파자파티(Gautamī Mahāpajāpatī)의 리더십은 그녀의 서사와 더불어 초기 불교에 있어 여성들이 기여한 없어서는 안될 공헌들을 집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테리가타』(장로 비구니들의 계승)를 통해 불교 역사에서 그녀의 중추적인 역할을 부각시킨다. 가부장제와 식민지 유산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¹ See D. Acharya (trans. William Pruitt), *The Commentary on the Verses of the Therīs: Commentary on the Therīgāthā by Dhammapāla (6th century C.E.)* (Oxford, UK: The Pali Text Society, 1998); and Susan Murcott, *The First Buddhist Women: Translation and Commentary on the Therīgāthā* (Berkeley, CA: Parallax Press, 1991).

영향을 받은 사회정치적, 교육적, 인류학적 지형의 변화는 특히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와 같이 주변화된 지역에서 불교 여성들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다.

아쇼카 대왕 치세 동안 역사적인 불교의 보급에 그의 딸 장로비구니 상가미트라(Sanghamitrā)는 의미 있는 기여를 했으며, 이는 범(Dhamma)의 전파에 있어 여성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오늘날 재가 및 출가 여성 불자들은 평등주의 이념과 교육의 발전에 힘입어, 깊이 뿌리내린 성별 편견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비구니 담마난다(Bhikkhuni Dhammananda), 까르마 렉셰 초모(Karma Lekshe Tsomo), 비구니 수니티(Bhikkhuni Suniti), 위자야 마이프레이(Vijaya Maitreyi), 그리고 아야 담마딘나(Ayya Dhammādinna)와 같은 저명한 출가 여성들은 승단의 수계식과 그 외 제도적 문제들에 있어 경전 해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도에서 비구니 승단의 성립과 쇠퇴는 복합적인 역사적 역동성을 드러낸다.

젊은 재가 불자 여성들은 비판적 참여와 사회활동을 통해 가부장적 패러다임을 해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재단(Mahāpājāpatī Gotamī Foundation), 보디팍키야 재단(Bodhipakkhiya Foundation), 범세계불교교단(Trailokya(Tiratna) Bauddha Mahāsangha), 불교도 인도지방자치 위원회(Bauddhajan Panchayat Samiti), 인도불교도협회(Bauddha Mahāsabha)와 같은 승가 및 사회 단체들은 재가 여성들이 불교 철학과 부처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미묘한 주변성과 학술 담론의 맥락 속에서 불교 여성의 여권신장이라는 진화하는 지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변혁적 전환들

종교 전통에서 여성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학술적 탐구 분야로 남아 있다. 저명한 아비담마(Abhidhamma) 학자이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존경받는 비구니가 주최한 국제 비구니 승가의 날 행사에 최근 참석했던 일을 되돌아보면, 그녀의 지적 예리함과 권위 있는 존재감은 현대 불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적 전환을 뚜렷이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 연구는 불교 승가 지형을 재구성하고 있는 페미니즘 이론, 여권신장 담론, 새롭게 대두되는 리더십 패러다임의 교차점을 강조하면서, 불교 여성들의 진화하는 역할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1. 불교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과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방식을 정의하고 분석한다.
2. 불교 여성 지도자 및 수행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문서화한다.
3. 불교 공동체 내에서 여성들의 완전한 평등과 리더십 역할의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장벽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규모 설문조사 방법론과 심층 인터뷰(음성 녹음) 및 관찰과 같은 질적 연구 기법을 활용하였다.² 데이터는 학문적 정확성과 함께 일관되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세심하게 기록되었고, 이러한 자료는 학자 및 불교 지도자들과의 자문을 통해 자료의 질을 높여, 통찰력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²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Interviews with Bhikkhuni Sanghamitra, Bhikkhuni Vijaya Maitrya, Prof. Ashalata Kamble, Dhammācharini Taranuvita, and Bhikkhuni Dechen.

본 연구는 브라만 전통으로부터 현대 불교 실천에 이르기까지 불교내에서의 여성 역할의 변화를 탐구한다. 사전 연구로 동료 심사(peer-reviewed)를 거친 논문과 서적들을 검토하였으며,³ 이를 통해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개혁 사이의 구체적 상호작용에 관한 문헌의 공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브라만 문헌은 여성의 초기의 두드러진 역할을 부각시키는 반면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제약 역시 함께 드러낸다. 초기 불교 시대는 『테리가타』와 비구니 승단의 설립을 통해 입증되듯이, 여성에게 상당한 사회·종교적 및 지적 평등을 제공하였다.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페미니즘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교단 내에서 여성들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전통과 개혁 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암베드카르 박사 (Dr. B. R. Ambedkar)가 힌두 법전 개정안(Hindu Code Bill) 작업에도 포함한, 여성 권리의 옹호는 사회 발전에 있어 여성 진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⁴

브라만 전통에서 현대 불교 실천에 이르기까지 여성 역할의 진화는 역동적인 역사 과정을 보여준다. 고대 문헌들은 고위층의 브라만 여성들이 교육, 정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지만, 베다(Vedic) 법은 또한 여성의 독립성과 이동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후기 베다 인도 시대 이후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는 사회·종교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역동적 변화를 현대 불교 전통과 연결시켜, 여성의 종교적 역할에 있어 역사적 유산과 현대 개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고대 불교 시대는 성평등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를 이루었으며, 여성들에게 상당한 사회·종교적 및 지적 위상을 부여하였다. 불교 경전은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부처의 가르침은 성차별을 거부하고 여성의 교육과 출가를 지지하였다. 팔리어 경전 중 핵심 문헌인 『테리가타』는 아라한 비구니들의 정신적 성취를 증언하며, 이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통해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준 끈기, 통찰, 헌신을 잘 드러낸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최초로 비구니 수계를 받고 비구니 승단이 형성된 것은 불교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이는 제도적 포용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신적 지도력에⁵ 대한 지지를 반영한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의 유산은 여성이 지성, 도덕성, 명상 수행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 내면서 가부장적 장벽을 극복하고 여권을 신장한 전환점을 상징하며, 포용성과 평등이라는 불교의 이상을 확인시켜준다.

페미니즘 담론은 여성의 역할을 재정의하며,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규범에 도전하였다. 역사적 그리고 현대적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들이 사회, 정치, 종교적 영역에서 권리, 존엄성, 평등을 위해 투쟁해 온 과정을 조명하였다. 불교 승단 내 주요 여성 인물들과의 교류는, 여성들의 근본적 역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지위와 주체성을 재확인 해야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전통과 개혁 사이의 역동적 긴장을 반영한다.

인도에서 암베드카르 박사는 여성 권리의 강력한 옹호자로서, 공동체의 발전은 여성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는 ‘법전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교육권 및 정치적 대표성(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의석 할당)에서의 성평등을 옹호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는 “나는

³ For example, P. Singh, *The Advent of Ambedkar in the Sphere of the Indian Women Question*. Brandeis University,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2020); Emma Tomalin, “The Thai Bhikkhuni Movement and Women’s Empowerment,” *Gender and Development: Working with Faith-Based Communities* 14:3 (2006): 385 - 397; and Karma Lekshe Tsomo, ed., *Eminent Buddhist Women* (Ithaca,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4).

⁴ N. Manikamma and A.G. Khan, *Dr. B. R. Ambedkar’s Contribution to the Hindu Code Bill*(2010).

⁵ Karma Lekshe Tsomo, “Buddhist Women in Leadership,” *Religious Leadership*, ed. Sharon Callaha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1), 302 - 308; and Karma Lekshe Tsomo, “Women as Leaders in Buddhism,” *Gender and Women’s Leadership: A Reference Handbook* (vol. 2), ed. Natalie Green and Karen O’Connor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0), 482 - 89.

남성과 함께 여성을 동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항상 남녀가 섞여 있습니다. 나는 여성들이 이룩한 발전 정도로 공동체의 발전을 측정합니다...”라고 말했다. 비구니 위자야와 현재 비구니 승가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젊은 여성들에게 사미니(sāmaneri)로 출가하여 불법(Dhamma) 공부에 깊이 몰두하라고 권하는데 있어 비구니 수계는 더 이상 근본적 장애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오히려 젊은 여성들이 이 길을 추구하려는 관심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무관심은 인도 내 비구니 승가의 열악한 여건—많은 비구니들이 적절한 거주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불교 공동체로부터 비구들과 유사한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양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그푸르(Nagpur)에서는 비구니 수니티와 비구니 위자야 마이프레이야가 고타미 마하파자파티 교육훈련센터(Gautami Maha Prajapati Education Training Centre)를 운영하며, 초심 출가자들을 울장 규범에 따라 교육하고, 경전(sutta)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은 주로 명상 수행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많은 신규 출가자들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비구니 승가 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5년간 수행 생활을 이어오다 최근에 비구니 수계를 받은 한 노령의 비구니는 현재 뭄바이 지역에서 유일한 비구니일 가능성이 있다. 그녀는 슬럼 지역의 작은 방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혼재하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음식 공양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년 전 태국을 방문하였지만, 제한된 교육 수준으로 인해 외국 비구니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녀는 젊고 교육받은 여성들이 승가에 출가하여 보다 나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인도 비구니들이 직면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에서 비구니 승가가 인도에 비해 훨씬 양호한 환경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비구 승가는 울장 규범을 존중하는 반면에 부처님이 확립한 성평등과 여성의 정신적 평등의 시급한 필요성을 종종 간과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태국과 같은 지역에서는 비구니 담마난다와 같은 지도자들의 주도로 비구니 승가의 부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인도에서는 단절된 불교 전통으로 인해 진전이 더딘 편이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점차 역량을 회복하고 있다. 비구니 수니티와 비구니 비자야 마이프레이야 같은 인물들은 울장에 기반한 성별 불평등에 도전하고 있다. 인도의 노령 비구니들도 승가 내에서 공감과 지구력을 갖춘 지도력의 중요성과 부처님 제시 시 이후로 제한된 비구 승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는 여성에게 평등한 교육과 정신적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니 수계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지속적으로 여성의 해탈의 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승가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영속화 하고 있다.

밧다 카필라니(Bhadda Kapilāni)는 비록 그녀가 처음으로 한 수계 요청이 사회문화적 제약과 불리한 시대적 여건 때문에 부처님에 의해 거절당했지만 비구니 수계를 위한 노력에 증대한 인물로 평가된다. 아지와까(Ajivaka) 교단과 함께한 그녀의 여정은 개인의 정신적 추구하고 공동체적 수용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왕비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와 500명의 샤키족 여성들의 집단 청원에 의해 비구니 승가가 마침내 부처님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집단적 주체성의 힘을 보여준다. 오늘날, 비구니 공동체는 여전히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마하파자파티 역사적 선례는 어떻게 연대의 힘이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포용성을 증장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학계의 담론은 비구니와 비구 승가, 그리고 불교 공동체 간에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들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존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니 승가가 인도에서 종종 주변화되어왔다. 현대 학자들은 불교 내 페미니즘 담론이 남성과 여성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비록 암베드카르 박사가 사회 개혁에 기념비적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불교 여성들—특히 암베드카르의 이념을 지지하는 암베드카리트(Ambedkarite) 불교 여성들—은 여전히 성별과 계급(caste)에 따른 복합적 차별과 싸우고 있다. 이는 그들의 삶에 내재된 심층적 교차성을 드러내며, 여권 신장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체계는 페미니즘 이론과 암베드카리트 사회 정의 원칙 두 가지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론

불교와 인도 사회 내에서의 성평등 및 여권 신장 추구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담론이다. 부처님과 암베드카르 박사와 같은 주요 인물들이 평등의 기본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규범과 사회문화적 편견의 지속적 영향은 꾸준한 학술적 탐구와 체계적 옹호를 필요로 한다. 페미니즘 해석학(feminist hermeneutics), 암베드카리트 사회 정의 체계, 그리고 불교 철학적 교리를 통합하는 비판적이고 학문 상호 교류적 접근이 구조적 불평등을 해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권 신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순히 사회 정의 실현을 넘어, 불교 실천과 사회적 진보의 총체적 향상을 위해 필연적이다. 역사적으로 인도 및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에서는 비구니 수계의 계보가 단절되었으며, 이러한 단절은 복원을 위한 정통성에 대한 논쟁을 이끌어 내었다. 이 계보를 재건하려는 노력은 율장의 전통적 해석과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스리랑카의 비구니들이 종종 제한된 재정적 지원과 보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불교 공동체가 비구를 지원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 여성 출가자들(비구니들)은 일상생활과 승가 활동을 하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전적, 제도적, 그리고 문화적 규범은 역사적으로 비구니를 비구에 종속된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현대 청년층은 비구니 승가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언론, 교육 자료, 지역 사회 활동에서 비구니들의 제한된 가시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여성들 사이에서 출가의 삶에 대한 관심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 성평등을 증진하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세션 6B 『불교 여성 핸드북』 원탁토론

1

Roundtable: 『The Handbook on Buddhist Women』

엠마 토말린(Emma Tomalin) - 좌장

셰린 서(Sharon Suh)

조은수(Eunsu Cho)

사라 제이커비(Sarah Jacoby)

에이미 랭겐버그(Amy Langenberg)

다시 프라이스 월러스(Darcie Price-Wallace)

『불교 여성 핸드북(The Handbook of Women and Buddhism)』은 2026년 Bloomsbury에서 출판될 예정이며, 불교에서 여성의 다양한 역할, 경험, 그리고 재현을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이슈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선구적인 연구이다.

총 40개 챕터로 구성된 이 핸드북은 탈식민주의(decolonial) 및 교차성(intersectional) 관점을 통해 불교 여성들이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시키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학자들과 역사적으로 주변화된 불교 여성 간의 공동 연구 대화를 통합하여,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풍부하게 반영한다.

핸드북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 개인 서사와 대화를 통해 다양한 불교 여성의 관점을 조명하는 첫 번째 섹션.
2. 방법론, 이론, 주요 논쟁을 다루는 비판적 논문으로 구성된 두 번째 섹션.
3. 리더십, 출가, 사회운동, 젠더 정체성 등의 핵심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마지막 섹션.

본 연구는 불교학의 기존 지식 체계(epistemology)에 도전하며, 식민주의적 유산의 해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페미니즘 이론 및 인종 연구의 통찰을 통합한다.

핸드북은 다문화적·학제적 연구자 그룹을 통해 불교 여성의 삶과 경험을 다층적으로 조명하며, 불교학, 젠더 연구, 사회학, 탈식민주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 수행자,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사라 하딩(Sarah Harding)

(s.harding@comcast.net)

[번역: 민우스님]

번역학은 이제 학문 및 문학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고 최근 불교 경전 번역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이론과 실천을 다루는 학술회의와 출판물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번역가들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여성 번역가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첫째, 번역가는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간주되며 쉽게 무시된다. 둘째, 여성 역시 사회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는다.

불교 경전의 최초 외국어 번역은 부처님 생존 당시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나, Jan Nattier 는 "중국 불교 역사에서 여성 번역가가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혹시 그들은 단순히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교 번역에 헌신한 여성들을 기리고, 그들이 겪은 가시성의 문제(인정 부족, 지위, 보상 부재 등)를 탐색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번역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을 검토한다.

- 불법(Dharma)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익명이어야 한다는 인식
- 영적 개념과 실천은 번역될 수 없거나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신성한 비번역성")
- 성별화된 목소리 문제, 남성이 여성의 작업을 주장하는 문제, 여성 작가의 번역 및 그 반대
- 문화적·종교적 수용 또는 '추출주의(extractionism)' 문제
- 여성 구술 통역사들이 불교 국가의 특권적 종교 가부장제에 직면하는 현실*

불법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제도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이는 일부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이 없는 인공지능(AI)의 우수한 번역 기능이 인간 번역을 완전히 대체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서문

나는 불교계 여성 번역가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사전조사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티베트어-영어 통번역사로 활동해온 나의 경험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약간의 지식을 보태어 논고를 쓰고자 한다. 번역과 통역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1. 번역으로 잃는 것

번역가들은 대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 누구나 번역된 책을 읽지만 번역가의 이름을 살펴보거나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리스어로 된 오디세이를 누가 번역했으며, 바빌로니아어로 쓰여진 길가메시 서사시는 누가 옮겼을까? 바가바드기타와 주역은 어떠한가? 현대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인 성경조차도 제임스 왕이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번역가는 오랫동안 잊혀져 왔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작가도 아니고, 문학가도 아닌 그저 보잘것없는 중간자일 뿐인 것이다. 하지만 번역가의 중요성을 보면 이렇게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번역 연구는 최근에서야 개별적인 학문으로 인정받았다.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잡은 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고, 불교학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나는 차드라 재단의 지원으로 티베트 문헌을 번역하는데 이 재단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번역 학회를 개최했다. 그 안에서 다뤄진 지식과 새로운 발견들은 여기에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런데 번역학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는 직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번역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번역에서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번역인가? 단어 한 자 한 자 충실히 옮기는 것이 번역인가? 하지만 그런 번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에게 충실하다는 말인가? 우리 번역가들은 원작품의 의도를 추측해만 할까? 작가는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할까? 똑같이 베껴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 많은 비평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번역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없고, 어쩌면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을지 모른다.

역사 속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번역가들 중에서도 학자이자 번역가로 활동한 여성들이 가장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의 선택일 수도 있다. 여기서 짧은 서론을 마무리하며 좀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은 1943년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어린 왕자』인데, 캐서린 우드 (Katherine Woods) 라는 여류 번역가의 작품이다.

◦ 불교 번역

이 경우 먼저 경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원전의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잔 나티어(Jan Nattier)는 이렇게 말했다.

원전을 기원전 5세기경 부처님께서 마가다어로 직접 설하신 법문으로만 제한한다면 원전은 영원히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들이 문자로 보존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데, 불교의 발달 과정속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로 전해진 불교의 가르침들이 방대한 사진첩처럼 모여 있는 것이다.¹

부처님은 빠알리어, 아파브람샤어, 산스크리트어, 혼합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신 적이 없다. 이는 논고와는 다른 주제라 여기서 멈추겠다.

경전 번역의 오랜 역사동안 여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한문번역이 2세기 중반에 시작되었지만 중국 불교 역사를 통틀어 확인되는 여성 번역가는 단 한 명도 없다.² 아시아 여러 지역의 불자들은 한문 경전을 그대로 독송한다. 내가 한국인 비구니 스님에게 한문 경전 번역에 참여하는 여성들에 대해 물은 적이 있는데 비구니끼리 소그룹으로 모여 번역할 뿐 이름을 남기지

¹ Nattier, Jan. “A Guide to the Earliest Chinese Buddhist Translations.”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ism, Soka University, Tokyo (2008), at p. 24.

² From Nattier’s key-note speech, Lotsawa Translation Workshop Series, UC, Boulder (2018). *But see A Guide to the Earliest Chinese Buddhist Translations.*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자기를 너무 내세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후 번역문은 비구들이 최종 교정을 거쳐 심사한 뒤 대중에 배포되었다.

19 세기와 20 세기에 이와 같은 불문율을 깨고 두 명의 여성 번역가가 두각을 나타냈는데 빠알리 경전협회 소속이었다. 1900 년 캐롤라인 리스 데이비스(Caroline Rhys Davids 1857-1942)는 『담마상가니(Dhammasaṅgāṇī)』를 『불교 심리윤리학 입문서(A Buddhist Manual of Psychological Ethics)』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했다.³ 1909 년에는 초기불교 비구니들의 계송인 『테리가타(Therīgāthā)』를 최초로 번역하여 『비구니들의 찬가(Psalms of the Sisters)』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가장 최근 번역본은 2021 년 매티 와인가스트(Matty Weingast)가 『최초의 자유로운 여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는데, 과연 번역이라 부를 수 있는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도대체 번역이란 무엇인가?)

I.B. 호너(I.B. Horner, 1896-1981)는 1959 년부터 1981 년까지 빠알리 성전 협회의 회장이었으며 빠알리 경전에 전문한 학자이자 번역가로 활동했다. 1930 년에 『원시 불교 여성들(Women Under Primitive Buddhism)』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서문에 불교 경전 번역의 순수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비구들이 경전을 번역할 때 부처님의 본의를 자신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원래 뜻을 왜곡했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경전은 비구들의 손에 의해 여러 판본으로 바뀌고, 다양한 주석이 붙고, 여러 수정을 거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원본의 내용과 후대에 덧붙인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부처님께서 생각하고, 말씀하고, 행했던 일들이 삭제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비구들의 영향을 고려하면 왜곡된 부분들이 이해되고 바로잡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재가자보다는 출가자에게,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우호적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⁴

◦ 티베트어 번역

인도 경전을 티베트어 또는 티베트 토착 서면어로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경전들은 7 세기부터 티베트어로 번역되기 시작해 거의 900 년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이 번역 사업으로 탄생한 티베트 대장경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 교류의 결과로 뽑힌다. 불교가 티베트에 수용되는 과정은 크게 두 번으로 나뉘는데 이는 번역 언어에서도 잘 드러나 전기 번역과 후기 번역으로 분류된다. 전기 번역 경전들은 깡규르(Kangyur 부처님의 말씀), 후기 번역 경전들은 덴규르(Tengyu 논서의)로 불린다. 당시 번역가들은 로짜와(lotsāwa)라고 불렸으며 탁월한 지식과 언어 능력으로 매우 존경받았다. 티베트 대장경에 담긴 5,262 개의 문헌 거의 전부에 티베트어 번역가, 그리고 함께 작업한 인도 학생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불경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적어도 여성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자 표기를 중시해 온 이러한 학문적 전통은 안타깝게도 현대 번역 관행에 제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단순한 무지 또는 잘못된 충성, 왜곡된 겸손 등의 이유로 번역자의 이름을 생략하는 경우가

³ The full title was: *A Buddhist manual of psychological ethics Being a translation, now made for the first time, from the original Pāli, of the first book in the Abhidhamma Piṭaka, entitled: Dhamma-saṅgaṇī (Compendium of States or Phenomena)*. Royal Asiatic Society, 1900.

⁴ I.B. Horner, *Women Under Primitive Buddhism: Laywomen and Almswomen*. Delhi: Motilal Banarsidas, 1930/1975, Introduction, pp. xx-xxi.

많았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는 전통에 대한 모욕이며 번역의 진위를 가리고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티베트인들은 대장경에 더해 불교 교리, 주석, 의례, 시학, 불교의식, 위인의 전기, 밀교에 관한 문헌들을 꾸준히 저작해 왔다. 이는 세계 각국에 망명한 티베트 스승들을 만날 수 있었던 나를 포함한 동시대 불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아직 그 수는 적지만 번역을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나는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가르침을 썼던 티베트 역사 속의 여성들에 대한 글을 번역한 적이 있다. 신화로나마 남아있는 이들의 이야기는 비구들의 지배권 아래 천년의 세월이 흐른 후 역사적 기록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다. 세라 칸드로(Sera Khandro 1892-1940)와 같이 좀더 최근에 성인으로 인정받는 여성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 업적들이 글로 남겨졌고, 번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⁵

티베트 여성 연구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인 계기는 티베트 동부의 라룽가르 사원(Larung Gar Monastery)의 여성 출가자들이 티베트 여성 수행자들의 글을 모아 선집으로 엮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여러 해 동안의 노력으로 2017년 『다키니 대법보전(Dākinis Great Dharma Treasury)』 53권이 마침내 출판되었다.⁶ 이제 이 책들을 번역하고 자금을 지원할 일이 남았다. 과연 누가 나설 것인가?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자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

2. 번역가는 배신자

통역가라는 임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매우 힘든 일이다. 체력적으로 소모적일 뿐 아니라 훌륭하고 허점없는 스승의 말을 통역할 때는 특히 공로를 인정받기보다는 반드시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속담 “traduttore, traditore”는 번역가는 배신자라는 뜻이다. 이탈리아어로 듣는 것이 한결 운율이 사는 것 같다. 대개 통역사들에게는 대단한 힘이 쥐어진다. 국제 관계나 종군 기자, 전문 매뉴얼, 유엔의 숨은 통역사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귀로 듣고 있는 통역사들이 좋은 예이다. 불교 통역사들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이 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존재감마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역을 듣는 청중들은 통역이라는 매개없이 연사가 하는 말의 뜻과 의도를 직접 정확히 듣고 있다고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티베트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동기는 통역사의 도움없이 나의 스승인 고(故) 칼루 린포체와 직접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정확한 통역이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섬세한 외교 통역에서 화가 나거나, 무례한 사람을 통역해야 한다면 반드시 상황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또는 스승이 잘못된 말을 했다면 통역자는 정정해서 말을 전해야 할지 아니면 구전의 전통을 믿고 그대로 통역할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반대로 연사가 말한 그대로 통역을 한다면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일 때 통역자는 이치에 닿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여 전달해야 한다. 통역사의 이런 다문화적 복합성은 엄청나고도 완수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나는 수도 없이 판단을 내려야 했다. 나는 연사의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주로 1인칭 시점으로 통역을 한다. 한번은 큰 스승이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에 대해 늘어 놓았는데 나는 “내가”라는 말을 입밖으로 내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린포체께서...말씀하셨습니다.”고 번복해야 했다. 그럴 때는 정말 사라지고 싶다. 이것을 두고

⁵ There are four volumes authored by Sera Khandro Kunzang Dekyong Wangmo. See translations by Sarah H. Jacoby, Ngawang Zangpo, and on the Lotsawa House website.

⁶ *Mkha' 'gro'i chos mdzod chen mo*, published by *Bla rung ārya tāre'i dpe tshogs rtsom sgrig khang*, 2017.

문화적 반응이나 성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남성 통역사라면 이런 자랑도 더 쉽게, 충실하게 옮길 수 있었을까?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통역사 일을 맡고 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되고 따라서 기회가 더 열려 있다. 통역사의 삶이란 많은 출장과 낮은 보수(육아지원은 말할 것도 없이)를 수반하며 연사가 어떤 주제를 꺼내더라도 통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이 잘되면 스승이 훌륭하기 때문이고 잘못되면 사신을 처단하는 식이다. 여성 통역자들에게는 훨씬 더 민망한 장면이 연출된다. 비단으로 장식된 높은 법좌에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스승 아래 조그만 여자가 바닥에 앉아 미친듯이 받아 적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많은 여성들이 통번역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통을 돕고자 하는 열망 때문인가? 위대한 스승을 가까이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게 뒤에 숨는 것이 편하기 때문일까? 나는 더 많은 여성 통번역사가 배출되기를 희망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주의사항에 덧붙여 두 가지 경고를 전하고 싶다. 첫째는 인공지능이 머지않아 이 일을 더 잘 해낼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티베트어의 경우 티베트의 젊은 세대들은 서구 사회가 티베트 문화를 식민지화하려는 시도로 번역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티베트 스승들이 해왔던 일들에 염증을 느낀다. 다수의 티베트인들, 특히 여성들이 불교 관련은 아니지만 훌륭한 작가나 번역사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세션 7 야쇼다라를 추적하며: 불교 문헌 속 그녀의 정체성의 전개

2

Tracing Yaśodharā: Unfolding Her Identity in Buddhist Literature

아룬 쿠마르 야다브 박사 (Dr. Arun Kumar Yadav)

(kumararun@bhu.ac.in)

[번역: 김은희(샤카디타 코리아)]

야쇼다라(Yaśodharā)는 싯다르타 왕자(Prince Siddhārtha)의 아내이자 라훌라(Rāhula)의 어머니로서 불교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종 간과된다. 그녀의 이름은 명예와 헌신을 상징하며, 불교 경전, 전통,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왔다.

본 연구는 팔리(Pāli), 산스크리트(Sanskrit), 기타 불교 문헌에서 야쇼다라의 이름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분석하며, 사회적·역사적 요인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탐구한다.

연구는 이름의 변화 과정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조사하며, 이름이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불교 사상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불교의 구전 전승,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 중국어 및 티베트어와 같은 언어로의 번역이 야쇼다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불교 경전, 주석서, 비문을 분석함으로써, 그녀의 이름이 종교, 언어,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조명한다.

야쇼다라의 이름이 시간과 전통을 거쳐 변화한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그녀의 불교 경전 내 존재를 밝히고, 불교 역사 및 문화적 기억에서의 역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불교 문헌은 부처와 관련된 철학적 주제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들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도 제공한다. 그들 가운데, 싯다르타 고타마(Siddhartha Gautama)의 아내인 야쇼다라(Yaśodharā, 팔리어: 야소다라(Yasodharā))는 특히 흥미로운 인물로 묘사된다. 불교 문헌에 나타난 야쇼다라의 인물상은 다채롭고 변화무쌍하게 전개된다. 그녀의 전기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부여된 다양한 이름들 속에서도 이러한 묘사가 드러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처님의 아내에게 불교 문헌에서 사용된 다양한 명칭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야쇼다라는 불교 문헌에서 헌신적인 아내, 어머니, 그리고 비구니(比丘尼)로 묘사된다. 연구자들은 그녀를 싯다르타의 아내로 존경하지만, 일부는 그녀가 겪은 초기 생애의 고난에 연민을 표하며 부처님의 출가를 비판하기도 한다. 부처님의 출가와 그로 인한 깨달음은 야쇼다라를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바로 그 출가는 당시 그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문헌과 예술은 이러한 감정적 동요를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에 귀환한 장면에서는 야쇼다라가 의도적으로 싯다르타를 만나지 않고, 대신 아들 라훌라(Rāhula)에게 정당한 유산을 요구하도록 독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싯다르타를 속세의 삶으로 다시 이끌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여러 경전에서는 야쇼다라를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별 문화적, 종교적, 문학적 변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팔리어 삼장(三藏, Tipitaka)과 아타카타(Atthakathā), 불교 산스크리트 문헌, 고전 산스크리트 문헌 및 후기 문헌들에서 그녀의 이름이 연대기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이 이름들에 대한 이해는 야쇼다라의 삶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사회-종교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불교 문헌 속의 야쇼다라

전통적으로, 팔리어 삼장은 가장 오래된 불교 문헌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안에 수록된 정보는 상대적으로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되었을 수 있다. 팔리어 삼장에서 싯다르타의 아내는 주로 라훌라마타(羅睺羅母, Rāhulamātā), 밧다깟짜나(Bhaddakaccānā), 빔바(Bimbā), 야쇼다라로 지칭된다. 이 이름들은 그녀의 고귀한 혈통과 타고난 자질을 반영한다. 아래에서 각각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분석한다.

라훌라마타(Rāhulamātā)

팔리어 삼장에서 싯다르타의 아내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라훌라마타, 즉 "라훌라의 어머니"이다. 이 용어는 율장(律藏, Vinaya Piṭaka)의 라훌라왓투(Rāhulavattu)에 등장한다. 그러나 이 명칭은 불교 산스크리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전통에 따르면, 라훌라는 싯다르타의 출가 당일에 태어났다고 하며, 일부 자료에서는 그보다 일주일 일찍 태어났다고 전한다. 그러나 일부 불교 산스크리트 문헌의 중국어 번역에서는 라훌라가 싯다르타의 출가 후 수년이 지나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야쇼다라는 비난과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 이 문제는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후 카필라바스투에 처음 돌아왔을 때 해결되었으며, 그는 라훌라가 자신의 아들임을 밝히고, 특정한 이유로 자궁 안에 오래 머물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간다라(Gandhāra) 예술에서도 나타나는데, 신생아 라훌라가 야쇼다라 곁에서 자는 모습은 결코 묘사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이야기의 내용이 간다라 예술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어느 설명이 진실에 가까운가? 팔리어 삼장인가, 아니면 불교 산스크리트 문헌과 그 번역들인가? 다양한 자료를 고찰해 보면, 불교 산스크리트 문헌과 간다라 예술은 기원전 1세기경에 나타나는 반면, 팔리어 문헌은 그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팔리어 문헌에 후대 삽입이 있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최소한 기원전 3세기까지는 그 내용이 존재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는 아소카 대왕(阿育王)의 소암각문(小巖刻文, Minor Rock Inscription)- 에 나타나는 『라훌로와다 수따(Lāhulovāda Sutta)』이다. 이는 팔리어의 『라훌로와다 수따(Rāhulovāda Sutta)』에 해당하며, 팔리어 경장에 수록된 문헌과 일치한다. 이는 라훌라가 이미 일곱살이었고 이름이 이미 아소카 이전부터 널리 알려졌음을 보여준다. 만일 기원전 3세기의 비문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면, 이는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뜻이다.

싯다르타가 자신의 아들을 라훌라(Rāhula)라고 이름 지었다는 전승에는, 이를 라후(Rahu, 장애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 일정한 신빙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팔리어 주석서(Atthakathā)에만 나타나며, 후대의 첨가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불교 산스크리트 문헌이나 간다라 미술에 라훌라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들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는 또한 이러한 후대 전통들이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특정 종파적 관점을 강조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 및 문헌학적 측면을 분석한 후, 이제는 '라훌라마타(Rāhulamātā)'라는 명칭의 실용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명칭은 그녀가 라훌라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임이 명백하다.

심리적·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인도 전통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자녀의 이름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관습이 있어 왔다. 이 관습은 사회적 관습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특히 북인도의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 전통의 영향을 받은 도시 지역에서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많은

가정에서 장남이나 장녀의 어머니를 가족 어른들—심지어 아버지까지도—자녀의 이름에 ‘마타(mātā, 어머니)’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르는 일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삼장(Tripitaka)의 편찬자들이 싯다르타의 아내를 직접적인 이름 대신 ‘라홀라마타’로 지칭한 것은 예우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라홀라마타’가 불교 전통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그리고 가장 정통성 있는 명칭 중 하나였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명칭이 그녀의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보다 실용적이고 구어적인 표현이었다는 점이다.

밧다꺄짜나(Bhaddakaccānā)

이 이름은 팔리어 삼장에서 싯다르타의 아내로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다. 불교 문헌은 그녀를 위대한 통찰을 얻은 자로 묘사하며, 그녀의 길상스러운(吉祥) 성품을 강조한다.

『앙굿따라니까야(Aṅguttara Nikāya)』의 *아타카타(주석서, Aṭṭhakathā)*에 따르면, 저명한 불교 학자 붓다고사(佛陀瞿沙, Buddhaghosa)는 그녀가 부처님 당시 솥빠붓다(Suppabuddha)의 집에서 태어나 밧다꺄짜나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전한다. 또한 이 주석서는 그녀가 라홀라의 어머니임을 명시하고 있다.

밧다꺄짜나라는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밧다(Bhadda, भद्र)’는 ‘길상(吉祥)’, ‘고귀함’을 뜻하며, ‘꺄짜나(Kaccāna, कक्कनि)’는 바라문(Brahmin) 계급의 고트라(gotra, 씨족 또는 문중)를 가리킨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크샤트리아(Kṣatriya, 戰士) 계급 출신임에도 왜 바라문 계통의 고티라를 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전통의 발달과 변천 과정을 고려할 때, 밧다꺄짜나는 싯다르타의 아내에게 사용된 가장 초기 명칭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밧다꺄짜(Bhaddakaccā)가 팔리어 문헌에서도 발견되며, 일부 불교 문헌에서는 수밧다까(Subhaddakā)라는 명칭도 확인되는데, 이는 밧다꺄짜나의 변형으로 보인다. 음운적으로 유사성이 높으므로 이 명칭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불교 문헌 내에서 그녀의 정체성이 역사적 또는 언어적으로 진화해왔음을 암시한다.

빔바(Bimbā)

싯다르타의 아내로서 팔리어 삼장에서 세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빔바이다. 불교 문헌에서 빔바는 ‘반영’ 또는 ‘형상’을 의미하며,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상징한다. 후대 불교 문헌은 그녀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빔바는 훌륭한 여인의 자질(itthiratanabhāva)을 지닌 자를 의미하며, 인간계 모든 여성 중에서도 뛰어난 존재로 간주된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형상(bimba)의 구현이므로, 빔바라 불린다.”

『디가니 까야(Dīgha Nikāya)』의 *아타카타(Aṭṭhakathā)*는 빔바가 라홀라의 어머니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아, 밧다꺄짜나와 빔바는 모두 라홀라의 어머니로서 불교 문헌에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불교 주석서들이 빔바를 라홀라의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팔리어 삼장 본문에는 빔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이름이 불교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영향을 받아 후대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음운적으로 매우 유사한 이름인 빔바사운다리(Bimbāsundarī)가 팔리어 주석서에서 발견되며, 이는 빔바라는 이름의 변형이거나 확장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로 미루어 보아, 빔바는 시간이 흐르며 진화하거나 적응된 명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야쇼다라(Yasodharā)

야쇼다라를 추적하며: 불교 문헌 속 그녀의 정체성의 전개 (아룬 쿠마르 야다브)

팔리어와 기타 불교 문헌에서 싯다르타의 아내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수용된 이름은 야쇼다라이다. 이는 ‘영광을 지닌 자’를 의미하며, 그녀의 고귀한 신분과 싯다르타 왕족 계보의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한다. 그녀의 이름에서 자주 강조되는 점은 그녀의 존엄성과 남편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야쇼다라라는 이름이 팔리어 삼장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진정성(authenticity)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사실이다. 이 이름은 『아파다나(Apadāna)』에 몇 차례 등장할 뿐이며, 계율과 전기적 성격이 강한 『테리가타(Therigāthā)』—깨달은 비구니들이 지은 시들을 모은 문헌—에는 야쇼다라와 밧다깟짜나 모두 언급되지 않는다. 테리가타는 여성 수행자들의 감정과 수행 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속에 야쇼다라와 밧다깟짜나의 부재는 실로 의미심장하다.

그 외 대부분의 팔리어 문헌에서는 라홀라마타와 밧다깟짜나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많은 학자들은 아파다나를 후기 문헌으로 간주하며, 일부 내용은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는 야쇼다라라는 이름이 후대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에서 먼저 확산된 후, 팔리어 문헌에 제한적으로 역수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을 살펴보면, 야쇼다라(Yāśodharā)라는 이름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몇 세기 사이에 성립된 『마하와스투(Mahāvastu)』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후 이 이름은 11세기에서 12세기까지 네팔에서 계속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다양한 불교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볼 때, 야쇼다라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에서 처음 도입되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이름은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제한적으로나마 팔리어 문헌에도 채택되었으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야쇼다라의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불교 문헌마다 서로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팔리어 문헌에서는 그녀를 수뿌붓다(Suppabuddha, 산스크리트어: 수프라붓다 Suprabuddha)의 딸로 명시하고 있으며, 『마하와스투』에서는 대신 그녀가 대신관(아마티야, amātya) 마하나마(Mahānāma)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랄리타비스타라(Lalitavistara)』에서는 그녀의 가계를 단다파니(Daṇḍapāṇi)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녀의 출생에 대해 문헌 전통 간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고파(Gopā)

불교 문헌, 특히 『랄리타비스타라』에서 고파라는 이름은 싯다르타의 아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이후의 문헌에서는 그 빈도가 낮아진다. ‘소의 수호자’를 뜻하는 이 이름은 농업적 번영과 양육의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여성을 양육과 돌봄과 연결하는 인도 전통을 반영한다. 그러나 불교 문헌에서 이 이름이 사용된 정확한 이유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소를 기르는 것이 당시 중요한 생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맥락에서 이 이름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밧다라(Subhadra)

이 이름은 후대의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며, 길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자비와 아름다움 같은 이상적 덕성과 그녀의 고귀하고 우아한 성품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일부 불교 문헌에서는 이 이름과 매우 유사한 수밧다카(Subhaddakā)라는 이름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 모든 이름들을 문헌의 연대 순서에 따라 분석해보면, 팔리어 삼장(Tipitaka) 문헌이 이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문헌에는 라홀라마타, 밧다깃차나, 빔바, 야쇼다라라는 이름이 언급된다. 이 네 이름 중에서는 라홀라마타와 밧다깃차나가 가장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라홀라마타는 고유명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문맥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

주목할 점은, 초기 팔리어 문헌 어디에서도 야쇼다라가 라홀라의 어머니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빔바와 밧다칫차나는 라홀라의 어머니로 직접 지목되어 있다. 삼장의 최종 편찬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라홀라라는 이름이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주석 문헌인 『아타카타(Atthakathā)』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라홀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어머니로 빔바와 밧다칫차나를 연결시킨다. 그러나 『아파다나 아타카타(Apadāna Atthakathā)』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팔리어 아타카타도 야쇼다라를 라홀라의 어머니로 언급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야쇼다라테리 아파다나(Yasodharātherīapadānam)*라는 『아파다나(Apadāna)』 본문에서 야쇼다라라는 이름이 사용되지만, 빔바나 밧다칫차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석서인 아타카타도 마찬가지이며, 야쇼다라라는 이름이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에서의 인기로 인해 팔리어 삼장 문헌에 후대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또 다른 의심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빔바와 밧다칫차나는 붓다고사가 저술한 여러 아타카타에서 언급되며, 붓다고사의 저작 시기는 대체로 기원후 4세기에서 5세기 이후로 보지만, 그는 야쇼다라를 싯다르타의 아내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붓다고사가 야쇼다라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로 그의 아타카타들 속에서 야쇼다라라는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은 싯다르타의 아내를 지칭하는 맥락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의문이 제기된다. 붓다고사는 자신의 주석서에서 동일한 인물을 지칭할 때 밧다칫차나와 빔바/빔바순다리를 사용하면서도 왜 야쇼다라는 사용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그는 팔리어 전통과 산스크리트 불교 전통을 구분하려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그는 왜 빔바 또는 빔바순다리를 사용한 것인가? 또한 왜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에서는 밧다칫차나라는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는 여전히 더 생각할 문제로 남아 있다.

한편 『아파다나 아타카타(Apadāna Atthakathā)』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주석서는 7세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야쇼다라라는 이름이 매우 널리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아파다나』의 주석자가 이를 삽입했을 수 있다. 『아파다나』 본문은 삼장(Tiṭṭhaka)에 포함되어 있으며, 후대에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 이름 또한 그 과정에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

앞서 언급된 이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싯다르타의 아내의 실제 이름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불확실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라홀라마타, 밧다칫차나, 빔바, 빔바순다리, 야쇼다라, 수밧다라등 다양한 이름이 불교 문헌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문헌 전통의 연대 순서를 고려할 때, *밧다칫차나*가 가장 오래된 이름이자 실제 이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정통성 있는 이름으로 보인다. 이는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아 점차 잊혀졌으며, 그 대신 야쇼다라라는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된 결과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야쇼다라가 싯다르타의 아내를 지칭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참고문헌

Primary Texts:

- Abhidhānappadīpikā*,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Anguttara Nikāya Atthakathā-I,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Anguttara Nikāya-I,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Apadāna II,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야쇼다라를 추적하며: 불교 문헌 속 그녀의 정체성의 전개 (아룬 쿠마르 야다브)

Apadāna-Atthakathā II,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Dīghanikāya Atthakathā II,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Dīghanikāyaṭīkā (Mahāvaggaṭīkā) II,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Jātaka Atthakathā II,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Jātaka Atthakathā VI,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Jātaka Atthakathā -I,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Lalitavistara, (Boudh Sanskrit Granthāvali-I), Dr. P. L. Vaidya, Mithila Research Institute, Darbhanga, 1958.
Mahāvagga,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Mahāvastu Avadāna-II, Radhamohana Basak, Sanskrit College, Kolkata, 1965.
Majjhima Nikāya Atthakathā III, Vipassanā Research Institute (Sixth Saṅgāyana CD-Rom), Igatpuri, 1998.

Secondary Sources:

E. Hultzsch, *Corpus Inscriptionum Indicarum Vol. I (Inscriptions of Asoka)*, Clarendon Press, Oxford, 1925.
G. P. Malalasekera, *Dictionary of Pali Proper Names II*,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London, 1938.
H. Kern, *Manual of Indian Buddhism*, E.J. Brill, 1896.
Oskar von Hinüber, *A Handbook of Pali Literature*,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1996.

세션 7 **네팔 만달라 불교에서 여신(女神)들의 역할**
3 The Role of Female Deities in Shaping Nepal Maṇḍala Buddhist Traditions

우르술라 마난다르(Ursula Manandhar)

(ursu.mila19@gmail.com)

[번역: 민우 스님]

네팔의 여성 신들은 대승불교와 밀교(Vajrayana) 전통에서 유래하였으며, 탄트라, 수트라, 의례 등에 포함되어 있다. 불교 신들의 인격적 형상은 1 세기 쿠산(Kushan) 제국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네팔의 예술가, 사제, 학자들은 불교 예술의 지적 토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날란다(Nalanda), 탁샤실라(Takshashila), 비크람실라(Vikramshila)와 같은 기관의 방법론을 통합하였다.

예술품, 이상, 상징 창조의 주요 초점은 철학, 윤리, 명상 기법, 교리 연구였다. 여성 신의 가장 오래된 표현 중 하나는 완전한 지혜(Prajnaparamita)의 구현이다.

밀교 수트라에는 바즈라요기니(Vajrayogini), 타라(Tara), 판차 락샤(Pancha Rakshya), 우슈니샤비자야(Ushnishavijaya), 바수다라(Vasudhara) 등의 다양한 여성 신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Niṣpannayogāvalī, Hevajra Tantra, Guhyasamāja Tantra, Sādhnamālā 등의 문헌에서 언급된다.

대성취자(Mahasiddhas), 보살(Bodhisattvas), 아차르야(Acharyas)들은 여성 신을 시각화 기법으로 개념화하였다.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Kumari)는 바즈라데비(Vajradevi)의 구현으로, 궁극적 지혜를 나타낸다.

또한, 모성 보호 신(Ajima) 개념은 이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네팔의 현대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여성 신들의 본질은 자애로운 신들(타라, 바수다라, 프라즈나파라미타)과 강렬한 신들(바즈라요기니, 나이라트미야, 판차 락샤)로 나뉘며, 이는 네팔을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불교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 신들을 경배하고, 시각화하며, 명상함으로써, 네팔 만다라(Nepal Mandala)를 가장 오래된 성지 중 하나로 확립하고, 그들의 고유한 기운이 깃들도록 하고 있다.

배경

오늘날 네팔 만달라¹에서 예경하는 여신들은 누구이고, 기원은 무엇이며, 어떤 서사로 묘사되고 있을까? 이들은 실제하는 신적 존재인가? 아니면 상징적 표현에 불과한가? 빠알리 경전에서는 여성을 신급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대승과 금강승에서는 여신이 경전과 탄트라 수행, 의례의 중심에 있다. 불교의 신들은 1 세기 쿠산 제국에서부터 인격화되었으며, 날란다, 탁샤실라, 비크라마실라와 같은 교육 기관들의 지성인들이 동참하면서 더욱 발전했다. 이후, 네팔의 학자, 승려, 예술가들은 이 전통을 자신들만의 예술적·의례적 표현으로 변용하고 가다듬었고 히말라야 지역 불교의 예술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르게 된다.

¹ (역주) 카트만두와 주변 지역을 이르는 옛 지명

네팔 만달라의 기원

네팔의 고대 지명은 네팔 만달라이다. 이는 네팔의 중심부와 그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오늘날 현대 네팔 국경과 대체로 일치한다. 네팔은 분리된 영토를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었다. 네팔 만달라는 두 개의 정부 체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수도를 통제하는 중앙정부와 여러 주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이다. 현대에 들어 만달라라는 말은 주로 국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불교와 힌두교 시바파 모두에서 만달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쓰인다. 특히 대승과 금강승에서 만달라는 불교 수행의 다양한 측면을 상징한다. 금강승에서는 지구를 하나의 만달라로 상상하는데 가운데 수메산이 있고 각 방위에 네 개의 대륙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팔 만달라는 이 성스러운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네팔 만달라의 신성함은 『스와얌부 푸라나(Svayambhū Purāṇa)』²라는 네팔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경전에 따르면 비바시불이 나가르하다 호수(Lake Nāgarhadā)에 온 적이 있었는데 호수에 연꽃 씨앗을 던졌더니 이 씨앗이 천 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연꽃 위에 본초불이 나타났다.

무아의 지혜를 상징하는 나이랏마 데비(Nairātmya Devī, 네팔어: Guhyeśvari)도 연꽃 뿌리에서 등장한다. 나이랏마는 수호신인 귀자모(鬼子母)와 더불어 금강승에서 중심적인 존재이다. 이 신화들은 지혜, 보호, 깨달음을 구현하는 여신들을 중심으로 모계 사회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반야바라밀다(Prajñāpāramitā): 완전한 지혜의 구현

반야바라밀다는 반야(Prajñā, 지혜)와 바라밀다(Pāramitā, 완성)의 합성어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불린다. 네와르어³로는 붓다 마타(Buddha Mātā)라고 한다. 이는 문자 그대로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탄생하는 근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다 경』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지혜가 깨달음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팔천송반야경』 등의 채색 사본은 신앙의 대상이자 교화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본들은 반야바라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며 특히 리차비 왕조시대에 예경이 극진했다.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십만송반야경』은 현재 네팔 만달라의 바그완 바할(Bhagwan Bahal) 사원에 보존되어 있는데 문수보살이 일부 직접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네팔 불교 미술에서 반야바라밀은 고요하고 위엄있게 묘사된다. 주로 좌선에 든 모습이나 한 손에는 청정을 상징하는 연꽃과 다른 손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경전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도상은 반야바라밀의 수행상의 의미와 공사상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궁극의 지혜의 관상

지름길이라고 알려진 금강승에서는 탄트라, 만트라, 사다나(Sādhana)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탄트라는 부계, 모계, 불이(不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요기니 탄트라는 모계 탄트라에 속하고 정확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헤바즈라-나이랏마(Hevajra-Nairātmya), 차크라삼바라-바즈라요기니(Cakrasaṃvara-Vajrayogini)에서처럼 여신들이 등장해 지혜와 방편의 합일을 상징한다.

² (역주) 카트만두 계곡과 스와얌부나트 사원의 기원을 설명하는 네팔 경전

³ (역주) 네팔 카트만두 계곡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토착 민족

나이랏마: 무아(無我)의 여신으로, 초월적 지혜를 상징한다. 『스와얌부 푸라나』에 따르면, 비바시 부처님이 나가르하다 호수에 뿌린 연꽃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이후 문수보살이 호수의 물을 빼고 카트만두 계곡을 만들 때, 그 물을 제어하기 위해 나이랏마를 불러 의식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나이랏마는 자비로운 모습과 분노의 모습 두 가지로 나타나며, 이는 수호자로서의 면모와 번뇌를 정화하는 힘을 상징한다. 현재 네팔 카트만두의 구혜슈바리 사원(Guhyesvari Temple)에서 모시고 있다.

바즈라요기니(Vajrayogini): 고대 도시 상쿠(Sankhu)⁴와 관련이 깊다. 전설에 따르면 문수보살이 도시를 만들 때 바즈라요기니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칼을 든 도상으로 인해 종종 카드가요기니(Khadgayogini, khadga 는 칼이라는 뜻)라고도 불린다. 네팔력으로 차이트라 달에 8 일간의 축제 열어 예경한다. 바즈라요기니는 궁극적 지혜의 화신이자, 중생을 변화시켜 깨달음으로 이끈다고 알려졌다.

바즈라바라히(Vajravārahī): 차크라상바라(Cakrasaṃvara)의 비(妃)이며, 파괴할 수 없는 지혜의 본질을 구현하는 여신이다. 네팔의 구띠(Guthi)라고 불리는 전통 불교 단체에서 바즈라바라히를 모시고 번뇌를 정화하고 수행을 앞당기는 비의적인 수행을 실천한다.

자비의 여신들

네팔 만달라에서는 여러 의식, 관습, 명상 수행에서 수많은 신들에 예경한다. 이 가운데 요기니들은 일반적으로 분노존에 속하고 타라는 고요하고 자비로우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한다.

자비로운 여성 본존이라는 개념은 『구히야사마자 탄트라(Guhyasamāja Tantra)』에서 시작되었다. 이 경전에서 이들 여신들은 다섯 부처님의 비(妃)로 등장하며 그 이름은 마마키(Māmaki), 로차니(Locani), 판다라와시니(Pāṇḍaravāsini), 타라(Tārā), 바즈라아테스와리(Vajradhātēsvārī)이다.

이 외에도 밀교 문헌인 『사다나말라(Sadhanamālā)』, 『반야바라밀다경(Prajñāpāramitā Sūtras)』, 『타라 탄트라(Tārā Tantra)』에서 타라의 21 화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네팔 만달라 불자들은 타라 여신을 찬탄하는 타라 다르마 푸자(Tārā Dharma Pūjā)를 봉행한다. 이 의식들은 여신들에게 번영과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다.

타라는 일반적으로 16 세를 넘지 않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며, 앳된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있다. 타라와 타라의 다양한 화현들은 중생들의 가지가지 요구에 응하기 위한 자유자재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 타라는 여러 화현을 나누어 두려움, 무지, 고통을 뛰어넘는 길을 제시하며, 수행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한다.

풍요, 번영, 장수

바수다라(Vasudhārā): 바수다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특히 네팔 만달라에서 깊이 예경된다. 밀교와 바수다라의 주술적 의례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와르인들이 모시는 신당을 아감(Āgam)이라고 부르는데 안쪽과 바깥쪽 두 구역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안쪽을 은밀한 공간이라는 뜻으로 구하(guhya)라고 부르고 밀교의식에 입문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내밀한 성소로 여긴다. 바깥쪽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아감에는 금강살타, 문수보살, 바수다라 등 여러 존상들을 모실 수 있다.

⁴ 카트만두 계곡 북동쪽의 네와르족 정착지

바즈라바라히는 내실에 모셔야 하는 밀교 여신인 반면 바수다라는 외실에 공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존상으로 볼 수 있다. 보물을 지닌 자라는 뜻의 바수다라는 외실의 주존들과 함께 예경된다. 부, 번영, 풍요, 다산의 여신으로 재산, 건강, 감정적 충족 등 현세적 번영을 상징한다.

바수다라는 산스크리트어 바수다(vasudhā)와 다라(dharā)를 어원으로 한다. 바수다는 대지 또는 땅을 뜻하고 다라는 가진 자 또는 지닌 자를 뜻한다. 따라서 바수다라는 땅을 가진 자 또는 지닌 자라는 뜻이 된다. 불교에서는 곡식이 풍성하다는 뜻의 다냐타라(Dhānyatārā) 또는 아름답고 장엄하다는 뜻의 쇼바나(Śobhanā)라고도 부르며 모두 풍요와 번영과 연결된다.

불교 의식에서 바수다라는 대지의 여신(Prthivī Mātā)과 동일시될 때도 있다. 싯다르타 고타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기 위해 선정에 들었을 때 장애를 상징하는 마라가 나타나 수행을 방해했다.

대지의 여신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수한 전생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으로 십바라밀을 완성하여 깨달음의 복덕을 원만히 닦은 것을 보았다. 바수다라 즉 대지의 여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전생에 연등불 앞에서 수메다라는 이름으로 부처를 이루리라는 수기를 받은 것을 보았다. 따라서 싯다르타 고타마는 대지의 여신을 소환하여 자신이 오랫동안 서원을 지키며 수행해온 것을 증명하게 한 것이다. 향마촉지인은 땅에 손을 대고 증인으로 삼는 수인으로 싯다르타 고타마는 자신의 깨달음의 증인으로 대지의 여신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우슈니샤비자야(Uṣṇiṣavijayā): 장수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머리 위에 승리를 상징하는 보관을 쓰고 있다. 장수, 건강, 번영을 구현하는 존재로, 밀교에서 백색타라, 아미타불, 우슈니샤비자야는 서로 관계가 깊다. 도상에는 가을 달빛을 띠는 몸에 세 개의 얼굴과 여덟 개의 팔을 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손에는 다양한 물건을 들고 있거나, 독특한 수인을 하고 있다.

잔코(Janko) 의식

네와르 불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의례로, 만 77세 7개월 7일이 되는 시점에 거행한다. 노년기로 진입했음을 기념하고, 한평생 쌓아온 지혜와 삶의 경험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탑을 쌓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수행 여정과 깨달음을 향한 서원을 상징한다.

탑은 그 안에 봉안된 성스러운 유물이나 경전으로 인해 깊은 경외의 대상이 된다. 잔코의식 중에 우슈니샤비자야를 탑의 내실에 봉안하는 의식도 있는데 이는 수명, 깨달음을 향한 여정, 그리고 불교의 성스러운 유산에 대한 경의가 한 데 어우러진 것이다.

어머니 수호신

아지마(Ājima) 여신들: 네팔 만달라의 수호신이다. 아지마는 네와르어로 할머니라는 뜻으로 이 여신들은 돌봄과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여성적 존재로 예경된다. 주요 아지마 여신들은 다음과 같다.

하리티 아지마(Hāriti Ājima): 원래는 악귀였으나,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 아이들의 수호신으로 변했다. 스와얌부나트 사원에서 모시고 있다.

냐타블루 아지마(Nyatabhulu Ājima): 청정과 수호의 상징이다.

룬마리 아지마(Lunmari Ājima 또는 바드라칼리(Bhadrakālī): 악을 물리친다.

루티 아지마(Luti Ājima 또는 인드라야니(Indrayāni): 수호신

판차락샤(Pañcarakṣā): 수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수행자들을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안녕을 증진한다. 이들의 경전과 의식은 역경에 빠진 중생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한다.

결론

네팔 만달라와 그 불교 전통은 여신들의 위대함을 기리는 서사들이 가득한 보고이다. 이 여신들은 이야기, 전설, 상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룩한 위대한 문명의 근간이다. 깊은 지혜의 창고이자 구도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것이다. 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전통적인 수행법은 여신에 대한 외경과 성찰없이 완전할 수 없다. 수행자들은 요기니와 타라와 같은 여신들과 함께 하며 열 가지 선행을 닦아 불성한 습성에서 마음을 맑혀 나가야 한다. 따라서 여신들을 맹목적 신앙의 대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삼매와 각성의 매개체로 예경해야 한다.

그러나 네팔 만달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시간이 흐르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역사적으로 불교 사상과 수행 속에는 불이성(不二性)과 남녀 평등이 강조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남성 지배가 일반 규범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이 지역의 철학과 형이상학에 기여해온 여신들의 심대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다. 네팔 만달라 문명은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 균형과 상호 가치위에 이룩되었다는 것을 고대 문헌과 의식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명비(明妃)⁵라는 용어는 여신들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명비는 단순히 부차적이거나 종속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형이상학의 핵심 요소인 지혜를 상징한다. 여신들은 진제와 속제를 함께 구현하며 섬세하게 얽힌 네팔 만달라의 영적 그리고 문화적 구조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 논고에서는 오랜 전통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했다. 여신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 유산을 기리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소외시키는 현대 사회 규범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네팔 만달라의 여신들은 상징 그 이상이다. 그들은 평등, 지혜, 깨달음의 살아있는 증거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여신들에 대한 예경을 현대 의식 속에 다시 통합시킨다면 균형을 회복하고 좀더 포용적이고 영적으로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Bibliography

- Art, L. a. C. M. O., & Pal, P. (1985). *Art of Nepal: A Catalogue of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Collec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 Bhattacharyya, B. (1993). *The Indian Buddhist iconography*.
https://openlibrary.org/books/OL9329814M/The_Indian_Buddhist_Iconography
- English, E. (2013). *Vajrayogini: Her Visualization, Rituals, and Forms*. Simon and Schuster.
- Huntington, J. C., & Bangdel, D. (2003). *The Circle of Bliss: Buddhist Meditational Art*. Serindia Publications, Inc.
- Illuminated Pages of the Prajnaparamita Sutra Manuscript | Project Himalayan Art*. (n.d.). Project Himalayan Art.
- Kossak, S., Singer, J. C., Bruce-Gardner, R., & York, M. M. O. A. (1998). *Sacred Visions: Early Paintings from Central Tibet*. Metropolitan Museum of Art.
- Queen Dipamala as the Goddess Prajnaparamita | Project Himalayan Art*. (n.d.). Project Himalayan Art.
- Ray, A. (1973). *Art of Nepal*. In *Indian Council for Cultural Relations eBooks*. <https://ci.nii.ac.jp/ncid/BA07090785>
- Śākya, M. (2000). *Sacred art of Nepal : Nepalese Paubha paintings : past and present*. <http://ci.nii.ac.jp/ncid/BA60324092?!=en>

⁵ (역주) 불보살과 남신의 영적 배우자로 밀교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신

캐시 우노 (Kathy Uno)

(ksunou@gmail.com)

[번역: 이영희(국제포교사, 샤카디타 코리아)]

일본 불교 여성들은 수세기 동안 변화의 도전에 대응해 왔다. 고대 일본의 여성에 대한 증거는 희박하지만, 6~7 세기 불교가 일본에 전래되었을 때, 비구니, 귀족 여성, 일반 신자, 황후 및 황제가 해외에서 불교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불교와 토착 종교의 차이를 조율하며, 사적·공적 의례에 참여하고, 교육·연구·치유 활동을 수행하며, 사찰을 설립하였다.

고전 시대(8~13 세기)에는 개인적 고난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며, 신앙을 반영하는 우아한 일기, 시, 이야기를 창작하고, 개인적·가족적 고난 앞에서 속세를 떠나는 결단을 내렸다.

무사 시대(13~19 세기)에는 평민과 귀족 여성들이 도적, 병사, 군벌의 탐욕·무법·폭력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다.

근대(19 세기 후반부터)에는 불교적 기반이 20 세기 일본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두 명이 기존 여성상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성 친화적인 사회 관습, 토착 종교에서의 중심적 역할, 그리고 당시 여성들의 독자적인 사상과 실천이 일본 불교 여성들의 도전과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본 발표는 필자의 전공 분야인 근/현대 일본사를 반영한 것이며, 이용 가능한 사료의 제약으로 빈곤한 여성들보다는 주로 부유하고 교육받은 불교 여성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 발표의 주요 목적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9 세기에 걸쳐 도전에 직면한 일본 불교 여성들의 이야기를 일부 그들의 육성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2.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고대부터 15 세기까지의 일본 여성의 역사를 소개하고, 일반적으로 깊게 뿌리내린 고정관념을 반박하는 것이다.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는 불교가 6 세기경 일본에 전래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여성은 황제나 황후로서 권력을 행사하였고, 그보다 이전에는 전사나 수장으로 활약한 경우도 있었다. 여성과 남성은 작은 초가집 마을에 사는데 필수적인 벼농사를 지었으며, 여성은 토지를 축적하고, 관리하며, 상속하였으며 또한 물품을 생산하고 교환했다. 결혼은 당사자 간의 동의에 기반하였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성적 정절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요구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부부는 따로 거주하였으며 남성이 여성과 자녀가 있는 집을 방문하는 형식이었기에, 여성은 시가 사람들과 같이 살거나 통제 받지 않았다.

불교 이전의 종교에서 여성의 중심적 역할은 두드러진다. 자연, 동물, 죽은 이들의 영혼, 그리고 인격화된 존재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신령(일본어로 '카미' *kami*)이 발견된다. 농경과 직조의 여신이자 황실의 조상인 태양여신, 아마테라수(Amaterasu)가 가장 강력한 신령으로 나타난다. 카미가 만족하면 복이 깃들고, 불만족하면 흉작, 질병, 죽음 등 불행이 초래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무당(샤먼)은 여성이었고, 카미와 교신하여 명령, 조언, 예언을 청하거나 불만스러운 카미를 달래는 역할을 수행한 이도 여성이었다. 카미를 기쁘게 하려면 청결과 금욕을 통한 청정함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죽음·병·혈액을 피하고, 카미에게 요청을 하기 전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청정함을 지니고 접근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다신적 카미 신앙(신토)은 불교를 수용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카미와 부처를 크게 구분하지 않았고 또 다른 이들은 특정 카미와 인간, 특히 여성 카미와 여성들을 대승불교의 부처나 보살의 화신으로 간주하였다. 예컨대 태양여신 아마테라수를 범신불인 비로자나불(일본어: 다이니치)의 화신으로 보았으며, 이는 태양빛처럼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신으로 인식되었다. 신사와 카미는 사찰에서 숭배되는 부처를 보호하고, 반대로 사찰도 신사와 카미를 보호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신사-사찰 복합공간이 발전하였다.

일본 본래 신앙에서 여성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사실을 볼 때, 일본 최초의 불교 성직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아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백제)로 파견된 일본인이 여성들이었으며, 이는 여성의 문해력, 학습력, 지적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624년경 여성 천황 스이코 치하의 기록에는 비구니 569명, 비구 816명, 사찰 46곳이 존재하였다. 신토에서 치유력이 있는 여성들의 연계 때문에, 비구니들은 일부 가정에서 거주하였다. 황궁은 세속적 이익에서 불교를 포용했는데, 즉 국가의 평화와 안녕 보장, 죽음의 부정성을 퇴치한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군주가 사망했을 때 더 이상 궁전을 폐기하는 관습이 사라졌다.

고전시대 초기, 황후 고묘(Empress Kōmyō, 701-760)는 문해력이 뛰어나고 독실하며 미모와 부, 지위, 권력을 갖춘 인물로, 일본 불교의 심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고아와 빈민을 위한 수용소, 진료소, 방대한 경전 필사 프로젝트를 설립하였으며, 자신의 궁전 일부를 비구니 사찰인 법화사로 개조하였고 이 사찰은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또한 목욕탕을 개설하였고, 전설에 따르면 나병 환자의 요청에 따라 그의 온몸에서 고름을 빨아내자, 그가 곧 동방의 부처 아촉불(아슈쿠불)¹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741년부터 지방 사찰을 설립하는 데에도 관여하였으며, 각 사찰에는 비구니 사찰과 비구 사찰이 병설되었다. 이 국가 사찰에서는 여성과 남성 불교 공직자들이 함께 《금광명최승왕경》을 독송하여 천황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그녀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고묘, 남편인 쇼무 천황(Emperor Shōmu), 딸은 고켄 및 쇼토쿠 천황으로서 두 번 통치했는데 모두 불교 서원을 맹세하였다. 조정 밖에서 전염병과 기근이 극심하던 시대에 치유, 생계 향상, 죽음의 부정성 완화, 구원을 기대하며 수많은 민중이 집을 떠나 자비로운 승려 규키(Gyōki)를 따라 불교에 귀의했다. 그는 일반 백성에게 불법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의 법을 어기고 활동하였으며, 정부의 명령으로 혼성 사원을 대체하는 몇 개의 비구·비구니 사찰을 설립하였다.

고전 및 중세 시대에는 일본에 정식 비구니 계단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여성들은 치유와 가족 구성원의 죽음 후에 위안을 얻기 위해 또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사적인 계단(private

¹ M. Ury, "Nuns and Other Devotees in Genkō shakusho (1322) Japan's First History of Buddhism," in B. Ruch, ed. *Engendering Faith: Women and Buddhism in Premodern Japan*, 2002, 194, 205

M. 우리 (M. Ury), "겐코샤쿠쇼(1322)에서의 수녀 및 기타 신도들: 일본 최초의 불교사," 바버라 루크 편, 『신앙을 성별하다: 전근대 일본의 여성과 불교』, 2002, 194, 205 쪽.

ordinations)에서 서원을 했다. 재산이 있는 여성들은 승려를 후원하고, 사찰을 기부하거나, 스스로 비구니로 출가하였다. 비구니의 생활방식은 다양하였으며, 머리카락의 길이 역시 마루까지 기른 여성, 어깨까지 짧은 묶음머리, 삭발한 여성까지 다양하였고, 복식도 단순화한 평상복에서 승복까지 폭넓게 존재하였다. 거주지도 사찰, 은둔처에서 민가 또는 일정한 거처 없이 유랑하는 방식까지 다양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업보를 지닌다는 교리-오장애(五障礙), 삼종지도(三從之道), 여성은 남성으로 변해야 아미타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사상-는 널리 퍼져 있었지만, 최근의 연구는 14세기 이전까지 귀족 여성과 남성, 평민 모두에게 이 사상에 대한 인식이나 우려가 거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여성 카미에 대한 믿음과 무당, 치유자, 예언자로서의 여성의 종교적 필수 역할은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보거나 남성보다 더 큰 업보의 존재로 보는 견해에 반대해서 작용했다. 13세기 후반 이전에는 매우 애매한 한 경전²을 제외하고는, 미륵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 심지어 아미타불 신앙에서도 여성이 더 큰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륵의 도솔천과 천수국(무한광토)은 여성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 개념이었다. 젊은 비구니, 노비구니, 그리고 재가여성이 나오는 9세기의 이야기들에서 순결과 긴 정진을 통해 보살과 조우하거나 자춧빛·향기로운 구름에 싸이거나 극락왕생의 약속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여성의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3세기 말 부흥 이후, 비구니들과 법화사(法華寺)를 찾는 방문자들은 해당 사찰을 창건한 광명황후(光明皇后)를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의 화현으로 숭배하였으며, 그 형상은 오늘날에도 그곳에 남아 있다. 또한, 한때 황후의 거처였던 중궁사(中宮寺)에서는, 1260년대에 비구니 신녀(信如, 1211년경~?)에 의해 복원된 이래, 사찰의 거주자들과 순례자들은 하시히토 황후(橋人皇后, ?~665)를 아미타불(阿彌陀佛)의 화현으로 따랐다. 비구니원장과 비구니들은 이들 사찰에서 귀족과 평민을 이끌어 경건한 황후들을 자비, 치유, 인도, 지혜의 보살로 숭배하였으며, 현세의 위안과 내세에서 무량광토(無量光土)와 정토(淨土)³로의 왕생을 실현하는 존재로 여겼다.

20세기에 발견된 니조 부인의 일기에서는, 한 고귀한 신분의 일본 불자 여성의 불완전하고 솔직하며 매우 잘 표현된 삶을 자세히 볼 수 있다. 퇴위한 고후카쿠사(後深草) 천황의 총애를 받았으나 정식 아내는 아니었던 그녀는, 네 살부터 황궁에서 자랐고 저명한 시인 가문 출신이었다. 1271년부터 1306년까지 그녀의 일기에는, 일본 사회 최상층부에서의 삶의 경험과 니조부인의 젊음과 비슷한 이름 때문에 생긴 문제,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부주의 때문에 분개한 황후가 그녀를 궁에서 축출한 후 주변부로 밀려난 삶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285년에 그녀가 묘사한 황태후의 구순 생일 연회는 13세기 궁정 생활에 있어서 불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지속된 현상이기도 했다.

“동틀 무렵, 저택은 [재위 중인 천황의 조모의 90세 생일] 축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남쪽을 향한 주요 방에는 세 구역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가운데 구역에 불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북쪽

² See especially the reference to Junko Nishikawa's exhaustive research, p. 303 in L. Meeks, *Hokkeji and the Reemergence of Female Monastic Orders in Premodern Japan*, 2010.

특히 L. 미크스의 『훗케지와 일본 전근대 여성 승단의 재등장』(2010) 303쪽에 언급된 니시카와 준코의 방대한 연구를 참조할 것.

³ Meeks, *Hokkeji*, L. Meeks "In Her Likeness: Female Divinity and Leadership at Medieval Chuuguuji,"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32:4(2011)351-92.

미크스, 로리. 『훗케지와 일본 전근대 여성 승단의 재등장』. “그녀의 모습으로: 중세 주구지에서 여성 신성과 지도력.” 『일본 종교학 저널』 32권4호(2011): 351-392쪽.

구역에는 부처의 일대기 그림이 걸려 있었다... 불단 앞에는 향과 꽃을 위한 탁자가 있었으며, 양 옆에는 촛대가 놓여 있었다. 경을 독송하는 승려를 위한 방석이 그 탁자 앞에 놓여 있었고, 의식을 주관하는 승려의 방석은 그 뒤에 놓여 있었다. 남쪽 뒷마루에는 장수경(長壽經)과 법화경(法華經)이 담긴 두 개의 경전 상자가 있는 탁자가 있었다... 본 방 기둥에는 종교 깃발과 장식들이 걸려 있었다.

본 방의 서쪽 구역에 마련된 천황의 자리는 중국식 자수가 놓인 방석과 대나무발에 둘러싸고 있었고... 동쪽 구역에는 오오미야 황태후의 자리가 병풍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축하 행사는 천황, 퇴위 천황, 그 배우자, 고위 관료들의 행렬로 시작되었고... 무용수들과 음악가들이 공연을 펼쳤다. 이어 강사들이 자리에 앉았으며, 조수는 징을 울렸다. 범어로 독송한 후 제단의 복사소년들이 꽃잎이 담긴 바구니를 나누어 주었고, 음악이 연주되며 승려들이 불단을 한 바퀴 돌면서 꽃잎을 뿌리고 불경을 독송하였다. 이후 다시 무용이 이어졌고, 무용수와 승려들에게 선물이 증정되었다. 축하연은 황실 가족에게 식사가 제공되면서 마무리되었다.⁴⁾

다른 귀족 여성들처럼 생계나 의지할 친척이 없었던 니조 부인은 비구니가 되었다. 소외감과 고독 속에서 그녀는 1289년부터 승복을 입고 홀로 주로 도보로 유명 사찰과 신사를 순례하였다. 순례를 하면서 불교 수행과 고후카쿠사 천황에 대한 회고적 헌신을 서술하였다. 그녀는 여러 차례 수도를 떠났다가 돌아왔으며, 여정 내내 천황을 위해 공덕을 쌓기 위해 붓과 먹을 사용해 경전을 필사하였다. 그러던 중 조상신을 모신 이와시미즈 하치만 신사에서 그 곳을 방문 중이던 천황과 우연히 하룻밤 재회하였다.

19세기까지 일본에서는 신도와 불교가 긴밀히 융합되어 있었으며, 쿠마노는 화려하고 유서깊은 신사-사찰 복합공간이었다. 고전 말기에서 중세로 이어지는 과도기 동안, 천황과 귀족의 권력과 재산이 쇠퇴하고 무사의 권세가 상승하였으나, 암흑기로의 전락 속에서도 모든 계층의 불자 여성과 남성의 신앙과 헌신은 이어졌고, 여성 신도들을 위한 제도는 증가하였다. 중세 초기에 무력 충돌로 인해 남편, 친족, 동맹자를 잃은 여성들의 증가로 사찰로 들어가거나 사찰을 창건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여성들은 질병, 임종, 몰락, 혹은 자녀나 남편, 연인, 고용주의 명복을 빌거나 애도를 위해, 그리고 여주인을 따라 출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사찰은 고위 무사 계급(쇼군)이 세운 사원과 법맥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12세기 말, 단노우라 전투(1185)에서 패망한 헤이케 가문의 일원으로 여덟 살 아들 안토쿠 천황과 함께 바다에 몸을 던진 전 황후이자 안토쿠의 어머니였던 겐레이몬인(建礼門院, 타이라노 도쿠코, 1155~1214)은 수도의 찬란한 영광과 자신의 가문의 덧없는 영화를 뒤로 하고, 교토 근교 자코오인(寂光院)에서 비구니로서 조용한 삶을 마감하며 아들과 친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였다. 1355년, 전란이 심화되던 시기에 묘오아(Myoo'a)와 같은 지방 무사 가문의 덜 유명한 여성들은 사찰을 창건하거나 귀의처로 삼았다. 묘오아는 1351년 전투에서 남편, 오빠, 조카, 시아버지, 4명의 친족을 모두 잃었다.

묘오아가 창건한 시온인(紫苑院)과 같은 사찰에 입문한 여성들은 전사한 남성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더 나은 내세를 기원하였으며, 또한 그들 스스로 물질적, 정신적 부양비도 마련하였다. 중세 초기 일부 사찰은 한 두 세대 만에 사라졌으나, 고위 무사나 귀족 가문이 세운 사찰들은 무사시대를 거쳐 그 이후까지 존속했으며 정치·경제적 격동 속에서 신앙의 공간이자 피난처로 기능하였다. 무사 말기에는 삭발한

⁴⁾ Lady Nijō [Nakanoin Masatada No Musume], *The Confessions of Lady Nijō*, trans. Karen Brazell, 1976, 163-6.

니조 여인 [나카노인 마사타다의 딸]. *니조 여인의 고백*. 카렌 브라젤 번역. 1976, 163-166 쪽.

황족과 귀족 소녀들이 혼인 제한을 받았는데, 일부 사찰은 수행과 봉사를 일정 기간(보통 2~3년) 한 뒤 이혼이 허용된 여성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평민 여성들은 가정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지역 사찰의 의식과 축제에 참여하였고, 장거리 순례에도 나섰다. 쿠마노 비구니들은 사찰과 신사의 기금을 모으고 그림과 이야기로 불법을 전하며 이곳저곳을 계속 순례하였다

대폭 축약했음에도, 분량 제한에 도달한 관계로, 본고의 결론으로써 근대(1868년~현재)의 일본 불자 여성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불교는 일본 근대사의 두 위대한 페미니스트의 급진적 비전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둘은 니조 부인과 마찬가지로 모두 높은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자 극도로 분명한 글을 쓰는 문필가였고 모험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처럼, 부모의 불교 신앙을 이어받은 다카무레 이즈에(Takamura Itsue)는 1920년대부터 억압적인 가족 제도와 이를 지지하는 국가의 해체를 통해 일본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꿈꾸었으며, 사회의 최하층민—예컨대 빈민과 학대받는 여성 및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고양시키기 위한 역사서를 저술했다. 히라쓰카 라이초(Hiratsuka Raichō, 1886-1971)는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여성 문예 동인지이자 단체인 『세이트(靑鞆)』를 창립하여 여성의 창조성과 자유를 천명하고 기존의 가족 제도를 비판하며, “태초에 여성은 태양이었다”라고 선언하며 여성이 일본의 기원임을 주장하였다. 이후 그녀는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신여자협회를 조직하여 여성 참정권, 모자 보호, 전후 여성 연대,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한편, 20대 시절 시작한 선(禪) 수행을 지속하였다.

“우리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 모두 20대였고, ... 심지어 10대 있었고 항상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내면의 힘에 의해 움직였는데, ‘태초에 여성은 태양이었다’라는 선언이 이토록 강력하게 여성들의 마음에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그것이 여성 권리의 선언이자 인권의 외침으로 기억될 줄도 몰랐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아마도 그것은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남성 중심 세계에서 짓밟히고 경멸받아 온 일본 여성들은 이제 폭발 직전이었고, 나는 그 분출구 역할을 했던 것이다. 나는 틀림없이 적임자였다. 왜냐하면 나는 수년간 선을 수행하며 모든 선입견에서 해방되어 ‘아(我)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⁵

⁵ Hiratsuka, *In the Beginning, Woman was the Sun: The Autobiography of a Japanese Feminist Hiratsuk Raichō*, trans. Teruko Craig, 2006, 315. 히라쓰카 라이초, *처음에 여성은 태양이었다: 일본 여성주의자의 자서전*, 테루코 크레이그 번역, 2006, 315쪽.

철회 베트남 비구니 스님: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1 Vietnam Buddhist Nuns: Bridging Tradition and Modernity

틱 느 후에 광 비구니 스님(Thich Nu Hue Quang)

(huequang404pt@gmail.com)

[번역: 천효영(샤카디타 코리아)]

불법의 확산과 더 넓은 대중에게 다가가는 과정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본 연구는 불교의 사회 참여적 측면을 반영하여 지역 의료, 상담, 재난 구호 및 기타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 복지에 헌신하는 비구니들의 모범적 실천을 탐구한다. 현대 비구니들이 직면하는 주요 도전, 특히 고등 교육과 수행 생활의 통합 문제를 분석하며, 개선이 필요한 핵심 영역을 식별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멘토링 강화, 전문 기술의 승가 구조 내 통합, 네트워크 확대를 제시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외국어 능력 함양, 국제 교류 프로그램 구축,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연결, 번역 프로젝트 지원,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촉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 비구니들과 세계 불교 공동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학습을 촉진하여 불교 연구 및 실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전통과 적응의 역동적 상호작용은 현대 사회에서 베트남 비구니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베트남 비구니 스님은 신성한 전통 가치와 현대 생활의 리듬을 조화롭게 연결하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 불교의 본질을 보존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역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왔다. 이러한 적응력 덕분에 불교는 점점 더 관련성이 높고 실용적이며 베트남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수행과 봉사의 길에 헌신한 역사 속 위대한 비구니 스님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여하는 현대 비구니 스님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불교의 발전에서 비구니 스님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왔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비구니 스님의 역사적 여정, 역할, 도전과 기회에 대해 현재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1. 역사 속 베트남 비구니 스님의 개요

베트남 비구니 스님은 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1세기 초에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푸옹 둥(Phuong Dung), 부 티 투크(Vu Thi Thuc), 티에우 호아(Thieu Hoa), 카우 니(Khau Ni)와 같은 뛰어난 여성 출가자들은 영적 수행과 세속적 책임을 조화롭게 통합하며 활약했다. 이 인물들은 베트남 여성들의 불굴의 정신과 용기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성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략에 맞서 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국가 독립에 큰 공헌을 했다. 승리 후에는 명성이나 대중의 찬사를 구하는 대신 출가 수행의 길을 선택해 불법의 고요함으로 돌아가 조용히 수행하며 덕과 지혜를 구현해 후세에 오래 남을 본보기가 되었다.¹

¹ Truc Lam Tri Duc Nunnery, *The History of Vietnamese Buddhist Nuns from the 1st Century to the 18th Century*, Hong Duc Publishing House, 2020, p. 16.

10세기부터 18세기까지 베트남 불교의 변성기에는 수많은 덕망과 재능을 갖춘 비구니 스님이 등장했다.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리 왕조 시대의 디우 난(Dieu Nhan) 비구니 스님이 있는데, 그녀는 베트남 불교에서 최초로 선종 조사(Zen patriarch)로 칭송받으며 명예로운 직함을 얻은 비구니 스님으로 기록되어 있다.² 트란 왕조 시대에는 계율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로 유명한 투 통(Tue Thong) 비구니 스님이 트란 응에 통 왕(King Tran Nghe Tong)으로부터 ‘투 통 대종사’라는 칭호를 수여받으며 비구니 스님의 공헌에 대한 왕실의 존중을 보여줬다.³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걸쳐 베트남 비구니 스님들은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 적응하며 유연하게 법과 국가에 봉사하는 정신을 일관되게 보여 주었다. 20세기 초, 불교 부흥 운동은 디우 응옥 스님(Dieu Ngoc)과 디우 틴 스님(Dieu Tinh)과 같은 선배 비구니 스님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시대의 비구니 공동체 발전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 반프랑스 및 반미 저항 전쟁 동안 남북 베트남의 비구니 스님들은 고난을 견디며 애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 담 투(Dam Thu), 담 소안(Dam Soan), 담 후(Dam Huu), 담 틴(Dam Tin), 후인 리엔(Huynh Lien), 바흐 리엔(Bach Lien)과 같은 이름은 베트남 비구니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이들은 고결한 출가자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궁극적인 승리에 크게 기여한 조용한 전사들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누 탄(Nhu Thanh, 1911-1999) 비구니 스님이 북부 비구니 승가 설립에 크게 기여하여 오늘날까지 베트남 비구니 승가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통일 이후에도 비구니 스님들은 수행의 길을 이어가며 법을 전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재건에 기여했다. 국회와 인민위원회와 같은 대의 기관에 많은 비구니 스님이 선출된 것은 비구니의 공헌을 사회가 인정했다는 증거다. 국가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은 국가 발전을 위한 비구니 스님들의 끊임없는 헌신을 더욱 확고히 확인해 준다.

2. 오늘날의 베트남 비구니 스님

✻ 종교 발전

출가 계율의 전승과 준수는 비구니 스님에게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다. 매년 진행되는 수계식은 계율에 정통한 율사들의 지도 아래 엄격하고도 철저한 계율 실천을 보장한다. 또한 중앙 비구니 분과에서는 단기 율학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계율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불교의 본질을 계승하고 전하는 역할 속에서, 베트남의 비구니 스님들은 전통적인 문화적·영적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여러 세대를 거치며, 베트남 비구니들은 울란마나(우란분절, Vu Lan) 효도 법회, 부처님오신날, 약사경 독송을 통한 평화 기원, 아미타불 기념일 및 기타 전통 의례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인문주의적 가치를 끊임없이 전하고 지켜왔다. 이들 스님의 지도 아래 이러한 의례들은 단순한 수행의 자리를 넘어 불교 공동체에게 고요하고 장엄하며 의미 있는 문화적·영적 공간을 창출하는 중대한 행사로 자리 잡아왔다.

또한 헌신적인 영적 지도자로서, 비구니 스님들은 초급부터 고급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교 교리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하며, 일일 수행(하루 정진 수행), 팔관재계 수행, 염불 정진, 기타 전문적인 수행 프로그램 등 전통적인 수행도량에서 다양한 수행회를 주관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재가불자들이

² Thich Thanh Tu, Vietnamese Zen Master, Religious Publishing House, Hanoi, 2010, pp. 173-174.

³ Thich Thanh Tu, Vietnamese Zen Master, Religious Publishing House, Hanoi, 2010, p. 385.

불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신심과 수행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다양화되는 수행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행 프로그램은 어린이, 학생, 바쁜 직장인, 기업가, 불교에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들과 아우르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다. 각 집단의 특성에 맞춰 구성된 프로그램들은 공동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마음챙김, 평화, 도덕성 등의 가치를 폭넓게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불교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대 사회 속에서 더욱 생동감 있게 구현하고 있다.

✿ **교육과 학술 연구**

선대 스님들의 학문과 수행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 베트남 비구니 스님들은 불교 교리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오늘날의 젊은 비구니들은 국내의 불교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불교센터와 학술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경험은 베트남 비구니들이 깊이 있는 불교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시야를 넓히고, 세계 불교 및 문화와의 교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습을 넘어, 많은 비구니 스님들은 불교 학교와 연구 기관의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여, 후속 세대 출가자들의 교육과 양성을 책임지고 있다. 더불어 경전 연구, 번역, 편찬, 불교 문헌 창작 등 다양한 학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베트남 불교의 문화 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지혜와 자비라는 불교의 숭고한 가치를 대중에게 널리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베트남 비구니 스님들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 속에서 베트남 불교 발전에 있어 이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불교 활동에서의 기술 수용**

오늘날 베트남 비구니 스님들은 사찰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정보기술과 소셜미디어(Facebook, YouTube, TikTok 등)를 적극 활용하여 대중에게 불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소통 도구의 활용은 마음챙김, 평화, 불교 행사 등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회 전 계층,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비구니 스님들과 대중 간의 소통이 열려 있고 친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법문, 수행 지도 영상, 명상 및 자비 실천을 주제로 한 짧은 영상, 사회공헌 활동의 공유 등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불교의 윤리적·영적 가치를 생동감 있고 쉽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젊은 비구니 스님들은 그들의 역동성과 전문성, 열정을 바탕으로 기술 활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 불교와 현대 생활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더 친근하고 실천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며, 단순한 법의 전달자를 넘어 ‘현대적 불교 소통자’로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과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 **문화 및 사회 참여**

불교 교리의 학습과 수행에 더하여, 현대의 비구니 스님들은 전통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및 다양한 사회적 소양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역량의 함양은 스님들의 개인적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이고 현실에 뿌리내린 ‘실천 불교(Engaged Buddhism)’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 활동,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을 통한 치료, 빈곤층을 위한 무료 약품 제공, 환경 보호 활동,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 마련, 재해 구호 활동 등 다양한 자비 실천을 통해 비구니 스님들은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와 이타정신을 생생하게 구현하고 있다.

불교 수행과 전문 역량의 조화로운 통합은 불교를 현대 사회에 보다 실천적이고 유의미한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종교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평화롭고 행복하며 문명화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불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베트남 비구니 스님들이 단순히 수행에 전념하는 존재를 넘어,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주체로서 긍정적인 대중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3. 젊은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 강화: 도전과 해결책

현대 불교의 맥락 속에서 베트남 비구니 스님들은 학문과 포교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세계적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특히 고등 교육(석·박사 학위 취득 또는 해외 유학 등)을 받은 젊은 비구니 스님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 일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세속 사회에서는 명확한 채용 절차와 경력 개발 체계가 존재하는 반면, 비구니 공동체 내의 조직 운영은 고유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 지식과 실제 불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활동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많은 젊은 스님들이 졸업 이후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찾지 못하고, 소중한 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교 기관의 인력 수요와 비구니 스님들의 전문 역량을 연결해주는 효과적인 정보 네트워크의 부재이다. 또한, 젊은 스님들이 이론과 실천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배 스님이나 경험 많은 동료들의 지도와 조언이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두 가지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헌신적인 젊은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조직하고, 소규모 단위로 분산되어 운영되면서 자원이 분산되고 비구니 공동체 전체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젊은 스님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사찰 내 일상적인 활동에만 머무르며 공동체 내 포괄적인 참여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구니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전문 역량에 기반한 역할 배치 체계의 구축, 불교 기관과 비구니 인력을 연결하는 정보 시스템의 마련, 그리고 실제 수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선배 스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방향 제시는 젊은 스님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젊은 비구니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전공 지식에 더하여 실천적 역량과 사회적 소통 능력(소프트 스킬)을 적극적으로 함양하며, 포교 사명에 헌신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베트남의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국제 비구니 공동체와 교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국제적 교류와 전문적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場)과 네트워크의 부재는 글로벌 차원의 지식, 고급 수행 방법, 효과적인 포교 사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스님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베트남 불교의 세계적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베트남 비구니 스님들과 세계 여성 출가자 공동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 불교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 **외국어 능력 향상:** 비구니 스님들이 불교 학습을 위한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관련 교육 과정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 **국제 교류 프로그램 구축:** 해외의 사찰 및 저명한 불교 수행 센터와 단기 및 장기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님들이 다양한 수행 환경을 경험하고, 효과적인 포교 방식과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온라인 플랫폼 활용:** 소셜미디어, 포럼, 웹사이트, 웨비나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 비구니 공동체와의 소통, 정보 공유, 강연 및 전문 토론회 개최를 추진한다.

◆ **번역 활동 장려:** 경전, 불서, 불교 강연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에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이는 불법을 널리 전파하고 베트남 불교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국제 자원봉사 활동 참여:** 특히 불교 및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며 세계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베트남 비구니 스님들과 국제 여성 출가자 공동체 간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베트남 불교의 역사 속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그 역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왔다. 기원 후 초기 세기부터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수행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나섰던 선구적 여성 출가자들에서부터, 현대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오늘날의 스님에 이르기까지, 비구니 스님들은 불교의 본질을 보존함과 동시에 사회적 맥락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교를 보다 친숙하고 실천적인 삶의 방식으로 구현해왔다. 이러한 전통의 지속성과 시대에 대한 적응력은, 향후 베트남 비구니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Thich Thanh Tu, *Vietnamese Zen Master*, Religious Publishing House, Hanoi, 2010.
2. Truc Lam Tri Duc Nunnery, *The History of Vietnamese Buddhist Nuns from the 1st Century to the 18th Century*, Hong Duc Publishing House, 2020.

첼히 슈라바스티 바르사 2023: 비구니 리더십의 모델

2 The Shravasti Varsa 2023: A Model for Nuns' Leadership

첸모 드롤마(Khenmo Drolma)

(drikungkhenmo@icloud.com)

엘리슨 멜닉 다이어(Alison Melnick Dyer)

(amelnick@bates.edu)

[번역: 문윤형(샤카디타 코리아)]

그 모임은 드리쿱 까규(Drikung Kagyu)파의 지원을 받았으나, 비구니들의 지도력은 국제적이며 초종파적이었다. 비구니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조직 체계에 반영하고, **바사(Varsa)** 기간 동안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지도력 역할을 이전하였다.

모임 기간 동안 9 개국에서 온 비구니들이 5 개 언어(및 다양한 방언)를 사용하며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문화 간 및 초종파적 이해를 발전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 의식과 율장(Vinaya) 교육에서 필요한 고위 지도력을 존중하는 동시에, 각국 대표 및 신진 비구니들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 협력적 바사 모델은 비구니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본 행사는 5 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도전과 성공 사례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를 검토하고, 이러한 행사가 21 세기 비구니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테리가타(Therīgāthā)의 초기 이야기부터 21 세기 비구니들이 마주한 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성들이 승가에서 어떻게 삶을 헤쳐 나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한 대승 비구니 그룹이 전례 없는 여름 우안거(바르사 Varsa)를 위해 어떻게 함께 모였는지 다룬다. 이 행사는 인도 슈라바스티에서 7 주가 넘게 열렸으며, 이곳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 여년 전 25 번의 여름 동안 같은 의식을 행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이 바르사는 처음에 드리쿱 카규 전통의 수장인 드리쿱 캡곤 체창 린포체에 의해 구상되고 후원되었다. 2018 년 그는 슈라바스티에 새로 건립한 자신의 사찰에서 매년 전통적인 바르사를 후원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첸모 드롤마는 세 명의 비구니들과 함께 비구니들도 이 비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린포체께서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대승 비구니들을 위한 첫 국제 바르사를 조직하도록 맡기셨다. 체창 린포체는 비구니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위임하였고, 재정적 후원 뿐만 아니라 슈라바스티 대사찰, 사찰 직원, 식사, 요리사, 통역사를 사용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8 년부터 2023 년까지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가 있었지만, 결국 이 행사는 전례 없는 최초의 행사로 실현되었다.

국제적으로 범람이 높은 비구니들 사이에서는 비구니 승가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굳은 결의가 있다. 많은 장로 비구니들과 그녀의 사찰들에서는 바르사 안거 개최를 위한 준비 과정을 적극 지지하였다. 특히 슈라바스티 사찰과 다르마 드럼(Dharma Drum)은 가장 경험 많은 비구니들이 이 바르사의 기획과 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래의 사찰 소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이 집단은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는 비구니들의 영적 권위에 대한 신뢰와 전 세계 비구니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제적 권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계획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었다. 바르사 개최를 준비하는 5년 동안, 세 가지 영역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1) 주재 원장, 울장(계율) 지도법사, 그리고 교육과정의 선정, 2) 국제적인 비구니들과의 연결, 3) 실질적인 운영상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귀광(Guo Goang) 스님은 주재 원장이자 울장 지도법사로서 역할을 맡아줄 것을 수락하였다. 귀광 스님은 길상스러운 승가 모임에서 울장을 감독할 수 있는 전 세계 극소수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녀는 깊이 있는 학문적 지식과 오랜 세월의 승가 지도 경험이라는 보기 드문 조합을 갖추고 있었다. 켄모 드롤마는 주최 원장이자 수련 명상 지도자, 그리고 주요 운영 조직가로 활동하였다. 슈라바스티 사찰의 장로 비구니들은 가장 중요한 바르사 의식과 울장 교육을 담당하였다.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은 준비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감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기획 위원회는 발생하는 많은 도전에 대응했다. 예를 들어, 기도서가 제작되어야 했다. 슈라바스티 사찰은 모든 의식문을 영어로 번역해놓고 있었으나, 바르사 참가자들 사이에는 7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이 존재했다. 우리는 모든 참가자가 관련 문서를 읽는데 필요한 네 가지 핵심 언어(티베트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를 식별해낼 수 있었다. 왕축(Wangchuck) 스님은 티베트어로 번역하였고 켄모 트리날리(Khenmo Trinaly)는 기존 중국어와 베트남어 번역본을 모아 비구니용 매뉴얼을 편집했다.

2023년 7월,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 중 하나였던 시기에 교수진이 인도 슈라바스티에 도착했다. 준비와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9개국 22개 사찰에서 온 130명의 비구니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집단이 매우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이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예를 들어, 서원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원에 있어서도 사미니계와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들 간의 차이가 컸고, 교육과 일상 수행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어떤 비구니들은 불교 철학에 관한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명상 경험이 없었고, 새로 수계를 받은 비구니들은 울장에 대한 이해나 교육이 부족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승가 의례 경험은 부족하지만 안거 경험은 풍부했다. 참석자 대다수는 사마타(Shamatha) 명상 경험이 없었다. 비록 전년도 부탄에서 비구니 수계가 있었지만, 인도와 라다크의 티베트계 비구니들은 아직 비구니계를 받지 못했고, 새로 수계 받은 부탄 비구니들 역시 울장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였다. 승가 의례를 집전하려면 구족계를 받은 출가자 다섯 명이 참석해야 한다. 시골의 소규모 사찰에서는 필요한 수의 비구니가 없어 의식을 집행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서양 비구니들 역시 홀로 혹은 작은 수행 센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슈라바스티 사찰의 방식으로 중국식 선율에 맞춰 영어로 의례를 진행하였기에, 참가자 누구도 바르사 의례의 공식적인 시작과 마무리에 익숙하지 않았다. 바르사의 첫 3일이 온전히 의례에 할애되었다!

나는 곧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승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드리쿱의 사미니인 아차르야 쿤상(Acharya Kunsang)이 고층 처리자 역할을 맡아, 운영, 건강, 기타 문제에 관한 연락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녀는 또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조정자로 활동하였으며, 비구니 승가나 의례에 대한 이해가 전문한 수련 센터 관리자인 비구와도 소통했다.

사찰에서 열린 첫 모임에서는 두 가지 좌석 배치가 정해졌다. 우리는 두 개의 큰 원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비구니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미니들이었다. 모든 언어, 민족, 종파가 그들이 공유하는 서원에 따라 이 두 원에 통합되었다. 그런 다음 승가 의식 규정에 따라 수계 날짜 순으로 방석을 배치했다. 일부 사미니들에게는 이것이 도전이 되었는데, 자신이 소속된 사찰에서의 지위가 더 큰 승가 세계에서는 여전히 하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는 언어 그룹에 따라 다시 재배치하였고, 이 배열은 강의

시 착석 기준이 되었으며, 덜 위계적이었다. 같은 국가 내의 서로 다른 사찰 출신 비구니들이 이 자리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각 언어별 연락 담당자를 임명함으로써 방언 간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바르사는 길고 복잡한 승가 의식들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슈라바스티 비구니들은 대규모 집단에 의식을 가르치고 집전하는 방법을 훌륭하게 계획했다.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선율을 익혔고, 의식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들은 후에는 소그룹 언어별로 나뉘어 상세 지도를 받았다. 각 의식에는 모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의식은 주재 원장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었는데, 비구니 대표 10 명이 원장의 방으로 찾아가 청송(請頌)을 부르며 다시 모임으로 돌아왔다. 아마도 바르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첫 번째 소종(Sojong) 또는 격주 참회 의식이었을 것이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이 의식이 비구들에 의해 진행되므로, 비구니들은 남성 승가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많은 비구니들이 처음으로 원장이 집전하고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의 참회를 듣는 경험을 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2500 년 전 설법하신 고고학적 유적지까지의 걷기 명상으로 예식은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리에 앉아 명상했다. 부처님의 딸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매일 아침과 저녁 명상은 바르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활동 중 하나였다. 아침에는 네 가지 언어로 아름다운 선율의 기도가 낭송되었고, 엄제(umze, 찬트 리더)는 공동체별로 돌아가며 맡았다. 저녁에는 걷기 명상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수행이지만 다른 방식들로 했다. 매주 걷기 명상 지도자가 한 가지 방식씩 소개해주었고, 우리는 사찰을 돌며 걸을 때 부처님 당시 비구니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바르사 전 기간 동안 우리의 강점은 유연성이었다. 많은 시스템이 그때그때 만들어졌다. 체창 린뽀체께서는 민족마다 식습관이 매우 달라 하나의 식단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세심하게 고려하셨고, 두 개의 조리팀과 식자재를 보내주셨다. 두 개의 식당은 바르사의 정교한 공양 의식을 자율적으로 조직했다. 대만과 서양 비구니들이 사용하는 식당에서는 베트남 그룹이 공양 기도를 이끌었고, 히말라야 비구니들은 바르사 기간 동안 사찰 내에서 공양하는 전통을 유지하길 원했다. 또한 네팔과 라다크의 드룩빠 까규(Drukpa Kagyu) 비구니들은 특정 축일에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금강승의 축(Tsok) 의식을 집전했고, 모두가 기쁘게 지켜보았다. 이러한 작은 요소들이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을 형성해주었다.

바르사 교육과정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었는데, 그것은 계정해였다. 귀광 스님과 툽텐 담초 스님(Ven. Thubten Damcho)은 울장과 비구니 계보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연속으로 진행하였다. 켄모 드롤마는 슈라바스티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나빠나사띠 경(Anapanasati Sutta)》을 바탕으로 초반의 명상 강의를 일주일간 진행하였다. 귀광 스님은 ‘침묵의 조명(Silent Illumination)’이라 불리는 안거를 이끌었고, 이는 상급 수행에 해당된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수행을 이어갔다.

물론 어느 공동체든 오해는 생기기 마련이다. 바르사 중반 즈음, 교육팀은 참가자들의 경험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익명의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일정, 강의의 난이도, 가장 좋았던 점 등 단순한 질문을 만들었다. 많은 비구니들은 교사에게 피드백을 주고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라 놀라워했다. 일부에게는 일정이 지나치게 빠빡했고, 더위로 인해 피로가 더해졌다. 이 때 우리는 불교 교육 수준의 큰 격차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정에 약간의 조정을 가하고, 앞으로 있을 명상 강의를 다시 가다듬을 수 있었다. 경청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의식을 싹트게 하였고, 그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승가 생활에 대한 발표는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나라 비구니들의 승가 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 속한 전통 외에는 거의 노출된 적이 없었다. 일부는 지역

사회의 필요에 따라 사찰을 운영하며,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부터 월경의 날(Menstruation Day) 건강 교육까지 다양한 의식을 책임졌다. 어떤 공동체는 교육을 중시해 후배 비구니들에게 철학을 가르쳤다. 어떤 공동체는 장기 수행을 권장하고, 또 어떤 곳은 신체적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어떤 공동체는 수년간 고된 삶과 부족한 영양, 수행에 대한 희망조차 낮은 환경 속에서 지내왔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또 코로나-19 시기 동안 음식과 생필품을 모아 봉사한 이들의 용기와 헌신, 관대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한 그룹은 매년 자전거로 전국을 돌며, 여성들을 위한 쿵푸 시범, 비폭력 교육, 자기방어 수업을 제공하였다. 여러 그룹을 통해 비구니 승가를 확립하려는 진심 어린 헌신과, 여성과 전체 공동체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

7주가 지나 마지막 의식이 다가왔고,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체창 린포체가 도착했고, 우리는 그에게 이 특별한 모임을 후원해준 데 감사를 전하며, 다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자리로 이동해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다음 날 아침, 비구니들은 바르사 기간 동안 심어졌던 씨앗들을 품에 안고 버스에 올랐다.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것은 훌륭한 교육 과정(곧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나 고대 승가 의식을 체험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 바르사는 비구니들이 영적 권위를 자신 있게 감당하는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지혜를 전제로 삼았고 실제로도 그것을 발견하였다. 짧은 시간 함께 삶을 나누는 동안 우리 승가 안에서 그 지혜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His Holiness Drikung Chetsang Rinpoche, Ven. Thubten Chodron, Ven. Guo Goang, Ven. Chang Wa, Ven Chang Zai, Ven. Thubten Chonyi, Ven. Thubten Damcho, Ven. Khenmo Trinlay Chodron, Ven. Acharya Kunsang, Ven. Tenzin Tsepal, Ven Yangkyi, Ven. Khenchen Nyima Gyaltzen, Ven Khenpo Wangchuck, Ven. Khenpo Woenser, Ven. Gyaltzen, Ven. Konchog Lhamo, Ven. Lhamo Chodron and Tiffany Salter, 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철회 초기 팔리 문헌에서 페미니즘의 관점 탐구

3 Exploring the Tenet of Feminism in Early Pali Literature

프라빈 쿠마르 박사(Dr. Praveen Kumar)

(praveenkumar.kumar1976@gmail.com)

[번역: 김은희(샤카디타 코리아)]

본 연구는 불교에서 여성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한 나의 저서를 요약한다. 석기 시대부터 부처님 시대까지의 여성의 역사적 지위를 검토하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종교적 요인들이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키고 결국 부처님 시대에 쇠퇴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다.

사회적 역경에 대응하여 부처님은 비구니 승가(Bhikkhuni Sangha)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여러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가부장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였다. 해당 내용은 제 2 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 *제 3 장: 부처님의 친딸과 그들의 공헌을 논의한다.
- 제 4 장: 불교가 여성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분석한다.
- 제 5 장: 팔리 문헌(Pali literature)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실들을 고찰한다.
- 제 6 장: 부처님의 관점에서 여성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탐색한다.
- 제 7 장: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담론으로서 **불교 비구니들의 사회적 태도**를 조명한다.

본 연구는 불교 내 여성의 역사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불교의 젠더 관점과 여성 수행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다.

서론

불교에서 여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세계사는 주로 남성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여성은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주요 세계 종교들, 예를 들어 유대교(고린도전서 11:3-16)에서는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해야 하며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여성 지배에 대한 권리 또한 제도화되었다. 신이 남성과 여성을 모두 창조하였음에도, 여성은 종교적 및 사회적 삶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히브리교는 가나안 지역 종교의 다산 의식과 자연 숭배를 혐오하였으며, 우주 속 여성 원리를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의 매개체로 간주하였다.

고전적 기독교 사상은 남성의 여성 지배권을 정당화하면서 가부장제를 사회적, 문화적 제도로 설계하고 강제하는 데 기여하였다. 수천 년 동안 지배한 문화 패러다임은 예절, 교육, 노동 분업을 통해 여성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맡을 수 없는지를 규정했으며, 모든 경우에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위치시켰다.

이슬람에서도 여성은 농지에 비유되어 종속적 지위를 암시하였다. 그러나 불교는 여성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양면을 모두 보여준다. 삼장(Tripitaka)에 수록된 『본생담(jataka tales)』과 같은 경전에서는 여성을 독사에 비유하며 남성보다 감각적이라고 묘사한다.

그리스-로마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세계의 모든 주요 문명권에서도 여성은 남성들이 누리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위대한 문명들과 비교할 때, 고대 인도의 베다(Vedic) 문명은 여성에게 더 나은 지위를 부여하였다. 초기 베다 시대에는 여성이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였다. 로파무드라(Lopamudra), 고샤(Ghosh), 아팔라(Apala), 비스바라(Visvara)와 같은 인물들은 베다 찬가를 편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리그베다(Rigvedic) 시대에서 후기 베다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회, 종교, 정치, 경제적 변화로 인해 여성의 지위는 쇠퇴하였다. 초기 베다 시대에 누렸던 여러 권리가 박탈되었으며, 바르나(Varna) 제도의 출현은 수드라(Shudra)와 여성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유재산 개념의 등장과 경제 발전은 여성의 지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정치적으로는 아리아인(Aryan)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이전에 여성이 담당하던 업무가 비(非)아리아인 집단으로 넘어갔다. 종교 의례가 더욱 복잡해지고, 아들을 선호하는 가치관이 뿌리내리면서 여성의 지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변화로 인해 후기 베다 시대 이후 여성의 지위는 급격히 하락하였고, 부처 시대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였다.

부처 시대에 이르면 여성의 처지는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이시다시(Isidasi)와 같은 비구니들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시다시는 여러 차례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며,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착취의 현실을 반영한다. 무타(Mutta), 비라(Vira), 담마(Dhamma)와 같은 여성들 역시 주변화되어 비구니 승가에 귀의하였다.

부처는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여성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는 혁명적 조처를 하였다. 비구니 승가에 입문함으로써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국한된 삶에서 벗어나 불법(佛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 운영 능력과 법문을 할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 비구니들은 다른 고통받는 여성들의 등불 역할을 하였다.

지난 50 년 동안, I.B. 호너(I.B. HORNER)의 『원시 불교 하의 여성들(Women under Primitive Buddhism)』 (1975), 다이애나 폴(Diana Y. Paul)의 『불교에서의 여성(Women in Buddhism)』 (1985), R. 블랙스톤(R. Blackstone)의 『테리가타에서의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Women in the Footsteps of the Buddha: Struggle for Liberation in the Therigatha)』 (1998)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좌부(테라바다) 불교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본서는 불교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비구와 비구니 모두 세속의 삶을 떠난 이후에는 대중으로부터 보시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만약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받는 보시는 『법구경』(Dhammapada)에서 “뜨거운 솥덩이”에 비유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¹

*Seyyo ayogulo bhutto
Tattho aggisikhupamo
Yance bhunjeyya dussilo
Ratthapindam asannato*

의미:

그러므로 부처님은 문따(Mutta) 비구니에 대해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보시를 즐기는 이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다”(vipamuttana chittena annana bhunjam pindakant)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해당 비구니가 이제 빛에서 자유로워졌으며, 대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¹ (역주) 차라 리 달구 어진 뜨거운 솥덩 어리를 삼킬 지언정 / 계행이 없어 신구의(身口意)를 다스리지 못한 자가 / 어찌 신심 있는 신자의 공양을 받을 수 있으랴? [쿠타카 니까야 경(經) 담마빠다(법구경) 22-308]

이 책에서 제시된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은, 이러한 비구니들에게서 드러나는 지혜가 ‘경험적 지혜’라는 점이다. 이는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한 지혜이며, 부처님은 이와 같은 지혜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셨다.

본서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은, 이러한 비구니들 가운데서 발현된 지혜는 ‘경험적 지혜’(experiential wisdom)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직접 체득한 깨달음에 기반한다. 부처님은 이러한 종류의 지혜를 특히 중요하게 여겼다.

비구니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상상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은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라는 불교 핵심 교리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세속적 소유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였다. 파타차라(Patacara), 케마(Khema), 키사가우타미(Kisagotami)와 같은 인물들은 과거생의 선업에 의해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삶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부처님은 자신의 신통력(Abhijna)으로 이들의 과거생을 통찰할 수 있었다. 부처님은 축복도 저주도 가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삶을 통해 인류 사회에 선업을 실천할 것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본서에서는 비구니 승가의 창설을 현대 페미니즘 운동과 연관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지금까지 불교에서의 여성 연구들은 비구니 승가의 성립을 서구의 페미니즘 운동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고대 인도 사회와 서구 사회 간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하려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부처님 이전의 인도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19세기 서구 국가들의 여성 지위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서구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권리를 전혀 가지지 못했으며, 1920년 이전까지 옥스퍼드(Oxford) 대학과 같은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서구의 여성 운동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인도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점차 약화되었지만, 서구 국가들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Mahapajapati Gotami)는 남편의 사후, 왕궁에서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 비구니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부처님 시대의 비구니 승가 성립과 서구 페미니즘 운동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구니 승가 내에서도 일부 페미니즘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부처님 시대의 비구니 운동 역시 성별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남녀 모두 열반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 서구 페미니즘 운동은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함하였지만, 부처님 시대에는 그러한 권리투쟁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부처님 시대의 비구니 승가는 서구적 의미의 페미니즘 운동이 아니라, 여성 자신이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각(female consciousness)의 운동이었다. 여성들도 부처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 열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본서에서는 불교에서 여성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측면을 탐구하였다.

제 1 장에서는 부처님 시대 이전 여성의 지위를 다루었다. 선사 시대부터 부처님 시대까지의 여성 지위 변천을 서술하며, 선사 시대 부족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양호했으나, 후기 베다 시대 이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변화로 인해 여성 지위가 쇠퇴하였음을 밝힌다. 역사학자들은 리그베다 시대에 여성의 처지가 좋았다고 평가하지만, 본 장에서는 이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 2 장은 비구니 승가의 창설과 발전을 다룬다. 팔리어와 한역(漢譯) 문헌을 토대로 비구니 승가의 창설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비구니 승가는 세 단계에 걸쳐 성립하였다.

1.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팔중증법(Eight Garu Dhammas)을 수용함으로써 수계가 완료되었다.
2. 다른 샤카족 여성들의 수계는 비구니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3. 이후 비구와 비구니 모두가 함께 여성들의 수계를 집행하였다.

또한 팔중중법(八重重法)에 대한 비판적 설명을 제공한다. 팔중중법은 ‘중대한 규칙’을 의미한다. 학자들 사이에는 팔중중법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I.B. 호너와 같은 학자들은 팔중중법이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이 아니며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본다. 반면 리타 그로스(Rita M. Gross)는 『가부장제 이후의 불교(Buddhism after Patriarchy)』에서 부처님이 실용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팔중중법과 같은 규칙을 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본서에서는 빨리 문헌을 근거로, 부처님이 남녀 간 조화를 위해 실용적으로 팔중중법과 유사한 규칙을 제정했으며, 이후 스리랑카의 와타가마니 아바야(Vattagamani Abhaya) 시대에 편찬된 빨리 문헌에서 가부장적 해석이 더해졌음을 입증하려 한다. 그 목표는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비구니 승가가 설립된 이후 불교 승가에 대해 예언된 내용도 다룬다.

제 3 장은 부처님의 딸들과 그들의 기여를 논의한다. 『테리가타』(Therigatha)를 기반으로 비구니들이 불교 발전에 기여한 바를 서술한다. 이들의 공헌은 불교의 37 도품(三十七道品)을 실천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대중에 전파하려 한 노력에 있다. 이 장에서는 경험적 지혜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한 비구니들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 4 장은 불교가 여성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바를 다룬다. 이 장에서는 불교가 여성의 사회적, 종교적, 교육적 지위를 어떻게 강화했는지를 서술하고, 비구니 승가의 설립과 서구 페미니즘 운동을 비교하여 양 사회의 기초적 차이를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이 장은 부처님 시대의 비구니 승가는 서구의 페미니즘 운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해탈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인식한 '여성 자각 운동'이었음을 결론짓는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궁극적 목표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제 5 장은 빨리 문헌을 바탕으로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들을 조명한다. 이 장에서는 빨리 문헌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설명한다.

제 6 장은 부처님이 비구니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다룬다. 이 장에서는 빨리 문헌에서 발견되는 부처님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 사례를 논의하지만, 부처님이 여성혐오적이었다는 의미는 아님을 강조한다. 부처님이 특정 발언을 했던 것은 특정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부처님은 여성혐오자가 아니었음을 논증한다. 또한 부처님이 매우 높은 수준의 심리학자였음을 입증하려는 시도도 함께 이뤄진다.

제 7 장은 비구니의 주변화 문제를 다룬다. 이 장에서는 비구니들이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왜 주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부처님의 대반열반(대열반) 이후, 불교 승가 내에 공백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승가는 브라만적 사고를 수용하게 되었다. 불교는 여성들을 독(毒)에 비유하기 시작했으며, 부처님과 아난다(Ananda)와 같은 후원자들이 부재하면서 비구니 승가는 점점 주변화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7 세기에 중국 승려들이 인도 불교에 대해 광범위한 기록을 남겼음에도 비구니 승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본서 집필을 위해 빨리 문헌과 지난 50 년간 출판된 불교 비구니 관련 주요 서적들의 사실적 기록들을 활용하였다. 각 서적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제공하였다.

References

1. Shiva Nath Prasad and Avinash kumar Srivastava, *Issues in Ethics and Applied Ethics Serie, (Volume-Two)*2016: concept publishing company Pvt. LTD, New Delhi, P.6
2. Ibid
3. Ibid
4. Ibid P.2

5. How women are portrayed in the negative and positive form in Buddhism, one may see the the *Therīgāthē*, *Samyutta Nikāya* of the *Bhikkhūnīm Vibhār̥ga* and *Jātakas* of the *Itihavagga*.
6. The bad character of women can be seen in the *Jātaka Atthakathas* of *Itihavagga* where women killed her son for the fulfillment of her sexual desire.
7. Sri Sarada Nath, Dakshineswar, Third impression, September, 1993, P-134-35.
8. Ibid
9. The story of *isidasi* appeared in the *Therīgāthē*.
10. K.T.S Sarao, *The Dhammapada*, (translator Guide), Delhi, 2009, Niraya-vagga.
11. *Abhijjē* is a Buddhist term generally translated as direct knowledge, higher knowledge, or supernormal knowledge.

The six kinds of *abhijjās* are:-

1. “Psychic Supranormal Powers” (rddhividhabhijjā), such as walking on water, walking through solid objects, etc.
2. “Divine Eye (*divya-caksus*)—the ability to see from a far and to see the *karmic* results of the actions of an individual.
3. “divine ear” (*divyasrotra*)— the ability to hear from a far.
4. “ ability to remember one”s from lives (Purvanivasanusmrti)
5. “Mind-Penetrating knowledge (Skt. Paracittajñana: P.ceto-Pariya-nana) knowledge of other’s states of mind.
6. “Knowledge of extinction of the contaminants (asravaksaya)
12. The Buddha is free from blessing and curses. This thought—can be seen in the Book Publishing by *V.R.I*
13. This thought can be seen in the Book women in the Hindu civilization Published by motilal Banarsidass, Delhi-1956.

철회 치유의 목소리: 자기 대화가 현대 여성의 심리와 불교의 원리를 연결하는 방법

4 Voices of Healing: How Self-talk Bridges Modern Women's Psychology and Buddhist Principles

탐 락 스님(레 티 킴 응안(Ven. Tam Lac, Le Thi Kim Ngan))

(lethikimngan.du@gmail.com)

[번역: 황수경(샤카디타 코리아)]

현대 여성들은 사회적 기대, 고된 직업, 가족 책임을 조율하며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압박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자기 돌봄과 감정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여성의 심리와 불교 철학이 자기 대화를 통한 자기 치유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한다. 오늘날 여성들은 사회, 직장, 가족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 불교의 마음챙김, 자비, 자기 인식 개념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본 연구는 자기 대화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자기 사랑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분석한다. 심리학적 통찰과 불교적 가르침을 결합하여 자기 대화가 감정적 안정과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실제 사례와 연구를 통해 자기 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조명하며,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이 회복력 강화, 자존감 향상, 전반적인 삶의 질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성공적인 전문직 종사자, 양육적인 돌봄 제공자,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기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요구는 종종 스트레스, 불안, 정서적 소진 수준을 증가시킨다. 미국심리학회(APA)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기대, 호르몬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들이 남성보다 우울증과 불안 같은 정신 건강 문제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APA, 2019)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기대화(self-talk)가 변화를 위한 심리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자기대화란 개인이 자신과 나누는 내적 대화를 의미하며, 이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사고를 포함한다. 자기대화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정서적 안녕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자기대화는 회복탄력성을 촉진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반면, 부정적인 자기대화는 자기 의심과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자기대화가 인지행동적 전략으로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이 보다 지지적인 내적 서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자기대화는 개인이 자신과 나누는 내적 대화로 정의되며, 그 정신 건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인지행동심리학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긍정적인 자기대화는 정서 조절을 개선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ck, 1995). 사회적 기대와 내적 열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독특한 도전에 직면한 현대 여성들에게, 자기대화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심리학적 개입이 주목받는 현대적 흐름과 더불어, 고대 불교

철학은 개인의 성장과 치유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마음챙김(mindfulness), 자기인식(self-awareness), 그리고 자비(compassion)와 같은 개념은 긍정적 자기대화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심리학적 자기대화 과정과 매우 유사한 수행이다(Kabat-Zinn, 1994). 본 논문은 현대 여성 심리와 불교의 원리의 교차점을 고찰하며, 자기대화가 두 분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본다. 심리학적 통찰과 불교적 가르침을 통합함으로써, 여성들이 삶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고, 회복탄력성을 기르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여성 심리학의 맥락

현대 여성들은 사회적 기대, 문화적 규범, 그리고 현대 생활의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 속에서 독특한 심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직업적 성공, 가정 내 책임, 그리고 개인적 열망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압박은 종종 무거운 정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도전은 완벽주의, 다중 역할 수행,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사회적 메시지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가치는 만성 스트레스, 소진, 그리고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Flett & Hewitt, 2014).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세계보건기구(WHO, 2021)에 따르면, 여성은 주요 우울증 장애와 불안과 연관된 상태로 진단받을 확률이 남성보다 두 배나 높다. 이러한 격차는 생물학적 차이, 사회적 기대, 그리고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주어진 돌봄과 정서적 노동의 부담에서 기인한다. 미국심리학회(APA)의 2019년 보고서는 재정적 불안정, 일과 삶의 균형, 돌봄 책임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남성에 비해 여성들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대는 여성의 정신 건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름다움, 성공, 그리고 모성에 대한 이상화된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은 종종 무력감과 죄책감을 유발한다. Hochschild와 Machung(2012)은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하루를 마친 후에도 주로 가사와 돌봄의 의무를 떠맡아야 한다는 "제 2의 근무(second shift)"를 설명한다. 이러한 이중 역할은 정서적 부담, 탈진, 그리고 자기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이러한 압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종종 이상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이루기 어려운 완벽함의 기준을 조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여성들이 자존감 감소와 불안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Fardouly et al., 2015). 이러한 현상은 특히 신체 이미지와 자기 표현에 대한 압박을 추가적으로 경험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여성들은 또한 남성보다 반추(rumination)—즉,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반복적으로 몰입하는 경향—를 더 자주 경험하는데, 이는 우울증과 불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Nolen-Hoeksema, 2000). 이 반추는 부정적인 자기대화가 반복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추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여성들에게 "완벽해야 한다"와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킨다. 이런 인지적 경향은 외부의 압박과 결합하여 자기 비판과 낮은 자존감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도,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페미니스트 심리학(feminist psychology)은 기존의 방식이 성별화된 사회 구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경험을 병리화했던 점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Brown, 2009). 오늘날, 인지행동치료(CBT)와 마음챙김 기반 중재(mindfulness-based interventions)와 같은 치료적 모델들은

여성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여성들이 부정적인 자기대화를 도전적으로 바라보고, 회복탄력성을 기르며, 스트레스에 더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여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자기대화

이러한 도전 속에서 긍정적 자기대화(positive self-talk)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정적 자기대화(negative self-talk)는 종종 내면화된 사회적 기대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실패감의 지속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여성들은 보다 지지적이고 자비로운 내적 대화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대화를 치료의 핵심 요소로 사용하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왜곡된 사고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도록 개인을 격려한다(Beck, 1995). 이러한 기법은 특히 언어적·정서적 처리에 강점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적합하며,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긍정적 자기대화를 실천함으로써 외부 압력과 내면화된 신념에서 비롯된 부정적 심리 습관을 억제할 수 있다.

현대 여성들의 심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웰빙(well-being)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와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성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사회적 규범(societal norms),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s), 그리고 인지적 패턴(cognitive patterns)과 얽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전체론적 관점(holistic approach)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 자기대화(positive self-talk)는 근거 기반의 심리학적 접근(evidence-based psychological approaches)에 뿌리를 둔 방법으로, 여성들이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헤쳐 나가고, 정서적 회복탄력성(emotional resilience)을 되찾으며, 자기자비(self-compassion)를 키우는 데 있어 유망한 접근법을 제공한다. 특히, 사회적 기대(societal expectations) 속에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긍정적 자기대화는 자기수용(self-acceptance)과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대화를 위한 실용적인 기법

자기대화(self-talk)는 정서 조절(emotional regulation)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긍정적인 자기대화의 실천은 여성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 확인(positive affirmations)으로 대체함으로써 여성들은 회복탄력적 사고방식(resilient mindset)을 개발할 수 있다. 치료적 맥락에서 자기대화는 종종 인지 왜곡(cognitive distortions)에 대처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는 여성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 자기대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 이 생각을 인지한 후, 이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내면 돼”라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reframing) 과정을 통해 더 균형 잡힌 관점을 기를 수 있다.

자기대화를 실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도구로는 저널링(journaling), 마음챙김명상(mindfulness meditation), 긍정적 확인(affirmations) 및 시각화(visualization)가 있다.

1. 저널링(Journaling)

저널링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마음챙김(mindfulness)과 자기 인식(self-awareness)을 키우는 도구로서, 불교 경전인 사념처경(Satipatthana Sutta)에서 언급된 가르침을 반영한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은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정신적 패턴을 관찰할 것을 권장하며, 이는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cittanupassana)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기록함으로써 여성들은 부정적 자기대화 패턴(negative self-talk

patterns)을 식별하고 이를 탈집착(detachment)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불교에서 정신의 형성(sankhara)을 관찰하는 원리와 유사하며, 통찰(insight)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패턴이 인식되면, 여성들은 연민(compassion)에 기반한 긍정적 확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메타(Metta, 자애) 수행과 함께 부정적 신념을 대체하고 보다 건강한 내적 대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2. 마음챙김 명상(Mindfulness Meditation)

마음챙김 명상은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기대화를 더 잘 인식하도록 돕고 집착(attachment)과 혐오(aversion) 없이 자신의 사고를 관찰하도록 장려한다. 범구경(Dhammapada)에서는 이렇게 언급한다. “마음은 다스리기 어렵고, 빠르고, 원하는 곳 어디로든 간다. 길들여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범구경, 제 35 절). 명상을 통해 여성들은 내면의 대화를 알아차리고, 부정적이고 불건전한 자기대화를 부드럽게 대체하여 자애롭고 건설적인 메시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은 팔정도(Noble Eightfold Path) 중 정정진(Right Effort)의 원칙과 맞닿아 있으며, 이를 통해 불선한(unskillful) 사고를 버리고 선한(skillful) 사고를 개발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마음챙김적 인식을 통해서,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자애와 회복탄력성을 반영하는 힘 있는 메시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3. 긍정적 확언(Affirmations)

긍정적 확언의 개발과 반복은 불교의 찬팅(chanting)과 성찰적 관조(reflective contemplation)의 현대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자애경(Karaniya Metta Sutta)에서 부처님은 긍정적 사고를 반복함으로써 생겨나는 변혁의 힘을 강조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무한한 선의(boundless goodwill)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신다. “나는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는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와 같은 확언은 자신을 위해 좋은 마음을 기원하는 자애 명상(loving-kindness meditation)수행과 유사하다. 매일 이러한 긍정적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화하고, 자기 의심과 부정적인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4. 시각화(Visualization)

시각화는 긍정적인 상황을 정신적으로 리허설(mental rehearsal)하는 기법으로, 불교의 삼매(samadhi, 집중)와 선한 의도(kusala cetana)의 개발 개념과 일치한다. ‘사유를 가라앉힘 경 (Vitakkasanthana Sutta, MN20)’에서 부처님은 불선한(unwholesome) 생각을 선한(skillful) 생각으로 대체하기 위해 의도적인 집중(deliberate focus)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시각화는 여성들이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기법은 제한적 신념(limiting beliefs)을 재구성하고, 관대함(generosity), 연민(compassion), 강인함(strength)과 같은 건전한 자질을 정신적으로 배양하는 불교수행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방법들—저널링(journaling), 마음챙김 명상(mindfulness meditation), 긍정적 확언(affirmations), 그리고 시각화(visualization)—은 불교의 원리와 통합될 때, 자기 치유(self-healing)와 내적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위한 깊이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들은 부정적 자기대화(negative self-talk)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기 인식(self-awareness), 자비(compassion), 그리고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고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여성들에게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고대의 지혜에 뿌리를 두고 현대적인 삶의 맥락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안(Anh)이라는 35 세 여성 마케팅 임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anxiety)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정적인 자기대화를 인식한

후, 생각을 저널링하며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자기 의심(self-doubt) 패턴을 식별할 수 있었고, 이를 긍정적 확언으로 대체했다. 예를 들어, “나는 유능하며, 내 업무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문구를 반복하며, 그녀는 불안감의 현저한 감소와 함께 전반적인 웰빙(well-being) 증진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트람(Tram)이라는 싱글맘은 과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음챙김 워크숍에 참석한 후,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방법을 배웠다. 트람은 자기 자비(self-compassion)를 실천하며, 자신의 부정적 자기대화를 “나는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어”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로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더 수용(acceptance)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 속에서 더 큰 평화를 느끼게 했다. 이 두 사례는 실제 생활에서 자기대화(self-talk)의 실질적인 응용을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자기대화가 정서적 치유(emotional healing)와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이 내면의 부정적 서사를 긍정적이며 지지하는 내러티브로 전환함으로써, 자비로운 자기관계(self-compassionate self-relation)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현대 여성 심리학과 불교 원칙이 자기대화(self-talk)를 통해 접목될 때, 이는 깊이 있는 치유(healing)와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의 길을 제공한다. 현대 생활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기대화에 마음챙김(mindfulness)과 자기자비(self-compassion)를 통합함으로써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할 힘을 키우고 정서적 웰빙(emotional well-being)을 증진하며, 자기수용(self-acceptance)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불교의 원리와 현대 심리학의 통합은 치유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자기대화를 마음챙김과 자비의 틀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여성들은 개인적 변혁(personal transformation)을 위한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불교는 마음챙김(mindfulness), 자비(compassion), 그리고 자기 인식(self-awareness)을 강조하며, 자기 치유(self-healing)를 위한 귀중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마음챙김은 개인이 현재에 머물며,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여성들이 자기대화를 더 잘 인식하고, 부정적인 패턴을 인식하여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교 철학의 중심에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자비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를 친절, 이해, 그리고 수용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자기대화의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내적 대화를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 여성들이 자기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불교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치유와 변화로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복탄력성(resilience), 자비, 그리고 자기 역량 강화(empowerment)를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주는 것보다 요구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여성 심리학의 더 깊은 영역과 불교 철학의 풍요로움을 계속 탐구함에 따라, 자기대화를 통한 치유의 목소리는 점점 더 널리 울려 퍼질 것이다. 이 목소리는 여성들을 더 밝고 만족스러운 미래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9). Stress in America: Women report higher stress levels than men. Retrieved from <https://www.apa.org>
- Beck, A. T. (1995).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Penguin Books.
- Brown, L. S. (2009). *Feminist therap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hammapada, Verse 35, translated by Easwaran, E. (1985). *The Dhammapada: The sayings of the Buddha*. Nilgiri Press.
- Fardouly, J., Diedrichs, P. C., Vartanian, L. R., & Halliwell, E. (2015). Social comparisons on social media: The impact of Facebook on young women's body image concerns and mood. *Body Image*, 13, 38-45. <https://doi.org/10.1016/j.bodyim.2014.12.002>
- Flett, G. L., & Hewitt, P. L. (2014).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chschild, A. R., & Machung, A. (2012). *The second shift: Working families and the revolution at home*. Penguin Books.
- Kabat-Zinn, J. (1994). *Wherever you go, there you are: Mindfulness meditation in everyday life*. Hyperion.
- Karaniya Metta Sutta (Khuddakapatha 9), translated by Bhikkhu Sujato.
- Nhat Hanh, T. (2015). *How to love*. Parallax Press.
- Nolen-Hoeksema, S. (2000). The role of rumination in depressive disorders and mixed anxiety/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3), 504-511. <https://doi.org/10.1037/0021-843X.109.3.504>
- Nyanaponika Thera. (1986). *The heart of Buddhist meditation*.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 Salzberg, S. (1995). *Lovingkindness: The revolutionary art of happiness*. Shambhala Publications.
- Satipatthana Sutta (Majjhima Nikaya 10), translated by Bhikkhu Bodhi.
- Thich Nhat Hanh. (1991). *The miracle of mindfulness*. Beacon Press.
- Vitakkasanthana Sutta (Majjhima Nikaya 20), translated by Bhikkhu Nanamoli and Bhikkhu Bodhi.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Depression and other common mental disorders: Global health estimates*.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

마둘레 위지타난다 스님 (Ven. Madulle Vijithananda Bhikkuni)

(vijithananda21@gmail.com)

[번역: 황수경(샤카디타 코리아)]

1. 서론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특히 여성들은 다양한 사회적 압력과 개인적 도전들을 직면하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예컨대 임신과 같은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 도전에 더욱 취약해지는 시기로 간주된다. 여성의 정신 건강과 신체적 안녕, 그리고 사회적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 그리고 사회적 기여 증진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구니(Bhikkhuni)—불교 전통에서 완전한 비구니계 수계를 받은 여성 수행자—는 여성의 전인적 발전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전통적으로 비구니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명상 수행과 수행 환경 조성, 그리고 대중과 함께 하는 자비로운 참여로 존경받아왔다. 현대에 이르러 그들의 역할은 사회복지, 교육, 그리고 역량 강화와 같은 실천 분야로 확대되었고, 이는 여성들이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도전 과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샤카디타 명상 센터(Sakyadhita Meditation Centre)에서 활동하는 비구니들은 명상 지도, 심리 상담, 교육 자료 제공, 그리고 실생활 지원과 같은 다각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을 돕고 있다. 이들은 명상 훈련과 긍정적 사고의 함양을 통한 정신적 평화 증진, 가족 화합과 같은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 습득과 창업 활동을 장려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비구니들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선 활동, 갈등 해소,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샤카디타 명상 센터에서 여성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비구니들의 주요 활동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명상 수행을 통한 심리적 평화 증진, 긍정적 사고의 함양, 가족의 화합 증진, 그리고 교육 및 사회복지적 지원이라는 핵심 주제들을 탐구한다. 아울러, 그들의 활동이 갈등 해결,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개발, 그리고 소외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자선 활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비구니들의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영향력을 조명하고자 한다.

2.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스리랑카 샤카디타 명상 센터에서 활동하는 비구니로서, 우리의 역할은 여성들이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도록 돕는 데 있어 깊이 있고 다면적이다. 우리는 여성들이 정신적 평화를 이루고, 신체적·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며, 긍정적 사고 패턴을 형성하고, 창업 기술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한다. 다음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지원 방식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2.1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한 정신 건강 증진 및 평화로운 마음 형성

우리의 지도의 핵심은 불교 수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명상이다. 우리는 여성들이 명상을 통해 마음챙김(mindfulness), 내적 평화(inner peace), 그리고 정서적 균형(emotional balance)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Mindfulness Meditation)**과 **자애 명상(Loving-Kindness Meditation, Metta)**을 활용하여, 여성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스트레스 감소:** 명상을 통해 여성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여, 차분하고 중심이 잡힌 마음 상태로 삶의 도전을 다룰 수 있다.
- **정서적 회복 탄력성 증대:** 규칙적인 명상 수행은 분노, 두려움, 슬픔과 같은 어려운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보다 균형 잡힌 정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평화로운 마음 개발:**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여성들은 혼란과 심리적 불안을 벗어나서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기를 수 있다¹

2.2. 긍정적 사고 패턴의 형성

우리는 지도할 때 **올바른 사고(Right Thinking)**—불교의 팔정도의 한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부정적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여성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부정적 사고 재구성(Reframing Negative Thoughts):** 여성들이 자신 안의 부정적 자기 대화를 인식하고 이를 자애롭고 격려하는 생각으로 대체하도록 돕는다. 감사(gratitude)를 실천하고 삶에서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사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 개발(Developing Self-Worth and Confidence):** 많은 여성들이 무가치감(feelings of inadequacy)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는다. 여성들이 자기연민을 증진하고 자신의 내재적 가치와 능력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꿈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 **문제가 아닌 해결책에 집중(Focusing on Solutions, Not Problems):**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가르친다. 문제 해결적 사고(problem-solving mindset)를 채택함으로써, 여성들이 삶의 도전 상황을 더 능동적(proactive)이고 효율적으로 다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지원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비구니로서 우리는 전인적 웰빙(holistic well-being)을 강조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모두 아우르는 실천을 장려한다.

- **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챙김 생활(Mindful Living for Better Health):**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여성들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도록 배운다. 자신의 몸과 함께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은 신체적 필요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건강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스트레스 감소 기법(Stress Reduction Techniques):** 명상과 마음챙김 호흡(mindful breathing) 연습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예: 긴장감, 두통)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우리는 자기 인식(self-awareness)을 키우도록 도와줌으로써, 더 나은 자기 돌봄(self-care)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인적 치유(Holistic Healing):**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우리는 불교적 치유 의식(Buddhist healing rituals), 마음챙김 기반 치료법(Mindfulness-based therapies), 그리고 감정 해소

기법(emotional release techniques)과 같은 치유 방식을 친절하게 지도한다. 이러한 전인적 접근법은 신체와 마음을 동시에 돌보고 치유하는 데 기여한다.

2.4. 가족 지원 및 갈등 해결

여성들의 삶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정생활을 관리하고, 특히 부부 갈등이나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 **가족 상담(Family Counselling):** 비구니들은 주로 결혼 갈등이나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같은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우리는 자비(compassion), 비집착(non-attachment), 정어(right speech)와 같은 불교의 원리를 활용하여 여성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지도한다.
- **자애로운 관계 강화(Promoting Compassionate Relationships):** 여성들에게 가족 내에서 자비를 실천하도록 격려하며, 공감, 이해, 인내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접근법은 건강한 가족 역동을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킨다.
- **감정적 경계 설정 권장(Encouraging Emotional Boundaries):** 여성들이 건강한 감정적 경계(emotional boundaries)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는 과도한 보살핌이나 정서적 탈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2.5. 여성의 창업 역량 강화

여성들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구니로서 우리는 이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창업에 대한 지도 제공(Providing Guidance on Entrepreneurship):** 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기술과 열정에 부합하는 기회를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해 창업 아이디어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명상과 마음챙김 수행은 여성들이 내적 지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우리는 금융 관리, 마케팅, 의사소통을 포함한 비즈니스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조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기술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다.
- **위험 감수와 끈기에 대한 격려(Encouraging Risk-Taking and Perseverance):** 창업에는 용기가 필요하며, 우리는 여성들이 심리적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한다. 실패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지도하며, 끈기(perseverance), 인내(patience), 그리고 긍정적 사고방식(positive mindse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멘토링 및 지원 네트워크(Mentorship and Support Networks):** 비구니들은 창업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의 멘토(mentor)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창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기를 유지하며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6. 사회 서비스 및 복지 제공

정신적·영적 지도를 넘어, 비구니들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 **빈곤한 여성들을 위한 음식과 자원 제공(Food and Resources for Women in Need):** 비구니들은 빈곤한 여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음식, 의류, 기타 필수 자원을 제공하는 자선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즉각적인 물질적 필요를 충족함으로써, 여성들이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이는 장기적인 성공(long-term success)을 위한 기반이 된다.
- **도서 및 교육 자료 배포(Distributing Books and Educational Materials):** 우리는 여성들에게 책, 교육 자료, 그리고 영적 가르침을 제공하는데, 이는 이러한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교육은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은 여성들이 개인적·전문적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지지적 공동체 형성(Creating a Supportive Community):** 사찰 내에서 공동체 의식을 조성함으로써, 비구니들은 여성들이 서로 연결되고,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러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은 여성들의 정신 건강(Mental Health)과 자신감(Self-Confidence)에 필수적이며, 그들이 성공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는 데 동기를 촉진한다.

2.7. 여성들이 목적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동기 부여

비구니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들이 목적, 평화,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성들을 돕는다.

- **삶의 목적 발견(Discover Their Life Purpose):** 명상과 성찰을 통해 여성들이 내면의 가치와 연결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지원한다. 삶에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성공과 삶의 충만함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 **목표에 집중함(Stay Focused on Their Goals):** 우리는 여성들이 집중력, 회복탄력성, 그리고 결단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마음챙김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현재에 머무르고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산만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 **자기 사랑과 자비의 수용(Embrace Self-Love and Compassion):** 성공의 핵심 요소는 자기 사랑(self-love)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self-worth)와 능력을 믿도록 격려하며,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과 신뢰(Trust)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3. 기여에 대한 기대(Expected Contributions)

본 연구는 비구니들이 명상, 긍정적 사고(positive thinking), 교육, 그리고 사회 복지를 통해 여성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구니들이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역량(economic empowerment)을 촉진하는 데 있어 수행하는 역할을 문서화해서, 여성과 그 가족들의 웰빙에 대한 비구니들의 중요한 기여를 조명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비구니들이 특히 취약 계층 여성(marginalized women)과 임신 여성(pregnant women)처럼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어떻게 그들의 영향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입안자(policymakers), 실무자(practitioners), 그리고 관련 조직들에 유용한 정보와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샤카디타 명상 센터에서 활동하는 비구니들이 여성과 어린이의 역량 강화(empowerment)에 있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그들의 지원은 단순한 영적 지도(spiritual guidance)를 넘어, 정신적 평화(mental peace), 정서적 회복탄력성(emotional resilience), 그리고 실질적 생활 기술(practical life skills)을 강화하는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제공한다.

비구니들은 명상, 긍정적 사고, 그리고 창업(entrepreneurship)을 통해 여성들이 개인적 및 전문적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다. 또한, 비구니들은 교육, 멘토링(mentorship), 사회복지와 같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financial independence)과 삶의 충족(fulfilment)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또한 여성들이 가족 문제(family challenges)를 관리하고, 열망(aspirations)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전반적인 웰빙(overall well-being)과 행복(happiness)을 증진한다. 비구니들의 활동은 변혁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에 영감을 주며, 역량 강화, 사회적 평등(social equity), 그리고 평화롭고 성공적인 사회(peaceful, successful society)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

5.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본 연구에서 샤카디타 명상 센터(Sakyadhita Meditation Centre)의 비구니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저를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혜와 헌신으로 이 연구의 방향을 형성해 주신 비구니스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여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신 여성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제 연구의 학문적 측면과 영적 측면 모두를 풍요롭게 해주신 저의 영적 스승과 선배 비구니스님들께 감사드리며, 불교 승가 공동체가 제공해 주신 필수적인 자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지원을 보내주신 동료 비구니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샤카디타 명상 센터 비구니들의 집단적 지혜와 영향력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6. 참고문헌

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의 핵심 문헌(Key Texts)에 대한 예비 문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구니 역사(Bhikkhuni History): 불교 맥락에서의 젠더 연구(Gender Studies in Buddhist Contexts)

종교 기관에서의 모성 건강(Maternal Health in Religious Institutions)

영적 환경에서의 아동 발달(Child Development in Spiritual Environments).

이들 문헌은 제안된 연구를 위한 기초적 기반(Foundational Base)을 제공할 것이다.

앨리스헝크 윈햄 (Alicehank Winham)

(ahwinham@uchicago.edu)

[번역: 이영희(국제포교사, 샤카디타 코리아)]

본 연구는 사부대중(fourfold sangha)이 어떻게 논리학, 형이상학, 문화, 젠더 실천에 대한 세계적 담론을 형성하여 수행자 및 글로벌 공동체의 구원론적 변혁 가능성을 열어가는지를 탐구한다.

이 접근법은 다음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다룬다.

1. 불교와 학문적 기관 간의 연결을 구축하여 젠더라는 복합적인 주제에 대해 공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방식—추상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일상적 삶, 사회적 역할, 미래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젠더 지정이 수행 및 삶의 조건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물이 되어온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앞으로 포괄적이고 존중받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을 모색하는 방식을 논의한다.

본 논문은 불교 여성(womxn)의 출가, 교육, 생활 실천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이에 응답하며, 젠더 철학 및 페미니즘 학문과의 교차점을 분석한다. 특히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젠더 이론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불교와 철학이 유럽-미국 학계에서 분리된 채 유지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젠더에 대한 현대적 집단 사고를 변혁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논문은 사부대중(bhikṣu, bhikṣuṇī, upāsaka, upāsikā)인 상가가 논리, 형이상학, 문화, 젠더 관행, 그리고 전 지구적 공동체의 해탈적 전환을 포함하는 더 넓은 세계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공(sūnyatā)의 사유를 젠더와 같은 사회존재론적 범주에 적용함으로써 어떠한 철학적 가능성도 도출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만일 젠더가 현실에 고정된 실재가 아니라면, 젠더/성(sex)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부대중인 상가의 미래는 어떻게 구상될 것인가? 불교 여성들이 이해하는 ‘여성성’은 세계적 페미니즘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떻게 젠더 이분법을 넘어서 불교 여성들을 위한 구조적 수계와 교육에 도움을 줄 것인가?

본 논문은 불교 여성의 수계, 교육,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학문적 페미니즘 및 젠더 철학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1) 불교 및 학문 기관 간의 다리 놓기가 추상적 개념이 일상과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연결시켜 공적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2) 젠더 좌표찍기가 해탈의 길에서 제도적 장애로 작용해온 이들을 위해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과거에 어떤 구체적 행위가 있었으며,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가? 본 발표는 유럽계 미국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묘사하며, 자성공성(svabhāvasūnyatā, 내재적 본성)에 대한 수행자들의 해석을 젠더 관행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앵글로계 미국인, 젊은 철학 박사과정 학생인 나는, 불교 여성 수계자들의 조건을 다루는 많은 국제적 담론에 응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티베트 여성, 수계 수행자, 학자이자 활동가들 사이의 최근 국제 협력, 라룽가르(Larung Gar)의 다끼니 대법장(Dakinis' Great Dharma Treasury)에 실린 불교 여성의 저술, 그리고 비구니 잠빠 체드론(Jampa Tsedroen)의 *티베트 대장경에서의 비구니 수계(The Buddhist Nuns' Ordination in the Tibetan Canon)*¹ 등으로부터 자료를 포함하며 이러한 통찰이 전통적이고 '급진적'인 유럽-미국 철학과 젠더 이론 연구자들과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의 게세마(Geshe-ma) 학위 수여, 율장 접근성, 티베트 전통 내 구속계 허용,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대표성 확대, 그리고 티베트 고유의 여성성 개념 등이 상호 의존적으로 젠더화된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추적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젠더에 대한 깊이 뿌리내린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수계 실천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 수정, 협업을 환영한다.

2012 년 가을,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Tibetan Nuns Project) 뉴스레터의 주요 기사였던 “학위 수여에 대한 역사적 결정”은 “티베트 불교 전통의 스님들이 마침내 게세마 학위² 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 고등 학위는 역사적으로 남성 승려에게만 수여되었으나, 이제 여자 스님에게도 수여됨으로써 “불교 사원 교육 체계 내에서의 학문적 성취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해당 뉴스레터는 이 학문적 학위와, “부처로부터³ 전승되어온 계맥에서의 서원을 포함하는 구속계 수계 문제”를 구분하여 대비시켰다. 10 년 후인 2022 년, 드룩파 까규(Drugpa Kagyu)라는 티베트 불교의 한 전통 학파는 남성의 구속계(비구계)가 8 세기 CE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교해서 최초로 티베트 불교 전통의 여성들에게 구속계를 수여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계율(Vinaya)이 학문적 고급 학위인 게세마(geshema)와 구속계 여성 수도승(gelongma)의 제도를 관통하며, 티베트 불교 사원 커리큘럼에서 게세마 과정의 마지막 매듭을 결속한다는 점에 있다. 계율은 성 차별적 관점에서 해석되고 적용된다. 특히, 계율을 해석하는 권위자들의 성 차별적 시각과 태도가 다양한 문화에 걸친 불교적 이상의 실현을 결정하게 된다. 불교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열망하는 만큼, 계율의 적용 방식 또한 변화할 것이다. 한 켄모(Khenmo)는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는 관점을 줄이는 것”을 촉구하며, “당신이 법을 수행하는 자라면, 수행하라!”는 외침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우리는 여성에 대해 연구해야 하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상호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각 문화권의 여성 중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면, 비록 많은 재산이나 능력이 없더라도 각자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것이며, 서로가 성과를 얻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⁴ 지난 50~60 년 동안, 특히 1987 년 이후 티베트 시위에서 젊은 수계자들의 활동은 변화하는 규범⁵ 을 보여주며 교육의 발전을 증명한다. 여성 수계자의 시라(sīla)는 “외부 관찰자에게는 단순히 억압적으로⁶ 보이는 권력 관계 내에서의 주체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여성 수행자들이 변화하는 불교 관행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주목해야 한다.

다양한 불교 공동체와 문화는 계율을 실행하는데, 이는 출가 요건을 규정할 뿐 아니라 티베트 교육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최근 계율 적용 방식은 비구니, 게세마, 겐롱마들에게

¹ Dr Carola Roloff

² (2012:1)

³ (2012:1)

⁴ (Padma'tsho and Jacoby 6)

⁵ (Härkönen 5)

⁶ (Härkönen 10)

과거에는 남성 수도승에게만 허용되었던 교육 및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며, 문화 적응성과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성 차별에 대한 태도가 시간과 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진보가 상실되기 쉽다는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교 철학적 자원을 활용해 성별과 계율을 해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공(sūnyatā)을 성별에 적용하여 티베트 여성들의 불확정적인 미래에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점점 많은 유럽과 미국의 철학자들이 성별 이분법에 의해 분리된 승가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는 속성과 객체, 관계가 우리의 정신과 인식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성별과 또는 생물학적 성은 현실의 본질에 객관적으로 근거한 개념이다.

반면, 성별 이론가 및 반본질주의자는 이러한 성별 본질주의를 문제 삼으며, 성별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승가 내에서 규범적으로 유지된다고 본다. 이 두 그룹의 견해에 따라 불교 기관들은 궁극적으로 성별 및 생물학적 성의 본질주의를 강화하거나 그것이 고통의 종식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sūnyatā), 즉 본질적 특성의 공허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불교 가르침을 분석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고, 다른 권위자들을 신뢰할 수도 있다. 불교의 여성 수계자들의 증언이 우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집합적 정체성은 유럽-미국 사회에서 기대되는 성별 이분법을 넘어 작동한다.

이 여성 수계자들은 교육, 경제적 환경, 가족계와 관련된 복합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는 본래 계율(Vinaya)의 귀의가 지원해야 하는 해탈을 위한 수행(soteriological practice)에 장애가 된다. 이들을 지칭하는 것조차 남성 수도승들과 비교할 때 더욱 복잡하다. 불교 경전은 부처님 시대부터 비구니들이 출가했음을 기록하지만, 몇몇 출가 계보(ordination lineages)만이 단절 없이 지속되었다. 각국은 출가 계보를 복원하려는 초국가적 노력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예를 들어, 태국과 미얀마에서는 “메치(Mae chis)”와 “틸라신(thilasins)”은 지역적으로 명칭과 수행 방식을 적용하고 “비구니로서 출가하는 전통”(the tradition of ‘going forth as nuns’)을⁷ 지속하려는 강인한 적응력을 보여주며 변화를 추구한다. 나의 소망은 세계적 동맹자들이 비구니들의 입장을 인식하고 참조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평등을 옹호하는 모든 이들이 배제, 침묵, 그리고 지식과 존재의 체계적 평가절하에 대응하기 위해 소통 및 해석 자원을 공동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괄적인 역량 강화 용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성 차별 개념에 대한 명확화 및 비판적 질문이 수반되어야 한다.

내 연구에서 수행자들은 계율을 통해 “점진적으로 여성이 비구니로 변모”⁸ 하는 과정을 성별 정체성에 투영한다. 이는 우바사카(upāsikā), 사라마네리카(śrāmaṇerikā), 식사마나(sikṣamāṇā), 비쿠니(bhikṣuṇī)와 같은 계율의 출가 단계를 통해 영적 수행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일부 ‘과거에 여성으로 태어난 자들’은 출가 후 “우리는 더 이상 여성이 아니다”⁹ 라고 주장한다. 세계의 성 차별 용어는 처음에는 수행의 길을 나누지만, 반드시 지속될 필요는 없다. 태국 및 티베트의 수행자들은 두 성별로 나뉜 승가의 모습이 불교적 해탈의 길이 장려하는 이원성을 초월하는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성찰한다. 사실, 일부 전통에서는 여성이 현재 생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계율의 일부 성 차별적 해석은 불교 가르침의 이해 및 실천과 관련된 이러한 성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계율이 고정된 성별 이해에 종속되지 않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을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변혁이 가능하다. 나는

⁷ (Havnevik 15)

⁸ (Scheider 2023:2)

⁹ (Salgado 7)

티베트 전통 내에서 여성 또는 성별 비규범적 존재로 식별되는 이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듣고 볼 수 있는 개념적 공간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강승 불교(Vajrayāna Buddhism)는 여신, 보살, 부처, 요기니(yogini), 다키니(hekinin) 등 우월한 여성적 존재들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는 망명한 티베트인들과 라룽가르(Larung Gar)의 켄모(khenmo)들이 불교를 넘어 티베트 민족성을 활용하여 티베트 불교의 '성별 문화'에 대한 급진적 역사 재해석을 시도하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 그들은 교육과 출가를 통해 증가한 불교의 권위적 자원을 이러한 시도로 연결하고 있다. 라룽가르 켄모들은 2017 년 《다키니의 위대한 법보전(Dakinis' Great Dharma Treasury)》에서 티베트 여성에 관한 53 권 이상의 저작을 출판하였는데, 그들은 지혜의 화신(Wisdom Incarnate)으로서 지배적인 성 차별을 "몇몇 편향된 구습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고 "단순히 지나간 역사로 폐기되었다"¹⁰ 고 규정한다. 이들은 출가 과정과 행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계율학(Vinaya-scholarship)을 생성하였고, 공동체가 함께 다르마-비나야 수행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우선, 교육부터 시작해서, 티베트 불교 종파의 남성 수장들은 공통의 무라사르바스티바다 계율(Mūlasarvāstivāda-Vinaya)을 권위적으로 해석한다. 계세마(geshema)와 겔롱마(gelongma)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계율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이는 일반적으로 장기 수도 과정에서 마지막 강의로 듣거나 계율 전문가들만 공부하기도 한다. 2011 년, 독일 출신 쏘마 켈상 왕모(Kelsang Wangmo)는 다람살라의 불교 변증법 연구소(Institute for Buddhist Dialectics)에서 20 년간 공부한 끝에 최초의 계세마가 되었다. 그녀의 개척적인 길은 남성 계세와 마지막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계율(Vinaya)이 핵심 과정이었으나, 그녀는 완전한 출가를 하지 않아 프라티모카(Pratimokṣa)를 공부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그녀의 스승은 관련 문헌을 추천했다. 1951 년 이후 재건 노력 속에서 교육 기회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지만 이 단일 학위 취득자는 반복 가능한 학위 과정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도식적 박사 과정의 최종 계율 단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다.¹¹ 티베트 여성들은 "여자들은 특정한 일을 할 수 없고, 특정한 일을 끝낼 수도 없는데, 학교에 왜 가야 하는가?",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¹² 와 같은 신념에 맞서고자 했다. 특히, TNP(티베트 여성 네트워크) 이사 린첸 칸드로 초갈(Rinchen Khandro Choegyal)의 뛰어난 정치적 전략이 인도 초기 주석에 기반한 계율 커리큘럼을 통해 계세마 학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계세마 학위 취득 이후 이들은 비구니 승원으로 돌아가 교육을 담당하면서 성별 문화가 변화하였다. 2020 년, 카롤라 롤로프(Carola Roloff) 박사는 여성 수계와 구족계 절차를 포함한 *Mahēprajēpatīgautamīnastu (MJP)* 와 *Bhikṣur yupasaḥ padējṛapti (BSJ)* 라는 티베트-영어로 된 비판적 판본을 발표했다. 롤로프박사는 카르마-까규(Karma-Kagyū) 전통의 17 대 까르마파(Karmapa)가 2015 년에 '교파를 초월한 출가를 선호했으며, 다른 학파들이 주저했던 것과 대비되는데, 이는 승가(Sangha)의 안정성¹³ 을 보장하려는 의도였음을 설명한다. 또한, 그녀는 구루다르마(gurudharmas)의 다양한 판본(recensions) 간 차이를 분석한다. 그녀의 연구는 규율의 역사성이 사용 기준으로 작용하는 기존 접근을 넘어서서, 단어의 가능한 해석을 질문하는 방향으로 전환점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여성 수계자들의 증가하는 학문적 접근성과 재가 수행자들이 성별 개념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가 기존의 성 차별 문화와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별 정체성의 초월(transcendence of gender

¹⁰ (Padma'tsho and Jacoby 1)

¹¹ Pramana, Prajnaparamita, Madhyamika, Abhidharma, and Vinaya

¹² (Padma'tsho and Jacoby 4-5)

¹³ (Roloff 330)

identity)을 영적 수행(spiritual progression)과 구루다르마의 체계적인 기술 및 전달 방식과 병행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면밀히 분석하면 '여성'에서 '비구니(bhikṣuṇī)'로 변화하는 과정이 보이며, 이는 해당 공식(formula)이 여성으로 인식되는 동안만 여성에게 적용된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만약 재가 수행자들의 인식이 변화한다면, 이 대비('여성') 자체가 변화하거나 사라지거나 급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discrepancy)에 대해 여성 수행 희망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승가가 이러한 문헌을 철저히 검토한다면, 기저에 있는 문화적 가정이 드러날 수도 있다.

2022 년, 부탄에서 144 명의 겔롱마(gelongma)가 수계를 받았다. 게세마(geshema) 학위 수여와 겔롱마 출가가 제도화되면서, 이러한 칭호를 지닌 이들은 성 차별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다. 세계 철학 담론은 어떻게 계율, 성별, 그리고 정치와의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 불교 여성들의 교육 및 출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결전장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주목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 이 결정의 장에서 역사적 진보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게세마(geshema)는 티베트 여성 네트워크(TNP)의 당시 이사가 대표자들이 법률 개정 위원회(DRC)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했을 때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겔롱마(gelongma)는 부탄 왕비가 그들의 어려움을 지원했을 때 출가의 길이 더욱 열렸다. 마하프라자파티 고타미(Mahāprajāpatī Gautamī)는 아난다(Ānanda)의 중재와 8세기 왕의 아내가 출가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다. 따라서 세계적 지지자들은 오직 여성 수행자들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치적 공간을 원하십니까? 결국 1892~1940 년의 교사이자 비구니 배우자인, 세라 칸드로(Sera Khandro)는 자신의 영적 소명을 아버지의 정치적 야망과 대비하여 전망했다.¹⁴ 게세마와 겔롱마는 비이원적(non-dual) 성별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켄모(khenmo) 및 기타 불교 여성 수행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하나의 불교적 성별 개념을 가정할 수 없다. 반본질주의(anti-essentialism)가 성별을 유용한 범주로 삼는 개념 자체를 도전할 때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철학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이러한 선언이 여성 수행자들의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성별 초월(transcendence of gender)이 사부대중(fourfold Sangha)이라는 제도적 구조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 반대로, 불교 여성 수행자들은 그러한 성별 이론가들에게 무엇을 공유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철학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계율 해석 분야에서 어떻게 대표되기를 원하는지 질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법률 개정 위원회(DRC) 망명 회원들은 계율에 따른 '침묵의 동의(consent by silence)'를 따른다. 그러나 여성 수행 희망자 대표자들이 부재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동의하거나 반응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발언해 주세요.”¹⁵

라룽가르(Larung Gar)의 켄모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특히 티베트 소녀들이 ‘우리는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며 열등하다고¹⁶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티베트 승려들의 성별 개념이나 목표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재가 철학자로서 당신들의 요청을 신중히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교육, 출가, 계율, 그리고 결정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철저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깊이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간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단순히 학술 담론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및 다른 불교 소녀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칭호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나는 경청하고 행동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¹⁴ (Tsomo 287)

¹⁵ (Roloff 226)

¹⁶ (Padma'tsho and Jacoby 1)

BIBLIOGRAPHY

- Bodhi Bhikkhu (2011). *Bhikkhu Bodhi on Bhikkhunī Ordination II*. [online] Gotami Vihara Society Malaysia. Available at: <https://snfwrenms.wordpress.com/2011/08/24/bhikkhu-bodhi-on-bhikkhuni-ordination-ii/>
- Buswell, R. E. et al. (2014)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 Course Book. [Onlin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ple, J. E. et al. (2019) *Morality and Monastic Revival in Post-Mao Tibet*. Mark Michael Rowe (ed.). [Onlin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Chodron, V.T. (2022) ‘Western Buddhist nuns in the Tibetan tradition’, *Thubten Chodron*, 2 August. Available at: <https://thubtenchodron.org/2022/08/western-buddhist-nuns/> (Accessed: 24 April 2024).
- Crosby, K. (2014) *Theravada Buddhism: continuity, diversity and identity*. Chichester, West Sussex, UK ; Malden, MA: Wiley-Blackwell.
- Dickie, T. (2022) ‘Women’s works in the bdrc archive’, *Buddhist Digital Resource Center*, 1 December. Available at: <https://www.bdrc.io/blog/2022/12/01/womens-works-in-the-bdrc-archive/> (Accessed: 24 April 2024).
- Falk, M. Lindberg. (2007) *Making fields of merit Buddhist female ascetics and gendered orders in Thailand*. Copenhagen: NIAS Press.
- Härkönen, M. (2016) *Tibetan Nuns between Oppression and Opportunities: An Intersectional Study*. University of Helsinki. Available at: <https://core.ac.uk/download/pdf/78565855.pdf>.
- Haynevik, H. (1989) *Tibetan Buddhist nuns: History, Cultural Norms, and Social Reality*. Oslo: Norwegian University Press.
- Jacoby, S. (2023) ‘Women and wit in tibetan buddhist literature’, *Journal of Tibetan Literature*, 2(1), pp. 181–203. Available at: <https://doi.org/10.58371/jtl.2023.52>.
- Langenberg, A. P. (2017) *Birth in buddhism : the suffering fetus and female freedom*. Oxford: Routledge.
- Padma’tsho (Baimacuo) and Jacoby, S. (2020) ‘Gender equality in and on tibetan buddhist nuns’ terms’, *Religions*, 11(10), p. 543. Available at: <https://doi.org/10.3390/rel11100543>.
- Price-Wallace, D. (2023) ‘Buddhist pro-woman attitudes towards full ordination: tibetan and himalayan monastics’ views’, *Journal of Global Buddhism*, 24(1), pp. 1–24. Available at: <https://doi.org/10.26034/lu.jgb.2023.3140>.
- Roloff, C. (2020) *The Buddhist nuns’ ordination in the Tibetan canon: possibilities of the revival of the Mulasarvastivada Bhiksuni lineage*. Bochum: ProjektVerlag (Hamburg Buddhist studies, 15).
- Salgado, N.S. (2013) *Buddhist nuns and gendered practice: in search of the female renunciant*. Oxford University Press. Available at: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9760022.001.0001>.
- Sasson, V. R. (2023) *The gathering : a story of the first Buddhist women*. Sheffield: Equinox Publishing.
- Schneider, N. (2022) ‘A revolution in red robes: tibetan nuns obtaining the doctoral degree in buddhist studies(Geshema)’, *Religions*, 13(9), p. 838. Available at: <https://doi.org/10.3390/rel13090838>.
- Schneider, N. (2023) ‘Editorial: gender asymmetry and nuns’ agency in the asian buddhist traditions’, *Religions*, 14(2), p. 285. Available at: <https://doi.org/10.3390/rel14020285>.
- Talbot, M. (2017) *Bhikkhuni ordination: buddhism’s glass ceiling*, *Tricycle: The Buddhist Review*. Available at: <https://tricycle.org/magazine/bhikkhuni-ordination-modern-buddhism/> (Accessed: 24 April 2024).
- Thanissaro Bhikkhu (2007). *Bhikkhunī Pāṭimokkha: The Bhikkhunīs’ Code of Discipline*. [online] www.accesstoinsight.org. Available at: <https://www.accesstoinsight.org/tipitak/vin/sv/bhikkhuni-pati.html>
- Tibetan Nuns Project* (2012) ‘Historic Decision to Grant Degree’, p. 1. Available at: <https://tnp.org/wp-content/uploads/2013/10/TNP-Newsletter-2012.pdf>.
- Tsomo, K. L. (2016) Love and Liberation: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the Tibetan Buddhist Visionary Sera Khandro by Sarah H. Jacoby (review).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Online] 35 (1), 286–288.
- Yamamoto, K., Page, T. and Dharmakshema (2007) *The Mahayana Mahaparinirvana Sutra*. (Taisho Tripitaka). Available at: <https://terebeess.hu/english/mahap.pdf>.

논문 발표자 소개(가나다 순)

젠둔 라무 스님(Gendun Lhamu)[인도]: 젠둔 라무 스님(Venerable Gendun Lhamu)은 1991년 7월 15일 아루나찰프라데시 타왕 크탈링에서 출생하였으며, 9세에 싱소르 아니 곤파에서 출가하였다. 할머니 아니 룽상 페마의 지도 아래 승려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서캄엥 지역 다흥에 위치한 히말라야 문화 연구 중앙 연구소에 입학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현재 동 연구소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인도 히말라야 지역 대승불교 비구니의 역사적 문서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파 부족 출신으로서 유일한 현역 비구니 및 연구 학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라다크, 히마찰프라데시, 시킴, 아루나찰프라데시 등 네 개의 히말라야 주를 대상으로 비구니 수행처 및 비구니들의 삶을 연구하고 있다. 불교 수도 생활과 젠더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학술회의 및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남갈 라모 스님(Namgyel Lhamo)[부탄]: 남갈 라모 스님은 부탄 출신으로 26년 가까이 승려 생활을 해왔다. 스님은 2013년 6월 인도 바라나시 사르나트에서 중앙 티베트 고등 연구소(CIHTS)에서 불교 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부탄 비구니 재단(BNF)에 합류하여 10년 이상 프로그램 담당자로 일했다. 부탄의 비구니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BNF와의 여정에서 가장 큰 역할과 성과는 2022년 6월 21일 구족계(Full Ordination) 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이는 21세기에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2017년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동서 센터(East West Centre)의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직업 생활에 큰 영향을 받았고 BNF에서 일하면서 족첸(Dzogchen)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가진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스님은 CIHTS에서 부탄의 여성 승려 전통 연구(The Study of Female Monastic Tradition in Bhutan)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PhD) 과정을 밟고 있으며, 내년에 박사 학위 취득 예정이다.

남진숙(Nam, Jin-sook)[한국]: 남진숙은 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교수이자 한국 교수·불자 협회(Korean Association of Professors and Buddhists)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가 불자로서 한국어 및 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에서 주로 글쓰기 및 융합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디키 팔무 셰르파 박사(Diki Palmu Sherpa)[인도]: 디키 팔무(Dr Diki Palmu)박사는 시킴 주정부 수의 서비스부의 부국장이자 축산 감독관이다

따시 초둑(Tashi Choedup)[인도]: 타시 최둑스님은 15년 이상 인권과 사회 정의 운동에서 활동해 온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7년 이상 승려(nunk)로 수행했다.

Telangana Hijra Intersex Transgender Samiti와 Queer Swabhimana Yatra의 창립 멤버이고 텔랑가나 주 정부 트랜스젠더 복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스님은 텔랑가나 경찰 여성 안전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Pride Place: 트랜스젠더 (LGBQIA+) 보호 셀'의 개념화와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경찰관들의 인식 개선 및 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현재 하이데라바드 유간타르의 Queer-Trans Wellness and Support Center (QT Center)에서 일하고 있으며 마하야나 전통 보존 재단(FPMT)의 인도 전국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고, 안베시 여성 연구 센터의 집행 위원이다. 인도 교회 협의회(NCCI) 산하 전국 교회 연합 젠더 및 성 소수자 포럼(NEFGSM)의 핵심 그룹 멤버이기도 하다.

타시 초둬스님은 LGBTQIA+ 사람들을 위한 동료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주요 관심 분야는 커뮤니티 구축, 퀴어 권리, 정신 건강, 종교 및 신앙과 이들의 상호 연결성이다. 또한 완화 의료, 농민 자살, 가사 노동자 등과 관련된 업무에도 참여했다.

어떤 영적 수행도 비정치적일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불교철학과 명상수행을 사회 정의 운동과 통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라셀 사루야(Rachelle Saruya)[일본/미국]: 레이첼 사루야(Rachelle Saruya)는 비구니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 외에도, 재가 여성들이 아비담마 가르침을 국제적으로 전파하는 역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버마계 미국인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의 테라와다 불교 경험, 경전 속 자녀를 기원하는 의례 및 현대 미얀마 여성들의 수행과 관련해서 저술하였다.

로 파이 링(Loh Pai Ling)[말레이시아]: 로 파이 링 자매는 선구적인 불교 지도자로서, 말레이시아 불교 선교회(BMSM)의 첫 여성 회장이라는 역사를 만들었으며 현재 여섯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그녀의 BMSM 여정은 카장 지부의 위원회와 명예 비서직에서 시작했으며, 현재는 BMSM 명상 섹션을 이끌고 있다.

Loh 자매의 영향력은 다양한 리더십 역할을 통해 국내외로 확장되었는데, 현재 말레이시아 불교 자문 위원회(MBCC)의 부회장이며 전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가 종교간 위원회에서 불교계를 대표하며, 세계 불교도 우의회(WFB)의 종교간 대화 상임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 종교 자유 여성 협회(IARLW)의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20년 이상 종교간 대화와 불교 리더십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Loh 자매는 말레이시아의 종교적 화합과 이해에 크게 기여했으며, 불교 리더십 분야에서 여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마두리 쿠드왈카르(Madhuri Kudwalkar)[인도]: 마두리 쿠드왈카르는 뭄바이 소마이야 비디야비하르 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K.J. 소마이야 불교학 센터에서 불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소마이야 비디야비하르 대학교 K.J. 소마이야 인문학 연구소에서 연구 조교로 활동하고 있다.

마둘레 위지타난다 스님(Ven. Madulle Vijithananda) 스님[스리랑카]: 마둘레 위지타난다 비구니 스님(스리랑카 샤카디타)은 스리랑카 판두라에 위치한 샤카디타 명상 및 수행 센터의 원장으로서 2003년부터 활동해 왔다. 불교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법문 교육, 명상 지도, 사회복지 활동에 헌신하고 있다. 또한 임신부 상담, 불교 학교 운영, 영적 활동 조직, 빈곤 가정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교 간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만에서 비구니 수행을 위한 연수를 받았고 이러한 공헌으로 '불교 교리 연구 석사 학위와 불교 승가 발전 공로상'을 수상했다.

말리아 웅(Malia D. Wong) 박사[미국]: 말리아 D. 웅 박사는 호놀룰루 샴이나드 대학교 종교학과

조교수이다.

미아 리빙스턴(Mia Livingston)[스코틀랜드/미국]: 미아 리빙스턴은 영국 불교 관조회(Order of Buddhist Contemplatives)에서 20년간 선불교 재가 수행자로서 수행해 왔다. 그녀의 부모는 스웨덴과 필리핀 출신이며, 두 나라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남부 아프리카에서도 성장했다. 현재 미국에서 남편 및 막내 의붓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전직 저널리스트 및 심리치료사로 활동했던 그녀는 현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신체화 심리치료(embodied psychotherapy)와 자기민족지(autoethnography)를 연구하는 박사 과정생이다.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LinkedIn](www.linkedin.com/in/mialivingston), (<http://mialivingston.com>), [Facebook](<http://facebook.com/msmialivingston>))를 통해 그녀와 연결할 수 있다.

사라 하딩(Sarah Harding)[캐나다]: 사라 하딩은 티베트 불교 상파 카규 계열의 라마이며, 1972년 칼루 린포체의 제자가 되었고 1980년 그의 지도 아래 서양인을 위한 최초의 전통적인 3년 수행을 성만하였다.

교사 및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1992년부터 2018년까지 볼더에 위치한 나로파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차드라 재단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현재는 티베트 불교 문헌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창조와 완성』, 『마침의 완전한 설명』, 『니구마, 환상의 여인』, 『페마 링파의 생애와 계시』, 『지식의 보고: 밀교적 가르침』, 『소중한 가르침의 보고: 제11~14권』, 『네 개의 티베트 불교 계보』, 『dakpo 카규 사상의 장식』, 그리고 최근 출간된 『세버런스: 초기 초 수행』 등이 있다

산드라 응 시우 산(Sandra Ng Siow San)[말레이시아]: 산드라 응 시오 산은 인간의 여정, 실천, 경험 및 의미 형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학습자, 실천자, 교육자, 디자인 사고 전문가(Design Thinker), 그리고 마사 벡 연구소(Martha Beck Institute)의 공인 '길라잡이 라이프 코치(Wayfinder Life Coach)'로 활동하고 있다.

박사 연구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이야기와 통찰을 인지를 넘어 전형적인 인간 경험(archetypal human experience)으로 깊이 탐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siowsan@gmail.com으로 질문이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산따짜리 스님(Rev. Santacāri)[스리랑카]: 산따짜리 스님은 미얀마 출신 비구니로, 현재 스리랑카 페라테니야 대학교에서 불교 문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2015년에 불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승려 생활은 양곤의 수카카미 비구니사원에서 시작했으며, 수행에 전념하면서 파라히타 센터에서 어린 비구니들과 아이들을 가르쳤다. 불교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고자 양곤에 있는 국제 테라와다 불교 선교 대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고 스승 비구니의 격려로 스리랑카에서 심화 학습을 계속하고 있다.

스님은 미얀마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7인 가족 중 유일하게 승려의 삶을 선택했고 배움과 가르침, 그리고 타인을 섬기는 일에 대한 헌신을 통해 진정성과 헌신으로 정진하고 있다.

지천 스님[釋知泉; Shi Zhiquan][대만]: 스님 쉬 쯔 취안은 포광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6년 성운 대중사 아래에서 출가하였다. 과거 포광산 인문불교연구소에서 근무하였고 관심 분야는 대만 불교 비구니 공동체의 발전과 인문불교 실천이다.

신디 라시콧[미국]: 『Fresh Existence: Heart Teachings from Bhikkhuni Dhammananda』는 담마난다 비구니의 주목할 만한 삶과 강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다.

2005년, 신디는 가족과 함께 태국을 여행하던 중 담마난다 비구니를 만나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 이러한 영적 여정을 『Finding Venerable Mother: A Daughter's Spiritual Quest to Thailand』라는 수상 경력이 있는 회고록에 기록하였다.

신디는 나콘 빠툼에 위치한 여성 전용 사찰 송담마갈야니 사원에서 담마난다 비구니에게 두 차례의 임시 사미니 계를 받았다. 또한, 유튜브 프로그램 ‘Casual Buddhism’을 진행하며 담마난다 비구니와 다양한 영적 주제 및 불교 수행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해당 프로그램에는 잭 콘펠드, 실비아 부어스틴, 조안 헬리팩스 등 여러 인물이 게스트로 참여하였다.

현재 신디는 캘리포니아 포인트 리치먼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cindyasico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룬 쿠마르 야다브(Arun Kumar Yadav)[인도]: 아룬 쿠마르 야다브 박사는 인도 바라나시 바나라스 힌두 대학교 빠알리어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으로 바나라스 힌두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특히 2011년 인도 정부 M.H.R.D.에서 수여하는 인도-중국 장학금을 받아 중국에서 1년간 중국어를 연구하였으며, 2015년 인도 사회과학연구위원회와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 수여한 연구 지원금을 받아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연구하였다. 또한 대만 타이베이 중국연구소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테라와다 불교 및 중국 불교, 특히 불교의 역사적 측면으로써, 현재 중국 광저우 미술 아카데미에서 방문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사미니 아리야 담마지비(Sāmanerī Ariyā Dhammajīvi)[미국/캄보디아]: 아리야 담마지비 사미니는 전직 말라이 아우치 박사(Dr. Marlai Ouch)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서 교육 리더십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캄보디아 비구니 승가 이니셔티브(Cambodian Bhikkhuni Sangha Initiative)의 공동 설립자이다.

그녀가 지난 7년 이상 캄보디아 비구니 승가 부흥을 지원하는 동안 북부 캘리포니아에 두 곳의 사찰을 둔 담마다리니 비구니 승가(Dhammadharini Bhikkhuni Sangha)의 창립 주지이자 비구니 계사(preceptor)인, 타탈로카 테리 스님(Venerable Tathālokā Therī)이 그녀의 멘토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4년 11월 15일 보름달에, 아리야 담마지비 사미니는 스스로 승가에 합류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의 왓 미앙콜번(Watt Meangkolvorn)에서 사부대중(Fourfold Assembly)의 완전한 전통 캄보디아 불교 수계식을 통해 사미니 뺏밧자(Sāmanerī Pabbajjā)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 눈 찬다라 나나디파코 마하테로 스님(Venerable Bhikkhu Noun Chandara Ñāṇadīpako MahāThero)을 계사로 모시고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펜그로브에 있는 담마다리니 사원(Dhammadharini Monastery)에서

아차리니 타탈로카 마하테리 비구니 스님(Venerable Bhikkhuni Ācarinī Tathālokā Mahātherī)과 함께 니사야 수행(Training in Nissāya)에 돌입했다.

아야 예세 스님(Ayya Yeshe)[호주]: 아야 예세 스님은 보디치타 재단의 창립자로, 중앙 인도 나그푸르에서 불가촉천민 출신 불교도(주로 여성과 어린이)를 지원하는 자선 활동을 진행하며 13년 동안 빈민가 근처에서 살고 있다. 또한 호주 태즈메이니아의 보디치타 다키니 사원의 주지로서, 테라와다와 히말라야 불교 전통을 융합한 여성 중심 수행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야 예세 스님은 틱낫한 스님에게서 비구니 계를 받았으며, 『Everyday Enlightenment』 (하퍼콜린스 출판)의 저자이자 국제 강사, 비구니, 성스러운 찬트 예술가, 활동가, 수행자이다. 삭야, 닝마/조켄, 테라와다 전통에서 수행하였고 달라이 라마, 반테 수자토, 틱낫한, 옥스퍼드 은퇴 교수 라마 마틴 부어드(CR 라마의 제자) 등 여러 스승에게 배웠다.

암누아이폰드 키드프롬마(Amnuaypond Kidpromma)[태국]: 암누아이폰드 키드프롬마 박사는 랭커스터대학교(Lancaster University)에서 종교학 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치앙마이대학교(Chiang Mai University) 철학 및 종교학과에서 종교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사는 젠더 연구 및 종교 인류학(힌두교 및 불교)이며, 현재 연구 주제는 트랜스젠더와 종교적 신앙 및 실천, 태국의 여성과 신성화된 물품 및 부적, 벵골 바울(Baul of Bengal)에서의 죽음과 임종에 관한 연구이다.

앨리스헝크 윈햄(Alicehank Winham)[미국]: 앨리스헝크 윈햄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해방과 변혁의 철학 및 실천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언어철학적 접근을 통해 인식과 개념화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아시아 및 중동 연구 석사와 철학·신학 학사(BA)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교육과 해방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연결 구축에 헌신하고 있다. 옥스퍼드 공공철학(opp), APA 블로그 시리즈 두 편, 2023년 ‘아나트만과 철학’ 학술대회 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앨리슨 멜닉 다이어(Alison Melnick Dyer)[미국]: 앨리슨 멜닉 다이어는 드리쿱 카규(Drikung Kagyu) 전통의 재가 수행자로, 베이스 칼리지(Bates College)의 종교학과 부교수이다.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아시아학 학사(B.A.)를,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에서 티베트 불교 연구로 석사(M.A.) 및 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녀의 연구는 역사적 및 현대적 티베트 불교 맥락에서 성별과 특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불교 여성의 삶을 조명하여 과거와 현재의 비구니 및 재가 수행자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저서로는 *The Tibetan Nun Mingyur Peldrön: A Woman of Power and Privilege*가 있으며, 현재는 인도 라다크(Ladakh) 및 우타라칸드(Uttarakhand)의 드리쿱 카규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다.

엠마 토말린(Emma Tomalin)[영국/미국]: 엠마 토말린은 뭄바이 소마이야 비디야비하르 대학교 K.J. 소마이야 불교학 센터에서 불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 대학교 K.J. 소마이야 인문학 연구소에서 연구 조교로 활동하고 있다.

우르술라 마난다르(Ursula Manandhar)[네팔]: 우르술라 마난다르는 네팔 미술 박물관(MoNA) 연구 책임자로서 네팔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박물관학 및 불교 미술 컬렉션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4년 이상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불교 미술 및 도상학이며, 네팔의 저명한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여러 저서를 집필하였다.

MoNA에서의 역할 외에도 로터스 아카데미 칼리지 및 악세스와르 전통 미술 대학에서 불교 미술사를 강의하며, 차세대 예술 애호가 및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고 있다. 또한 네팔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비정부기구 ‘삼파다 - 더 헤리티지’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예술 문서화, 박물관 운영, 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조직하여 네팔의 예술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조일문(Cho, Ilmoon; 비구니)[한국]: 조일문 스님은 한국에서 태어나 1989년 비구니가 되었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0년간 선(禪) 수행에 정진했다.

2008년에 인도 다람살라 돌마링에서 티베트어와 티베트 불교 철학을 공부하고 수행했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법륜사(Bubryunsa Temple)의 주지 스님으로 재직 중이다.

줄리아 수리아 박사(티타차리니 테리(Julia Surya (Ṭhitācārini Therī))[인도네시아]: 티타차리니 스님은 스마라타가 불교 대학 석사 프로그램의 비서 및 과학 출판 부서장을 역임했고 스리랑카 켈라니야 대학교에서 팔리어 및 불교학 박사 학위를, 같은 대학에서 불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티타차리니 스님은 호평받는 저서 '어린이를 위한 명상(Meditation for Children)'의 저자이며, 마음챙김과 불교 수행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베트남에서 열린 유엔 베삭 데이와 다양한 아세안 회의를 포함한 저명한 국제 회의에서 연사로 활동했고 비구니로서 영감을 주는 여정과 마음챙김 및 교육에 대한 공헌으로 국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명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테라와다 비구니 우파삼파다(Upasampada)를 준비하고 있다.

쩐 티 캄 반(Tran Thi Cam Van, Ven. An Ngoc) 스님[베트남/스리랑카]: 찐 티 캄 반 스님은 베트남 출신의 비구니(Bhikkhuni)로서, 현재 스리랑카의 나가난다 국제 불교 연구소(Nāgānand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카르마 타시 초드론 스님(박사)(Ven. Dr. Karma Tashi Choedron(Savinder Kaur Gill))[말레이시아]: 카르마 타시 초드론 박사는 마히돌대학교(Mahidol University)에서 환경 및 자원 연구(Environment and Resource Studies)로 박사(Ph.D.) 학위를, 태국 국제 불교 대학(IBC, Thailand)에서 불교학 석사(M.A.) 학위를 취득한 비구니(śrāmaṇerikā)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노팅엄대학교(University of Nottingham Malaysia)에서 교차 발전 및 사회 정의(Intersec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0년 ‘우수 여성 불교인 상’(Outstanding Woman in Buddhism Award), 2022년 ‘로드 디어링 상’(Lord Dearing Award), 2023년 ‘연구 문화 및 환경 개선 기여 팀 상’(Team Award for Commitment to Enhancing the Research Culture and Environment)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고등 교육 기관(Advance HE, UK) 펠로우(Fellow) 및 국제 불교 연합(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카르마 박사는 텐진 다돈 박사(Ven. Dr. Tenzin Dadon)와 공동으로 ‘침묵은 끝났다’(Silent No More! Critical Review of Sexual Exploitation in Buddhist Practice—A Monastic Perspective*) 연구에서 불교 수행 내 성적 착취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열린 불교 내 성폭력 심포지엄(Sexual Violence in Buddhism symposium)에서 ‘신성한 공간, 침묵 속 고통: 티베트 불교 맥락에서의 성적 학대*(Sacred Spaces, Silent Suffering: Sexual Abuse in Tibetan Buddhist Contexts)’를 발표하였다.

캐서린 슈에체(Catherine Schuetze) 박사[호주]: 캐서린 슈체츠박사(Dr Catherine Schuetze)는 BVSc, BV Biol, CVA, BAPS (Hons)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시드니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캐시 우노(Kathy Uno)[미국]: 캐시 우노, 일명 데킬하모, ‘행복의 여신’, 또는 캐슬린 우노 박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에서 30년 이상 일본 역사, 특히 여성과 아동의 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였다. 『Passages to Modernity: Motherhood, Childhood, and Social Reform in Early Twentieth-Century Japan』(1999)를 저술하였으며, 『Gendering Modern Japanese History』(2006)를 공동 편집하였고 요가, 필라테스, 바쁜 사람들을 위한 DIY 웰니스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켄모 드롤마(Khenmo Konchog Nyima Drolma) [미국]: 켄모 콘축 니마 드롤마(Khenmo Konchog Nyima Drolma)스님은 미국 메인주에 위치한 드릭쿱 카규 티베트 불교 전통의 다르마 공동체인 바즈라 다키니 비구니원(Vajra Dakini Nunnery)의 주지 스님으로서, 1995년부터 H.H. 쳇상 린포체(Chetsang Rinpoche)로부터 드릭쿱 카규 전통의 폭넓은 전수와 교육을 받았다. 다르마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감포 사원 쉼드라(Gampo Abbey Shedra)에 다녔다. 메인 예술 대학에서 조각 교수를 역임했던 켄모 스님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인도 데라둔에 있는 송첸 도서관(Songsten Library) 건설을 위한 예술 감독을 맡았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 슈라바스티에서 열린 국제 슈라바스티 바르사 수행회(Shravasti Varsa Retreat)의 국제 위원장을 맡아 전 세계 130명 이상의 비구니들을 맞이했다. 20년 이상 국제적으로 다르마를 가르치고 있다.

쿠스티아니 박사(Kustiani, Ph.D)[인도네시아]: 쿠스티아니는 1985년 3월 28일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하였고 2013년 스리랑카 켈라니야 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12년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불교 교육 발전과 불교 공동체 역량 강화에 헌신해 왔으며, 특히 샤일렌드라 불교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사 학위 논문은 “아비담마 분석을 기반으로 한 불교 윤리의 심리적 과정”을 주제로 하였으며,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녀는 아비담마, 젠더, 경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ATBU, IABU, 샤카디타 불교 여성회의, 등 여러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지역사회 봉사 분야에서 여성 협동조직 ‘프레마 마트’의 창립자이자 핵심 추진자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프레마 마트는 프레마 베이커리, 프레마 바틱, 프레마 자무, 프레마 오일, 프레마 오가닉 등 여러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말부터 불교 어린이들의 게임 중독 감소를 위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팀과 함께 시작하였다.

비구니 쿤다살레 수바가(Bhikkhuni Kundasale Subhagya)[스리랑카]: 비구니 쿤다살레 수바가는 스리랑카 중부 캔디의 드나투레에 위치한 보디말라카라마야 비구니 센터에 거주하는 젊은 테라와다 불교 비구니이고 2018년부터 페라테니야 대학교 산하 Intercollegiate Sri Lanka Education에서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30회 이상의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했으며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에는 스리랑카 페라테니야 대학교의 철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크리스티 위링 장(Christie Yu-Ling Chang)[대만]: 크리스티 위링 장 박사는 언어학자, 번역가, 교육자로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타이베이 국립정치대학교에서 CIEE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불교 운동가로서 2009~2013년 샤카디타 국제불교여성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 국제불교연합(IBC) 공동회장으로 선출되어 여덟 명의 회장 중 유일한 재가 여성으로 활동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샤카디타 대만을 이끌며 저술 및 웨비나 진행을 이어갔으며, Humanity 잡지에서 “Dharma ABC” 칼럼을 연재했다. 또한 음악을 통해 연민을 전하며 앨범 『M. Sam in the Met(t)verse』를 발표했고, 다국어 평화운동곡 『We All Have Moms』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최근에남편 프랭크 티엔 박사와 함께 부탄에서 교육 활동을 펼치고, 바티칸에서 여성 간 종교 대화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탐 락 스님(레 티 킴 응안)(Ven. Tam Lac(Le Thi Kim Ngan)) 스님[인도/베트남]: 탐 락 스님은 심리학 석사(MA) 및 연구 심리학 박사(PhD) 로, 상담사(Counselor), 불교 철학 강사(Buddhist Philosophy Teacher), 명상 지도자(Meditation Trainer)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베트남어 및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비구니 툽텐 람셀(Bhikshuni Thubten Lamsel)[미국]: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난 비구니 툽텐 람셀 스님은 2009년 네팔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불교를 처음 접하고 툽텐 초드론 스님(Venerable Thubten Chodron)의 실용적인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2017년 스라바스티 사원(Sravasti Abbey)으로 거처를 옮겨 2018년 식사마나(shiksamana) 수계를 받았다. 이후 스라바스티 사원에서 생활하며 수행하고 있다.

현재 그녀의 주요 소임은 라이브 가르침 방송 및 기록 관리, 교도소 지원 활동, 행사 관리, 도서관 업무 지원 등이다. 2024년 4월 대만의 Fo En Si 사원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사원의 승려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율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받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 사회와 온라인에서 명상 워크숍 및 불교 입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계 전에는 공중 보건 연구 및 건강 증진 분야에서 일했다.

티나 암릿 길(Teena Amrit Gill)[인도]: 젠더 및 개발 연구, 저널리즘을 배경으로 하는 컨설턴트, 예술가, 작가로서, 영화, 태국 북부 농민 운동과 농약 중독을 탐구한 『오렌지 알럼』, HIV/AIDS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젊은 희망, 노인의 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명한 『발로의 찾집』, 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의 젠더, 교차성, 차별을 다룬 『흰 가사, 주홍빛 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불교, 젠더, 주체성을 탐구하는 영화, 그리고 시, 양자물리학, 자연과학, 영적 전통을 통해 ‘상호 존재(Interbeing)’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시각적 시 영화가 있다.

틱 티엔 푸 스님(Thich Thien Phu)[베트남]: 틱 티엔 푸 스님은 2022년 베트남 후에

불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베트남 하노이 불교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베트남 불교 승가 기라이성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라이성 법보포교위원회 위원 및 기라이성 불교대학 강사로서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있다

비구니 틱 느 리엔 안(Bhikkhuni Thich Nu Lien Anh(Le Thi My Hieu))[미국]:

틱 느 리엔 히엔 스님(NCS. Thich Nu Lien Hien)[베트남]: 스님이자 박사 후보자인 틱 느 리엔 히엔은 (속명: 즈엉 티 킴 호아) 스님은 1982년 2월 27일 베트남 롱안성 투투아현 미안 코윈 4구에서 출생하였으며, 부우 리엔 종교 기관의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 국립대학교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호치민 불교 아카데미, 롱안 경제산업대학교 영어 프로그램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베트남 국립대학교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베트남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틱 느 슈랏다 가우타미 스님, 박사(Dr. Venerable Thich Nư Shraddha Gautami)[네팔]: 슈라다 가우타미 스님은 테라와다 불교 비구니로서, 1985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출생하여 13세에 출가했다. 어린 시절부터 불교를 공부했으며, 스리랑카에서 불교와 영어를 추가로 연구했다. 영어 학위 과정을 마친 후, 2008년 국립 켈라니아 대학교에서 학사(BA) 학위를 취득했고 2010년 같은 대학에서 석사(MA) 학위를 받았다. 이후 불교 및 빠알리어 연구를 지속하며, 2019년 스리랑카 불교 및 빠알리 대학원에서 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 주제는 “사라마나 전통과 불교 승가의 기원과 발전 비교 연구”이다.

2020/2021년 홍콩대학교에서 Glorious Sun Group 장학금을 받아 불교 상담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교 불교 및 빠알리 대학원에서 방문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식차마나 틱 느 트엉 후에(Thích Nư Thường Huệ)[베트남]: 틱 느 트엉 후에 스님은 현재 베트남 국립대학교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베트남 불교연구소 내 중국불교번역센터의 부서기로 활동하고 있다.

비구니 틱 느 후에 광(Bhikkhuni Thich Nu Hue Quang) [베트남]: 틱 느 후에 광 비구니(Bhikkhuni Thich Nu Hue Quang)는 1989년에 태어났고, 호치민시의 베트남 불교 아카데미에서 테라와다 철학을 전공하여 불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베트남 호치민시 불교 중급 학교의 강사로 재직 중이며, 호치민시 빈찬 지역에 있는 프억 티엔 사원에서 연구하고 수행하고 있다.

파멜라 아요 예툰데 박사(Pamela Ayo Yetude) [미국]: 파멜라 아요 예툰데 박사(문학 석사, 신학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Zen Hospice Project 자원봉사자로 영적 돌봄을 시작했다. 지난 20년 넘게 호스피스 영적 돌봄 상담사, 기관 및 개인 수행센터에서 영적 돌봄 상담사로 활동했고, 불교학 마음챙김센터(Sati Center for Buddhist Studies)에서 불교 영적 돌봄 상담사 인증을, 문화 및 영성 분야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영적 돌봄 상담 분야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요 예툰데 박사는 불교적 관점에서 영적 돌봄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저술했으며, 그중에는 Kisa Gotami

이야기를 각색한 "Songbird Birdsong: The Story"도 있다. 또한 "Lion's Roar"의 편집자로 활동했으며, 국제 여성 명상 센터 재단으로부터 "불교 분야의 뛰어난 여성"으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신작은 "소중한 사람: 왕자(Dearly Beloved: Prince)", "영성과 삶이라는 것"이 있다.

매치¹ 푸냐폰 생쿰(Maechee Punyaporn Saengkhum) 박사[태국]: 매치 푸냐폰 생쿰박사는 태국 북동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불교 지도자로 활동하는 헌신적인 비구니이다. 태국 비구니 연구소 협회(Thai Nun Institute Association) 이사회 위원이자, 우돈타니(Udon Thani) 주 및 태국 북동부 상부 지역의 수석 비구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의 보디사스트라대학교(Bodhisatstra University)에서 불교학 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학문적 전문성과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헌신을 결합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오지 지역의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산마루에서 동생을 돕는 형제자매(Elder Siblings Supporting Younger Ones on Mountain Heights)' 이니셔티브와, 전국의 비구니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태국 비구니 건강 역량 강화 프로그램(Thai Nun Health Empowerment Program)이 있다.

그녀의 활동은 불교적 원칙을 혁신적인 해결책과 결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자비와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프라빈 쿠마르 박사(Dr. Praveen Kumar)[인도]: 프라빈 쿠마르 박사는 스와미 비베카난다 수바르티 대학교 삼랏 아쇼크 수바르티 불교학과 부교수이며 불교 관련 저서 세 권 『Buddhism in Odisha』 (2015), 『Nuns in Early Buddhism』 (2019), 『बौद्ध-धर्म में नारी』 (2023)를 집필하였고 1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델리 대학교에서 불교학 석사(M.A.), M.Phil., 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5년간 불교학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였다. 또한 부바네스와르 국립 사회복지 및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연구 논문으로는 다수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여러 국가 연구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¹ (역주) 매치 Maechee, 태국어 "แมชี"

태국 불교에서 비구니(Bhikkhuni)와 매치(Maechee, Mae Chi)는 여성 수행자를 지칭하지만, 그들의 역할과 지위는 다르다. 비구니(Bhikkhuni)는 부처님 시대부터 시작된 정식 출가 여성 수행자로, 300 개 이상의 구족계를 받고 주황색/갈색 가사를 입는다. 그러나 태국 상좌부 불교에서는 비구니 전통이 단절되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매치(Maechee)는 태국에서 발전한 독특한 여성수행자 형태로, 8-10 계를 지키며 흰색 옷을 입는다. 공식 승가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태국 여성수행자 조직 같은 기관의 노력으로 매치의 지위와 역할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두 집단의 주요 차이는 종교적 지위, 계율의 엄격성, 복장, 사회적 인정 수준, 그리고 활동 영역에 있다.